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7. 12. 14.(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2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공개
2	정선 필 해악전신첩	"
3	정선 필 경교명승첩	"
4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
5	정선 필 청풍계도	"
6	정선 필 여산초당도	"
7	청자 음각환문 병	"
8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 향로	"
9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
10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
11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
12	묘법연화경 목판	"
13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
14	묘법연화경 목판	"
15	계초심학인문 목판	"
16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
17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1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19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
20	오대진언 목판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21	보물 제575호 대승사 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 변경>		
22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량공파문중 전적 현상변경	"
23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현상변경	"

<b>【검토사항】 17건</b>		
	<b>&lt;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gt;</b>	
24	보물 제525호 및 제723호 삼국사기	공개
25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
	<b>&lt;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gt;</b>	
26	금강반야바라밀경	"
27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28	정명공주 필 화정	"
29	정명공주 필 유합	"
30	이광사 필 서결	"
31	혜경궁홍씨 필 한글서간	"
32	정조 필 정혜공연시연시	"
33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
3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
35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
36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	"
37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	"
38	신윤복 필 미인도	"
39	백자 사용원인	"
40	나전경함	"
<b>【보고사항】 2건</b>		
4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 종합조사 계획 보고	"
42	국의 긴급매입 국유문화재(강로 초상) 관리청 지정 계획 보고	"

#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7-07-001

###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가. 심의사항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1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2017년 4차 회의(8.10)에서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소장경위 파악 등으로 보류되었음. 이에, 보완조사(9.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발한천로 43-68
- 수량 : 1책(90장)
- 규격 : 半郭 27.3×19.6(38.0×24.0) (cm)
- 재질 : 저지(楮紙)
- 판종 : 목판본(木版本)
- 형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남송의 지반(志磐)이 ‘수륙무차평등재’의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6권으로 정리한 것을 편집한 의례서로서 조선 성종대 정희대왕대비가 세조대왕과 예종대왕 및 덕종(懿敬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대의 명필이었던 박경(朴耕)에게 큰글자의 해서로 판하본을 서사하도록 하여 왕실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한 것이다.

더욱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 내용을 통하여 조사본은 1470년(성종 1)에 간행되었던 ‘지반문(志磐文)’ 200건 가운데 하나로서 초인되었던 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지정된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물론 현존하는 다른 판본들과 비교하여 내용과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본 조사 대상본인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수륙무차평등재의 기원과 의식, 그리고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은 불교의 의례서로 내용적으로는 수륙재를 비롯한 불교학 및 관련 역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형태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특히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으로 보아 세조비 정희왕후(1418-1483)가 세조·예종·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왕실 주도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전적 중 성종연간(1479-1494)에 왕실과 사찰 등에서 간행된 것은 22건이며 이중 향운암 수재의례의 간행연도인 1470년에 간행된 불서는 3종이며 나머지 19종은 성종 원년 이후에 간행된 불서이다. 수륙재와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1105호인 호림박물관 소장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이 있으나 그 편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향운암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왕실이 주관하여 간행한 수륙재의 기본서이며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및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판본의 수륙재 관련 자료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15세기 초기 판본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신청대상의 『수재의례』 인출본 1책은 세조의 후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가 1470년(성종 1) 7월 경 세조와 아들인 예종·의경왕(덕종)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면서 왕실에서 주도하여 조성한 원판을 먹으로 찍어 제책한 불교의례서이며, 당대의 명필인 박경(朴耕)이 대자의 해서(楷書)로 판하본을 조성하였다. 본 인출본은 원판을 조성한 당시 무렵에 찍은 초기인본으로 짐작되며, 당시의 불교경판 조성실태, 인출불사와 장정형태, 왕실불교의 불교의례(水陸齋)와 사상적 성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청대상의 인출원판과 동일한 인출본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출원판보다 앞서 조성된 사례도 현재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화재로서의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시기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인출본은 제53장의 1장만 결장되어 있는 등 완전성도 거의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청대상의 인출본보다 후대인 16세기에 조성된 관문사 소장 인출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7호),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인출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5호), 향운암 소장 인출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8호)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성종 때 왕실과 사원 등에서 간행된 전적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전적이 22건이며, 이 가운데 신청대상 『수재의궤』의 추정 간행 연도와 동일한 1470년 간행본서는 3종이고, 나머지 19종이 성종 원년 이후 간행한 불교전적이므로,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 1책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도 및 희소성·시기성·완전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기준과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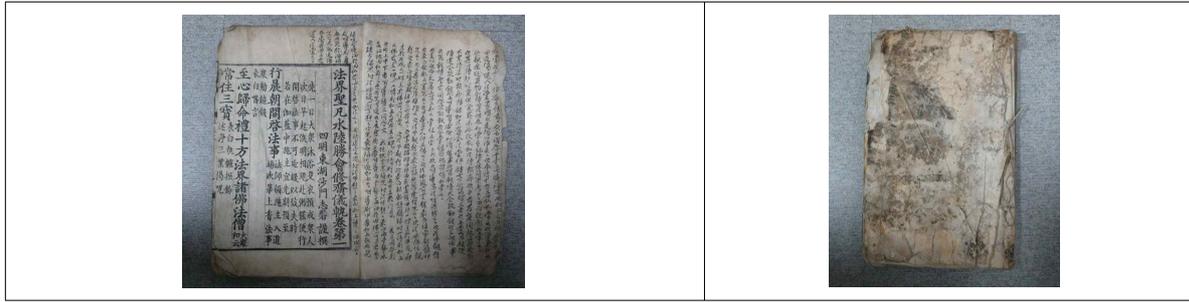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 현 상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앞표지는 박락되었고 뒷표지는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의 이면에 ‘대성암유전(大聖庵留傳) [手決]’이라 묵서된 장서기가 확인된다. 본문에 일부 누습의 흔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접힘, 찢김 등 약간의 손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인쇄 및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불교의 야의 법식인 ‘수륙재(水陸齋)’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으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로도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남송의 승려인 지반(志磐)이 ‘수륙무차평등재’의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전 6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륙재’는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를 약칭한 것으로 물(水)이나 물(陸)의 고혼(孤魂)과 아귀(餓鬼)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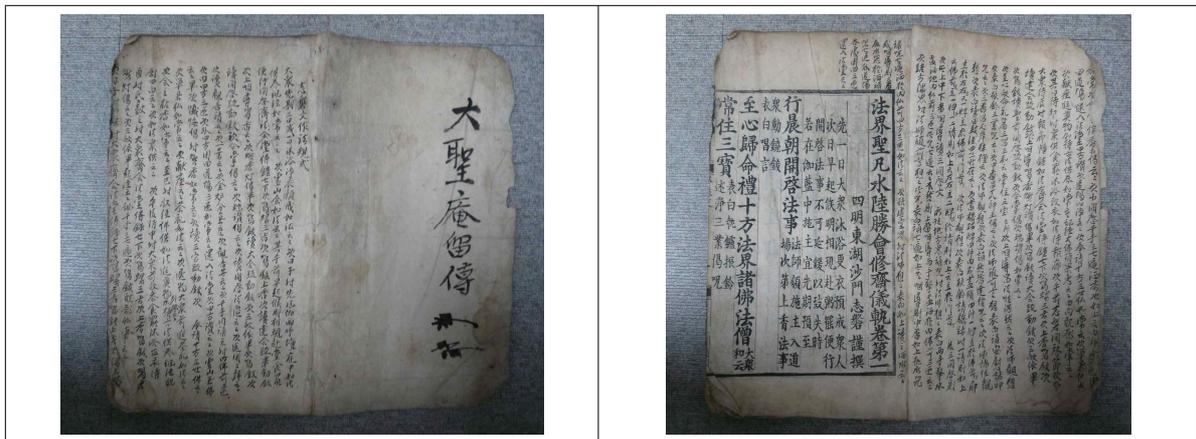
수륙재의 의식과 함께 관련 찬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에는 1342년(충혜왕 3)년에 죽암(竹庵) 유사(猶師)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을 찬술하였고, 조선시대에는 1470년(성종 1)에 ‘지반문(志磐文)’과 ‘중례문(中禮文)’이 각 200권씩 간행되었다. 이후 1496년(연산군 2)에 『수륙잡문(水陸雜文)』이 편찬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고승들의 저술이 많이 나왔는데 수록된 의식이 너무 번잡하였던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줄여 수정·보완한 의례문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범음집(梵音集)』에 포함된 「수륙재의문(水陸齋儀文)」과 「천지명양수륙재의문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文刪補集)」 그리고 백과 공선(白坡巨璇, 1767~1852)의 『작법귀감(作法龜鑑)』에 수록된 「수륙재의문(水陸齋儀文)」 등이 그 예이다.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권수제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이나 권말제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이다. 표제는 ‘지반문[志磐文]’이라 묵서되어 있다. 1책 91장의 목판본으로 현재 제53장만이 결락되었고 본문은 양호한 상태이다. 판식(板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雙邊)으로 반곽은 27.3×19.6cm이며, 본문에는 계선이 있고 행자수는 8행 14자로 주문(注文)은 쌍행이다. 판구(板口)는 대흑구(大黑口)이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수륙문(水陸文)’이라 하였다. 책 크기는 38.0×24.0cm이다.

책의 앞부분에 「지반문작법규식(志磐文作法規式)」 1장이 필사로 첨보(添補)되어 있다. 권두제에 이어 ‘사명동호사문지반근찬(四明東湖沙門志磐謹撰)’이라 하여 찬자를 밝히고 이어 ‘행신조개계법사(行晨朝啓法事)’라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소청사직편(召請四直篇)」, 「안위공양편(安位供養篇)」, 「봉송사자편(奉送使者篇)」, 「안위공양편(安位供養篇)」, 「봉청상위편(奉請上位篇)」, 「봉영부욕편(奉迎赴浴篇)」, 「찬탄관욕편(讚嘆

灌浴篇) , 「인성귀위편(引聖歸位篇) , 「헌좌안위편(獻座安位篇) , 「찬례삼보편(讚禮三寶篇) , 「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 , 「봉영부욕편(奉迎赴浴篇) , 「가지조욕편(加持澡浴篇) , 「출욕참성편(出浴參聖篇) , 「천선예성편(天仙禮聖篇) , 「헌좌안위편(獻座安位篇) , 「인예향욕편(引詣香浴篇) , 「가지조욕편(加持澡浴篇) , 「가지화의편(加持化衣篇) , 「수의복식편(授衣服飾篇) , 「출욕참성편(出浴參聖篇) , 「고혼예성편(孤魂禮聖篇) , 「수위안좌편(受位安座篇) , 「선밀가지편(宣密加持篇) , 「가지멸죄편(加持滅罪篇) , 「주식현공편(呪食現功篇) , 「고혼수향편(孤魂受饗篇) , 「설시인연편(說示因緣篇) , 「원성수은편(願聖垂恩篇) , 청성수계편(請聖受戒篇) , 「참제업장편(懺除業障篇) , 「발홍서원편(發弘誓願篇) , 「사사귀정편(捨邪歸正篇) , 「석상호지편(釋相護持篇) , 「득계소요편(得戒逍遙篇) , 「수성십도편(修成十度篇) , 「의십호과편(依十獲果篇) , 「관행계찬편(觀行偈讚篇) , 「회향계찬편(廻向偈讚篇) , 「화재수용편(化財受用篇) , 「경신봉송편(敬伸奉送篇) , 「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 등 42편이 들어 있고, 책의 마지막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跋文」이 수록되었다.

곧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의 내용에는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 ,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 「주향공양편(呪香供養篇) ,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 ,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 「공서회향편(供聖廻向篇) ,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 「공서회향편(供聖廻向篇) 등이 보이지 않아 기지정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37편 구성은 물론 일반적인 54편으로 구성된 다른 판본과도 다른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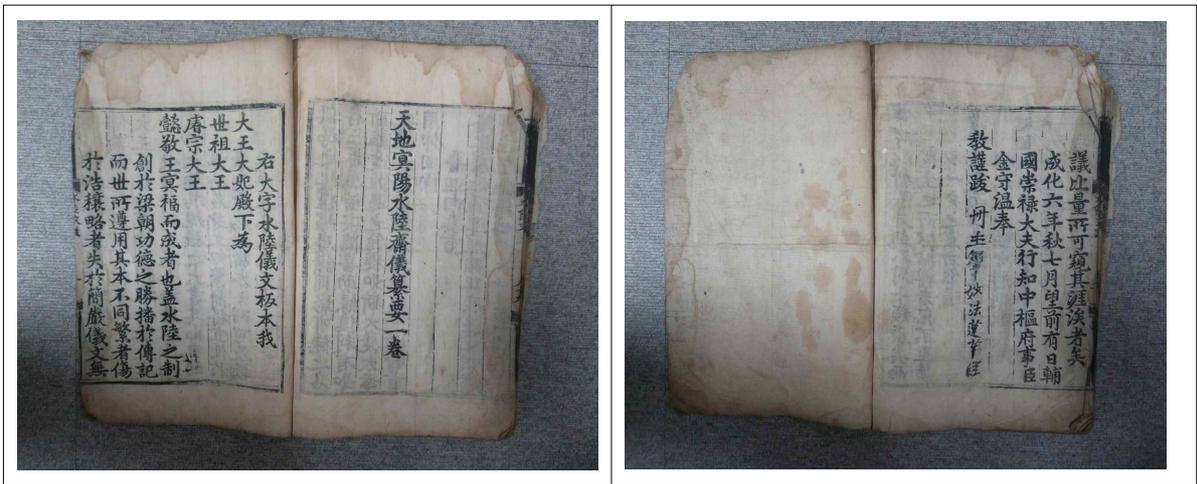
보물 제1105호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성보문화재단 소장

조사본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의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대자본(大字本) 『수록의문(水陸儀文)』의 판본은 우리 대왕대비전하께서 세조대왕과 예종대왕 및 의경왕 [德宗, 1438~1457]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 대체로 수록재의 제도는 중국의 양조에서 창시되어 공덕의 수승함이 기록으로 전파되었으나 세간에서 준수하여 사용되고 있는 판본이 서로 같지 아니하여 번잡한 것은 광대하면서도 풍족해야 됨이 손상되고 말았으며 간략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엄정해야 함이 상실되고 말았다. 이렇게 『의문(儀文)』이 알맞게 절충된 바 없어 사용하는 이들이 선택하기 어려워져 마침내 우리 부처님에 대한 ‘무차재(無遮齋)’의 의식은 있어도 거행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고 말았다. 이에 대왕대비

전하게서 특명으로 「지반문(志磐文)」을 간행하시고 또한 신 박경(朴耕)에게 다시 금 대자의 해서로 서사하도록 하셨으니, 그 어찌 문장이 지극하고 규모가 광대하며 절목이 더없이 상세하여 낱말 [名身] 과 문장 [句身] 및 글자 [文身] 의 번잡하면서도 간명하여 거행하기에 적절하고 편리함은 여러 판본들보다 가히 미치지 못할 바 아닐진저! 오호라! 삼계가 아무리 광대하다 하더라도 우리 부처님께서 이익과 혜택을 베풀고자 함에는 십류의 중생들에 이르기까지 광대히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을진저! 그러나 중생들이란 윤회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나 어느 하루 저녁의 공로로 능히 여러 부처님들의 능력이 두루 미칠 것이며 능히 중생의 고체를 구제하려 함에는 이상의 수록재의 방법보다 더 수승함이 없을 것일진저! 우리 대왕대비전하게서 『의문』을 훌륭히 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레 하시고는 나아가 판목에 새겨 간행하기까지 하시어 역대의 임금들께서 극락에 환생할 수 있는 구실이라도 얻고자 하시는 바는 실로 소신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한계를 엿볼 수 있을 바 결코 아닐 뿐일진저! 성화(成化) 6(1470, 성종 원)년 7월 보름 전 어느 날 [望前有日] 에 보국승록대부 행지중추부사 김수온은 교서를 받들어 삼가 발문을 쓰다”

(右大字水陸儀文板本我/ 大王大妃殿下爲/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冥福而成者也蓋水陸之制/ 創於梁朝功德之勝播於傳記/ 而世所遵用其本不同繁者傷/ 於浩穰略者失於簡嚴儀文無// 所折衷用者難於所擇遂使我/ 佛無遮之儀有所不行久矣/ 大王大妃殿下特命刊於志磐文且/ 使臣朴耕更寫大楷豈以其文/ 之極其規模之大盡其節目之/ 詳而名身文句繁簡得宜便於/ 舉行者爲非諸本之所可及歟/ 嗚呼三界大矣而吾// 佛所以利澤者無不周十類廣矣而/ 衆生之所以輪轉者無不至然/ 以一夕之熏功能遍/ 諸佛之力而能拯衆生之苦者無右/ 於水陸之法之勝則我/ 大王大妃殿下所以拳拳於儀文之/ 善之繡梓而求爲/ 列聖超生極樂之資者實非小臣思// 議比量所可窺其涯涘者矣/ 成化六年秋七月望前有日輔/ 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臣/ 金守溫奉/ 教謹跋)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왕실에서 박경에게 대자의 해서로 판하본(板下本)을 서사(書寫)하도록 하여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된 간행본으로서 인출 상태로 보아 발문이 작성된 1470년(성종 1)의 초인본(初印本)으로 판단된다.

### ○ 지정사례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재의궤찰요 (성보문화재단, 1991. 12. 16 지정)

□

### ○ 현 상

판식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19.6cm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행자수(行字數)는 8행14자이다. 주문(註文)은 雙行이다. 판구는 대흑구(大黑口)이고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8.0cm 가로 24.0cm이고 지질은 저지(楮紙), 장정은 선장(線裝)이다. 표제(表題)는‘志磐文’이며 권두제(卷頭題)는‘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판심제(版心題)는‘水陸文’, 권말제(卷末題)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이다. 책의 앞 2면에 걸쳐 「志磐文作法規式」이 보사(補寫)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면에 책주(冊主)명이 지워져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와 인쇄상태가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육지와 물에서 죽어간 孤魂들을 달래는 불교 의례인 수륙재(水陸齋)때 행하는 여러 의식 절차를 정리한 불교의례서이다. 이 자료는 남송의 승려 지반(志磐)이 수륙재의 기원과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전 6권으로 정리한 것을 고려의 죽암 유사(竹菴 猶師)가 편집한 것이다. 지반(志磐)의 법호(法號)는 ‘대석(大石)’이며 남송 咸淳 5(1269)년에 종감(宗鑑, ?~1206)의 「釋門正統」 8권을 수정·보완하여 「佛祖統紀」 54권을 편찬하고 남송 咸淳 6(1270)년에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6권을 저술하였으며 또한 「宗門尊祖儀」도 저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륙재로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는 중국 梁朝의 武帝에 의하여 天監 4(505, 武帝 4)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齋를 베푼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있다. 수륙재 의식은 唐朝에서도 크게 성행하였고 宋朝에 들어서는 熙寧年間에 東川이 「水陸文」 3권을 다시 편찬하여 보급함으로써 수륙재가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수륙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고려 광종 21(970)년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한 것이 최초이다. 선종 때에는 태사국사(太史局事)로 있었던 최사겸(崔士謙)이 송나라에서 수륙재의 의식절차를 적어놓은 「수륙의문(水陸儀文)」을 가져와 보제

사(普濟寺)에 수록당(水陸堂)을 새로 세웠고 일연(一然)의 제자 혼구(混丘)가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책적으로 불교 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바뀌어 갔으나 태조는 진관사(津寬寺)를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여는 사사(寺社)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 4년(1395)에는 견암사(見巖寺)와 석왕사(釋王寺) 관음굴(觀音窟) 등에서 고려의 영혼을 달래는 수록재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록재의 문제는 이후 논란이 이어졌음에 불구하고 쉽게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종종때에 이르러 유생들의 반대가 강력해짐에 따라 왕실 중심의 수록재는 이어지지 못했고 민간에서만 전해지고 있다.

수륙재의 의식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수록재에 대한 재의(齋儀)도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고려 충혜왕 3(1342)년에 竹庵 猶師가 「天地冥陽水陸齋儀」를 찬술(纂述)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종 1년(1470) 「天地冥陽水陸齋儀」가 간행되었다. 연산군 2(1496)년에 「水陸雜文」이 著述되었으며 그 뒤로도 여러 高僧들의 著述이 많이 나왔다. 朝鮮時代에 「天地冥陽水陸齋儀」는 「志磐文」으로 불리면서 「仔夔文」 등과 함께 불교 의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수록된 의식이 번잡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의례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 의례문을 축약한 것으로는 「梵音集」에 포함된 「水陸齋儀文」, 「天地冥陽水陸齋儀文刪補集」, 白坡 巨璇禪師(1767~1852)의 「作法龜鑑」에 수록된 「水陸齋儀文」, 「水陸無遮平等齋儀榜集」, 「釋門儀範」에 수록된 「水陸齋儀文」 등이 있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志磐文作法規式, 召請四直篇, 安位供養篇, 奉送使者篇, 安位供養篇, 奉請上位篇, 奉迎赴浴篇, 讚嘆灌浴篇, 引聖歸位篇, 獻座安位篇, 讚禮三寶篇, 召請中位篇, 奉迎赴浴篇, 加持澡浴篇, 出浴參聖篇, 天仙禮聖篇, 獻座安位篇, 引詣香浴篇, 加持澡浴篇, 加持化衣篇, 授衣服飾篇, 出浴參聖篇, 狐魂禮聖篇, 受位安座篇, 宣密加持篇, 加持滅罪篇, 呪食現功篇, 孤魂受饗篇, 說示因緣篇, 願聖垂恩篇, 請聖受戒篇, 懺除業障篇, 發弘誓願篇, 捨邪歸正篇, 釋相護持篇, 得戒逍遙篇, 修成十度篇, 依十獲果篇, 觀行偈讚篇, 廻向偈讚篇, 化財受用篇, 敬伸奉送篇, 普伸廻向篇의 4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기지정된 보물 1105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판본은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成宗 元(1469)년 版本을 비롯하여 松廣寺에 소장된 成宗 14(1483)년 鎭安 中臺寺版本, 中宗 8(1513)년 順天 大光寺版本, 中宗 10(1515)년 淸道 雲門寺版本, 日本小倉文庫(東京大學)에 소장된 中宗 30(1535) 忠淸道版本, 中宗 33(1538)년 安東 廣興寺版本, 明宗 1(1546)년 鶴鳳山 石頭寺版本, 明宗 17(1562)년 綾城 雙峯寺版本, 明宗 20(1565)년 瑞山 普願寺版本, 宣祖 4(1571)년 康津 無爲寺版本, 宣祖 6(1573)년 淸州 空林寺版本, 宣祖 7(1574)년 順天 松廣寺版本, 宣祖 37(1604)년 晉州 能仁菴版本, 仁祖 12(1634)년 海南 大興寺版本, 仁祖 13(1635)년 泰仁 龍藏寺版本, 仁祖 15(1637)년 梁山 通度寺版本, 仁祖 18(1640)년 和順 萬淵寺版本, 仁祖 20(1642)년 順天 松廣寺版本, 孝宗 2(1651)년 寶城 開興寺版本, 孝宗 9(1658)년 咸鏡道 千佛山 開心寺版本, 孝宗 10(1659)년 昆陽 栖鳳寺版本, 顯宗 2(1661)년

襄陽版本, 肅宗 20(1694)년 海印寺版本, 壬午年 曹溪山 松廣寺版本, 庚辰年 和順 萬淵寺 版本 등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선시대에 걸쳐 상당수의 다양한 판목 이 제작되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지정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의 추가적인 확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말에 있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跋文)에 이 판본이 “[貞熹]大王大妃殿下께서 世祖大王과 睿宗大王 및 懿敬王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造成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대왕대비전하께서 「志磐文」을 간행하시고 또한 臣 朴耕(?~1507)에게 다시금 大字의 楷書로 서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향운암 소장본은 정희대비(1418-1483)가 世祖(1417-1468)와 睿宗(1450-1469), 德宗(懿敬王, 1438-1457)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대의 명필이고 성종 15(1484)년에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갑진자(甲辰字)의 부족한 자본(字本)을 보사(補寫)하였던 박경(朴耕, ?-1507)에게 板下本을 서사(書寫)하도록 하여 왕실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성종 원(1470, 成化 6)년 무렵에 인출(印出)한 간본(刊本)으로 파악된다.

#### ○ 문헌자료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박세민(1993),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서울 : 삼성암
- 千惠鳳(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범우사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



#### ○ 현 상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이하 『수재의궤』)는 1270년(송나라 度宗 6 : 咸淳 6) 남송(南宋)의 대덕고승 지반(志磐)이 물과 육지에 외로이 떠도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법(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인 수륙무차평등재(이하 수륙재)의 기원·의식·절차 등을 수집·정리하여 전체 6권으로 찬술한 불교의례서로, 『지반문(志磐文)』·『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수륙재의찬요』로도 명명되기도 한다.

지반이 찬술한 『수재의궤』는 우리나라에서 왕실 및 사원 등의 주도로 1470년(성종 1 : 成化 6)부터 1469년(효종 즉위년 : 順治 6)까지 최소 10차례 이상이나 조성하여 수륙재의 실행과정에서 원천텍스트로 활용되었다. 신청대상 『수재의궤』의 인출원판은 권미제 다음에 새겨진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에서, 1470년(성종 1 : 成化 6) 7월 경 왕실이 주도하면서 당대의 명필인 박경(朴耕)에게 필사하게 하여 대자의해서(楷書)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오침철장법의 선장본 1책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표지-격지(隔紙)-공격지(空隔紙 : 전체 1장)-본문(전체 88장)-발문(전체 2장)-격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표지는 두꺼운 닥종이로 일부 마모되어 있으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지반문(志磐文)’이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다. 앞표지 안의 격지에는 ‘대성사유전[수결](大聖庵留傳[手決])’이라는 장서기가 묵서되어 있다. 인출불사 때 첨가된 공격지에는 장정 이후에 ‘지반문작법규식(志磐文作法規式)’이라는 제목과 관련 내용이 먹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본문 제1장의 광곽 밖 여백 부분까지 이어진다. 본문은 권수제-찬술정보-본문(의례절차·진언 등)-권미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 : 제12편)」의 편명을 포함하는 제53장의 1장이 결장되어 있는 듯하다. 발문은 김수온(金守濫)이 지었으며, 발문의 마지막 행의 아래 여백 부분에는 ‘책주□□묘법연화경(冊主□□妙法蓮華經)’이라는 내용이 후대에 묵서되어 있는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에는 표제가 ‘지반문(志磐文)’, 권수제가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권제일(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卷第一)’, 찬술정보가 ‘사명동호사문 지반 근찬(四明東湖沙門 志磐 謹撰)’이라 표기되어 있으면서 권미제에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일권(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一卷)’이라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문·발문의 판심제도 ‘지반문(志磐文) 일(一)’, ‘지반문발(志磐文跋) 일(一)’과 같이 줄인 경전이름+권차+장차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며,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일권’이라는 권미제가 새겨진 제89장의 판심제도 ‘지반문(志磐文) 팔십구(八十九)’라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남송의 승려 지반이 찬술한 수록재의 불교의례서로, 『지반문』·『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으로도 명명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인출본의 본문에는 수록재의 불교의례서로 활용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및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지반문』과 다른 불교의례서)의 편명에 있는 「설회인유편(設會因由編)」·「주향공양편(呪香供養編)」 등이 보이지 않고, ‘행신조개계법사(行晨朝開啓法事)’라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소청사직편(召請四直篇 : 제1편)」·「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 : 제12편)」·『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 : 제44편)」 등 4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문에는 ‘이상의 대자 『수륙의문』 판본은 우리 대왕대비전하(정희왕후)께서 세조 대왕과 예종대왕·의경왕(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의례집이다……대왕대비전하께서 특별히 『지반문』을 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신 박경에게 대자의 해서로 필사하게 하였다……성화 6년(1470 : 성종 1) 가을 7월 보름 이전의 어느 날……행지중추부사 신 김수온이 명령을 받들어 삼가 발문을 지었다(右大字水陸儀

文板本我/ 大王大妃殿下爲/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冥福而成者也……大王大妃殿下特命刊於志磐文且使臣朴耕更寫大楷……成化六年秋七月望前有日……行知中樞府事臣/ 金守溫奉/ 教謹跋)라는 내용 등이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원판은 세조의 후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가 1470년(성종 1) 7월 경 세조와 아들인 예종·의경왕(덕종)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면서 왕실주도로 조성한 불교경판이며, 서체는 당대의 명필 박경이 쓴 해서로 확인된다. 이로써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당대 왕실의 불교사상적 경향 및 경판조성 성격 등과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표지 및 내지가 일부 마모되어 있고 공격지에 묵서되어 있으면서도 원형을 상당히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문의 인출상태도 뚜렷한 상태 등에서 원판이 조성된 1470년 무렵에 인출한 초기인본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본 인출본은 15세기 중엽 당시 인출불사 등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대상의 인출원판을 찍은 인출본은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는 희소적 가치와 함께 원판 복원의 핵심 텍스트로서의 성격도 확보하고 있다. 신청대상의 인출본과 동일한 인출본은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듯하며, 1470년 경 조성된 경판의 인출본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소장본과도 구두점(句讀點)의 표기유무와 어미의 형태 및 변란 밖의 시주질(施主秩)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광사 소장 인출본은 구두점이 없고, 어미 형태가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이며, 좌우 변란 밖에 ‘정귀남(丁貴男 : 제25장)·순화(順化 : 제26장)·시주인명(施主印明 : 제40장)·신화비구(信和比丘 : 제64·67장)·응현(應玄 : 제73장)·시주박개(施主朴介 : 제87장)’라는 시주질이 양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신청대상의 인출본에는 본문 내용에 구두점이 있고,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해당 장차에 시주질도 발견되지 않는 등 송광사 소장본과 다른 경판의 인출본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송광사 소장 인출본의 본문 글자형태는 신청대상의 인출본에 비해 둔탁한 느낌도 보이는 듯하기도 한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인출원판보다 앞서 조성된 사례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듯하므로,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기타(소장경위)

해당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서(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1책은 지정신청자 향운암의 현 주지 정상 스님이 향운암의 창건주인 안승옥 스님에게서 전래 받았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다고 한다.

## 2.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叡 筆 海嶽傳神帖)

### 가. 심의사항

‘정선 필 해악전신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선 필 해악전신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叡 筆 海嶽傳神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첩
- 규 격 : 32.0x25.0cm, 42.0x30.0cm(화첩)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47년(영조 23)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간송미술관 소장 <해악전신첩>은 정선 특유의 다양한 필묵법과 옅은 청록색의 선염법이 고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되어 금강산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결작이다. 72세 되는 정선 만년의 무르익은 필치가 집약되어 있어서 금강산 그림 중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작품이다. 그림마다 당대의 명사인 김창흡과 이병연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장첩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발문까지 갖추어진 화첩으로서 완전성 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만하다.

정선의 이른 시기 진경산수화풍을 보여주는 금강산 그림인 <풍악도첩>(1711년)이 보물 제187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해악전신첩>은 정선 만년의 진경산수화풍을 대표하는 금강산 그림으로서 그 예술적, 회화사적, 역사적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詩書畫 일치는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란 漢字文化圈이 이룩한 종합예술로 그 역사가 오래고 길며 이른바 文人畫論의 基底를 이룬다. 이 화첩은 비록 소품들로 이루어진 화첩이나 72세에 이른 정선이 老大家 다운 完熟美의 결정판으로 제시됨직하다. 이 그림의 성가를 높임은 그림에 부친 切親 이병연의 제시들도 一助한다. 그는 이 첩만이 아니라 詩書合璧을 이룬 작품이 한 둘이 아니다. 마치 조선 초 安堅의 <夢遊桃源圖>에 여러 문인들의 제사가 첨부된 것과 같은 양상으로 시와 그림을 함께 읽고 보게 된다.

이 화첩에 앞서 현존하는 1711년(36세) 그린 정선의 가장 이른 금강산 기행화첩인 13폭으로 전해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辛卯年楓岳圖帖』과 비교를 통해 36년 세월 동안 갈고닦은 제 과정이 녹아들어갔으며 성취를 드러낸다. 우리 山川에 대한 남다른 각별한 애정에서 비로소 가능한 산수화풍의 절정을 보여준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산수화의 '개벽'을 이룩한 정선이 만년에 구현한 금강산화풍의 완숙한 경지와 김창흡과 이병연의 대표적인 진경시로 이루어진 현존하는 최고의 금강산 시화첩 와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 필 <해악전신첩>은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장의 대표적인 주제였던 금강산 실경을 집대성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예술성은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30대에 그렸던 작품을 만년인 72세에 다시 그린 것이기에 화가의 화풍변천을 잘 보여주며 자신만의 개성적인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정선의 산수화와 더불어 이병연, 홍봉조 등 당대 명사들의 글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역사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정된 정선의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보물 제1796호), <풍악도첩>(보물 제1875호)와 비교하여 오히려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기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敼, 1676-1759)은 1747년(영조 23) 금강산을 세 번째로 탐승하였는데 그 후 제작한 작품이 <해악전신첩>이다.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정선이 1712년 두 번째로 금강산을 유람한 뒤 제작했던 ‘해악전신첩’과 같은 제목과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즉 정선의 그림 뒤에 1712년 ‘해악전신첩’에 썼던 대로 김창흡(金昌翕, 1653-1722)과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시를 옮겨 적은 것인데, 1747년 당시에 김창흡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 홍봉조(洪鳳祚, 1680-1760)가 대신 썼다.

화첩은 전체 76면(공란 1면 포함)으로 그림은 <화적연(禾積淵)>, <삼부연(三斧淵)>, <화강백전(花江栢田)>, <정자연(亭子淵)>, <피금정(披襟亭)>, <단발령망금강(斷髮令望金剛)>, <장안사비홍교(長安寺飛虹橋)>, <정양사(正陽寺)>, <만폭동(萬瀑洞)>, <금강내산(金剛內山)>, <불정대(佛頂臺)>, <해산정(海山亭)>, <사선정(四仙亭)>, <문암관일출(門巖觀日出)>, <문암(門巖)>, <총석정(叢石亭)>, <시중대(侍中臺)>, <용공동구(龍貢洞口)>, <당포관어(唐浦觀漁)>, <사인암(舍人岩)>, <칠성암(七星巖)> 등 진경산수도가 21폭이다. 나머지 글씨는 홍봉조가 쓴 제목 ‘海嶽傳神’, 이병연이 1747년 3월 3일에 쓴 서문, 각 그림 뒤에 이어지는 김창흡과 이병연의 제시(<칠성암>에는 이병연의 제시만 있음), 그리고 홍봉조·月南晚漁·朴德載(추정) 등이 쓴 발문이다. 매 화면에는 “謙齋”라 관서하고 백문방인 “鄭”과 “敼”을 찍었다.

#### □

##### ○ 조성연대 : 1747년(72세)

제작시기에 대해선 기록과 문헌 중심으로 최완수 선생의 꼼꼼한 고증으로 1747년

3월 3일로 확인한 바 있다.

### ○ 현 상

첩의 표면은 옅은 菊花文이 있는 쪽물들인 비단에이며, ‘海嶽傳神’의 帖名을 縱으로 쓴 세로 긴 흰 雲文 비단이 부착되어 있다. 그림은 모두 비단이되 內題를 비롯해 題畫詩는 예외 없이 색지로 핑크색 淡紅이 주류로 16쪽으로 제일 많으며, 淡黃과 淡靑, 흰색 등도 있다. 제화시는 李炳淵(1671-1751)이, 金昌翁(1653-1722)의 撰은 洪鳳祚(1680-1760)가 옮겨 적었다.

홍봉조가 방정한 서체로 2쪽에 걸쳐 쓴 ‘海嶽傳神’의 내제까지 포함해 모두 76쪽으로 이루어진 書畫帖이다. 그림은 모두 21점으로 1쪽에 1점의 그림이나 단 <金剛內山>만이 2쪽에 걸쳐 있으니 22쪽이고, 53쪽이 묵서로 한 쪽만이 글씨가 없는 淡靑紙지이다. 대체로 같은 필치로 동시에 그렸음이 확인되나 <門岩觀日出>이 다소 성근 필치가 감지된다. 화풍이 조금씩 차이를 보임은 전래과정과 개장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나 비교적 이른 시기로 조선후기의 화첩 상황을 견지한 점도 주목된다.

### ○ 내용 및 특징

金剛山을 주축으로 勝景名所를 일괄로 그린 화첩으로 이병연의 제화시가 첨부된 書畫合璧의 성격을 지닌다. 대체로 같은 크기로 모두 21점으로, 화첩내 게재 순서로 열거 하면 1.<禾積淵>, 2.<三釜淵>, 3.<花江栢田>, 4.<亭子淵>, 5.<披襟亭>, 6.<斷髮令望金剛>, 7.<長安寺飛虹橋>, 8.<正陽寺>, 9.<萬瀑洞>, 10.<金剛內山>, 11.<佛頂臺>, 12.<海山亭>, 13.<四仙亭>, 14.<門岩觀日出>, 15.<門岩>, 16.<叢石亭>, 17.<侍中臺>, 18.<龍貢洞口>, 19.<唐浦觀漁>, 20.<舍人岩>, 21.<七星岩>이다.

하나같이 장소를 밝힌 화가 자신이 쓴 작품명이 있고, 예외 없이 같은 7mm ‘鄭’과 ‘叡’의 두 圖章들이 찍혀있어 화풍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문헌자료

최완수, 「제 9장 화성의 길-해악호유와 화법정리」, 『검재 정선』3(현암사, 2009), pp.11-167.

### ○ 기 타

松崖란 序文에 명기된 호만 확인될 뿐 서문와 跋文에 명기된 所藏者 이름이 잘려나갔다. 宋秉峻(1858-1925)

## □ 전 문화재위원 홍선표

### ○ 현 상

화첩 일부 화면의 이물질과 벌레 분비물 제거와 꺾임 방지 등을 처리했다.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김창흡의 제자로 명필이던 대사간 洪鳳祚(1680~1760)가 쓴 '海嶽傳神'을 화첩 表題와 內題로 붙였고, 李秉淵(1671~1751)이 1747년 3월 3일에 서문을 썼는데, '松崖' 다음의 이름자 부분이 지워져 있다. 그림에는 제목과 함께 '謙齋'라는 호로 관서하고 성명인을 '鄭' '歎'의 두 방 백문방인으로 찍었다. 홍봉조의 발문 뒤로 '月南晚漁'라는 별호를 쓰는 인물과 권상하의 문인으로 호론계인 德載朴振河의 발문이 수록되었는데, 이 글에서 언급한 '송애'라는 호를 사용한 주장자의 이름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1712년에 제작했던 《해악전신첩》을 1747년 봄에 같은 제명과 체제로 다시 성첩한 것이다. 이 두 화첩 모두 이병연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선이 그린 다음 이병연이 시를 다시 옮겨 쓰고, 처음 제시를 썼던 김창흡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 그의 제자 홍봉조가 대신 옮겨 적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원 화첩에는 30폭이었던 그림을 21폭으로 추려 그렸으며, 화면에 이어 김창흡의 제시와 이병연의 기행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은 금강산 가는 길에 들를 수 있는 철원 부근의 한탄강에 위치한 <禾積淵>과 <三斧淵>을 비롯해 <花江栢田>과 <亭子淵> <披襟亭> <斷髮寺望金剛> <長安寺飛虹橋> <正陽寺> <萬瀑洞> <金剛內山> <佛頂臺> <海山亭> <四仙亭> <門崙觀日出> <門崙> <叢石亭> <侍中臺> <龍貢洞口> <唐浦觀漁> <舍人岩> <七星巖> 등의 순으로 실렸다. 내금강 전경을 특유의 총람식으로 나타낸 <금강내산>만 화첩 양면에 그렸고 나머지는 모두 한 면에 묘사했다. 반부감법과 평원법을 융합한 자연적 시점의 구도를 비롯해 각필법과 쇄찰법, 난시준, 미점 등의 필묵법과 대혼점의 송림풍, 담청의 유현하고 울창한 선염 효과 등의 독자적 화법으로 금강산의 진경을 완숙하게 재현한 특징을 지닌다.

□

### ○ 현 상

별도의 보관상자 없이 한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호접장이었으나 현재는 전시 등을 위해 펼친 좌우 양면을 하나로 하는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앞뒤 표지는 국화문이 있는 푸른색 비단으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화초문이 있는 흰 비단에 “海嶽傳神”이라고 먹으로 적은 제첩이 붙어 있다. 표지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닳았으며 충해에 의한 결손, 수침에 의한 얼룩이 있다.

뒷면에 연필로 아라비아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 근래 화첩이 수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최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소장 이상현)에 의해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다(보존처리 보고서 참조).

화첩은 전체 76면으로 비단에 그린 산수화가 21점이고, 나머지는 여러 색의 종이에 먹으로 제목, 서문, 제사, 제시, 발문 등을 썼다. 회장은 종이를 사용했는데, 열화되어 갈색이다. 일부 오염되거나 들뜬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보존처리로 안정화되었다. 화면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세로 32.0cm에 가로 25.0cm 내외다. 중간의 <금강내산(金剛內山)>의 경우 32.5x49.5cm, 맨 뒤의 <칠성암(七星巖)>의 경우 32.0x17.4cm로 예외다. 총 41면에 적힌 제시의 경우 화면과 크기가 거의 같고, 제목, 발문 등은 양면에 걸쳐 있어 좌우로 더 길다.

맨 앞의 1-2면에 걸쳐 제목 “海嶽傳神”을 행서로 적었는데, 회장없이 화첩의 양면 전체를 사용했다. 앞표지 제첩과 이 제목을 우산(盂山) 홍봉조(洪鳳祚, 1680-1760)가 쓴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어지는 3-4면에는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이 쓴 서문이다. 역시 회장없이 화첩의 양면 전체를 사용했다. 서문의 말미에 “丁卯上巳槎川老人爲松崖000戲題”라 쓰고 주문방인 “李秉淵印”을 찍었다. 1747년 삼짓날인 3월3일에 송애라는 인물을 위해 지은 것인데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려내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송애를 정동후(鄭東後, 1659-1735)로 추정하기도 한다.

산수화에는 지명에 해당하는 제목을 적고 “謙齋”라 쓴 후 백문방인 “鄭”, “叡”을 찍었다. 각각의 산수화 뒤에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지은 제사를 홍봉조가 대필한 것과, 이병연이 쓴 제시가 1면에 1편씩 이어진다. 맨 뒤의 <칠성암>은 이병연 제시 1편만 있다. 이병연의 제시에는 “槎川” “韓山”, “秉心寒淵” 등등의 인장이 찍혀있다.

뒤쪽 69-70면에는 양면으로 이어지는 한 장의 종이에 홍봉조의 발문과 신원미상의 “月南晚漁”라는 별호를 사용한 인물의 발문이 있다. 홍봉조의 발문은 앞의 김창흡 제시를 대필한 글씨와 필체가 같고, 월남만어의 발문은 군데군데 글씨를 도려냈다.

맨 뒤에는 총 6면(71-76면)에 걸쳐 박00라는 인물이 쓴 발문이 있는데, 신원미상의 박덕재(朴德載)로 추정하기도 한다. 역시 군데군데 글씨를 도려냈다.

전체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표지 “海嶽傳神”

1-2면: “海嶽傳神”

3-4면: 이병연 서문 “丁卯上巳” (1747년 3월3일)

5면: 空欄

6면: <禾積淵>

7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8면: 이병연 제시

- 9면: <三釜淵>  
 10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11면: 이병연 제시  
 12면: <花江栢田>  
 13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14면: 이병연 제시  
 15면: <亭子淵>  
 16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17면: 이병연 제시  
 18면: <披襟亭>  
 19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20면: 이병연 제시  
 21면: <斷髮嶺望金剛>  
 22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23면: 이병연 제시  
 24면: <長安寺飛虹橋>  
 25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26면: 이병연 제시  
 27면: <正陽寺>  
 28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29면: 이병연 제시  
 30면: <萬瀑洞>  
 31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32면: 이병연 제시  
 33-34면: <金剛內山>  
 35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36면: 이병연 제시  
 37면: <佛頂臺>  
 38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39면: 이병연 제시  
 40면: <海山亭>  
 41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42면: 이병연 제시  
 43면: <四畝亭>

- 44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45면: 이병연 제시  
 46면: <門崑觀日出>  
 47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48면: 이병연 제시  
 49면: <門崑>  
 50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51면: 이병연 제시  
 52면: <叢石亭>  
 53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54면: 이병연 제시  
 55면: <侍中臺>  
 56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57면: 이병연 제시  
 58면: <龍貢洞口>  
 59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60면: 이병연 제시  
 61면: <唐浦觀漁>  
 62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63면: 이병연 제시  
 64면: <舍人岩>  
 65면: 김창흡 제사(홍봉조 대필)  
 66면: 이병연 제시  
 67면: <七星巖>  
 68면: 이병연 제시  
 69면: 홍봉조 발문  
 70면: 월남만어 발문  
 71-76면: 박00 발문  
 뒷표지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勳, 1676-1759)은 본관은 광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나 증조부 대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의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

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 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인 화풍을 선도했다.

정선을 일생동안 세 번의 금강산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세이던 1711년에 처음 방문하여 <풍악도첩>(보물 제1875호)을 그렸고, 이듬해 1712년에 다시 방문하여 <해악전신첩>을 제작했다. 이시기에는 정선의 평생지기였던 이병연이 금강산 입구의 금화(金化)에서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병연은 1712년에 정선이 그린 금강산 실경을 모아 <해악전신첩>을 만들었고 여기에 자신의 시와 스승 김창흡의 글을 곁들여 소장했다. 이 화첩은 당대 문사들에게 크게 칭송을 받았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정선은 1747년 다시 금강산을 여행한 듯한데, 이때 다시 간송미술관 소장의 <해악전신첩>을 제작했고 이전의 화첩과 마찬가지로 김창흡과 이병연의 글을 수록했다. 하지만 이때 김창흡은 이미 사망하였기에 그의 글은 당시 강원도 관찰사이자 명필이었던 홍봉조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했다.

현재 연대가 있는 정선의 가장 이른 작품인 <풍악도첩>에는 13폭의 금강산 실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벽화암보덕굴>, <백천교>, <웅천>을 제외한 나머지 11폭이 <해악전신첩>에서 다시 등장한다. 초기작인 <풍악도첩>의 금강산 묘사에서는 구도와 경물묘사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측면도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만년에 제작한 <해악전신첩>에서는 정선의 능숙한 화풍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그렸던 장면들이었기에 천변만화의 신비한 금강산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능숙한 필치로 천하절경을 감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화첩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畫帖)>(보물 제1796호)의 금강산 그림 8폭이 일종의 사생초본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 화첩의 수장 내력에 대해서는 현재 서문과 발문 일부가 의도적으로 도려내어져 있어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에 송병준(宋秉峻, 1858-1925) 집안의 손에 들어갔다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직전에 골동품 거간인 장형수가 입수하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화첩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일화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 ○ 문헌자료

- 최완수, 『겸재정선 3』 (2009)
- 김형술, 「해악전신첩에 나타난 시화 교섭의 새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45권 (2010)
- 이경화,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1711년 금강산 여행과 진경산수화의 형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11권 (2012)

### 3.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

#### 가. 심의사항

‘정선 필 경교명승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선 필 경교명승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2첩)
- 규 격 : 27.4×27.4cm(화면)
- 재 질 : 상권 비단 바탕에 담채, 하권 일부 종이 바탕에 담채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41-1759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서울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와 인물화로 구성된 정선의 대표작이다. 같이 장첩되어 있는 이병연의 편지글을 통해 ‘시화환상간’이라는 이 화첩의 특별한 제작경위와 1741년이라는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조선후기 문예계를 대표하는 화가와 시인이 교류하며 남긴 합작품이며 그들의 시서화가 어우러져 있다는 면에서는 이른바 시서화합벽첩의 요소도 찾을 수 있다.

<경교명승첩>은 화풍적으로도 정선의 특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특히 한강변의 명승을 그린 진경산수도에는 밝고 산뜻한 녹색과 연두색으로 설채하여 청신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러한 청록의 담채법은 정선 화풍의 지평을 확대하는 면모이다.

이와 같이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아니라 제작 연대와 장첩의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같이 장첩되어 있어서 완전성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지금은 훼손된 한강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역사적인 가치를 들만하다. 이에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화첩에 속한 그림들이기에 小品片畫이나 무엇보다도 이 화첩 내 그림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傑作 내지 주목을 요하는 실경, 고사인물화, 詩意畫 모두가 빼어난 작품들인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이 지니는 작품성의 본령인 예술성은 물론, 抒情的인 시와 그림의 함수관계, 이를 함께 한 綜合藝術의 면모 및 이를 가능케 한 벗과의 交流 등, 사회적 역사성까지 읽을 수 있다.

상권의 <讀書餘暇>를 통해 화가의 쉽지 아니한 가려진 自畫像을 엿볼 수 있으며, 하권의 <仁谷幽居>는 작품제작의 産室인 아틀리에를 살필 수 있다. 하권에 木覓山으로 불리던 南山을 주봉으로 해 그 아래 전개된 비오는 낮 경치인 <長安烟雨>와 淡墨의 沒骨처리가 돋보이는 달이 중천에 뜬 <長安烟月>은 화가가 산 당시 서울인 한양의 진경이 낮과 밤을 잘 보여준다. 화가가 자기나라의 수도를 그린 예는 양의 동서를 가릴 것 없이 흔한 일은 아니다.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와 예술 등 우리나라 전 역사, 韓民族 성장과 발전의 오랜 젖줄인 漢江과 그 주변의 아름다움이 주제가 되어 水墨淡彩 외에 흔치 아니한 靑綠山水로 펼쳐진다. 해서 理想的인 정경으로 승화시켰다. 이들은 현재와는 隔世之感이 드는 風光이나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이 시와 더불어 전개되어 조선후기 爛漫한 眞景時代 文興이 크게 振作된 時代相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이른바 우리 고사와 함께 중국고사마저도 우리식으로 재편성해 構想을 넘어 抽象마저 감지케 한다. 화면 縱橫의 구도의 묘와 너른 여백에 넘실대는 물결로 채

운 <滄溟浪泊>와 <滄州一棹>가 이 그 예라 하겠다. 이에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과 이병연의 ‘詩畫換相看’ 문인취향에 의해 이루어진 화첩으로, 정선 진경화풍의 절정기 특징과 당시 한양 북부와 도성의 전경 및 한강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필 <경교명승첩>은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장 정선이 즐겨 그렸던 한양의 경치와 인물화를 함께 모은 작품으로 예술성이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선의 지기였던 이병연과 시화교류의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기에 조선 후기 문예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합작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대부분 사라져버린 조선시대 한강 주변에 위치한 명소를 풍속을 곁들여 충실하게 묘사하였으며 청록산수를 위주로 한 표현방식에서도 개성이 두드러진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 현 상

그림은 비단바탕이나 가장자리는 종이로 장황되어 있다. 각 그림은 현재 낱장으로 분리되어 2개의 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敼, 1676-1759)은 1740년(65세, 영조 16) 12월 11일에 양화진 건너편 양천현의 현령으로 부임하였다. 정선의 친구 사친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은 자신이

시와 정선의 그림을 서로 바꾸어 보내자는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을 약속하였는데 이 <경교명승첩>은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일종의 시서화 합벽첩이다. 총 33폭의 그림과 9폭의 글씨가 들어 있는데 현재 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화면에는 화제를 쓰고 “鄭叡”이라 관서하였으며 백문방인 “鄭”과 “叡” 2과를 나란히 찍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면에는 백문방인 “千金勿傳”도 찍혀 있다.

상첩(上帖)의 첫 폭은 뒷마루에 나와 앉아 화초 화분을 감상하고 있는 선비를 그린 ①<독서여가도(讀書餘假圖)>이다. 이어 양수리 근처 한강 상류의 명소와 별서를 그린 ②<녹운탄도(綠雲灘圖)>, ③<독백탄도(獨栢灘圖)>, ④<우천도(牛川圖)>, 김창협이 제자 양성을 한 석실서원(石室書院) 주변을 그린 ⑤<미호도(溟湖圖)>, 김창협이 은거했던 삼주삼산각(三洲三山閣圖)을 조망한 시점의 또 다른 ⑥<미호도>가 배치되고 아차산이 있는 지금의 광장동 일대를 그린 ⑦<광진도(廣津圖)>, 멀리 남한산성이 보이는 ⑧<송파진도(松坡津)>, ⑨<압구정도(鴨鷗亭圖)>가 차례로 이어진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서울 남산을 그린 ⑩<목멱조돈도(木覓朝墩圖)>, 서울 서쪽의 안산을 그린 ⑪<안현석봉도(鞍峴夕烽圖)>, 양천의 공암나루 부근을 그린 ⑫<공암층탑도(孔巖層塔圖)>, 난지도(蘭芝島, 지금의 상암동) 일대를 그린 ⑬<금성평사도(錦城平沙圖)>, 지금의 합정동 부근의 양화나루를 그린 ⑭<양화환도도(楊花喚渡圖)>, 행주산성 근처의 한강을 그린 ⑮<행호관어도(杏湖觀漁圖)>, 양천현 관아의 동헌을 그린 ⑯<종해청조도(宗海聽潮圖)>, ⑰<소악후월도(小岳候月圖)>, ⑱<설평기려도(雪坪騎驢圖)>, 얼음 벼랑에서 나무를 진다는 ⑲<빙천부신도(氷遷負薪圖)> 등 양수리 근처 한강 상류로부터 양천에 이르는 한강 주변의 경관을 그린 진경산수도 및 인물도 19폭과 ⑳1741년 11월 동지 전 2일 되는 날에 이병연이 쓴 편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병연 편지글에는 십경도(十景圖)를 정선에게 재촉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⑩<목멱조돈도>부터 ⑲<빙천부신도>까지의 10폭이 바로 이들이 주고받은 십경도라 추정된다. 이 10폭 그림에는 대나무, 괴석화훼, 불수감, 복사꽃 무늬가 인쇄된 채색 시전지에 쓴 이병연의 시가 함께 장황되어 있다. 이 시는 이병연이 정선으로부터 십경도를 받고 완성한 제화시인데 글씨는 정선이 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첩(下帖) 제14면의 이병연 편지글에 잘 나타나 있다.

하첩(下帖)은 정선이 만년에 은거하던 인곡정사를 그린 ①<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 대은암 동쪽을 그린 ②<은암동록도(隱巖東麓圖)>, 북악산 서쪽 기슭에서 한양의 전경을 조망한 ③<장안연우도(長安烟雨圖)>, ④<양천현아도(陽川縣衙圖)>, 지금의 강서구 개화동에 있던 개화산 약사사를 소재로 한 ⑤<개화사도(開花寺圖)>, ⑥1740년 12월에 쓴 이병연의 편지, ⑦<시화상간도(詩畫相看圖)>, ⑧1741년 음력 4월에 정선에게 보낸 이병연의 편지, 무지개 뜬 강을 주유하는 모습을 그린

⑨<홍관미주도(虹貫米舟圖)>, 한양의 밤안개 낀 정경을 그린 ⑩<장안연월도(長安烟月圖)>, 호수를 건너는 뚝단배를 그린 ⑪<행주일도도(溱洲一棹圖)>, 구름에 잠긴 바다 풍경을 그린 ⑫<창명낭박도(滄溟浪泊圖)>, 눈 오는 날 절을 찾았다는 율곡 이이의 고사를 그린 ⑬<사문탈사도(寺門脫蓑圖)>, ⑭<사문탈사도>의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1741년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편지, 용어(熊魚) 꾸러미를 선물받고 시로서 대가를 치렀다는 ‘척재제시’를 화제(畫題)로 한 ⑮<척재제시도(惕齋題詩圖)>, ⑯<척재제시도>의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1741년 초여름 이병연의 편지, 어부와 초부가 문답하는 고사를 그린 ⑰<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 북송 대 임포(林逋)의 고사를 그린 ⑱<고산상매도(孤山賞梅圖)>, ⑲1741년 음력 1월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서찰, ⑳정선의 둘째 아들인 정만수(鄭萬遂, 1710-1795)의 찬문과 심환지(沈煥之, 1730-1802) 발문, ㉑심환지 발문, ㉒1802년 7월 하순에 쓴 심환지의 발문 등 그림 14폭과 글씨 8폭으로 꾸며져 있다. 정만수와 심환지의 글에 의해 이 화첩은 원래 1첩으로 꾸며졌었는데 심환지의 수중에 들어온 뒤 1802년에 2첩으로 분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첩에는 그림과 시를 서로 바꾸어 보자는 약속을 한 뒤 이병연이 처음 시를 보내며 쓴 글과 이에 화답한 내용의 <시화상간도>가 연이어 장첩되어 있다. 이로써 이병연과 정선이 글과 그림을 교환하여 보기 시작한 것은 정선의 부임 이듬해인 1741년이었음이 드러난다.

한편 <인곡유거도>, <양천현아도>, <시화상간도>, <홍관미주도>, <행주일도도>, <창명낭박도> 등 6폭은 원래 정선과 이병연이 주고받은 그림이 아니며 화풍으로 볼 때 이병연 사후 나중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 화면에는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시구(詩句)의 일부가 정선의 자필로 적혀 있어서 정선이 이병연의 시를 소재로 제작했음을 말해준다.

## □

### ○ 현 상

두 권의 화첩으로 꾸며졌다. 원 화첩이 아니며 후대에 다시 장황을 바꾸었으나 화첩 내 보이는 1802년 이후 다시 개장된 것 같다. 화첩 앞뒤 표지에는 상하권 모두 흰 비단이 부착 되어있을 뿐 화첩명은 적지 않은 상태이다.

상권은 19점 그림 중 10점이 이병연의 시가 같이 꾸며졌고 9점은 그림뿐이다.

하권 24점 그림엔 이병연의 시가 함께 곁에 부착된 그림은 없고 별지로 장황이 이루어졌고, 그림 중 6점은 정선이 후대 그린 <仁谷幽居>, <陽川縣衙>, <詩畫換相看>, <虹貫米舟>, <滄溟浪泊> 등 명품이 포함된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이 陽川 縣監으로 부임한 후 이병연과 시와 그림으로 주고받자는 약조[詩畫 換相看] 로 제작된 그림이나 개장된 화첩이어서 시문을 함께 한 그림들이 主流를 이룬다. 하권은 특히 원래 순서와는 交欄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섭치가 하나도 없는 하나같이 秀作名品들로 주목된다. 제작연기가 있어 60대 후반 및 70대 완숙기의 작품들로 名不虛傳에 드는 그림들이라 하겠다.

### ○ 문헌자료

- 최완수, 「제6장화성의 길1- 경교명습첩」, 『검재 정선』3(현암사,2009), pp.11-16229.
- 최완수, 「검재의 한양진경」 (2004)

### ○ 기타

정선의 둘째아들 鄭萬濬(1710-1795), 손자 鄭梈(1735-1800)를 거쳐 沈煥之(1730-1802)에게 1802년 2권으로 개장되었으며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어 화첩의 성첩에 대해 시사점이 크다.

□

### ○ 현 상

정선가 소장본으로 원래 1첩이었는데, 1802년 심환지가 인수해 2권으로 개첩했으며, 현재 낱장으로 분리되었다. 화본의 비단 울이 성글어져 안료의 바락이 관찰되고, 호분을 사용한 부분 등에 변색도 눈에 띈다. <인곡유거>와 <송파진> <압구정> <광진> <양화환도> 일부 화면의 갈라짐과 결손, 얼룩 등을 보존처리하였다. 상권의 <목떡조돈>과 <안현석봉> <공암층탑> <금성평사> <양화환도> <행호관어> <종해청조> <소악후월> <설평기려> <빙천부신>에는 이병연의 제시를 정선이 시전지에 쓰고 ‘謙齋’라는 백문방인을 찍었다. 화첩 끝에 1740년 11월 22일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는 이병연의 편지와 함께 1751년 이후 다시 그려 보충한 그림도 실려 있고, 말미에 이 화첩을 양도한 정선의 아들 정만수의 편지와 이를 인수한 심환지의 발문이 합장되어 있다. 그림 모두에 화제와 함께 ‘謙齋’라는 호로 관서하고 성명인을 ‘鄭’‘叡’의 두 방 백문방인으로 찍었다. 상권의 <빙천부신>과 하권의 대부분 그림에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을 새긴 ‘千金勿傳’이란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이 영조 16년인 1740년 양천현령으로 부임 후 이병연과 시와 그림을 주고

받으며 이룩한 화첩이다. 이 때 두 벌의 그림을 그려 한 벌은 이병연에게 보내고 한 벌은 자신이 가졌던 정선가의 소장본으로 영의정을 지낸 심환지에게 양도되었던 것이다.

심환지에 의해 2권을 개첩된 상권에는 정선이 양천현령으로 부임했던 1740년 겨울에서 다음 해 1741년 여름 사이에 그린 19점이 실려있다. 제 1면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독서여가>를 비롯해 남한강의 <녹운탄> <독백탄> <미천> <미호 (1)> <미호 (2)>와 한강 동쪽의 <광진> <송파진> <압구정>, 그리고 양천의 궁산에서 도성과 서호 쪽을 조망하며 그린 <목면조돈> <안현석봉> <공암총담> <금성평사> <양화환도> <행호관어> <종해청조> <소악후루> <설평기려> <빙천부신> 순으로 수록되었다. 하권에는 <인곡유거>와 <은암동록> <장안연우> <장안연월> 등 정선의 주거지 및 주변과 거기서 바라본 도성의 경관을 그린 것과 <양천현아>와 <개화사>, 양천현령 당시 이병연의 시찰을 화제로 그린 고사인물화와 이병연 타계 후인 10여년 뒤 당시를 회상하며 그려 보충한 것이 등이 섞여있다. 정선 특유의 서경적 구성과 난시준과 와권준, 해색준, 파대준 등을 활용한 필묵법, 청록풍 담채법의 완숙한 구사 등, 만년에 이룩한 진경화풍의 다양한 요소와 정수를 반영한 의의를 지닌다.

□

## ○ 현 상

별도의 보관상자 없이 두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호첩장이었으나 현재는 전시 등을 위해 펼친 펼친 좌우 양면을 하나로 하는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두 권 모두 앞뒤 표지는 뇌문의 능화판을 찍은 갈색 종지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위쪽으로 치우쳐 가운데에 흰 비단의 제침이 붙어 있는데 제목은 없다. 표지는 약간 낡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낱장마다 뒷면에 “上一”과 같은 숫자가 적혀있다. 최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소장 이상현)에 의해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다(보존처리 보고서 참조).

화첩은 상, 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단이나 종이의 화면에 채색으로 그림을 그렸고 흰색 종지로 테두리를 둘렀다. 상권에는 19점의 그림과 이병연의 서간 1점이 포함되어 있고, 하권에는 14점의 그림과 이병연의 글씨 5점, 정만수 서찰 1점, 심환지 발문 1점이 포함되어 있다. 상권의 경우 10점은 그림 옆에 시전지에 이병연이 짓고 정선이 쓴 제시를 덧붙여 놓았다.

그림은 일부 경미하게 손상되거나 들뜬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보존처리로 안정화되었다. 화면은 화첩을 펼쳤을 때 양면에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른쪽 면에 더 많은 부분이 치우쳐 있다.

그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목과 이름 “鄭叡”을 목서로 쓰고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으로 낙관을 했다.

전체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권>

1. <독서여가(讀書餘暇)>, 비단, 목서 “鄭叡”, 백문방인 “鄭”, “叡”
2. <녹운탄(綠雲灘)>, 비단, 목서 “綠雲灘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3. <독백탄(獨柏灘)>, 비단, 목서 “獨柏灘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4. <우천(牛川)>, 비단, 목서 “牛川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5. <미호(溟湖)-석실서원(石室書院)>, 비단, 목서 “溟湖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6. <미호(溟湖)-삼주삼산각(三洲三山閣)>, 비단, 목서 “溟湖”,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7. <광진(廣津)>, 비단, 목서 “廣津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8. <송과진(松坡津)>, 비단, 목서 “松坡津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9. <압구정(狎鷗亭)>, 비단, 목서 “狎鷗亭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10. <목덕조돈(木覓朝墩)>, 비단, 목서 “木覓朝墩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1. <안현석봉(鞍峴夕烽)>, 비단, 목서 “鞍峴夕烽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2. <공암층탑(孔崑層塔)>, 비단, 목서 “孔崑層塔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3. <금성평사(錦城平沙)>, 비단, 목서 “錦城平沙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4. <양화환도(楊花喚渡)>, 비단, 목서 “楊花喚渡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5. <행호관어(杏湖觀漁)>, 비단, 목서 “杏湖觀漁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6. <종해청조(宗海廳潮)>, 비단, 목서 “宗海廳潮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7. <소악후월(小岳候月)>, 비단, 목서 “小岳候月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8. <설평기려(雪坪騎驢)>, 비단, 목서 “雪坪騎驢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19. <빙천부신(氷遷負薪)>, 비단, 목서 “氷遷負薪 鄭叡”, 백문방인 “鄭”, “叡”, “千金勿傳”  
목관 시전지(石竹齋)에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적음. 백문방인 “謙齋”

20. 이병연 서간, 종이, “至前二日” (1741년 11월 22일로 추정하기도 함)

<하권> (간송미술관 제공 순서와 최완수 저서 순서가 차이가 있음. 확인필요)

1. <인곡유거(仁谷幽居)>, 종이, 목서 “仁谷幽居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2. <은암동록(隱嵒東麓)>, 종이, 목서 “隱嵒東麓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3. <장안연우(長安烟雨)>, 종이, 목서 “長安烟雨 鄭澈”, 백문방인 “鄭”, “澈”
4. <양천현아(陽川縣衙)>, 비단, 목서 “莫謂陽川 落陽川興 有餘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5. <개화사(開花寺)>, 종이, 목서 “開花寺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6. 이병연 시찰. “庚申歲除” 1740년 12월, 백문방인 “老燭岳” 주문방인 “槎川”
7.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 비단, 목서 “我詩君畫換相 看輕重何言 論價間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8. 이병연 시찰, 종이, “辛酉仲春” (1741년)
9. <홍관미주(虹貫米舟)>, 비단, 목서 “祗恐龍爭山 谷扇定應虹貫米家 舟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0. <장안연월(長安烟月)>, 종이, 목서 “長安烟月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1. <행주일도(溟洲一棹)>, 비단, 목서 “宿雲散墨 點蘭洲 洞庭巴陵 湘水流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2. <창명낭박(滄溟浪泊)> 비단, 목서 “太華雲開 北滄溟浪 泊東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3. 이병연 서찰, 시전지, “辛酉春” (1741년) 주문방인 “潘蕕□□”
14. <사문탈사(寺門脫蓑)> 비단, 목서 “寺門脫蓑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5. 이병연 서간, 종이
16. <척재제시(惕齋題詩)>
17. 이병연, 서간, 종이, “辛酉初夏” (1741년)
18. <어초문답(漁樵問答)>, 비단, 목서 “漁樵問答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19. <고산상매(孤山賞梅)>, 비단, 목서 “孤山賞梅 鄭澈”, 백문방인 “鄭”, “澈”, “千金勿傳”
20. 정만수 서찰, 심환지 발문, 종이
21. 심환지 발문, 종이
22. 심환지 발문, 종이, “歲壬戌孟秋” (1802년) 주문방인 “沈煥之印” 백문방인 “輝遠” 주문방인 “□□堂壑樂志□書”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澈, 1676-1759)은 본관은 광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나 증조부 대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흠(金昌翕,

1653-1722) 등의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인 화풍을 선도했다.

정선은 65세이던 영조 16년(1740년) 12월에 종5품의 양천현령을 제수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은 전별시를 써주고 이후 자신이 시를 보내면 정선이 화답하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그림과 시로 꾸며진 것이 <경교명승첩>으로 추정된다. 정선은 1745년 1월까지 4년간 재임하였다.

이 화첩은 정선의 둘째 아들인 정만수(鄭萬濬, 1710-1795)가 정선의 손자인 손암(巽菴) 정황(鄭樞, 1735-1800)과 교류가 있었던 심환지(沈煥之, 1730-1802)에게 양도했다. 이 당시 쓰여진 정만수의 서찰과 심환지가 덧붙인 발문이 함께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 1권이었던 화첩을 1802년에 2권으로 다시 장황했으며, 정선이 적은 시는 분리했다고 한다(“而其下詩札 非他家所置者 分界以還 似好”). 그리고 그림 옆의 시전지에는 이병연의 시를 정선이 직접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此帖邊唐花箋所書 卽槎川詩 先人筆”).

상권의 경우 맨 처음의 <독서여가>와 맨 뒤 두 겨울 장면인 <설평기려>, <빙천부신>을 제외한 나머지 16점은 모두 한강 상류인 양수리 일대에서부터 하류의 양천현 일대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위치한 장소를 순서대로 배치했다. 이는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의 8점은 더 크고(20.8x31.2cm 내외) 청록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화첩이 접히는 부분이 화면의 왼쪽 끝부분에 있다. 뒤의 8점은 더 작고(23.0x29.2cm 내외) 시전지가 붙어 있다. 맨 뒤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겨울장면 2점에도 시전지가 붙어 있다. 상권 말미에 함께 장첩되어 있는 이병연의 서찰에서 십경도(十景圖)를 언급하고 있어 시전지가 붙은 그림이 이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진 실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매우 섬세한 필치로 가옥, 배, 인물 등이 어우러지는 생활 장면을 묘사했다. 먹선으로 윤곽을 그리면서도 청록산수 화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한 점도 특이하다. 청록산수는 장식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화풍인데 정선은 이를 실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하권의 경우 산수화 9점과 인물화 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순서에 따른 배치는 아니다. 이 중에서 <인곡유거>, <양천현아>, <시화환상간>, <홍관미주>, <행주일도>, <창명낭박> 등 6점을 이병연이 사망한 1751년 이후에 추가로 그린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인곡유거>를 제외한 나머지 5점은 크기와 화풍이 비슷하며, 공통적으로 소략한 말년의 필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상권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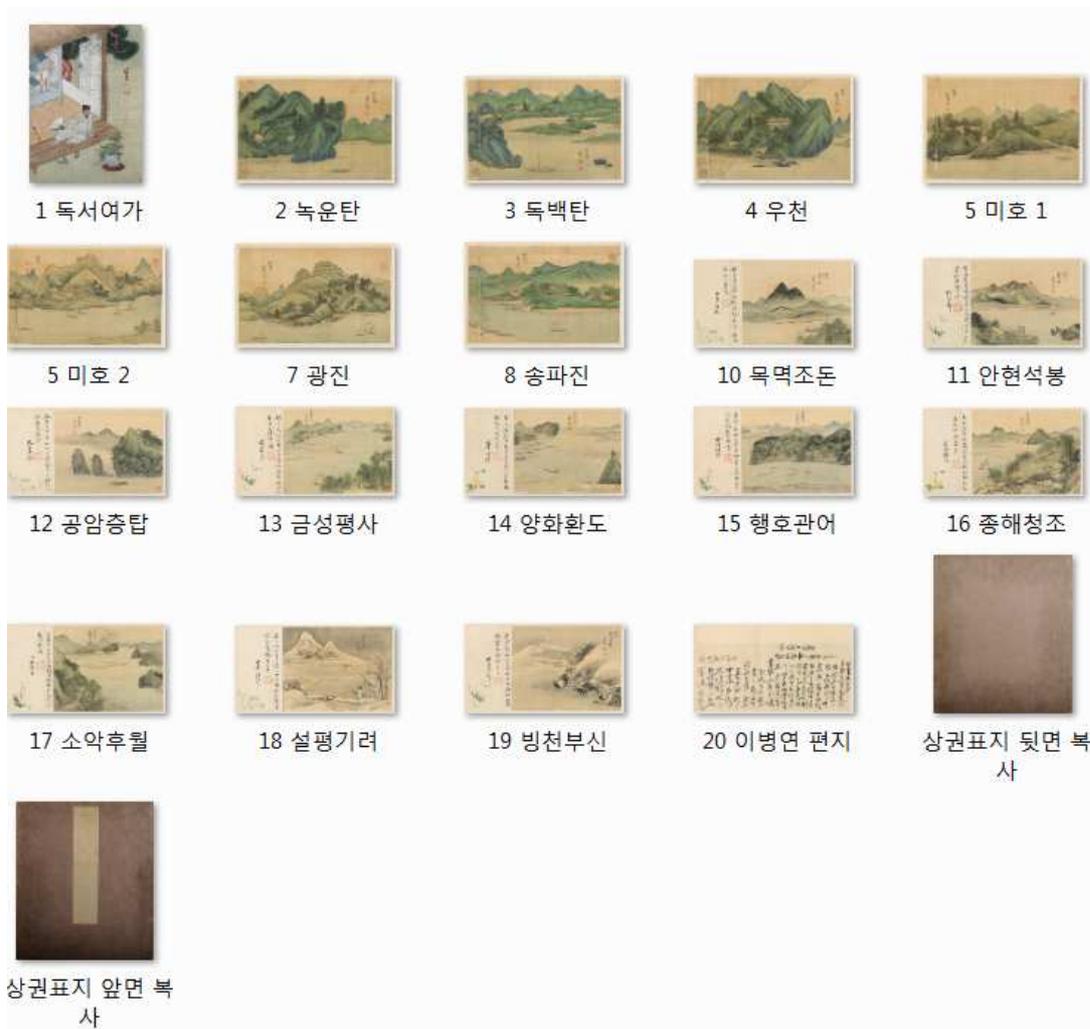
산수화는 실경을 위주로 하였으며 부드러운 묵법과 활달한 필치를 구사하여 상권과는

대조를 이룬다. 인물화는 중국 성현의 고사와 조선 인물의 일화를 그렸는데, 특히 <시화환상간>은 이 화첩의 배경이 된 정선과 이병연의 시화 교환을 소재로 삼았다.

화첩의 제목 <경교명승첩>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으며, 소장처에서 근래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 한성과 인근 경기 지역의 풍경을 위주로 한 내용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명승지를 그린 사례로서 이 화첩은 제작배경, 화격, 화풍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상권>



<하권>



○ 문헌자료

- 최완수, 『검재정선 3』 (2009)
- 최완수, 「검재의 한양진경」 (2004)

#### 4.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散筆楓嶽內山總覽圖)

##### 가. 심의사항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散筆楓嶽內山總覽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
- 규 격 : 100.8x73.8cm(그림) 188.6x86.5cm(족자)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간송미술관 소장 <풍악내산총람도>는 제작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치와 화풍

으로 보아 정선이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1740년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탐승노정을 따라 난 길을 표시하고, 암산에 호분을 사용하며, 건물 기둥에 붉은 색을 사용하였고 명칭을 목서로 부기하였다는 점에서 보물 제1875호 1711년 작 <풍악도첩> 중의 <금강전도>와 상통한다. 그러나 정선의 초기 금강산 그림인 1711년 작과 비교해 보면 <풍악내산총람도>는 짜임새 있는 구도나 능숙하게 구사된 개성적인 필치 등에서 두 작품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

<풍악내산총람도>는 녹색, 황색, 적색, 흰색 등 채색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을의 내금강 전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금강전도와 차별된다. 또한 중요 경물과 건축물 등을 부기된 명칭과 함께 꼼꼼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점은 여타 금강전도 중에서 내금강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다. 기 지정된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국보 제217호)와는 화풍을 달리하지만 예술적인 가치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따라서 <풍악내산총람도>는 정선의 금강전도를 대표할만한 하며 회화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오세창의 글씨가 있는 나무 보관상자도 그림과 함께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

#### ○ (지정 가치 있음)

全圖는 금강산 전체를 조망한 것으로 같은 정선에 경우 화첩에 속한 것 외에 크고, 작은 유작이 여러 점 전하며 알려진 것만도 여러 점에 이른다. 崔北(1712-1786 이후) 등 그를 다른 화가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民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살필 수 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에는 扇面에 수묵만으로 전개한 것, 화첩에 속한 소폭 등도 전하나 전술한 국보 217호 <金剛全圖>와 비교되는 작품으로 비단에 그려 더욱 섬세함마저 드는 등 이 소재의 定型化를 보인 傑作으로 함께 거론되곤 한다. 동일화가의 이 주제 그림 중에선 두 번째 크기이며, 70 넘어 老年期の 完熟함이 드러나며, 보관 상태도 극히 양호하다.

이 작품은 정선의 60대 전반의 수작으로, 지정문화재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내금강전경도로, 국보 제 217호로 지정된 <금강전도>(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에 버금갈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필 <풍악내산총람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정선이 금강산의 장대한 절경을 한 폭으로 집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진경산수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회화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대작임에도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에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색을 독창적으로 결합시켰기에 정선의 금강전도 중에서도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정된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국보 제217호)와 비교하여 예술성 및 역사성이 결코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 ○ 현 상

이전에 수리될 당시에 가해진 색맞춤과 가필의 흔적이 있으며 얼룩도 남아 있으나 최근 보존처리를 통해 현재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화축 뒷면에는 “鄭謙齋楓嶽內山全圖 玉井研齋珍藏 丙子重裝 葦滄題”라 예서체로 쓴 위창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글씨가 있고 “吳世昌”과 “葦滄氏” 인장 2과가 나란히 찍혀 있다. 이로써 <풍악내산총람도>는 전형필이 소장하던 1936년에 새로 개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은 현재 나무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뚜껑에는 “鄭謙齋楓嶽內山全圖 葦滄署”라는 묵서와 주문방인이 있다.

### ○ 내용 및 특징

내금강의 전경을 한 화면에 담은 금강전도(金剛全圖)이다. 중요 경물, 명소(名所), 건축물 옆에는 명칭을 묵서하여 내금강의 전모를 쉽게 전달하는 지형도 형식으로 그려진 점이 특징이다. 화면 우측 여백에는 “楓嶽內山總覽”이라 화제를 쓰고 백문방인 “鄭”과 “叡”을 나란히 찍었으며 좌측 화단에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인장 “曾經吳世昌眼”이 찍혀 있다.

정선(鄭叡, 1676-1759)은 부감하는 시점에서 내려다 본 내금강의 경물을 화면 꼭 차게 구성하되 암산과 토산을 대각선 구도로 대비되게 배치하였다. 수직의 암산은

날카로운 상악준(霜鏗皴)과 수직으로 그어내린 수직준(垂直皴)으로 표현하고 부드러운 토산은 피마준(披麻皴)과 미점(米點) 위주로 표현하였다.

녹색으로 밀칠하고 암산 봉우리의 윗부분에는 호분(胡粉)을 덧칠하여 서릿발 같은 골산의 기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계곡을 따라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든 활엽수는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잘 드러낸다.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정양사(正陽寺) 등 내금강의 3대 사찰이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삼불암(三佛岩), 금강대(金剛臺), 비로봉(毗盧峯) 등 몇몇 경물은 눈에 떨 만큼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풍악내산총람도>외에도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는 1711년의 <풍악도첩(楓嶽圖帖)> 중의 한 폭(보물 제187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강전도>(국보 제217호,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1747년의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 중의 한 폭(간송미술관 소장),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금강내산총도(金剛內山總圖)>, 전 왜관수도원 소장 <검재정선화첩> 중의 한 폭(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폭의 <금강전도>(간송미술관 소장) 등 6점 정도가 더 알려져 있다. 여섯 점 모두 구도와 필법, 양식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풍악내산총람도>가 가장 규모가 크고 필치가 세밀하며 화려한 채색화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

## ○ 현 상

금강산 전체를 조망한 總圖 형식으로 현재 화첩에 속한 것 등 크고 작은 이 주제의 그림이 여럿 전한다. 작품명에 이어 7mm 크기의 ‘鄭’ ‘叡’ 두 白文方印은 63세 연기가 있는 『關東名勝帖』에 있어 이 작품의 제작연대를 짐작하게 한다. 비단 바탕 화면 내 오염이나 박락부분이 적고 靑綠山水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국보 217호 <金剛全圖>와 비교할 때 좋은 대조가 되는 작품이다. 종이에 수묵담채 그린 冬景인데 대해, 비단에 骨山엔 胡粉과 土山엔 靑綠의 가채가 두드러지며 秋景인 점, 규모는 2/3 정도로 작은 크기이나, 시점을 보다 넓게 멀리 잡아 근경의 土山이 보다 뚜렷하며 전자에 비해 보다 너른 시계로 깊이감과 立體感이 부각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다소 마르고 건조한 동경에 비해 보다 윤택한 경관으로 사료된다.

## ○ 문헌자료

- 최완수, 「풍악내산총람」, 『검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대원사,1999), pp.17-21.
- 오주석, 「겨레를 기린 영원의 노래 정선의 <금강전도>」, 『오주석의 옛 그림 읽 기의 즐거움』

(술,2006), pp.101-145.

□

○ 현 상

화면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올풀림과 갈라짐, 변색 및 얼룩을 보존처리하고 일본식 족자끈을 교체했다. 과거 수리시의 색맞춤과 가필 흔적이 남아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화제를 적고 그 아래로 성명인을 ‘鄭’‘叡’이란 두 방 백문방인으로 찍었다.

○ 내용 및 특징

가을의 내금강 전경을 하나의 화면에 부감법과 고원법으로 압축하여 그리고 명승과 고적의 명칭을 적어 넣어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총람할 수 있게 한 지형도 유형의 실경산수화이다. 고려 말부터 전형화되었을 내금강의 전경도 도형을 남종 화법에 토대를 두고 청록담채법을 곁들여 진경화풍으로 재창출하여 조선 후기를 통해 유행시킨 의의를 지닌다.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 산봉우리 사이로 여기저기 붉은 단풍이 물든 가을날의 금강산 전경을 한 폭에 채워 넣은 구도로 표현했다. 뾰족하게 솟아 오른 바위산과 부드럽게 굽이치는 흙산을 좌우로 대비시켰다. 구석구석에 명승지와 불교 사찰이 보이며 작은 글씨로 지명을 적었다.

오른쪽 위에는 “楓岳內山總覽”이라는 제목이 묵서로 적혀있고 백문방인 “鄭”, “叡”을 찍었다. 왼쪽 아래 구석에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백문감상인 “曾經吳世昌眼”이 찍혀 있다. 족자 뒷면의 상단에도 오세창이 예서로 제목 “鄭謙齋楓岳內山全圖”를 쓴 후, “玉井研齋珍藏 丙子重裝 葦滄題”라고 쓰고 주백문인 “吳世昌”, “葦滄氏”의 도장을 찍었다. 전형필(全鏐弼, 1906-1962)이 소장하고 있던 1936년에 새로 개장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소장 이상현)에 의해 경미한 손상 및 노화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다(보존처리 보고서 참조). 현재 그림의 상태는 가로꺾임이 거의 없이 매우 양호하며 색채도 선명하다.

그림은 1936년경에 제작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뚜껑 앞면에 오세창

의 상서(箱書)가 적혀있다. 전서로 제목 “鄭謙齋楓嶽內山全圖”라 쓴 후, “葦滄署”라고 덧붙이고 백문방인을 찍었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敼, 1676-1759)은 본관은 광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나 증조부 대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흡(金昌翁, 1653-1722) 등의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인 화풍을 선도했다.

정선을 일생동안 세 번의 금강산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세이던 1711년에 처음 방문하여 <풍악도첩>(보물 제1875호)을 그렸고, 이듬해 1712년에 다시 방문하여 <해악전신첩>을 제작했다. 이후 수없이 많은 금강산 그림을 그렸으며, 대개는 금강산 중에서 유명한 세부 장소를 따로 묘사했는데, 간혹 금강산 전체를 조망하는 전도를 그리기도 했다. 전도의 경우에도 비로봉을 정점으로 불정대, 사자암, 정양사, 장안사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불암 같은 돌부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작품은 정선이 묘사한 금강전도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큰 편에 속하며 세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더군다나 40곳이 넘는 승경의 명칭을 그림에 적어 놓은 것도 정선이 그린 금강산 전경에서 유래가 드문 것이다.

작가로서 위아래로 긴 화면을 옆두에 두었기에 장대한 금강산을 파노라마처럼 펼치지 않고 대담하게 원형으로 변형시키는 창의적인 구도를 사용했다. 이로써 일만이천봉 전체가 한눈에 편안하게 들어온다. 정선은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구석 허술하게 다루지 않았다. 아래쪽 근경에서 위쪽 원경으로 점차 산봉우리가 작아지는 원근법을 적용했으며, 군데군데 자리잡은 사찰 건물은 평행사변형 구도로 묘사하여 더욱 실감나게 보인다. 흙산에는 진한 청록을 사용하고 돌산봉우리 사이로 열린 초록색을 칠했으며 뾰족한 암봉은 흰색을 칠해서 화려하면서도 신비한 인상을 준다. 금강산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청록색채를 적극적으로 구사한 경우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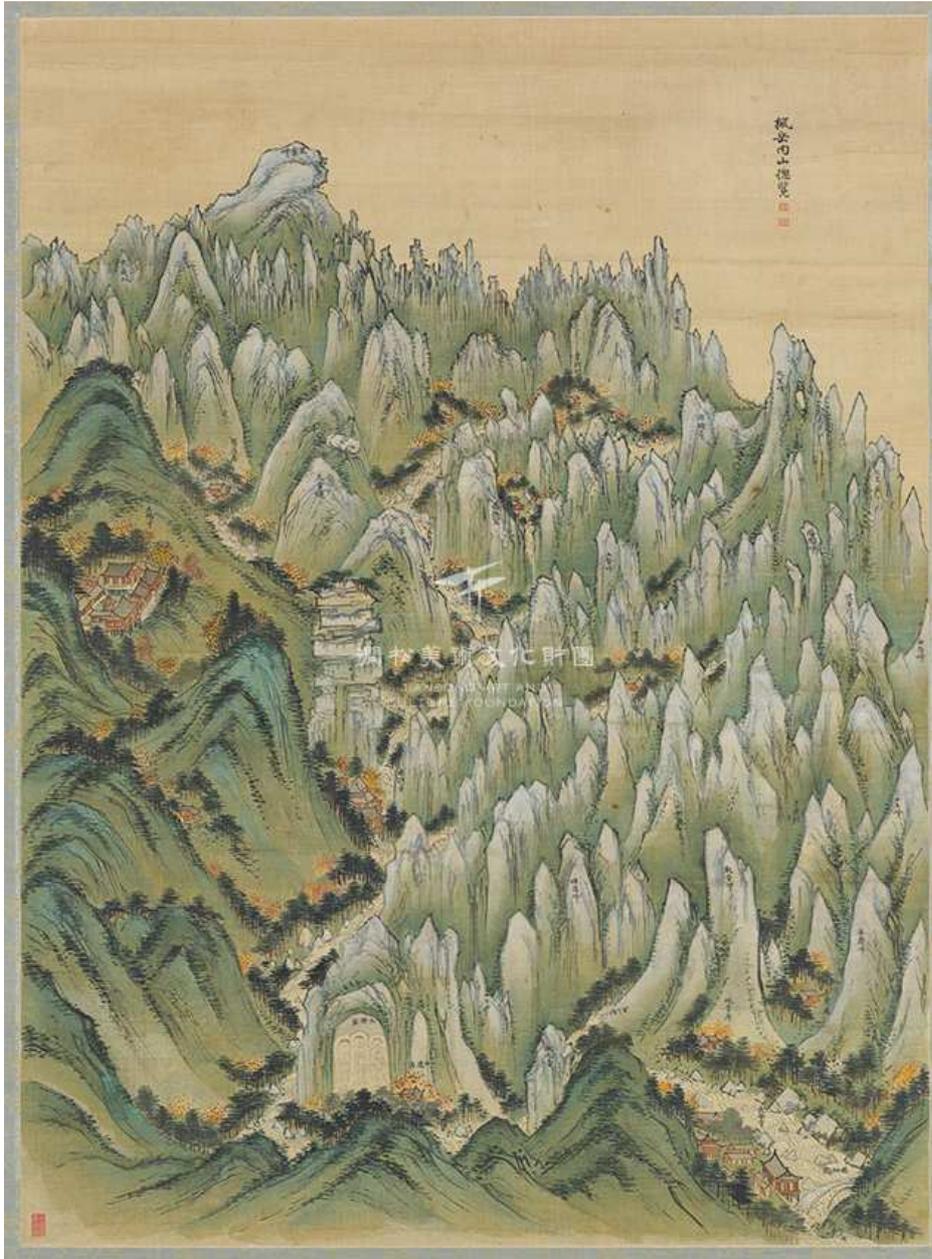
오랜 세월을 거치며 불교의 성지, 도교의 영산, 천하의 절경으로 유명한 금강산을 한 폭에 담아낸 금강전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며, 정선의 무르익은 기량이 한껏 발휘된 뛰어난 그림이다.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기지정된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국보 제217

호)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작품이 좀 더 시기가 앞선 60대에 해당하여 174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치밀한 필치와 장식적인 채색은 이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 문헌자료

- 최완수, 『검재정선 2』 (2009)



## 5.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

### 가. 심의사항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선 필 청풍계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
- 규 격 : 133.0x58.8cm(그림), 239.8x75.6cm(족자)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39년(영조15)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간송미술관 소장 <청풍계도>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정선의 다른 대표작인 삼성미술관 Leeum의 <금강전도(金剛全圖)>가 산세의 골기를 필법 위주로 표현한 화풍을 대표한다면 <청풍계

도>는 정선이 즐겨 사용했던 적묵법(積墨法)이 잘 발휘된 작품으로서 묵법이 강조된 화풍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정선이 그린 청풍계도는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조사된 이 <청풍계도>가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을 가장 잘 보여주며, 대가로서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걸작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간송미술관 소장 정선의 <청풍계도>는 기년작으로서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형감각, 경물(景物)의 특징표현에 적합한 필묵법의 사용, 자신감 넘치는 농익은 필치의 구사, 약간의 채색이 전달하는 생동감의 부여 등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며 회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작품이다. 더욱이 지금은 사라진 김상용이 거쳐하던 사적지 일대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大家나 巨匠들의 작품 특징 중에 하나는 倣作과 模作이 많다는 점을 들게 된다. 이는 流派의 形成과 직결되며 화가의 力量이자 영향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선의 경우 眞景山水란 용어가 말해주듯 후기 화단에 있어 근 2백여 년에 걸쳐 그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는 需要에 대한 急増으로 동 시대만이 아닌 근현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아니한 방작이 제작되었다.

거장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屐치[駄作]가 드물고 하나같이 일정이상의 격조를 堅持하고 있는 점을 들게 된다. 趙熙龍(1789-1866)이 金正喜(1786-1856) 보다 더 김정희적일 수 있고, 김홍도 방작이 더 김홍도에 逼眞해 세밀한 관찰 등 주의를 요한다. 피카소의 경우듯 多作을 하다보면 개중에는 의외로 여겨질 만큼 生梗한 작품들도 유존한다. 이를 화가의 끊임없는 새로운 多樣한 試圖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정선의 경우 수요에 밀려 密度가 떨어지는 작품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최근 국내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개인적 주관과 趣向에 의해 한 화가의 대표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한 화가에서 최고의 걸작을 고를 때 <청풍계>는 한양, 한강주변, 금강산, 기타 명소 등으로 세분해 살필 때 조선의 王京인 한양 淸溪川 북쪽 내 풍경으로 이미 지정된 <仁王霽色>과 並稱되며 반드시 거론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중국과 구별되는 독특한 畫風으로 우리 그림으로 그 代表走者로 손색이 없으니, 특징과 그림 됴됨이, 규모, 제작시기 등이 선명한 名品으로 일반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그림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한양의 실경도에서 수립한 정선 진경화풍의 특징과 함께, 조선 후기 진경문화의 산실 중 하나인 청풍계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걸작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필 <청풍계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정선이 인왕산 일대의 명승을 개성적인 화풍으로 표현함으로써 진경산수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회화사적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유래가 깊은 한양 명소의 실제 경치를 충실하게 표현하였기에 역사적인 가치도 높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현 상

풍대가 있는 일본식 장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장황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근 보수할 때 낡은 죽자 끈을 교체하였다. 부분적으로 채색이 탈락된 결손부에는 색맞춤과 가필의 흔적이 있다. 또 바탕에는 가로 꺾임과 부분적인 훼손이 있지만 최근 보존처리를 거쳐 그림의 내용과 화풍 분석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화면 우측 상단에 “淸風溪 己未春寫 謙齋”라는 관서와 주문방인 “元白”이 있어 정선(鄭敼, 1676-1759)이 64세 되는 1739년(영조 15)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별장이 있던 지금의 청운동 일대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중앙에 비스듬히 뻗은 수직절벽이 청풍대(淸風臺)이고 그 아래로 김상용의 초상을 모신 늑연사(凜然祠)와 모정(茅亭)인 태고정(太古亭)이 그려져 있다. 근경에는 우뚝 솟은 나무사이로 함벽지(涵碧池)와 그 오른쪽의 청풍지각(淸風池閣)도 묘사되어 있다.

담묵에서 농묵까지 4단계로 먹의 농담에 차이를 두고 붓질을 겹쳐서 바위 덩어

리의 둔중한 괴량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먹을 겹치고 문지르듯 구사하는 찰법(擦法)은 정선의 개성적인 장기이기도 하다. 일자(一字)를 겹치듯 표현하는 정선 특유의 상록수 표현도 이 그림에서는 매우 대담하고 장쾌하게 묘사되었다. 반면에 원경에는 인왕산의 흰색 바위면을 피마준과 미점으로 가볍게 표현하여 대비를 주었다. 이와 같이 진한 중묵(重墨)과 대비되는 담백한 처리는 자칫 무겁게만 느껴질수 있는 화면에 변화와 균형을 부여하는 대가(大家)다운 조형 감각이다.

바위에는 옅은 청색이 가해지고 담장에 난 문에 들어서서는 복건을 쓴 선비의 의복과 그가 타고 온 나귀의 안장에 얹힌 방석에도 청색이 담채되었다. 나귀의 안장과 태고정의 난간에 칠해진 적색, 함벽지의 황색 처리는 화면에 또 다른 생동감을 부여한다.



### ○ 현 상

粧潢을 바꾸는 과정에서 작품명과 간기 목서가 있는 향하여 우측면과 상, 하단화면 일부가 잘려나간 듯 보이며 화면 내 일부 剝落과 꺾인 부분의 補筆, 보수한 부분도 감지된다. 화면은 대체로 어두운 편으로 묵중한 느낌을 주나 건물 주변과 山勢 사이 등 거리감 부여로 화면 바탕을 그대로 남겨 깊이감이 잘 드러난다.

水墨 위주에 소나무를 비롯한 측백 등 나무둥치와 건물 기둥과 서까래 등에 淡黃이, 松葉과 柳葉에 淡靑이 加彩를 살필 수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필치를 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疏密의 구사와, 검재 그림의 기본인 黑白對照에 의한 음양 조화의 妙가 잘 원용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검재가 즐겨 그린 옛 서울 漢陽 내 名所를 대상으로 한 그림 중 하나로 <청풍계>를 비롯해 주변의 절경을 담은 壯洞八景 등에도 포함 되는 등 소품이 몇 점 전하며 같은 장소를 그렸으며 시점을 좀 더 확장해 하늘 부분의 여백이 너르나 인물이 배제된 2/3 크기로 상단의 여백과 아마도 계절의 차이에서 연유된 밝은 설채의 그림이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重厚함과 老鍊味는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에 미치지 못한다. 技巧와 纖細를 배제한 다소 거칠고 豁達한 速度感 있는 筆致로 老大家의 完熟美를 십분 보여주는 걸작이며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수려한 풍광인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인 현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를 지칭한다. 최완수 선생의 고증에 의하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물 등 이곳은 金尙容(1561-1637)의 고조부인 金永銖(1446-1502)이 살던 집터이니 그림이 그려지기 250년 이상 웃돈다. 이들 건물은 사라졌으나 조선시대 造景과 등 전형적인 건축미학을 담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문헌자료

- 金應淳(1728-1774) 편, 『仙源先生年譜』, 1767,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현 상

화면과 장황 부분의 이물질과 벌레 분비물을 제거하고, 올풀림과 들뜸 현상을 전분풀로 부착했으며, 족자 끈을 교체했다. 꺾임 등에 의한 화면 손상이 산재되어 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화면 상단 우측에 ‘淸風溪’라는 화제와 제작년 ‘己未春寫’를 적고, ‘謙齋’로 관서 후 ‘元白’이란 주문방인으로 낙관을 했다.

○ 내용 및 특징

한양 북부 청운동에 있는 정선의 출생과 주거지 부근의 청풍계를 그린 것이다. 청풍계는 장동 김문 김상용계의 세거지이며 이른바 백악예원의 인사들과 정선이 교유하던 명승명소로 그가 즐겨 그렸던 곳이다. 청풍계 실경도 중에서 1739년 봄에 그린 대표작으로, 정선 특유의 장쾌한 묵찰법과 수지법 등을 구사하여 사생과 감흥을 통해 이룩한 진경화풍의 정수를 보여준다.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수목을 위주로 하여 인왕산 아래에 위치한 청풍계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짙은 먹으로 나무와 바위를 표현했으며 가옥과 연못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여백이 거의 없이 세로로 기다란 화면을 가득 채웠으며 맨 아래에 나귀와 인물을 그려 넣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淸風溪 己未春寫 謙齋”라는 목서가 적혀있고 주문방인 “元伯”을 찍었다. 그림은 근래에 제작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별도의 상서(箱書)는 없다.

족자는 일본식 장황형태로 금색 꽃무늬가 있는 푸른 비단으로 회장을 돌렸고, 풍대를 부착했다. 화면 테두리 부분에 일부 결손부가 있고, 가로로 꺾이면서 손상된 곳도 있는데 모두 오래전에 생겨나서 현재 장황으로 개장할 때 안정화되었다. 또한 최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소장 이상현)에 의해 경미한 손상 및 노화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다(보존처리 보고서 참조). 현재 그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敼, 1676-1759)은 본관은 광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나 증조부 대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의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금강산, 한양 등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인 화풍을 선도했다.

정선은 자신이 살던 인왕산 기슭에서 백악산 계곡의 경치를 많이 그렸다. 이곳을 당시 장동(壯洞)이라 했고 현재 효자동, 청운동 일대이다. 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청풍계 역시 인왕산 동쪽 기슭의 골짜기이다. 청풍계는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선조 41년인 1608년에 별장을 세우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림 가운데 비스듬하게 서있는 절벽이 청풍대이고 그 아래 보이는 담장으로 둘러쳐진 건물이 조상의 영정을 봉안했던 늑연사(凜然祠)다. 그 옆의 초가지붕 건물이 태고정(太古亭)이며 위에서부터 차례로 네모난 연못 세 개가 있다. 각각 조심지(照心池), 함벽지(涵碧池), 척금지(滌衿池)에 해당한다. 오른편 아래의 건물은 청풍지각(淸風池閣)이다. 옛 기록에는 이들 건물 외에도 남쪽 마당의 큰 전나무와 오래된 소나무를 언급했는데 정선의 그림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정선은 시원하게 맑은 바람이 분다는 청풍계의 이름에 걸맞게 기다란 화면의 가운데에 짙은 먹으로 그린 전나무, 청풍대, 인왕산을 과감하게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와 옆으로 경물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특이한 구도를 취했다. 동시에 건축물을 세부까지 자세하게 그려서 이곳에 사는 사람의 체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맨 아래에는 푸른 안장이 덮인 당나귀를 시동이 끌고 있으며, 역시 푸른 도포를 입은 인물이 계단을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전통적인 화법과 자신이 창안한 진경산수 화풍을 잘 조화시킨 작품이다.

이 그림보다 조금 앞선 1730년경에 청풍계 전경을 그린 작품이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본은 간송본에 비해 더 원경에서 청풍계를 표현했다. 반면 청풍계의 태고정이나 청풍지각에 초점을 맞춘 소품이 간송미술관의 <장동팔경첩>(175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장동팔경첩>(1754년)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간송미술관의 <청풍계도>는 가장 크기가 크며 개성적인 필력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정선이 이렇게 청풍계를 여러 차례 그린 것은 그 주인이었던 김상용의 형제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바로 자신을 후원해 준 김창집, 김창흡의 증조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이들의 고조부는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만큼 정선에게 청풍

계는 자신의 가문과 스승의 가문이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상징적인 곳이었다.

○ 문헌자료

- 최완수, 『겸재정선 2』 (2009)



정선 필 <청풍계도>

## 6.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

### 가. 심의사항

‘정선 필 여산초당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선 필 여산초당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25.5x68.7cm
- 재 질 : 비단에 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간송미술관 소장 <여산초당도>는 정선(鄭敼, 1676-1759)의 정형산수도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정선은 전형적인 남종화풍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경산수화를 그릴 때 즐겨 사용하던 개성적인 필묵법을 잘 절충하여 조선후기 정형산수도의 또 다른 경지를 잘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를 수묵화가 아닌 채색화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희소적인 가치가 높다.

따라서 정선 필 <여산초당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흔히 實景山水를 주목, 강조하다보면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普遍的이며 國際的인 觀念山水라 불리는 定型山水는 일방적으로 중국적으로 단정하기 쉽다. 이는 잘못된 屈折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정선의 경우 화풍형성에 적지 아니한 畫本과 중국화에 대한 穿鑿이 이루어졌고, 그 역시 정형산수와 中國故事에 연원한 故事人物 畫와 寫生에 의한 花卉草蟲과 花鳥翎毛 등 또한 적지 않게 그렸음을 현전하는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산 건너에 초당을 세워 늘 마주본 백거이 고사에 연원한 그림이어서 산세가 다소 巖山 위주로 북송 초 范寬(11세기 전후)과 통하는 莊重한 느낌은 주나 이를 우리식으로 전개함은 화면 구성과 소나무며 암석의 세부 묘사, 대담한 구도 등에서 두루 엿볼 수 있다. 연못 또한 중국과 달리 方形을 취하고 있으며 수묵에 담청이 주이나 초옥의 欄干과 탁자 및 연꽃을 비롯해 분에 담겨진 화목 및 하인의 짐보 등에 홍색을 가채에 화면 전반의 蒼潤함 속에 산뜻함 마저 준다. 해서 이를 최완수 선생은 眞景故事圖로 명명하고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북송 백락천의 여산초당 고사를 주제로 그린 산수인물화로, 정선 특유의 필묵법 등을 구사하여 조선풍의 정형산수화를 이룩한 의의를 지닌다.

정선이 조선의 실경에서 창출한 진경화풍으로 정형산수화를 조선풍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선필 <여산초당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정선이 중국의 고사를 주제로 삼아 산수화와 인물화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대작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크다.

정선이 진경산수 못지않게 고사인물을 주제로 뛰어난 작품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과 회화사의 깊은 연관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현 상

일본식 장황을 가지고 있으며 바탕 비단에 세로·가로 방향의 잔주름이 많은 편이나 현재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여산에 초당을 짓고 은거하던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고사를 주제로 한 고사인물도이다. 여산은 중국의 수많은 문인이 이곳을 방문하여 작품을 남긴 곳이며 그림의 소재로도 많이 다루어진 명소이다.

작은 언덕과 개울이 사선으로 배치된 근경으로부터 둥글게 휘면서 원경까지 길게 뻗어나간 산세가 화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산(主山)이 감싼 아늑한 공간에 초당이 있고 두루마리 묶음을 곁에 둔 채 의관을 정제한 선비가 한가로이 앉아 있다. 젓혀진 창문 안으로 자기(磁器) 병과 서책이 쌓인 서안(書案)이 들여다보인다. 초당 뒤에는 대숲이 울창하고 옆으로는 수령이 오랜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웠으며 산으로부터 흘러내린 계곡물은 초당을 끼고돌며 얇은 개울을 형성하였다. 이같이 은거에 적당한 입지조건 외에도 초당의 뜰에는 꽃나무 화분, 괴석, 단정학(丹頂鶴), 연꽃이 만발한 방지(方池) 등은 선비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초당의 난간, 서안, 꽃, 시동의 붓짐, 단정학의 이마 등에는 붉은색으로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화보풍의 수지법과 피마준, 태점 등 전형적인 남종화풍이 근간을 이루지만 상록수 표현과 힘차게 그어내린 준법은 정선의 개성적인 필치이다. “廬山草堂 謙齋”라는 화제와 관서가 화면 상단 우측 여백에 있다.

□

## ○ 현 상

화면 화단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논리적인 구도와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로와 중앙에 접었을 때 나타나는 꺾인 부분이 보이나 비단에 그린 정선의 유작 중 비교적 큰 작품에 들며 着色 등 화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산세가 다소 과장되어 우리 산천과는 달라 친숙함과는 거리가 있으나 세부를 살필 때 정선의 정형적인 樹枝法과 謙齋峻으로 지칭되는 바위며 山岳 묘사에서 우리 산세를 옮기는 과정에서 틀 잡혀진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 ○ 내용 및 특징

중국 10대 명산에 드는 江蘇省에 위치한 廬山은 기이하고 수려하며 험하나 웅혼한[奇·秀·險·雄]의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아름답고 신비한 산으로 불교와 도교의 聖地로 1996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되었다.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그림과 시가 탄생한다. 東晉의 陶潛(365-427)을 필두로 여산을 읊은 시는 수천에 이른다. ‘飛流直下三千尺’으로 잘 알려진 唐 李白(701-762)의 7언절구 ‘望廬山瀑布’와 白居易(772-846) 및 宋 문인 蘇軾(1036-1101)은 이 산을 유람하면서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취해 ‘題西林壁’을 지었는데 그의 삼대선시에 든다.

여산은 周 武王 때 賢者인 匡俗이 작은 집을 지어 은거했으니 무왕이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광속을 관직에 등용하려했으나 집은 찾았으되 인물은 만나지 못해 그가 살던 오두막집이란 의미로 산을 匡廬山이라고 불렀다. 南障山과 匡山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불린다. 여산은 늘 雲霧로 제 모습을 볼 수 없으며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인다. 이에 사물의 정체나 어떤 사람의 태도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전술한 소식의 시구에 있듯 ‘不識廬山眞面目’이라 하며 ‘廬山眞面目’도 여기서 비롯된다.

金剛山을 탐승그림에 畫本風 인물을 등장 시킨 金應煥(1742-1789) 등과 달리 정선이 남긴 진경산수에 등장한 인물은 조선복색이다. 이는 정선의 眞否를 감정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된다. 반면에 정선 또한 젊은 시절 화본을 통해 그림을 익히는 習作 만이 아닌 그 또한 實景山水만이 아닌 한자문화권 동아시아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定型山水도 남기고 있다.

그림의 장소와 주인공이 중국인이거나 이를 우리식으로 전개한 것이다. 마치 국립부여박물관 소재 高麗石佛의 우리 얼굴 예처럼 더 이상 불교 탄생지인 인도나 중국인의 얼굴이 아니듯 이른바 土着化를 잘 반영한다. 이른바 小中華主義를 대변하는 예로도 제시된다 하겠다.

타이베이 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된 五代 後梁(907-960) 荆浩(10세기 전반)의 유작

인 <匡廬圖>는 작품명이 의미하듯 여산을 그린 大景山水이며 張大千(1899-1983)이 <광려폭포도> 등 근대 중국화단에서도 ‘遊廬山’ ‘廬山望瀑’ ‘廬山眞面’ 등 작품명으로 즐겨 그려졌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에서도 詩意圖 범주에서 ‘관폭도’가 정형 산수로도 수차 제작됨을 비록 우리 풍광이긴 하지만 畫本 등을 통해 익힌 觀瀑圖類를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선의 <여산폭포>, 李昉運(1761-1815이후)이 그린 시를 곁들인 동명의 개인소장품의 존재가 이를 입증한다.

### ○ 문헌자료

-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현암사, 1993)
- 최완수, 『진경시대』 1,2(돌베개, 1998)
- 최완수, 「진경고사도」, 『겸재 정선』 3(현암사, 1998), pp.190-235.

### ○ 기타

朴在杓 구장으로 간송미술관에 이관됨.



### ○ 현상 및 특징

화면의 꺾임 에 의해 손상이 산견되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상단 여백에 ‘廬山草堂’이란 화제를 쓰고 ‘謙齋’로 관서했으며, 도인은 찍지 않았다.

북송 백락천의 여산초당 고사를 주제로 그린 산수인물화로, 정선 특유의 필묵법 등을 구사하여 조선풍의 정형산수화를 이룩한 의의를 지닌다.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포개지듯 겹치면서 둥글게 돌아가는 산 봉우리에 둘러싸여 대나무를 배경으로 돌 축대 위에 세운 초당이 한 채 자리 잡고 있다. 초당의 열린 창문 사이로는 붉은 탁자 위에 책과 화병이 보인다. 그 옆에 벽이 없이 터지고 난간이 둘러쳐진 공간에는 인물이 앉아 있다. 정자관을 쓰고 분홍 도포를 입은 인물은 흰 수염이 많은데 옆에는 족자가 놓여 있다. 난간 밖에는 붉은 꽃이 핀 화분과 괴석이 놓여 있으며 그 옆에는 오래된 회(檜) 나무가 비스듬히 뻗어 있다. 초당 뒤로 멀리서 폭포가 쏟아져 내려와 옆으로 흘러내린다. 초당 앞 쪽에는 학 한 마리가 보이고 네모난 연못에 연꽃이 피어있다. 화면 아래 쪽에서는

붉은 붓짐을 막대에 짙어진 시동이 돌다리를 향해 오는 중이다.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廬山草堂 謙齋”라는 묵서가 적혀있다. 현재 그림의 상태 매우 양호하며 색채도 선명하다. 주칠이 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정선(鄭敼, 1676-1759)은 본관은 광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나 증조부 대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의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인 화풍을 선도했다.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별서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선의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敼筆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畫帖)>(보물 제1796호)의 <염계상련>에서 이 작품과 비슷한 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커다란 산봉우리와 나무, 그리고 개울로 둘러싸인 초옥이 축대 위에 서 있고 그 앞에 붉은 연꽃이 피어 있는 네모난 연못이 있는 구도가 공통점이다. <염계상련>은 북송대 유학자였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돈이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으로 유교를 새롭게 변모시킨 인물이며,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성리학의 개조로 여겨졌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만년에 강서성의 여산(廬山)에 염계서당(濂溪書堂)을 지어 제자를 가르쳤기에 염계선생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애련설(愛蓮說)」을 지어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 칭송하기도 했다.

이 주제는 일찍이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염계상련>이라는 시를 남기고 있으며,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인물화 10폭 병풍에 대하여 지은 시에서도 발견된다.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인물화 8폭 병풍에 대한 제시에도 <염계애련(濂溪愛蓮)>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제화시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전기에 이미 주돈이와 연꽃에 대한 이야기가 사안(謝安), 도잠(陶潛), 맹호연(孟浩然), 임포(林逋) 등 다른 인물들의 유명한 고사들과 함께 그림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돈이를 포함한 역대 인물의 행적을 그린 작품은 이후에도 계속 제작되었던 듯하다. 이황(李滉, 1501-1570)이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의 요청으로 인물화 10폭 화첩에 대한 시를 짓고, 정유일(鄭惟一 1533-1576)의 부탁으로 인물화 8폭 병풍에 대한 시를 지을 때에도 <염계애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홍세태(洪世泰, 1653-1725)와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이 남긴 제화시에도 이 주제가 들어 있다. 따라서 주돈이의 연꽃 애호에 대한 이야기는 정선 이전에도 다른 은일자나 유학자들과 함께 꾸준히 그려졌던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돈이 역시 여산으로 은퇴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그곳에서 사망했으며, 조선 전반기부터 꾸준히 그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산초당도> 역시 염계서당을 그린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의 화풍과 서체로 미루어 두 작품의 제작 시기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산초당도>에서 그림의 주제를 드러내는 초당과 연못은 인공적인 것으로 장대한 배경의 산수와 극명하게 구분된다. 커다란 산봉우리와 개울로 외부와 단절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연꽃과 더불어 군자의 성정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둥글게 돌아가는 산봉우리의 표현은 피마준과 미점으로 묘사하여 남종화법을 위주로 하면서도 동시에 갈필 보다는 물기 많고 짙은 먹을 사용하였고 군데군데 정선 특유의 수직찰준을 구사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잘 드러낸다. 구불구불한 윤곽적으로 묘사한 소나무 역시 정선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다. 한편 비교적 거칠고 과감한 산봉우리 표현과 대비되어 초당, 연못, 인물 등은 단정한 필치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최완수의 글에서는 박재표(朴在杓) 구장품이었다가 간송미술관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70대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정선은 진경산수 뿐만 아니라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주제로도 종종 작품을 그렸다. 그중에서도 <여산초당도>는 크기가 매우 크며, 화풍이 단정하고, 주제가 분명히 드러난 예로서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 문헌자료

- 최완수, 『검재정선 3』 (2009)
- 송희경, 「18세기 전반 회화의 새 경향-정선(鄭敼)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畫)의 유형과 표상」, 『한국문화연구』 17호 (2009. 12)
- 조인수, 「정선의 <검재화(謙齋畫)> 화첩 중 고사인물을 주제로 한 그림」, 『사인심취(使人心醉)』 (용인대학교박물관, 2010)



정선 필, <여산초당도>

## 7.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瓶)

### 가. 심의사항

‘청자 음각환문 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청자양이병’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4.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으며, 지정명칭은 ‘청자 음각환문 병’으로 검토되었음.
- 이후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瓶)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2.0cm, 구경 7.2cm, 굽지름 8.0cm
- 재 질 : 청자(토도류)
- 형 식 : 어깨에 손잡이가 달린 금속기 형태의 청자호
- 조성연대 : 12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청자양이병은 유례가 많지 않으며 비록 구연 일부가 결손되었으나 현전하는 양이병 중에서 유색도 뛰어나며 우아한 조형미 등이 돋보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병은 금속기 형태의 양이병을 청자로 옮긴 조형을 하고 있다. 성형은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진 목 부분, 튀어나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기를 흉내낸 흔적에 해당한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원래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동일한 형태의 병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존재 자체가 매우 희귀하며 현재 상태 역시 대단히 좋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병은 당시 최상위 계층에 국한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병의 조형성과 상태, 유색 등으로 볼 때 제작 시기는 인종 장릉 출토품(1146년)과 유사한 시점으로 파악되며, 제작지도 강진의 요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뛰어난 조형성과 희소성 등으로 보았을 때 이 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병과 장식 및 제작방법이 거의 같은 청자주자가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병과 세부 제작과 장식기법 등은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의 병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선문대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유사한 기종들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 병은 강진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분한 유색과 기형, 번조법 등에서 전형적인 12세기 고려청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금속기의 조형을 원형으로 청자로 번안한 고려전기 양식의 전형적인 청자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공예사에서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서 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 현상 및 특징

고려시대 청자 중에는 금속기를 모방한 작품들이 일부 있어 때론 기형 자체가, 때로는 제작기법이 문양의 일부로 스며들며 금속기의 잔영을 남긴 예도 있다.

이 병은 고동기 壺를 조형으로 하고 있는데 제작기법에서도 금속기의 특징이 두드러져 있다. 즉 긴 목과 동체부, 굽을 각각 따로 만들어 성형을 완성한 예는 금속기를 모방한 고려청자 중에서도 희소한 예이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며 서서히 좁아지다 벌어진 긴 목은 동체부에 접합되는 곳에 突帶를 옆으로 붙이고 다시 유려한 선을 이루며 굽에 이르고 있다. 목과 어깨부분에 걸쳐 세로로 붙인 귀는 대칭되는 양쪽에 있는데 윗 쪽에 탑형의 장식을 붙였으며, 아래쪽에는 이중의 원문을 음각하였다. 이중의 원문은 금속기의 고리가 문양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명한 유약은 담록색을 머금은 회청색을 띄며 고르게 유리질화 되었다. 굽은 바깥으로 벌어진 다리굽으로 단정하게 각았으며 접지면에는 유를 훑어내고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이러한 기형은 희소하여 현전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있는데 기형이나 제작기법이 거의 동일하다.

□

## ○ 현 상

이 병의 상태는 제작 당시 거의 완전했던 것으로 보이나 후일 구연부 일부가 살짝 떨어져 나가면서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병은 이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상태에 가깝다. 표면의 유면관찰 결과 구연부 상부나 몸체의 최대동경부분 역시 유면균형 현상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제작 직후 일상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동일한 형태의 병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 음각쌍원문양이병>(『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도판번호 1)이 있으나 이 병에 비해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이 청자병은 길게 뻗어 있는 구연부와 타원형의 길쭉한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과 동체 사이에는 두 개의 고리형 손잡이가 붙어있는 양이병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병 외면의 목과 몸체부분 사이에는 돌대가 돌려져 있는데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안쪽에는 목과 몸체를 붙여 성형한 듯 오목한 흔적이 돌대와 같은 궤적을 따라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돌대의 역할은 접합부를 적절히 양식적으로 보완하면서 이 병이 청동기를 모델로 제작하였음을 느끼게 해준다. 어깨부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손잡이는 단면이 직사각 형태인 점토 띠를 정교하게 다듬어 접합하였고 구부러진 손잡이의 상면에는 부처의 나발과 같은 원추형의 작은 꼭지를 붙여 놓았다. 이 병은 문양이 거의 없으나 각 양 면에 붙은 손잡이의 하단부를 중심으로 두 줄의 이중 음각원문이 묘사되어 있다. 원의 형태는 정교하고 일정하여 컴퍼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특이한 점은 병의 바닥부가 매우 두꺼우며 굽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는 것이다. 굽의 다리 단면은 역사다리꼴을 보이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 병이 전체적으로 금속기를 의식하고 만들었으며 그 과정도 일반적인 물레성형 이후 굽깎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분할 제작으로 성형을 마무리했음을 알려준다. 기벽의 두께는 구연부가 얇은 것에 비해 하단부가 두꺼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을 덮고 있는 유약은 전체적으로 비색을 띠며 전면시유를 하였으나 병의 내면에는 유약이 묻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유색은 매우 고상하고 단정하며 전체적으로 균열이 드문드문 보인다. 접지면은 유약을 닦은 후 여덟 곳에 걸쳐 작은 내화토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1. 돌대, 손잡이 부착상태



그림 2. 굽 시유 및 내화토 상태

## □

### ○ 명 칭

이 유물은 청자양이병(靑磁兩耳瓶)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엄밀히 보면 양쪽에 귀가 부착된 부위 아래쪽으로 동체에 음각의 고리문이 그려져 있음. 따라서 “청자음각고리문양이병”으로 지칭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람.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유사한 기형의 기물에 대해서 청자양이화병(靑磁兩耳花瓶)으로, 리움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청자양이호(靑磁兩耳壺)로 각각 부르고 있어 현행 유물명칭 부여 기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 ○ 현 황

본 청자양이병은 중국 고대 청동기를 모방한 기물로 추정되며 굽 아래 번조받침과 유색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12세기 고려청자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려시대 청자와



그림 3. 청자양이병 전면



그림 4. 음각원문, 손잡이

청동기 등이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장 비슷한 경우로는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알려진 청자주자이다. 이 주자는 간송 소장 양이병과 크기가 거의 같아 간송품의 경우 높이가 22cm, 리움 주자의 경우 21.8cm 이다. 굽높이, 동체의 구조와 형태 등에서 거의 같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에 돌대선을 주른 점도 같다. 특히 돌대선 아래 동체 중앙부 양쪽에 음각으로 원형의 고리문[環紋]이 조각되어 있는 점도 같다. 차이점이라면 간송품의 경우 양측에 대칭으로 손잡이가, 리움 것은 주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중국 고대 청동기에 보이는 양이병 가운데도 동체가 불룩하고 양쪽 귀에 둥근 고리가 걸려 있는 형태의 기물들이 전한다. 한 예로 대만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청동제 수렵문호(전국시대, BCE.475-221, 높이36.6cm)의 경우 동체부 문양 구획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중국 고대 청동기들은 송대에 이르러 수집, 정리되고 감상의 대상이 되면서 『박고도』 등의 圖鑑類에 그림이 수록되었다. 중국에서도 남송대 관요에서 유사한 고리가 입체형으로 부착된 사례가 남아 있다.(中國 浙江省 杭州市文物考古所)

한편, 유사한 양이병으로 음각의 고리문은 없지만 동체에 대칭으로 손잡이가 있고 경부와 동체 경계에 白畫[堆花] 기법으로 점열문을 찍은 병이 있다. 이 병은 굽이 약간 낮고 벌어진 형태이며, 목부분과 저부에 각각 연판문대를 음양각으로 섬세하게 깎고 그 가장자리에 역시 백화점문을 찍은 것이다. 같은 형태에 거의 같은 크기, 문양을 가진 기물이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선문대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의 경우만 양쪽 귀에 입체형으로 고리가 달린 모습이다.

이 청자 병의 형태는 중국 고대 청동기에서 유래된 것이며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었

다고 전해진다. 단정한 화병의 형태와 독특한 무늬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둥근 몸통 아래에는 양각기법으로 연꽃잎 무늬를 이중으로 돌렸고, 각 꽃잎 중앙에는 여의두 무늬가 포함된 특이한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양쪽 귀는 백토를 바르고 유약을 발랐는데 흰 점들과 잘 어울린다. 이들 병은 굽 바닥에 규석받침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문양의 종류와 기법등으로 보아 간송 소장 양이병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병의 용도는 확실치 않으나 청동기 본연의 목적등을 감안하면 의례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청자로 변안되고 변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화병이나 장식품 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청자양이병 관련 사진자료>

		 <p>청자양이병 음각고리문</p>
<p>청자양이병-1</p>	<p>청자양이병-2</p>	 <p>청자양이병 동체부 유면 문침</p>
		 <p>청자양이병 불인 굽</p>
<p>청자양이병-3</p>	<p>청자양이병-4</p>	 <p>청자양이병 구연(부분결실)</p>
 <p>청자주자, 높이21.8cm, 삼성리움미술관 소장</p>		

청동계 수렵문호, 전국시대, 대만고궁박물관		청자양이병, 南宋, 中國 浙江省 杭州市文物考古所
청자양이화병, 2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퇴화여의두문양이호, 23.7cm,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청자양이병, 25.1cm,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 세부특징

목은 원통형으로 올라서서 구연부에서 약간 벌어졌으며 목과 동체의 경계에는 볼록하게 돌대를 돌렸는데, 목부분 내부를 보면 동체와 목부분도 연결하여 붙였으면 해당부위 내부에는 유약이 외부에는 돌대선을 둘러 장식과 기술적 보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체는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두고 둥그스름하게 팽창된 형태이다. 굽은 외부에서 보면 약 1.8cm 높이고 동체를 만든 후 두터운 바닥면에 굽을 따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굽 안바닥부터 높이는 3.2cm 정도로 높은 편이다. 동체와 굽을 별도로 붙이는 방법은 통일신라도기나 고려전기까지의 청자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결부위에 가는 돌대선을 다시 돌렸다.

지정 신청서에서는 굽 저부에 규석반침의 흔적이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실물조사에서 규석반침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높은 굽의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8군데 백색내화토가 섞인 고운모래반침을 받쳐 구웠다.

유색은 전체적으로 비색을 띠며, 동체 아래쪽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빙렬이 있으며 유면 일부에 제작당시 유약이 묻쳐 가늘게 노태된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형태가

유려하며 기벽도 얇은 편이다. 구연부는 가장자리 1곳에 작은 결실 흔적이 있다.

병의 목에서 동체에 걸쳐 대칭으로 2개의 손잡이형 귀가 부착되어 있다. 귀의 정상 부에는 소라형의 장식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다. 동체부에 붙어 있는 귀의 아래쪽에는 음각으로 고리문[環紋]이 얇게 음각되었다. 마치 장식의 입체형 고리를 평면화 한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및 사진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 기념전 도록, 2014)

高裕燮, 『朝鮮の靑瓷』, 東京 寶雲社, 1939, p.72 第34圖.

신 숙,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미술사연구』 25, 미술사연구회, 2011, pp.161-184.

이용진, 「高麗時代 鼎形靑磁 研究」,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pp.153-190.

## 8.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 향로(靑磁 陽刻饗饗文 鼎形 香爐)

### 가. 심의사항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 향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4.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 향로(靑磁 陽刻饗饗文 鼎形 香爐)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17.0cm, 구경 12.0cm, 다리길이 8.0cm
- 재 질 : 토도류
- 형 식 : 도철문양이 압출양각된 금속기 형태의 삼족향로
- 조성연대 : 12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향로는 기형이나 문양까지 거의 동일한 향로편이 강진군 사당리에서 출토된 바 있어 사당리에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청자향로가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몇 점 있으나 이 향로는 원정형향로를 대표할 만하며, 유대 모두 절정기의 수작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병은 금속기 형태의 양이병을 청자로 옹기 조형을 하고 있다. 성형은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진 목 부분, 튀어나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기를 흉내낸 흔적에 해당한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원래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동일한 형태의 병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존재 자체가 매우 희귀하며 현재 상태 역시 대단히 좋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병은 당시 최상위 계층에 국한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병의 조형성과 상태, 유색 등으로 볼 때 제작 시기는 인종 장릉 출토품(1146년)과 유사한 시점으로 파악되며, 제작지도 강진의 요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뛰어난 조형성과 희소성 등으로 보았을 때 이 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전체적으로 비색에 가까운 녹청색의 유조와 섬세한 문양이 수작이다. 구연 일부에 작은 파손의 흔적이 있고, 산화 번조되어 일부 갈색을 띠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같은 향로는 주로 강진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되며 12-13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정형향로는 현전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송대 博古기물의 형태를 예기로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좌표와 도자사적 의의를 동시에 보여준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 현상 및 특징

고려청자 중에는 중국 古銅器의 기형을 모본으로 하는 작례가 한 동안 유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향로는 다른 기종에 비해 다종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는 당시 불교의례용이나 제례용뿐 아니라 玩香用으로 크게 애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향로는 고동기의 원정형향로를 충실히 모방한 예이다. 동체는 원통형으로 바닥은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상부에 상대된 위치에 반타원형의 귀가 붙어 있다. 동체는 중앙에 넓고 깊은 음각 횡선대를 돌려 상하로 나누고, 상하부는 각각 다시 세로로 돌대를 6곳에 배치하여 6등분하였다. 각 구획 내에는 바탕에 雷文이 있는 도철문을 찍어 양각하였는데 主文樣인 도철문은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바닥에는 높은 원통형 다리가 3 곳에 배치하였는데 외측에 음각운문이 있으며 소성시 안으로 다소 물린 듯하다. 맑고 투명한 비색계의 유약은 담청을 머금은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유리질화 잘 되었는데, 아래에 일부 빙렬이 있을 뿐 고려청자 극성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 ○ 현 상

전체적으로 이 향로는 상태가 거의 완전하다. 향로몸체 구연 일부에 미세하게 파손된 흔적과 내벽을 따라 세로로 길게 실금이 가 있으나 이는 유물의 완전성과 완성도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유사한 향로로는 개인소장의 <청자양각도철문삼족향로>(『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도판번호 4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양각도철문향로>(덕수 852), 삼척시 삼화동 고분출토 <청자양각도철문정형삼족향로> 등이 있으나 세부에서 다르며 간송미술관 소장품의 완성도가 더 높은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이 향로는 틀로 찍어낸 향로 몸체에 두 개의 귀와 세 개의 다리를 부착한 정형(鼎形)의 금속향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면에서 관찰되는 향로 몸체는 깊은 음각선의 골에 의해 두툽한 구연부분, 중단의 문양대, 하단의 문양대 등 3단으로 나뉘며, 중단과 하단의 문양대는 각각 세로로 튀어 나온 여섯 개의 돌대를 기준으로 6분할을 하였다. 중, 하단의 문양은 구획된 공간마다 가는 양각의 뇌문(雷文, 또는 回字文)을 배경으로 깔고 중앙부에 두 마리씩의 도철을 두툽하게 표현하였다. 이 향로 몸체는 현대에 와서 유리병을 만드는 것처럼 반쪽짜리 외틀에 점토를 밀어 넣어 형을 뜬 후, 서로 결합해 접합하고 내부를 깎아 깔끔하게 마무리 한 것이다. 기계적인 뇌문과 도철문은 외틀을 사용할 때 함께 찍힌 문양이며 분할된 몸체를 접합한 자국이 향로 몸체 양쪽 측면에 살짝 남아 있다. 다리를 붙인 향로 몸체 하단부에는 양각문양들이 거의 안보이는데 이는 정형과정에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구연부에는 두 개의 반타원형 고리를 붙였으며 몸체 하단에는 원주형의 다리를 붙였다. 고리 외면에는 가는 음각선에 의한 꽃 추정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각 다리

외면에는 매미처럼 생긴 문양이 길게 표현되어 있다.

이 향로는 태토가 치밀한 것으로 보아 잡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면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조는 비취빛을 띤다. 유약 표면에서는 균열이 살짝 보이며 몸체 중앙부에는 중성염으로 인해 회청색을 띠는 부분도 보인다. 다리의 접지면은 내화토를 깔아 구웠을 것으로 추정되나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후대에 바닥을 갈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태토, 유약의 상태 등을 참고하여 조사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강진 사당리요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1. 향로 전면



그림2. 향로 측면



그림3. 향로 내부



그림 4. 향로의 밑바닥과 다리 부분

□

○ 현황

고려는 10세기 이후 중국에서도 향로로 유명하였다. 929년 8월 남당(南唐)으로 광평시랑(廣平侍郎) 장분(張玢) 등 52인의 조공사를 보낼 때 은으로 만든 사자향로 등을 바쳤다고 한다. 『五代會要』 卷30, 高麗) 이 내용이 북송대 백과서인 『책부원귀(冊府元龜)』에도 ‘은향사자(銀香獅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고려도경』에서 서궁도 고려의 숙소에서 본 향로들을 소개했다. 우선 연꽃 봉오리 같은 박산의 모습을 빌어 만든 박산로(博山爐)를 보았다고 한다. 향로 아래에는 분(盆)을 받쳤고 그 위에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파도와 물고기, 용 등을 장식했다는데, 중국과 다르게 고려의 것은 삼족을 붙였다고 했다. 용도는 훈의용(薰衣用)으로서 향로 아래 그릇을 받쳐 끓는 물을 담아 김이 오르면 위쪽에 얹은 향로의 향 연기가 응축되는데 이를 쬐면 옷에 향이 배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로의 기능을 가진 실내용 기물들은 이미 금속기나 청자로 제작되고 있었다. 『고려도경』의 다른 대목을 보면 중국과 고려의 여러 공예품들이 개경 황궁안 공적인 공간에 진설물로 활용되었는데, 서궁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동물 형태를 본 떠 도자기로 만든 수로(獸爐)였다. 회경전 및 건덕전에서 조서(詔書)를 맞이할 때나, 공회때에 각각 사향과 독누(篤耨)·용뇌(龍腦)·전단(旃檀)·침수(沈水) 등을 피우는데 사용했다.

동시기 중국이나 고려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의례는 물론 일상생활, 취미 등으로 향을 애용하였다. 따라서 향을 사르거나 태우고, 향훈을 피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향로가 사용되었다. 청동기의 형태를 본뜬 사각이나 원형의 정형(鼎形)향로, 동물이나 식물을 상형(象形)한 향로, 손잡이가 달린 병향로 등이 있었다. 재질도 금속기외에 청자, 도기 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청자 향로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로의 형태나 문양은 중국 고동기(古銅器)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세기 말 북송으로부터 제기도가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고, 또 『송사(宋史)』에 따르면 휘종(徽宗) 정화7년(1117) 3월 송에서 12개의 변(籩)과 두(豆), 4개의 보와 궤, 1개의 등(登), 2개의 형(銅)과 정, 1개의 췌와 세 그리고 2개의 존을 고려에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송에서 보낸 제기는 1113년에 편찬된 『정화오례신의』에 따라 제작된 제기를 보낸 것이고, 그 모본은 『선화중수박고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靑銅鼎이 유사하다. 북송(960-1127)대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 23cm이다. 상고시대 三代의 예제를 복고하여 만든 것으로 문양은 商代, 기물내부 명문은 周代 것을 본떠 북송대에 만든 것이다.

간송소장 정형향로와 가장 유사한 유물로는 현재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청자가 있다. 높이 18cm로 17cm인 간송 향로와 크기와 구조, 문양등에서 거의 같으나 오사카 청자의 경우 굽는 과정에서 다리가 좀 더 틀어져 휘었다. 그 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도철문향로는 상부의 노신은 간송 향로와 같고

다리만 짧은 조각장식으로 차이가 있다. 그 외에 方形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향로는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는 거의 같아 동시대에 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 사진>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1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2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3	
			
청자항로, 17cm, 일본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靑銅鼎, 23cm, 북송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 18.4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청자양각도철문항로, 13.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도철정형항 로 구연부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 다리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 다리문양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문양1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문양2	청자양각도철정형항로-문양3	

### ○ 세부특징

이 향로의 구조는 노신(爐身)과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노신 구연부 윗면에는 대칭으로 타원형의 귀를 부착했다. 노신과 다리는 별도로 만들어 이어붙였다. 노신의 동체 중심에 가로로 골을 만들어 면을 상하로 분리하고 다시 양각돌대를 중심으로 상하로 각각 6개, 총 12개의 면을 구획하여 그 안에 각각 청동기의 바탕에 들어가는 도철, 혹은 기봉문 등과 바탕에는 回文을 가득차게 배치되었다. 그런데 이들 문양은 모두 압출 양각으로 틀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새긴 것이다. 강진 등지에서 발견되는 파편들의 사례로 보아 앞뒤 2개의 틀을 맞붙여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2개의 귀는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옆면에 각각 음각으로 초화문을 새겨넣었다. 또 3개의 원주형 다리는 속을 비우지 않고 덩어리로 만들었으며 전면에 각각 음각으로 매미문을 새겨넣었다.

다리는 굽는 과정에서 약간 안쪽으로 휘었다. 전체적으로 비색을 띠나 노신의 일부는 산화된 듯 갈색으로 변색되었다. 다리의 바닥면은 일부에 유약이 남아 있으나 3개 모두 유면을 인위적으로 갈아냈다. 노신의 구연 일부에는 위쪽에서 충격을 받아 구연에서 동체, 바닥에 이르기까지 깊게 세로로 균열이 나있다.

### ■ 참고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 기념전 도록, 2014)

이용진, 「高麗時代 鼎形靑磁 研究」,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 『미술사와 시각문화』 18호, 2016.

## 9.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 가. 심의사항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2014년 8월 회수된 도난불화인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1.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1357-9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361.5×294cm, 화면 339.5×283.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49년(영조 25)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용천사 영산회상도>(1749년)는 본지의 규모가 세로 339.5cm, 가로 283cm의 대형급에 속하는 주불전의 후불탱이다. 불화의 조성시기는 화기에 건륭14년(1749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다만 이 불화를 조성한 화승은 알 수 없으나, 화면구성을 비롯하여 불보살상의 온화하고 단정한 얼굴과 신체의 형태, 가늘고 탄력있는 철선묘 기법, 법의에 장식된 섬세한 소형문양,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차분한 색감 등으로 보아 17세기 중엽경 기림사, 통도사, 석남사 등의 경상권역에서 작화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불화 제작을 주도하였던 임한(任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시 된다. 특히,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삼신불도(1759년) 중 석가모니불화와 화풍상 거의 유사하여, 임한 그룹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작품의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화격에 비해 도난이후 원래 축이 잘려져 나갔고 회수되기까지 1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화면 하단부의 본지가 훼손된 상태이나, 화면의 전체적인 도상 파악에는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존처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용천사 영산회상도>(1749년)는 조성시기도 뚜렷하고 18세기 중엽 경상권 불화 연구에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용천사 영산회상도>(1749년)의 화풍은 짜임새있는 화면구성과 단엄한 인물묘사, 섬세한 문양의 표현, 철선묘의 정확한 필선,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채색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이 지역 불화 제작을 선도하였던 임한의 화풍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는 불화이다. 도난되고 회수되기까지의 15년의 시간동안 하단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화면의 도상과 양식 파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가 확실하여 18세기 중엽 경상도 지역 불화 연구에도 기준작의 하나가 되므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하단에 남아 있는 화기를 통해 1749년에 그린 영산회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 18세기 전반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다만, 화면의 하단과 녹색 안료 부분이 손상이 심하여 수리되거나 개칠되었다는 점과 정확한 작자를 알 수 없는 점이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화면의 구성과 필치, 설채법, 인물의 묘사력은 뛰어난 편이다.

특히 키형 광배를 등지고 앉은 석가모니불의 당당한 형태, 약간 길쭉하게 늘어진

얼굴에 세필로 오밀조밀하게 표현된 이목구비, 짙은 적·녹색이 강한 대비를 이루는 설채법, 원형소용돌이운문 등 세부에 묘사된 각종의 문양,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웅기종기 이야기를 하듯이 정겹게 에워싸고 있는 권속들의 배치와 표현방식은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년)나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년) 등 임한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작품과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이 불화도 임한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이 그림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비록 작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1749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대웅전의 후불벽면에 봉안되었던 규모가 큰 불화이고, 작품성도 뛰어난 이 1750년을 전후한 시기를 대표할 만한 불화로 평가된다. 특히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수 많은 권속들을 등장시켜 웅장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짜임새 있는 구도와 세련된 필치로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비록 화승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조성시기와 주제가 영산회상도로서 확실하고, 화풍상 ‘임한’ 과의 관련성 파악에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화면 하부에 훼손이 엿보이고 부분적으로 가채가 되어있다고는 하더라도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단정하고 치밀한 상들의 묘사, 섬세한 문양 표현, 일정하고 고른 필선, 적·녹색 위주에 밝은 피부색과 장식성 강한 문양 표현 등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 화승 ‘임한’ 화풍을 보여주는 불화로서 작품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에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화 기

화면 하단 향우측 가장자리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박락과 인위적인 절단으로 인해 전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중앙 화기(주색 바탕에 묵서) \* ○박락, [ ]절단**

「乾隆十四年己巳○○  
安于靈山會□□尙左道[ ]  
○府[ ]  
[ ]大雄殿  
施主秩  
婆蕩彩色供養布施○  
辯大施主嘉善大夫智○  
願以此功德往生淨刹之」

**○ 현 상**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경북 청도 용천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2000년 5월 30~31일 사이에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화기에 봉안처가 인위적으로 지워졌으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정보>에 의해 경북 청도 용천사 대웅전 후불탱화로 확인되었다. 화면 크기는 세로 339.5cm, 가로 283cm이며, 가로 폭은 62cm 내외의 비단 5폭(62.2+62.0+62.5+62.5+44.5cm)을 이어 구성하였다.

본 불화는 도난 이후 개채와 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왼쪽 하반부의 보살과 천왕상 부분에 얼룩 흔이 보인다. 특히, 화면 하단의 상당부분은 본지가 박락된 상태로, 배접지 위에 전체적으로 갈색을 바른 뒤 보살과 천왕상의 발과 천의자락, 연화족좌 등을 그렸다. 사천왕의 갑옷 및 광배 부분 등도 일부 개채된 상태이다. 화기는 화면 우측 하단에 주색 바탕에 먹선의 방형란에 묵서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화기 중 봉안 사찰명은 고의로 삭제되었으며, 화기 하단부도 개채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불화이다. 화면 중앙에 본존 석가모니가 크게 자리하고 좌우로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는 군도식 구도로, 조선후기 영산회상도의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이중연판형 광배에 싸여있는 본존과 이에 비해 작게 그려진 권속들을 통해 본존의 위격을 강조하고 있다.

본존 석가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의 착의법에 오른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고, 왼손은 복전(腹前)에 둔 상태이다. 본존의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과 넓은 가슴은 당당하면서도 온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두부는 지발위에 중간계주를 장식하고 완만하게 솟은 육계에는 정상계주를 두었다. 법의는 녹색 승각기와 군의를 착용하고 붉은 가사를 걸쳤다. 가사는 주색 바탕에 백색으로 원형의 주문양을 배치하고 주변에 소형의 와형화문을 흠뜨려 장식하였으며,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보상화계 연속당초문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처럼 불보살상의 얼굴과 신체의 형태, 두부의 계주모양, 법의의 섬세한 문양, 가슴에 군의 끝단을 주름으로 표현한 점 등은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삼신불도(1759년) 중석가모니불화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연판형 광배의 형태, 광배 가장자리의 금강저 장식띠와 연주문 띠, 가장 외곽의 화염문 띠 등과 같은 장식은 비로자나삼신불도 가운데 비로자나불의 광배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좌우 협시보살의 자태, 얼굴모습, 천의의 주름과 채색 역시 비로자나불화를 그린 화승과 동일인의 화풍으로 보인다. 이같은 요소는 사천왕상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팔부중 등 권속들도 배치만 조금씩 다를 뿐 통도사 비로자나삼신불도와 같은 양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양식은 1720~60년에 기림사, 통도사, 석남사 등의 경상권역에서 작화 활동을 한 임한(任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시 된다.

본 불화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짜임새있는 화면구성을 비롯하여 온화하고 단정한 안면묘사, 가늘고 탄력있는 철선묘 구사, 소형문양의 섬세한 표현,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차분한 색감 등 임한의 화풍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화사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화풍상 임한 그룹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참조도판>



□

○ 현 상

화기에 봉안처가 인위적으로 지워졌으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정보>에 의해 경북 청도 용천사 대웅전 후불탱화로 확인되었다. 2000년 5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도난되었으며, 2014년 8월 회수되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화면은 폭이 62cm 내외인 비단 5폭(우측 끝은 44.5cm)을 이어 구성하였다.

도난 이후 改彩와 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하단부분을 제외하면 상태는 양호하지만 하단부에는 바탕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보수시 배접지에 직접 칠을 한 곳도 있다. 화면의 왼쪽 하반부의 보살과 천왕상 부분에 얼룩이 있고, 하

단부는 바탕지가 손상되었는데 특히 보살과 천왕상의 발과 천의자락, 사천왕의 갑옷, 광배 부분 등은 개채되어 있다.

화기는 보편적으로 화면 하단에 가로로 길게 기록하는 형식과는 달리 화면 우측 하단에 방형의 곁을 만들어 기록하였는데, 형태도 이례적이고, 내용도 매우 간략하다. 봉안사찰명을 고의로 지웠으며, 金魚 등 緣化秩 관련 내용도 없다.

## ○ 내용 및 특징

본존이 중앙에 크게 자리하고 좌우로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는 조선후기 영산회상도의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높은 대좌 위에서 二重蓮瓣形(일명 키형) 광배에 싸여있는 본존과 이에 비해 현격하게 작게 그려진 권속들, 상부로 올라갈수록 크기의 변화를 준 모습들은 본존의 위엄을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본존은 당당하면서도 온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상의 얼굴과 신체의 형태, 두부의 정상과 중간의鬘珠모양, 가사의 섬세한 문양, 가슴에 균의 끝단을 주름으로 표현한 점 등은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삼신불화(1759년) 중 석가모니불화와 거의 동일한 화풍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연판형 광배의 형태와 외연에는 화염문, 내면에 金剛杵帶와 連珠文帶를 돌린 점은 비로자나삼신불화 중 비로자나불상의 광배와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 또한 좌우 협시보살의 형태, 얼굴모습, 천의의 주름과 채색 역시 비로자나불화와 동일인의 화풍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사천왕상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팔부중 등 권속들도 배치만 조금씩 다를 뿐 통도사 비로자나삼신불도와 같은 양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양식은 1720년경부터 1760년에 이르는 40여년간 기림사, 석남사, 통도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任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함을 직감하게 된다.

짜임새있는 화면구성과 단엄한 인물묘사, 치밀하고 섬세한 문양의 표현, 철선묘의 정확한 필선,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채색법 등 임한의 화풍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며, 특히 같은 임한의 작품이지만 통도사 영산전 석가모니후불탱(1734년) 같은 18세기 전반기 불화 보다 채도가 낮은 통도사 비로자나삼신도와 유사성이 더 강하다.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제작 화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화풍상의 특징으로 보아 임한 혹은 그의 유파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화기

乾隆十四年己巳■■■

安于靈山會□□尙左道■

□府■■■■■■■■■■

■大雄殿」

施主秩」

婆蕩彩色供養布施□

辯大施主嘉善大夫智□

願以此功德往生淨刹之

□

###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원래 경상북도 청도 용천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화로, 2000년 5월 30일경 되난되었다가 2014년 8월에 회수되었다. 하단에 남아 있는 화기에는 건륭14년(1749년, 영조25)에 그려진 영산회상도임을 밝히고 있고, 봉안 사찰은 인위적으로 지운 흔적이 역력하다.

화면은 모두 5폭의 견을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견의 폭은 대략 62cm정도이다. 상·하측은 도난 과정에서 잘려 나가 분실된 것으로 생각되며, 화면의 하단 부분은 손상이 심하여 최근에 수리된 것으로 생각되며, 광배와 천의 등 비교적 손상 속도가 빠른 녹색계통의 안료에서도 산화와 박락이 심하여 수리와 개칠 흔적이 확인된다.

화면의 구성은 두 장의 꽃잎을 붙여 이룬 키형 광배를 배경으로 편단우견의 석가모니불을 화면의 중심에 크게 부각시켜 두고, 그 상하좌우에 설법을 듣거나 찬탄하거나 도량을 옹호하는 여러 보살, 천왕, 나한, 신중들을 질서정연하게 둘러싸고 있는 구도를 취하였다.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 인물의 크기를 아래에서부터 점차 줄여가는 상승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취하였고, 하늘과 인물 사이의 공간에는 상서로운 채운을 그려 넣어 종교적 긴장감을 고양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어깨는 넓고 가슴은 듬직하게 표현하여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18세기 전반기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좌우협시는 석가여래의 무릎 아래 쪽 좌우에 연화족좌를 딛고 섰는데, 좌협시는 여의를 우협시는 연봉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고, 화려한 천의를 걸쳤다. 천의에는 화문 등 각종 문양이 시문되었고, 작은 얼굴에 건장하고 늘씬한 형태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 위로 얼굴이 드러나도록 상호 엇갈리게 6대보살, 제석·범천, 아난·가섭 등 10대 제자, 2구의 벽지불(또는 타방불), 용왕·용녀, 건달바·야차, 팔금강이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보살상의 상호는 우아하고 원만하게 표현하여 종교성을 충만하였고, 사천왕상과 신장들은 역동성 있게, 10대 제자는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였다. 화면 하단 좌우측 끝 상하로 배치되어 도량 옹호의 임무를 맡은 사천왕상은, 시계방향으로 북방 다문천왕(합장인), 동방 지국천왕(보검), 남방 증장천왕(용과 여의주), 서방 광목천왕(보탑)으로 배치되었는데, 특히 주로 좌측 상단에 배치되어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상은, 이곳 다문천왕은 합장인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1734년에 그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에서도 같은 양상이며, 1759년 대광명전

삼신불도에서는 비파의 다문천왕이 등장하여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듭할 수 있다. 사천왕상은 사방으로 눈을 굴리며 도량을 옹호하고 있으며, 입체적인 표정과 더불어 수염의 세밀한 붓 터치에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들 갑옷에는 고분기법으로 사용하여 갑옷의 강한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여백을 메우고 있는 채운(彩雲)은 황갈색 기본 바탕 위에 붉은 색으로 색 바림하고, 톱니처럼 둥글린 가장자리를 흰빛으로 포인트를 주어 도량의 신이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이 불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권속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화면의 구성이 도식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고 도상간의 유기적인 결속력이 돋보여 긴밀한 짜임새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색채 역시 이시기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적·녹의 강한 대비를 바탕으로 하여 밝고 따사로운 중간 색조를 두루 사용하여 온화한 화취를 불어 넣었다. 선묘는 굵고 가는 선과 여러 가지 채색 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가는 먹 선은 주로 육신(肉身)의 윤곽선에 사용하였고, 열고 굵은 먹 선은 옷 주름 등 다소 덜 세밀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 사용하였다. 녹색, 백색, 주색 등의 색선은 입체적인 효과나 강조가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었으며, 선의 흐름도 머뭇거리기 없이 유려하며, 선의 끊고 맺음도 분명하다.

이 불화에서 보이는 구도와 채색, 필선, 인물의 묘사력 등은 18세기 전반기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통도사 등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명성을 떨친 임한과의 화취가 짙게 베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임한은 1718년 기림사 대적광전 삼신불도와 1727년 해남 미황사 괘불도 제작시 천오(川五)의 탁행(託行)의 보조회원으로 참여하여 화승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1759년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간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화사이며, 현재 의견에 비견되는 조선 후기 불화계의 대표적인 화승이다.

<화기>

乾隆十四年二四五月日

安于靈山會慶尙左道大

丘府■■■■■■■■■■

■大雄殿

■■施主秩

婆蕩彩色供養布施獨

辨大施主嘉善大夫智□

□以此功德 往生淨刹之

□

## ○ 현 상

본래는 용천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2000년 5월 30일~31일 사이에 도난되었으며, 2014년 8월 회수되어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에서 보관하고 있다. 화면은 모두 다섯 폭으로 62.5cm~62.0cm 규격의 4폭과 44.5cm 규격의 한 폭을 이어 구성하였다. 하단부의 훼손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화면 오른쪽(향좌측) 하반부의 보살상과 사천왕상 얼굴부분에 얼룩이 보인다. 그리고 보살상과 사천왕상의 발과 천의자락, 사천왕상의 갑옷, 광배 등에부분적으로 개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화기는 화면 좌측 하단부 구석에 남아 있는데 봉안 사찰명이 지워졌으며, 화승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 ○ 내용 및 특징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문수·보현보살상을 위시한 8보살상을 비롯하여 제석천과 범천 및 사천왕상, 타방불과 십대제자상 및 팔금강과 2대신, 용왕·용녀 등의 권속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에워싸듯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군집도식 영산회상도이다.

화면 중앙의 수미단 위 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본존불상은 右肩偏袒에 降魔觸地印을 짓고 있는 석가불상으로 적색 大衣에 유난히도 흰 피부를 하였으며, 큼직한 2단2엽형 키 모양 광배를 구비하여 신체의 장대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턱이 각지지 않고 둥글어진 원만형의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단정하며, 팽이 모양의 육계가 솟아 있는 머리에는 半圓形 中央髻珠와 球形 頂上髻珠가 갖추어져 있다.

권속들 가운데 팔보살상 및 사천왕상을 제외한 권속들의 경우 본존불에 비해 작게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의 변화를 주어 상승효과와 함께 본존불의 위엄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본존불상의 얼굴과 건장하면서도 둥글어져 부드러운 신체 형태, 중앙계주와 정상계주 모양, 大衣 몸체와 단에 그려진 문양, 군의 끝단에 주름을 잡아 표현한 점 등은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삼신불도(1759년) 중의 석가모니불화와 유사한 화풍을 보인다. 그리고 광배의 2단2엽형 형태와 광배 테두리의 화염문, 테두리 안쪽으로 장식한 金剛杵와 連珠紋帶는 비로자나삼신불도 중 비로자나불도 본존불상의 광배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좌우로 배열되어 있는 협시보살상 및 보살상들의 얼굴 형태, 천의 표현과 채색, 팔부중 등 권속들 또한 통도사 비로자나삼신불도 중 비로자나불도와 동일한 화풍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식 특징은 1720년~1760년경 기림사, 석남사 통도사 등의 경상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대표적 화승 ‘任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단정하고 치밀한 각 상들의 묘사, 섬세한 문양 표현, 일정하고 고르게 사용한 필선, 낮은 채도의 적·녹색 위주에 밝은 피부색과 장식성 강한 문양 표현 등은 임한의 화풍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특히 ‘임한’의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통도사 대광명전의 비로자나삼신불도(1759년)와 유사성이 강함을 볼 수 있다.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화기 중의 ‘건륭십사년기사□□안우영산회□□상좌도□□□□대웅전…’라는 내용으로 보아 건륭 14년인 1749년 영산회상도로 조성하였으며, 대웅전에 봉안하였음이 파악된다.

[화기]

乾隆十四年己巳□□  
 安于靈山會□□尚左道□  
 □府□□□大雄殿  
 施主秩  
 婆蕩彩色供養布施□  
 辯大施主嘉善大夫智□  
 願以此功德往生淨刹之



그림1.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1749년

## 10.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 가. 심의사항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2014년 8월 회수된 도난불화인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1.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비사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 590(박곡리 794)
- 수 량 : 1폭
- 규 격 : 407×311.7cm(전체), 336.2×293.6cm(화면)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686년(숙종 12)
- 제 작 자 :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尙明)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년)는 본지 규모가 세로 348.2cm, 가로 301.3cm에 이르는 대형급에 속하는 후불탱이다. 부분적으로 박락흔이 보이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영산회 설법회에 등장한 다양한 도상, 본존을 비롯한 권속들의 짜임새있는 구성, 안정된 화면구도, 단정하고 온화한 안면 묘사, 적·녹색 위주의 안정된 색채, 장식성이 강한 채운 표현 등을 통해 화격을 갖춘 대웅전 주불전의 후불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기 내용을 통해 1686년(숙종12)에 조성되었고, 화승은 수화승 海雄을 비롯 義均, 顯瑄, 尙明比丘 등 총 4인이 관여하였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해웅에서 의균으로 이어지는 계보 연구는 물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팔공산화파의 대표 화승 의균의 화풍 및 화맥을 밝히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지닌 불화이다. 게다가 17세기 주불전의 영산회후 불탱으로서는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1년, 보물 제925호),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693년, 보물 제578호) 사례만이 전존한다. 이에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큰 화면에 많은 존상들을 표현하였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작게 그려지고, 상단의 팔부중 등이 거의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화면이 가로로 확산되는 듯하여 화면이 더욱 장대해 보인다.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단정한 인물묘사,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 밝고 안정감있는 색감 등 수준높은 화풍과 품격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17세기 후반기 경상도 지역 불화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주불전의 영산회상도는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1년)와 여수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693년) 정도만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17세기 불화로서는 매우 귀한 후불화일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고, 화풍도 우수하여 당대의 기준작이 될만한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 의균화파의 양식적 계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재건불사가 한창 진행되었던, 17세기 대에는 불교 미술의 중흥기라 할 만큼 조각·회화·공예 등 종교예술 분야에서 많은 예배존상품이 제작되었다. 주불전의 후불화는 불상 제작에 뒤이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형 재의례(齋儀禮)의 유행으로 인하여 괘불

탱화에 그 순위가 밀렸던 까닭으로, 17세기에 제작된 대형의 후불탱화는 희소성이 있어 의미가 크다.

이 불화는 도난과정에서 봉안장소를 기록한 화기 내용이 일부 훼손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 부분도 『불교문화재도난백서』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여 다행스럽다. 무엇보다도 불화연구에 중요한 강희 25년 병인 6월에 제작하였다는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靈山會幀’이라는 그림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영산회상도 도상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그림을 그린 주체는 海雄을 비롯하여 義均 顥瑄 尙明 등인데, 수화승 해웅의 유일한 작품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 그의 화풍이 의균 등 팔공산 화파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 17세기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산화(酸化)가 쉽게 되는 녹색안료 부분과 손상된 박락된 일부의 안료에서 후대 수리하는 과정에서 개칠된 흔적이 있는 대목은 아쉽지만, 원본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작품성을 크게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불화는 17세기 후반의 양식적 특징과 수화승 해웅(海雄)의 도상과 양식, 그리고 팔공산 일대에서 크게 활동한 의균 화파로의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불화라고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1686년으로 조성시기가 분명하고 ‘해웅’ 등 조성에 참여한 화승들 또한 명확할 뿐만 아니라, 1653년 구례 화엄사로부터 1699년 이후 1724년에 이르기까지 팔공산의 대표적인 화파인 ‘의균’ 과의 계보파악과 화풍 연구에 있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자연스러운 인물 묘사, 적·녹색 위주의 안정된 색채에 장식성 강한 문양 표현 등 화풍에 있어서도 18세기 경상지역 불화 화풍을 선도하는 대표적 불화라고 하겠다. 이에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화 기

화면 하단 중앙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몇 글자는 박락으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화기(주색 바탕에 묵서) \* ○박락

「康熙二十五年丙寅六月日○○

○○○靈山會幀奉安

後排施主朴岩懷 兩主

婆幀施主旺禮 保体

錦布施主金召吏 保体

眞粉施主金山春 兩主

囊纓施主安士先 兩主

布施主朴應念 兩主

婆幀施主何河伊 兩主

灯燭施主黃莫今 兩主

三祿施主朴士弘 兩主

鄭○今 保体

後排施主朴莫五 兩主

供養施主金石弼 兩主

幀絲施主盧召吏 保体

布施主李小崑伊 兩主

眞絲施主柳巳介 兩主

眞~~困~~施主性倫 兩主

明鏡施主張戒丹 兩主

供養施主李銀一 ○○

緣化秩

證明克勤 比丘

持殿一清 比丘

畫工海雄

義均 比丘

顯瑄

尙明 比丘

供養主 性訥 比丘

幸安 比丘

別坐 戒坦 比丘  
化主 清海 比丘  
朴淨好 ○○」

## ○ 현 상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경북 청도 대비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1988년 12월 24일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삼베바탕에 채색을 베푼 족자 형식의 불화이다. 본지 규모는 세로 348.2cm, 가로 301.3cm 크기로 대형급에 속하는 후불탱이다. 가로 폭은 삼베 9폭(21.3+35.1+37.8+37.5+37.6+37.3+38.6+35.4+20.5cm)을 이어 화폭을 형성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녹색 광배를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안료의 박락이 확인된다. 화면 하단 중앙에 마련된 주지묵서 화기는 잘 남아 있으나 봉안처 관련 정보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범화경을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불화이다. 화면 중앙에 설법 교주인 본존 석가가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그 앞쪽에 좌우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이 본존을 향해 반측면으로 시립하고 있다. 이어 그 주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살 6위, 범제석친, 사천왕, 십대제자, 벽지불, 금강역사4위, 팔부중, 용왕과 용녀 등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에워싼 군도 형식이다. 그리고 최상단 가장자리에는 타방불이 강림하는 모습이다. 도상들의 그룹간에는 홍색과 황색, 녹색 채운이 경계를 이루며 존격을 구분짓고 있다. 특히 커다란 연판형 광배를 갖춘 석가가 향마촉지인의 모습으로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을 크게 부각한 반면, 이에 비해 주변의 권속들은 작게 그려 본존의 위격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존 석가는 오른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향마촉지인을 취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해 복전(腹前)에 둔 상태이다. 본존의 육신은 황백색을 발랐으며, 얼굴은 이마의 너비에 비해 아래쪽으로 갈수록 뺨과 턱부분이 가름해지는 형태이다. 가는 눈썹은 반달형이고 눈도 가늘고 입술은 작게 표현하여, 단정하고 원만한 존용을 갖추고 있다. 두부는 지발에서 삼각형 모양의 육계가 봉긋 솟았고, 정상에는 둥근 계주를 장식하였다.

본존의 법의는 승각기와 편삼, 군의, 가사를 착용하였다. 붉은색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반만 덮은 반단식 표현이며, 편삼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흘러내린 일종의 탈착의 형태로 조선후기에 한 갈래로 보이는 착의 형태를 하고 있다. 붉은 가사는

주색을 바른 뒤 백선으로 날개모양 이중원권원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흘뜨려 장식하였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형상의 날개 문양은 아마도 박쥐(蝙蝠) 날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장식 문양이다. 이 원문은 수화승 의균(義均) 그룹 불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문양으로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년)을 비롯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1699년), 동화사 금당 아미타도(170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팔공산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등을 들 수 있다.

좌우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은 여의 혹은 연꽃가지를 쥐고 본존을 향해 반측면으로 향해 시립하였고, 나머지 보살 6위는 정면향 2위, 반측면향 4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면향의 관음과 세지보살은 본존의 얼굴 표현기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도상들의 그룹간에 경계를 지우며 활용된 홍색과 황색 채운을 보면, 마치 지화(紙花)처럼 도안화된 장식 꽃처럼 표현하였으며, 게다가 채운의 가장자리에는 백색으로 휘를 넣어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란에 기술된 화기내용을 보면, 봉안처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외 조성시기를 비롯 소임승 및 제작자에 대한 정보는 잘 남아 있다. 본 불화는 강희25년 즉, 1686년(숙종12) 병인 6월에 조성되었고, 당시 화승은 수화승 海雄을 비롯 義均, 顯瑄, 尙明比丘 등 총 4인이 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화승 해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청도 적천사 괘불(1695년)에 수화승 상린(尙璘)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다. 그런데 본 불화는 해웅에 이어 의균이 등장한다. 의균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팔공산화파의 대표 화승으로 그의 화풍 및 화맥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외 화기 내용에는 시주질에 다양한 시주 품목이 열거되어 있어 당시 시주물목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참조도판>



도1. 대비사 영산회상도(1688년) 전도



도2. 영산회상도 본존



도4. 영산회상도 본존 법의 문양



도4. 영산회상도 화기부분

□

○ 현 상

경북 청도군 금천면 벽곡리 794에 위치한 대비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 도난되었으며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불화의 바탕은 폭이 35~38cm 내외의 삼베 9폭(좌우 끝단은 21.3, 20.5cm)을 이어서 마련하였다. 본존 광배의 녹색 안료가 탈락되어 가채되었고, 대좌의 적색 등 일부에 가채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화기는 봉안처를 의도적으로 지웠으며, 일부 얼룩지긴 하였으나 조성 시기와 제작에 관한 정보는 파악할수 있다. 康熙 25년(1686) 丙寅 6월에 ‘靈山會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수 있다.

○ 화기

康熙二十五年丙寅六月日■■■■

■■■■靈山會幀奉安

後排施主朴岩懷	兩主
婆幀施主旺禮	保體
錚布施主金召吏	保體
眞粉施主金山春	兩主
囊纓施主安士先	兩主
布施主朴應念	兩主
婆幀施主 何河伊	兩主
灯燭施主黃莫今	兩主
三祿施主朴士弘	兩主
鄭□今	保體
後排施主朴莫立	兩主
供養施主金石弼	兩主
幀絲施主盧召吏	保體
布施主李小崑伊	兩主
眞絲施主 已芥?	保體
眞楮施主性倫	兩主
明鏡施主 張戒丹	
供養施主 李銀一	
緣化秩	
證明 克勒	比丘
持殿 一清	比丘

畫工 海雄  
       義均 比丘  
       顯瑄  
       尙明 比丘  
 供養主 性訥 比丘  
       幸安 比丘  
 別座 戒□ 比丘  
 化主 淸海 比丘  
       朴淨好? ■■

(□ 혹은 ?표시글자는 불확실한 글자, ■는 식별 불가능한 글자)

### ○ 내용 및 특징

가로와 세로 모두 3미터가 넘는 대형 불화로,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한 전형적인 조선후기 영산회상도이다. 문수와 보현을 비롯한 8보살, 범·제석천, 십대제자, 사천왕이 본존 좌우로 시립하고 있고, 상부에는 타방불, 금강역사, 팔부중, 용왕과 용녀가 비교적 작게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본존은 降魔觸地印을 취하고 뒤로 큼직한 蓮瓣形 舉身光을 지고 있는데 이 광배는 외연부터 火焰文, 瓔珞文, 花文이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본존의 적색 法衣에는 흰색으로 소용돌이무늬가 그려진 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사 영산회괘불(1653년),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1699), 동화사 금당 아미타불화(국립중앙박물관소장, 1703년),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등과 같은 義均派 불화의 전형적인 문양이며, 보살의 천의에도 국화문 등 꽃무늬가 시문되었다. 보살의 뺨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윤곽이 비교적 둥글고, 눈썹과 인중과 턱에 표현된 독특한 수염과 단정하고 엄숙한 표정 등도 의균과 불화 양식의 한 특징으로 볼수 있다. 적·황·녹색이 비교적 밝은 톤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안정감있는 색감을 보여준다.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1686년 海雄을 수화승으로 義均, 顯瑄, 尙明의 4인이 조성하였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八公山畫派의 대표적인 화승 義均이 수화승 海雄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 의균 화풍의 연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본존을 비롯한 존상의 얼굴은 동화사 아미타불화(1699년)의 불보살 등과 매우 유사함을 직감할수 있다. 참고로 화승 海雄은 청도 磻川寺 괘불(1695년)에서 수화승 尙璘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으며, 적천사 괘불 조성에도 참여한 智英과 尙明은 의균과도 함께 작업하였고, 대비사 영산회상도의 증명인 克勤은 적천사괘불에서도 증명을 맡았다.



###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원래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에 소재한 대비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에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에 회수된 불화이다. 화면 하단 중앙 붉은 바탕에 먹으로 기록한 화기에는 봉안된 사찰명을 의도적으로 지웠으나, 제작시기와 경제적 뒷받침을 한 시주자, 불사에 직접 간여한 연화질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많이 퇴락되었지만 확인 가능하다. 이 불화는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의 회상을 그린 <영산회상도>임을 화기를 통해 도상적 전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화면은 모두 9폭의 삼베를 바느질로 이어 붙었는데, 화면의 중심은 35~37.5cm가량의 폭이며 좌우 가장자리는 20cm정도의 폭을 지니고 있다. 화면에 등장인물은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를 비롯한 5여래, 양대협시, 제대보살, 제석·범천, 십대제자, 타방불, 사천왕, 팔부중, 팔금강, 시방제불 등 영산회상의 주요 권속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어 도상 구성의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불화의 제작은 극근(克勤)을 증명으로 하여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顥璲), 상명(尙明) 등 4명의 불화승이 참여하였다. 증명 극근은 1695년 적천사 괘불 조성 때에도 증명을 맡았다. 수화승 해웅은 이 작품 이전에 활동 상황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며, 이 작품보다 9년 뒤에 제작된 청도 적천사 괘불도에 상린에 이어 차화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당시에는 상당한 수준과 화격을 갖추었던 불화승으로 추정된다. 차화원 의균은 팔공산 화파를 이끈 대표적인 화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 이어 1699년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도를 수화승으로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후 1703년 동화사 중전 아미타설법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07년 파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 1708년 포항 보경사 괘불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을 주도하였다. 상명은 이 작품 외 1695년 적천사 괘불도 제작에 참여하여 상린을 도왔고, 1699년에는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설법도 제작에 참여하여 의균을 보조하였다.

녹색으로 칠해진 광배와 천의 등은 안료의 특성상 바탕재질을 손상시키며 박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녹색계통의 안료가 손상이 많고 특히 새로 개장되는 과정에서 개칠되었다. 이외 다른 채색 안료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구도가 짜임새가 있으며, 색채는 대체로 명도가 높은 중간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를 크게 그려 중심을 잡고, 그 주위에 권속들을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석가여래는 불꽃이 타오르는 꽃 잎형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대좌 위에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결가부좌 하였다. 공중에는 봉긋 피어난 연꽃으로 이루어진 천개가 아늑하게 감싸주고 있으며, 계주에서 발한 서광은 파배기처럼 꼬아 쇠코결련문으로 매듭지은 다음 다시 두 갈래로 뻗어 나갔으며, 이 빛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가닥은 천공으로, 다른 한 가닥은 천개를 휘감았다.

본존 석가여래는 적색의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를 살짝 드리운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대의의 표면 원(圓) 안에 회오리처럼 회전하는 구름문을, 옷깃에는 역동적인 연화당초문 백색으로 시문하였다. 가사의 회오리 원문은 의균이 수화승으로 그린 <대구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1699년, 보물 제1610호)나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보물 제1214호)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여 같은 유파 내에서의 도상의 전승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뺨어 내려 축지인을 결한 오른손은 약지와 소지 사이를 약간 벌려 특색이 있는데, 이러한 축지인의 형태도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4년)에서 비롯되어, <청원 안심사 영산회괘불도>(1652년), <연기 비암사 영산회괘불도>(1657년),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1649년) 등 17세기 불화의 축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손짓이다.

석가여래의 무릎 아래쪽 바로 좌우측에는 양대 협시인 문수·보현보살을 두었고, 그 옆쪽 위아래로 비파(북)·보검(동)·용(남)·보탑(서)을 든 사천왕상을 시계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양대 협시보살 위쪽에는 6대보살을 비롯하여 제석·범천, 10대 제자, 4구의 여래, 팔부중, 팔금강, 시방제불을 조금씩 크기를 줄여 상승감 있게 연출하였다. 보통의 불화에서 시방제불은 화면 상단 좌우측에 각5구의 구름을 타고 도량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되던 것이 이곳에서는 둥근 원안에 3구씩 축약하여 표현되었다. 1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상주 용흥사 아미타여래설법도에서도 확인된다. 아마도 17세기 후반기에 특정 화파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벽지불의 표현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즉 여래의 머리를 단발 펴 형태로 늘어뜨린 점이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17세기 작품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고,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와 1742년 불영사 영산회상도, 1744년 직지사 영산회상도 등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月을 든 과장된 근육질의 아수라와 팔부중의 모습은 18세기 불화에 등장하는 팔부중의 도상적 전거(典據)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석가여래와 무릎 아래쪽으로 자리 잡은 협시보살과 사천왕상의 도상과 배치 구도는 차화원으로 참여한 의균의 작품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의균이 이와 같은 초본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동안 미궁으로 남아 있던 팔공산 화파의 대표적인 화승인 의균의 화풍의 형성 과정과 사승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불화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7세기 광배는 대체로 두 장의 꽃잎을 연결한 키형 광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이곳에서는 단판의 꽃잎형 광배를 보인다. 이러한 광배는 이 작품의 차화원이었던 의균이, 이후 수화승이 되어 그린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1699), 동화사 아미타설법도(170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파계사 영산회상도(1708년) 등에도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불화는 기본적으로 명·채도가 높은 밝고 산뜻한 적·녹색의 강렬한 대비를 바탕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중간 색조를 잘 어우러지게 설채하여 품위 있는 화격을

보여준다. 중간 색조의 밝고 온화한 색감, 화려한 문양으로 장엄된 화염 꽃잎형 광배, 둥근 원 안에 시방제불을 표현, 약지와 소지를 조금 벌려 뺀어 내린 축지인, 두 손을 들어 연꽃을 잡은 좌협시 보살상의 형태, 둥근 톱니모양의 구름의 가장자리를 따라 흰색을 칠하여 분위기를 고조한 기법 등에서 작가의 개성과 시대적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내었다.

<화기>

康熙二十五年丙寅六月日」

■■■ 靈山會幀奉安」

後排施主朴岩懷 兩主」

婆幀施主旺礼 保体」

釘布施主金召吏 保体」

眞分施主金山春 兩主」

囊纓施主安士先 兩主」

布施主朴應念 兩主」

婆幀施主何河伊 兩主」

灯燭施主黃莫今 兩主」

三祿施主朴士弘 兩主」

鄭彦今 保体」

後排施主朴莫立 兩主」

供養施主金石弼 兩主」

幀絲施主盧召吏 保体」

布施主李小崑伊 兩主」

眞絲施主柵己發 兩主」

眞楯施主性倫 比丘」

明鏡施主張戒丹」

供養施主李銀一」

緣化秩」

證明 克勤 比丘

持殿 一清 比丘」

畫工 海雄 比丘

義均

顥瑄 比丘

尙明

供養主 性訥 比丘

幸安 比丘

別座 戒坦 比丘」  
化主 淸海 比丘  
朴淨好 保体

### ○ 문헌자료

-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대한불교조계종, 1997

□

### ○ 현 상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비곡리 795번지 소재의 청도 대비사 대웅전에 봉안되었으나 1988년 12월 24일 도난되었다. 2014년 8월 회수되어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보관 중이다. 삼베바탕에 채색한 족자 형식의 불화로서 족자의 전체 크기는 세로 397.0cm 가로 313.8cm에 달하며, 그림의 경우 모두 9폭으로 안쪽 다섯 폭은 38.6cm ~ 37.3cm이며 좌우 바깥쪽 두 폭은 21.3cm ~ 20.5cm이다.

녹색 광배의 경우에 있어서만 탈락과 변색이 일부 엿보일 뿐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화면 하단 중앙부에 남아 있는 화기로 보아 강희25년(1686년) ‘영산회상도’로 그려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석가모니불께서 『妙法蓮華經』을 설하신 靈鷲山 법회 장면을 나타낸 영산회상도로서, 화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큼직하게 그린 화면 중앙부의 석가불상을 중심으로 하단부에는 문수·보현보살상을 위시한 8보살상과 제석·범천 및 사천왕상을 배치하고, 상단부에는 4위의 타방불을 위시하여 십대 제자와 용왕·용녀, 팔부중과 금강신 등의 권속들을 좌우 대칭되게 배치하였다.

중앙 본존불상의 경우 蓮瓣形 광배를 구비한 채 수미단 위 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변형 右肩偏袒衣에 항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석가불좌상으로, 턱이 가름하니 둥글어진 원만형 얼굴에 이목구비의 표현이 단정하다. 나발 형태의 머리칼에 팽이 모양 육계를 한 머리에는 중앙계주가 보이지 않고 꼭대기에 球形 정상계주만을 갖추어 특징적이다.

본존불 법의 문양 가운데 적색 대의 몸체에 시문되어 있는 둥근 무늬는 굵은 선조의 원 안쪽에 가는 선 7~9조를 두르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개비 모양의 날개 3~4개를 둔 소용돌이 형태로 특징적이다. 이 둥근 무늬는 1653년 조성의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도로부터 비롯된 문양으로 1699년의 동화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와 1703년의 동화사 금당 아미타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07년의 팔공산 파계사 영산회상도, 1724년의 법화사 영산회상도(영천 봉림사 소장) 등에 이르기까지 ‘의균’과 불화의 문양으로 정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존불상 어깨 좌우로 에워싼 듯 시립하고 있는 8보살상은 본존불 무릎 아래 좌우 쪽에 본존불을 향한 채 서서 여의와 연꽃 가지를 받쳐 들고 있는 문수·보현보살상을 위시한 관음·세지보살상, 제장애와 금강장보살상 추정의 두 보살상, 미륵과 여의륜보살상 추정의 두 상 등으로 본존불상과 표정이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문수·보현보살상을 제외한 6보살상의 法衣는 양어깨를 모두 덮은 적·녹색 위주의 佛衣形 大衣로 작은 꽃무늬를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 해준다.

상단부에 그려진 타방불 포함의 십대제자상의 경우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엿보이는 자세를 하고 미소를 지어 자칫 경직되어 보일 수 있는 화면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그 위쪽에 자리한 팔부중과 금강신 및 2대신, 용왕·용녀 또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돋보인다.

봉안 사찰명은 지워져 알 수 없으나 화면 하단 중앙부에 남아 있는 畫記 중의 ‘康熙二十五年丙寅六月日□□□□靈山會幀奉安… …畫工 海雄比丘 義均 比丘 顥瑄比丘 尙明比丘… …’ 라는 내용으로 보아 대미사 영산회상도는 1686년 ‘海雄’을 수화승으로 ‘義均, 顥瑄, 尙明’ 등이 참여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청도 대미사 영산회상도, 1686년

## 11.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 가. 심의사항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2014년 8월 회수된 도난불화인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1.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보문면 보문사길 243
- 수 량 : 1폭
- 규 격 : 168×165cm
- 재 질 : 견본채색
- 조성연대 : 1767년(영조 43)
- 제작자 : 미상(화기 부분 절단)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1767년)는 1989년 6월 5일에 도난당시 화면 가장자리

네 변이 잘려나간 상태이다. 현재 본지의 크기는 세로 167.5cm, 가로 165.3cm의 규모로 중대형 불화급에 속하는 불화이며, 도상은 물론 본지 및 안료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특히 이 불화는 천장·지지·지장보살로 구성된 삼장보살외에 시왕·지옥도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는 유일 사례이자 기존 삼장보살도와는 차별화된 도상을 지닌 작품이다. 게다가 지장시왕 신앙의 고조로 삼장보살도의 중심축이 천장삼존이 아니라 지장삼존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덧붙여 16세기경부터 중단에 봉안되었던 불화가 삼장보살도였다면, 18세기가 되면 점차 중단에 지장시왕도가 봉안되게 되었다. 삼장보살과 지장시왕 도상을 융합하여 한 화면에 재구성한 것은 당시 불교의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신도상을 창출해낸 결과이며, 시대적인 변화를 불화 속에 담아낸 창의력 있는 화승이 불화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우수한 화풍과 전례 없는 특이한 도상조합으로 보아 보물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1767년)는 하단부 화기의 절반 정도가 잘려 나갔으나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도상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채색도 잘 남아 있다. 이 불화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 화면 안에 천장·지지·지장보살로 구성된 삼장보살과 시왕 및 지옥도가 결합된 독특한 도상의 불화이다. 이러한 도상은 아직 다른 사례가 없는 유일한 것이며, 기존 삼장보살도와는 차별화된 도상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삼장보살도에서 중심은 천장보살이나 이 불화에서는 중앙에 지장삼존을 배치하였다는 점도 독특한 점이다. 16세기경부터 중단탱화로 삼장보살도가 봉안되었으나, 18세기가 되면 점차 중단에 지장시왕도를 봉안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삼장보살과 지장시왕 도상을 융합하여 한 화면에 밀도있게 재구성한 것은 당시 불교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도상을 창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이고 탁월한 구성력과 함께 인물상과 각종 경물의 뛰어난 묘사력과 필력을 보여주며 제작년과 소장처를 알 수 있는 등 이 불화는 예술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도난과정에서 화기가 훼손되어 작자를 비롯한 제작에 참여한 시주자 정보 등이 망실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도난 당시의 기록과 남아 있는 화기의 부분을 통해 1767년에 조성된 불화로 확인되어, 조선후기 삼장보살도 연구에 귀중한 자

료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인물의 묘사나 필선, 채색도 상호 조화를 이루며 격조 높은 화격(畫格)을 보여준다. 특히 삼장보살을 주제로 다룬 그림 중에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과 명부신앙 강조된 점도 전례가 없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品자형의 화면구성을 통해 재판에서부터 지옥 형벌, 구원이라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화면의 구성력도 체계적이고 탁월하다. 이렇듯 이 불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장과 명부신앙이 강조된 삼장보살도이자 뛰어난 화면 구성력을 가진 삼장보살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예천 보문사 <삼장시왕도>는 비록 화기가 잘려나가 조성시기 및 화승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삼장보살도와 시왕 및 지옥도가 결합된 형식의 유례없는 독특한 도상의 불화로서, 삼장보살 도상 또한 일반적인 구성과 달리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상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18세기 당시 시대상 파악 및 도상의 변천 연구에 학술적 자료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삼장보살상을 비롯한 각 존상의 표현에 있어서도 유려하면서도 정치한 필선을 구사하여 생동감이 있으며,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녹색의 적절한 채용으로 인한 화면의 안정된 조화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보문사 <삼장시왕도>는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화 기

화면 하단 중앙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이어 향좌측 백색 띠 부분에도 묵서로 화기를 기술하고 있다. 절단 자국과 박락흔이 심해 전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중앙 화기(주색 바탕에 묵서) \* ○박락, [ ]절단

「○○[ ]

丁亥[ ]

成○[ ]

于○[ ]

寺

[ ]

證明[ ]

誦呪[ ]

持殿[ ]

良工[ ]

供○[ ]

淨桶[ ]

化土[ ]

別座[ ]

三綱[ ]

婆幘[ ]

玄寬[ ]

亡父母[ ]

氏溟○[ ]

淨界娘[ ]」

## ○ 현 상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경북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1989년 6월 5일에 <아미타회상도>, <신중도>와 함께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된 작품이다. 결이 고운 비단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가로 폭은 3폭의 비단을 엮어 화폭을 형성하였다. 본지 및 안료의 상태는 양호하며, 개체나 가필 흔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면 가장자리 네 변이 잘려나간 상태로 보아 도난 당시 잘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새롭게 장황한 상태이다. 특히 화면 하단부의 화기가 상당 부분 잘려나가 봉안사찰과 조성시기, 화승 등을 포함한 전독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발간, 1999년)에 근거하여 이 불화의 제작 연대는 1767년 5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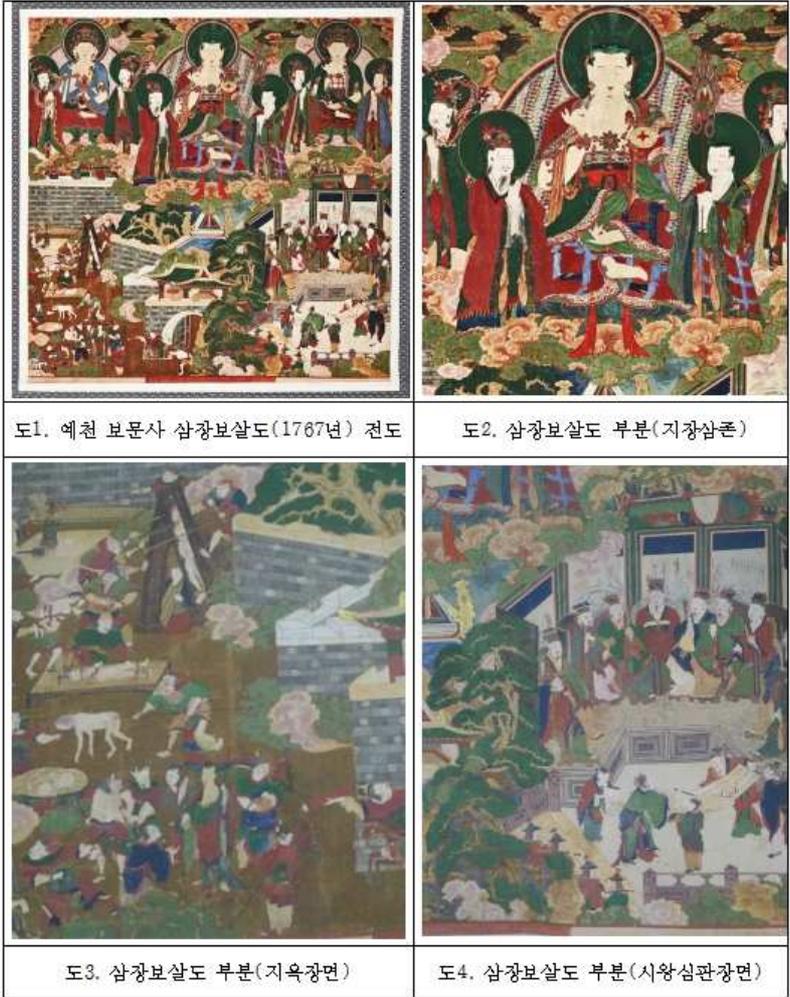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비단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본지의 규모는 원래 크기에 비해 도난 당시 잘려나갔지만, 현재 세로 167.5cm, 가로 165.3cm의 중대형 불화이다. 화면은 성곽과 채운을 경계로 상하단 2단구도를 이루고 있다. 상단에는 천장·지장·지장보살과 권속을 그린 삼장보살이 배치되고, 하단은 다시 성곽과 수목을 경계로 화면 왼쪽(향우측)에는 시왕그룹, 오른쪽(향좌측)에는 각종 지옥상이 그려져 있다. 상단의 삼장보살은 기존의 삼장보살도와는 다르게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과 무독귀왕으로 구성된 삼존상을 중앙에 배치하였다. 이어 지장의 왼편에 천장보살삼존, 오른편에 지장보살삼존 도상을 배치하였다. 보편적으로 조선시대 삼장보살도는 대개 중앙에는 천장보살이 위치하는데, 여기서는 지장보살을 중앙에 배치하였다.

하단의 좌측(향우측) 시왕그룹은 낮은 누대 위에 산수화 병풍을 배경으로 시왕들이 의자에 앉아 심판장면에 임하고 있다. 시왕은 원류관 혹은 일월 면류관, 공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시왕들 앞쪽에는 판관과 동자가 펼쳐 든 두루마리에 붓을 권 녹사가 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옆에 벼루를 든 동자 1위, 두루마리를 든 판관 사자 1위가 서있다. 이들 그룹의 향좌측 계단 아래쪽에는 칼을 들고 무장한 병사 4위가 외호하고 있다.

다시 그룹, 성곽과 소나무를 경계로 반대측(향좌측)에는 도산지옥, 확탕지옥, 정신지옥, 거해지옥, 대애지옥 등과 같은 다양한 지옥고가 묘사되어 있다. 먼저 성곽의 지옥문을 통해 사자 1위가 반라상의 죄인의 머리채를 안장에 묶은 채 말을 달려 지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자의 오른손에는 심판의 결과가 담긴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 옆으로 지장보살 그룹들이 그려져 있다. 지장에게 두루마리를 바치는 판관 1위, 번을 권 동자 1위 깃발을 든 병사 2위, 우두와 마두상의 옥졸 2위가 지장을 에워싸고 있다. 이어 향좌측에는 칼날로 이뤄진 도산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망자 1위와 이를 창으로 찌르는 귀졸 1위를 표현하였다. 그 위쪽으로는 펼 펼 굶는 가마솥에서 망자들이 고통을 받는 장면, 귀졸 1위가 창으로 망자를 찔러 가마솥에 집어넣으려는 확탕지옥고를 그렸다. 이어 위쪽에는 판 위에 죄인을 고정시켜서 징을 박는 정신지옥, 나무틀에 망자를 가둬 톱질하는 거해지옥, 커다란 틀 안에 망자를 집어넣고 몸을 찢는 대애지옥 순으로 각각 그려져 있다. 장면들 옆에는 묶인 죄인이 끌려가는 모습, 목에 칼을 차고 대기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이 불화의 화풍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도상들의 장면을 구분짓는 성곽과 소나무 모티프이다. 특히 성곽 표현은 물론 역동적으로 뻗어 올라간 소나무 표현은 통

<도판>



도1.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1787년) 전도

도2. 삼장보살도 부분(지장삼존)

도3. 삼장보살도 부분(지옥장면)

도4. 삼장보살도 부분(시왕심관장면)

도사 영산전 <팔상도>(1775년) 중 <비람강생상>과 친연성이 강하다. 또한 삼장보살의 둥근 얼굴표현과 긴장한 신체 표현 등 인물의 묘사도 유사하다.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는 17세기 중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포관(抱冠), 유성(有誠) 등이 함께 그린 불화이다. 보문사 <삼장보살도>에 화기가 잘려나가 단언할 수 없지만 통도사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화승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보문사 불화를 그린 화승들은 화면의 구성과 인물표현, 녹색과 적색을 주색으로 설회한 안정적인 색감 등을 통해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장보살의 광배에 그려진 길상연결무늬, 목제 누대의 목리 흔 표현, 시왕도 의자에 걸친 섬세한 모피 표현, 시왕도 뒷 배경 병풍에 그려진 수목산수 등을 통해 당시 불화 뿐만 아니라 일반 화단의 동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화승의 숨씨를 엿볼 수 있다.

□

### ○ 현 상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대한불교조계종, 1999), 64쪽에 소개된 경북 예천 보문사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삼장보살도와 동일한 작품으로 1989년 6월 5일 <아미타회상도>, <신중도>와 함께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곁이 고운 비단에 채색되었고 가로로 3폭의 비단을 이어 화폭을 형성하였다. 비단의 각 폭은 왼쪽부터 53.5cm, 60cm, 51.6cm이다. 극히 일부분의 안료가 박락되었고, 적색의 일부 등에 가채가 보이긴 하지만 바탕지와 안료 상태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난시 화면의 가장자리가 잘려나갔는데 특히 하단부의 화기란은 절반 정도 잘려나가 봉안사찰과 조성시기, 화승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丁亥’는 남아있는데 이 불화는 18세기 중엽경의 양식을 보여주므로 丁亥年을 1767년으로 볼수 있다.

### ○ 화 기

화면 하단 중앙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기록하였다. 이어 향좌측 백색 공란에 묵서로 시주질을 기록하였으나 박락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 화면 하단이 절단되었고, 박락이 심해 전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중앙 화기(주색 바탕에 묵서) \* ○박락, [ ]절단

「○○[ ]

丁亥[ ]

成○[ ]

于○[ ]

寺

[ ]

證明[ ]

誦呪[ ]

持殿[ ]

良工[ ]

供○[ ]

淨桶[ ]

化土[ ]

別座[ ]

三綱[ ]

婆幘[ ]

玄寬[ ]

亡父母[ ]

氏溟○[ ]

淨界娘[ ]

### ○ 내용 및 특징

정방형의 화면은 성곽과 구름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중앙에 지장보살, 좌우에 천장·지장보살이 각기 협시를 대동하고 자리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삼장보살도의 도상과는 달리 중앙에 지장보살삼존을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하단에는 중심부에 添景物로 성곽과 우거진 수목 및 彩雲을 배치하였는데 화면을 좌우로 구분하는 동시에 배경의 역할을 한다. 성곽의 왼쪽(향우측)에는 시왕의 재판하는 광경, 왼쪽에는 각종 지옥의 광경이 그려져 있다.

성곽의 왼쪽(향우측)에는 시왕들의 재판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머리에는 원류관이거나 면류관을 쓰고 公服을 입은 시왕들은 낮은 樓臺 위에 반원형으로 둘러 앉아 심판하고 있는데 시왕 뒤에는 수목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져 장면을 구획하고 있다. 한편 누대 아래에는 판관과 동자가 펼쳐 든 두루마리에 녹사가 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옆에는 벼루를 든 동자 1위, 두루마리를 든 사자가 서있다. 왼쪽 계단 아래에는 칼을 어깨에 둘러맨 병사 4위가 이들을 외호하고 있다. 이들의 동감있는 자세와 인물들의 표정과 옷주름 등이 섬세하고 동감있게 묘사되어 있어 이 불화를 그린 화사는 상당한 필력의 소유자임을 알게 한다.

화면 중앙에는 성곽 아래에 열려있는 지옥문을 통해 말을 탄 使者가 죄인의 머리채를 안장에 묶은 채 지옥으로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손에는 망자의 冥府를 치켜들고 끌려오는 죄인을 향해 뒤돌아보는 모습과 다리를 한껏 벌리며 달리는 말의 모습, 상체를 구부리며 끌려오는 죄인의 모습이 매우 동감있게 묘사되어 있다. 이 사자는 지옥의 구세주인 지장보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지장보살 주위에는 두루마리를 바치는 판관, 幡을 들고 있는 동자, 깃발을 든 병사, 옥졸인 牛頭와 馬頭 등이 둘러서 있다.

성곽의 오른쪽(향좌측)에는 각종 지옥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죄인이 큰 통에서 방

아로 몸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대애지옥(礙礙地獄), 형틀에 묶여서 산 채로 몸이 잘리는 고통을 겪는 거해지옥(鉅解地獄), 판 위에 묶인 죄인의 몸에 못을 박는 철정지옥(鐵釘地獄), 끓는 가마솥의 기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확탕지옥(鑊湯地獄), 칼로 뒤덮인 산에서 찢리는 고통을 당하는 도산지옥(刀山地獄) 등 5종의 지옥 장면이 집약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불화는 삼장보살, 시왕, 지옥장면을 결합하여 한 화면에 밀도있게 표현하여 뛰어난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장면을 한 화면에 표현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침경물을 활용하여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장면을 구획하고 있어 이를 그린 작가의 탁월한 구성력에 감탄하게 된다. 성곽의 지그재그로 이어진 모습과 지붕, 그리고 이를 따라 이어진 소나무의 표현 등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화면이지만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시왕 및 하단 인물들의 섬세한 얼굴표현과 동감있는 자세, 힘있는 옷주름 묘사 등으로 보아 뛰어난 필력의 소유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성곽, 소나무, 구름 등의 경물 표현, 그리고 시왕 뒤의 병풍에 산수화를 그려 넣은 점과 누대에 표현된 섬세한 목리문 등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 불화에 표현된 소나무의 묘사는 통도사 팔상도(1775)의 비람강생상 등에서 돋보이는 소나무 표현과 친연성이 있어 보인다. 통도사 팔상도의 수화사는 華月堂 抖薰(料訓, 料薰, 斗薰)이다. 그는 통도사 괘불(1767년)을 제작하였고, 18세기 주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임한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진다. 그런데 보문사 삼장보살도와 같은 해에 제작된 보문사 아미타불화는 두훈이 제작한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1764)와 존상의 차등 배치, 본존 광배의 색테로 이루어진 원형의 광배, 신광 내연에 조밀하게 묘사된 모란당초문의 모습 등과 매우 유사하다. 화기가 잘려 제작화사를 알 수는 없으나 18세기 중후반 통도사 등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화사의 화풍임을 알 수 있다. 화사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연구한다면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내용 및 특징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학가산에 위치한 보문사의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이 불화는 1989년 6월 5일 <아미타여래설법도>, <신중도>와 함께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에 회수되었다. 현재 보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대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보조국사의 중창하였다고 전해질 만큼 유서 깊은 사찰이다.

화면은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삼장보살과 협시를, 하단에는 성

곽과 성문을 중심으로 화면을 다시 좌우로 양분하여, 전체적으로 품자형의 구도를 갖추고 있다. 화면 하단의 좌측(향우측)에는 십대왕의 재판장면을, 우측(향좌측)에는 지옥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가혹한 장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화권을 3쪽으로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으며, 장황형식은 현재 패널로 개장되어 원형을 잃었으나 화면은 대체로 양호하고 개칠이나 수리흔적이 크게 없이 안정되어 있다. 천장·지지·지장보살로 구성된 삼장보살도로, 기존의 천장보살로 구성되는 삼장보살도와 달리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에 내세운 창의적인 형식의 삼장보살도이며, 이러한 형식은 현존하는 삼장보살도 중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 또한 중앙의 지장보살삼존은 협시보살에 비해 한 걸음 앞당겨 크게 부각시켜 존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또렷한 입체감과 무한의 공간감을 동시에 획득하였다.

지장보살은 원형의 여러 겹의 색 빛으로 두른 두·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광배의 표면에는 마름모꼴의 오색영롱한 보석으로 꾸몄다. 불신에는 귀걸이, 팔찌, 영락 등 여러 가지 장신구로 불신을 장엄하였다. 머리에는 검은색 망사의 두건을 썼으며, 머리의 정수리 쪽은 감청색으로, 그 아래쪽은 녹청색으로 칠하였다. 이목구비는 단정하게 처리하였는데, 특히 콧날은 크고 둥글어 복스러우며, 입술은 쭉긋 내민 듯 작고 도톰하다. 콧수염과 턱수염은 삼각형의 스티커를 부친 것처럼 그려 넣어 특색이 있다. 수인은 설법인을 지었고, 어깨위로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 지장보살의 상징물인 둥근 보주를 쥐었다. 가사는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가사의 빗장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아름답게 채색한 구름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지장보살의 좌측에는 육환장을 지니고 있는 도명존자를, 우측에는 합장인을 결한 무독귀왕을 배치하였고 다른 권속들은 등장시키지 않았다.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의 얼굴은 양감이 강조되어 중후한 인상을 자아낸다.

천장보살은 지장보살의 좌측에 배치되었으며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둥근 두·신광을 갖추고 짙은 녹색계통의 천의를 걸쳤다. 수인은 설법인을 결했으며 특별한 지물은 취하지 않았다. 신광의 바탕은 연분홍색으로 칠하고 격자문을 넣어 장식하였다. 이러한 광배는 1741년 작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의 좌우협시 보살상의 광배 형태에 그 원류를 찾을 수 있고, 1765년 작 안동 봉정사 감로왕도에서도 유사한 장식의 광배를 찾을 수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장보살의 좌우측에는 보살형의 인물이 협시하고 있는데, 『오종범음집』에 등장하는 ‘좌보천중(左補天衆)’과 ‘우보천중(右補天衆)’을 시각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종범음집』 이후에 간행된 자료에서는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과 소진주보살(小眞珠菩薩), 또는 대진주보살과 진주보살이 협시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측의 지지보살의 협시가 아직 보살형으로 정립되지 않고 제왕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종범음집』의 내용을 그림화 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보살은 청색계통의 천의를 걸쳤으며, 왼손으로 절첩본 형태의 경책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좌우에는 여의주를 올려놓은 양관(梁冠)을 쓴 인물이 꿈틀대는 용(龍)을 지물로 취하고 시립해 있는데, 아직까지 보

살형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오종범음집』의 ‘좌보공중(左補空衆)’과 ‘우보공중(右補空衆)’을 상징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면의 상단과 하단은 성곽과 채운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화면은 성문과 멋스럽게 자란 소나무로 양분하고, 좌측에는 수목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ㄱ’형의 불단(佛壇) 위에 10위의 시왕을 모두 등장시켰다. 수직준으로 표현된 암산은 마치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를 보는 듯하여 18세기대 불화와 일반 회화와의 교류관계도 엿볼 수 있다. 시왕들은 의자에 앉은 의좌세이며, 중앙에 앉아 정면을 향한 시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불단 앞의 넓은 공간에는 관관들과 시동(侍童) 들이 두루마리 형태의 긴 명부를 펼쳐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에서 재판이 끝나면 죄인들은 옆쪽 성문을 통해 옥졸들에게 끌려 가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지옥 장면에는 십대왕의 지옥 중 작가가 생각했던 가장 인상적인 몇 장면의 지옥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칼날에 찢려 고통을 받은 도산지옥, 펄펄 끓는 술에 들어가 고통 받은 화당지옥, 형틀에 묶여 온몸에 못이 박히는 형벌을 받는 지옥, 나무틀에 묶여 톱으로 몸을 썬는 거해지옥, 옥졸이 창으로 죄인의 엉덩이를 찌르는 지옥 등이 실감나게 묘사되었다. 지옥의 초입에는 지장보살과 구원을 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 넣어 신앙의 목적성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불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단에 성곽을 따라 꿈틀거리듯 올라간 소나무로 화면을 양분한 점인데, 이는 1775년 작 <양산 통도사 석가팔상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화면 분할방식이며, 이와 함께 삼장보살의 얼굴과 신체표현 등에서도 상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통도사 석가팔상도>는 18세기 중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포관, 유성 등이 함께 그린 불화로, 보문사 삼장보살도도 이들 화사들과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화면의 최하단에는 붉은색 바탕의 화기란을 마련하여, 제작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기록하였으나, 도난시 소장사찰 등 주요정보를 훼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 또렷하다. 다행히 2009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1767년(乾隆 32年 5月)로 보고하고 있고, 잘려나간 화기 일부에 제작시기로 보이는 ‘丁亥’라는 간지가 확인되는데, 이 두 기록과 그림의 화풍을 종합해서 보면 乾隆 32年 丁亥, 즉 1767년(영조 43)에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



丁亥

成冥

于

寺



證明 ■■■■■■

誦呪 ■■■■■■

持殿 ■■■■■■

良工 ……

……

……

……

淨桶 ■■■■■■

化士 ■■■■■■

別坐 ■■■■■■



三綱 ■■■■■■



波幟 ■■■■■■

玄寬 ■■■■■■

亡父母■■■■■

氏娘 溟■■■■■

淨界■■■■■



### ○ 현 상

경북 예천군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1989년 6월 5일 <아미타회상도>, <신중도>와 함께 도난 되었다 2014년 8월 회수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에 보관중이다. 비단바탕에 채색을 한 불화로, 60.0cm~51.6cm 크기의 3폭을 이어 화폭을 형성하였다.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도난 당시 소행인 듯 화면 가장자리 네 변이 잘려나간 상태이며 지금은 새롭게 장황한 상태이다. 특히 화면 하단부의 화기가 대부분 잘려나가 봉안사찰 및 조성시기, 화승 등에 대해서는 잘 알 길이 없다.

### ○ 내용 및 특징

보문사 삼장시왕도는 비록 잘려나가고 구름부분의 안료 박락과 삼장보살상의 적색과 청색 범의에 부분적으로 덧칠한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림은 거의 완전하게 잘 남아 있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없는 불화로서, 성곽을 경계로 화면 상단에는 지장보살상이 중앙에 위치한 삼장보살상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십대왕과

지옥상이 표현되어 있다.

상단의 삼장보살상은 일반적인 삼장보살도와는 다르게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는 地藏菩薩三尊像을 중앙에 두고, 왼쪽(향우측)에 天藏菩薩三尊像을, 오른쪽(향좌측)에는 持地菩薩三尊像을 배치하였다.

하단 시왕도의 경우 화면 중앙부의 성곽과 나무를 경계로 좌측(향우측)에는 십대왕 무리를 두고, 우측(향좌측)에는 지옥장면을 나타내었다. 십대왕은 모여서 회의를 하듯 의자에 앉아 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원류관 또는 면류관을 쓰고 公服을 착용하였다. 시왕들 앞쪽으로는 두루마리를 펼쳐 든 판관과 동자, 붓을 쥐고 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녹사, 벼루를 들고 이를 바라보고 서 있는 동자, 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사자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를 호위하듯 무장한 병사들이 열 지어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대쪽인 우측(향좌측)에는 지장보살상에게 두루마리를 바치는 판관과 번을 쥔 동자, 깃발을 든 병사, 牛頭와 馬頭상을 한 옥졸 등이 지장보살 무리를 에워싸고 있는 장면과 함께 다양한 지옥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지옥문을 통해 죄인의 머리채를 안장에 묶은 채 말을 달려 지옥으로 들어서고 있거나, 칼날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망자와 이를 창으로 찌르는 옥졸, 필필 끓는 가마솥에서 망자들이 고통을 받는 장면, 옥졸이 창으로 망자를 찢러 가마솥에 집어넣는 장면, 목판 위에 죄인을 고정시킨 뒤 몸에 징을 박는 장면, 망자를 나무틀에 묶어 톱질하여 몸을 가르는 장면, 망자의 몸을 찢는 장면, 묶인 채 끌려가는 죄인과 목에 칼을 차고 대기하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다.

이 불화 표현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상하단부와 좌우 장면을 구분짓는 성곽과 나무로서, 1775년 조성의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의 <비람강생상>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17세기 중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抱冠, 有誠 등과의 교유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보문사 <삼장시왕도>의 경우 화기가 잘려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승들이 참여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문사 <삼장시왕도>의 경우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과 인물표현, 적·녹색 위주의 안정적인 색감, 섬세한 문양 표현 등을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남아 있는 화기 내용은 대부분 잘려나가 완전한 판독은 어려우나, ‘… 丁亥… …’라는 干支와 畫風으로 미루어 보아 1767년경으로 추정된다.

작품 명칭의 경우 삼장보살도와 지장시왕도가 결합된 도상으로서 <삼장시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1767년

## 12.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 가. 심의사항

‘묘법연화경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 수 량 : 245판 (缺)
- 규 격 : 광곽 23.3×33.5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1년(명종 16)
- 제작자 : [鍊板] 智弘 / [刻手] 禪衍, 學軒, 一訓, 彦奇, 自安, 達衍, 玉井, 安京, 玄敏, 文玉, 能守, 空紙, 性玄 / [校正] 惠全, 許○補, 利德, ○緝

### 라.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1561년(명종 16)에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전 246판 중에서 권3의 15-16장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245판이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나 일부 목판에서 곰팡이와 균열로 인한 글자 손상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인자본계열의 <묘법연화경> 목판 중에서 현전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랜 것이다.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50년	왕실	×	활자본(갑인자)
1493년	황해 자비령사	×	
1493년	충청 무량사	×	
1536년	평안 빙발암	×	
1536년	전라 서대사	×	
1537년	충청 보광사	×	
1539년	경상 영각사	×	
1545년	경상 신흥사	×	
★1561년	전라 천관사	○	해남 대흥사(결판 1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상세정보

목 관 명	妙法蓮華經
저 자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발행사항	全羅道 長興地 支提山 天冠寺, 明宗 16年(1561)
형태사항	匡郭 23.3×33.5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卷7 刊記 : 嘉靖四十年七月日全羅道長興地支提山天冠寺開刊 版心題 : 妙法

### ○ 소장관 목록

弘傳序 : (1, 2)

要解序 : (1, 2)

卷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卷2-1)

卷2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卷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卷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3) (28, 5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卷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卷6-1)
- 卷6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卷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2,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판 2장 결 : [권3] 15, 16

#### ○ 구성 및 내용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 금강경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계환의 주해본 범화경이 크게 유행하였다. 본 목판은 1561년(嘉靖 40) 전라도 장흥지(長興地) 지제산(支提山) 천관사(天冠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해남 대흥사에 일부 유실판을 제외하고 245판이 소장되어 있다.

본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안평대군 용(瑢), 금성대군 유(瑜) 등이 발원하여 활자로 새긴 초주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목판으로 복각한 것이다. 체재를 살펴보면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 변상은 없고 홍전서와 요해서를 두었다. 본문은 「서품(序品)」부터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총 28품이 각각의 권에 2-6품씩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권은 권수제 옆으로 계환(戒環) 해(解)임을 밝히고 1행에 20자의 본문을 적었는데, 계환의 주해는 한 글자를 내려서 1행에 17자로 새겼다.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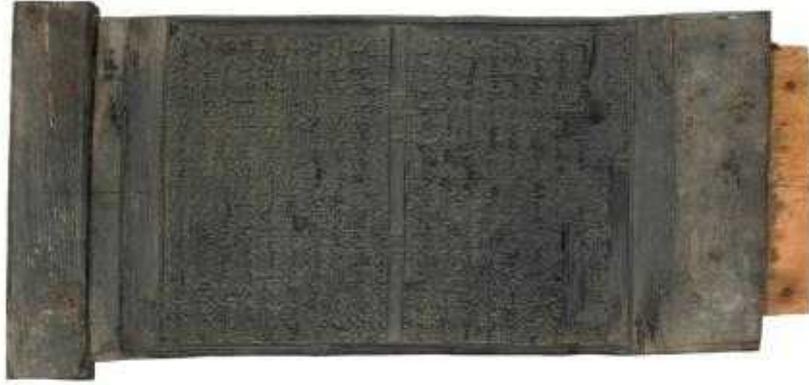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일부 유실판이 있긴 하지만, 권1부터 권7까지 각 권마다 35판 내외로 모두 245판이 전해지고 있다. 목판은 한 면에 1장씩 새겨져 1판에 총 2장을 판각하였으며, 대부분 순방향으로 새겼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합한 형태이다. 유일하게 권1의 장차 (1, 2)판의 우측 마구리가 결손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49.1cm 내외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3.3cm, 가로 33.5cm이다. 절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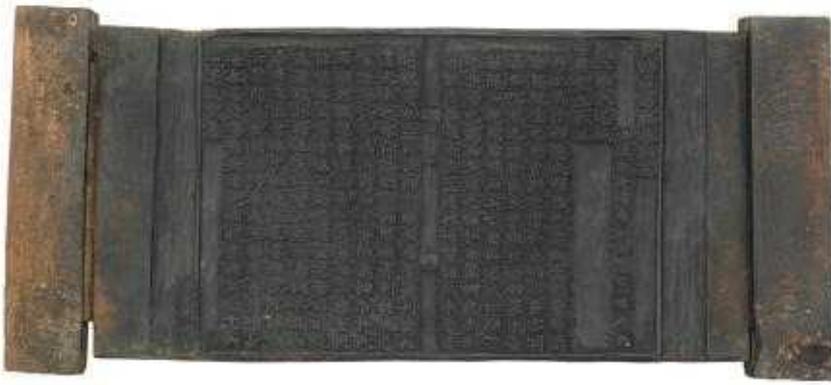
넘는 판의 광곽변란 좌우 하단으로 박만세(朴萬世), 한강동(閑江同) 등과 같은 시주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반곽의 행자수는 10행18자로 본 목판이 초주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복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판심부를 살펴보면,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원간본과 다르게 간혹 일엽·삼엽화문어미도 섞여서 나타난다. 판심제는 ‘妙法’으로 권마다 ‘卷一’, ‘卷二’ 등의 권차를 판심제 밑에 추가하였고, 하단에 장차를 양각하였다.

본 목판은 권7의 마지막 장차 60에 새겨진 ‘嘉靖四十年七月日全羅道長興地支提山天冠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561년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수는 선연(禪衍), 영오(令悟), 학현(學軒), 일훈(一訓) 등이 참여하였고, 연판은 지홍(智弘)이 담당하였다.

목판은 1판을 제외하고 마구리가 잘 남아있어 대체로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판에서 곰팡이와 균열로 인한 글자 손상이 확인된다.



[도 1] 묘법연화경 권1 \_ 1장



[도 2] 묘법연화경 권3 \_ 1장



[도 3] 묘법연화경 권7 \_ 60장 간기 확대

### 13.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 가. 심의사항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아산 세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 수 량 : 13판 (缺)
- 규 격 : 광곽 18.2×29.2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3년(명종 18)
- 제작자 : [鍊板 · 刻手] 鄭世隣 / [副刻手] 惠禪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545년에 오응성(吳應星)이 언해한 판본을 모본으로 간행되었다. 세심사 소장본은 1563년(명종 18)에 아산의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오응성의 발문은 없다. 전 14판 중에서 제2, 12장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의 13판이 아산 세심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는 약간의 균열이 보이며 마구리가 결손된 판이 많다.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2002.8.10)로 지정되어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45	吳應星 개판본	×	원간본
1553	화장사	×	
★1563	신심사	○	아산 세심사(결판 1판)
1563	송광사	×	
1564	패엽사	×	
1567	불명산 쌍계사	○	결판 2판
1573	홍복사	×	
1592	희방사	×	
1609	동화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淸洪道 牙山地 桐林山 神心寺, 明宗 18年(1563)
형태사항	匡郭 18.2×29.2cm 四周單邊,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混用魚尾, 上下大黑口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二年癸亥暮春既望漕溪訥菴書于神心丈室…淸洪道牙山地桐林山神心寺留板 版心題: 恩

○ 소장판 목록

(1, 3) (4, 16) (5, 13) (6, 14) (7, 8) (9, 10) (11,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施主秩, ×)

※ 1판 2장 결 : 2, 12

○ 구성 및 내용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경으로 줄여서 『부모은중경』, 『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은 언해본으로, 1563년(嘉靖 42)에 개판되었고, 13판이 전하고 있다.

세심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은 1545년(嘉靖 元年)에 오응성(吳應星)에 의해 언해된 판본을 모본으로 제작되었다. 세심사본에는 오응성 발문은 누락된 채 경전이 끝난 바로 뒤에 간략한 발문이 적힌 간기판이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서분(序分), 본론인 정종분(正宗分), 결론인 유통분(流通分)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분은 부처가 사위국(舍衛國) 왕사성(王舍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보살 마하살과 비구 삼만 팔천명과 함께 있었다는 짧은 글이다. 정종분은 경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강론의 동기를 담은 「보은인연(報恩因緣)」,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담은 「역진은애(歷陳恩愛)」, 불효의 죄를 설파한 「광설업난(廣說業難)」, 효·불효에 따른 인과를 다룬 「과보현응(果報顯應)」의 4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통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팔부서원절(八部誓願節)」, 「불시경명절(佛示經名節)」, 「인천봉지절(人天奉持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수록하였다. 변상은 본문 내용에 따른 삽도 형식이며, 여래정례도(如來頂禮圖) 1장면, 부모십은도(父母十恩圖) 10장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을 묘사한 9장면, 효도하여 아버지옥(阿鼻地獄)에서 하늘에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1장면 등 총 21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의 서명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아래로 ‘부모의 은갑니·경이라’고 언해하고 있다. 권수제(卷首題) 다음 행부터 한자의 본문이 시작되며, 이어서 한단을 내려 언해를 첨부하고 있다. 언문에는 성점(聲點)이 간헐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 조사내용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은 시주질을 포함해 총 13판25장이 전해진다.

목판은 각 면에 1장씩 새겨져 하나의 목판에 총 2장씩 판각되었다. 판은 가로로 긴 형태로, 전체크기는 각 목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세로 19.3cm, 가로 45.8cm 정도이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판면과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에 ‘ㄱ’자형 장식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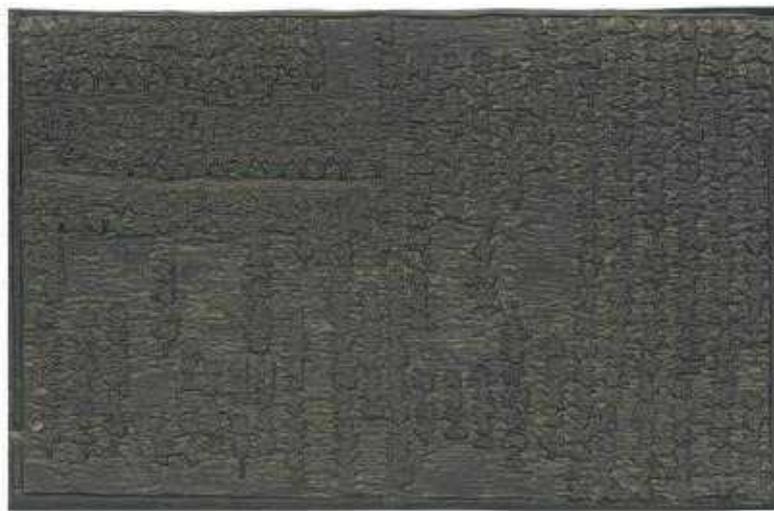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2cm, 가로 29.2cm이다. 경전의 내용에 따라 변상을 삽도형식으로 배치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10행18자로 새겼다. 판심체는 약명인 ‘은’이고, 판심부는 상하내향혼용어미에 상하대흑구이다. 광곽의 외변에는 대부분 칸을 구획하지 않고, 시주자를 양각으로 새겼다.

마지막 시주질 판의 간행 기록을 통해 1563년(嘉靖 42) 아산(牙山)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판되었다. 신심사는 세심사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며, 발문에는 비구 성회(性會)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화주(化主)가 되어 판각하고 70부를 인출하여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판각에 참여한 시주자 중에는 16세기 중반 명종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후원하에 도대선사(都大禪師)에 올라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보우(普雨, 1509-1565)에 관한 기록이 있어 당시 상당한 규모의 불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지는 간행관련 소임기록을 통해 연관 및 각수는 정세린(鄭世隣), 부각수는 혜선(惠禪)이 소임을 맡아 작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외에도 재목(梓木), 경지(經紙), 칠판(柒板)의 시주자들이 열거되어 있다.

목판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균열이 보이며 마구리가 결손된 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_ 1장



[도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_ 시주질

## 14.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 가. 심의사항

‘묘법연화경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묘법연화경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111판 (1판4장 결)
- 규 격 : 광곽 18.9×27.8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5년(명종 20)
- 제작자 : [鍊板] 金孟孫, 惠學 / [書寫] 玉蟾 /  
[刻手] 玲玉, 守仁, 惠輝, 宝敬, 空紙, 万熙, 性安, 玉淨, 性崑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443년(세종 25)에 성달생이 정서하여 간행한 고산 화암사판을 번각한

것이다. 권미에 있는 혜능(慧能)의 발문을 통해 1565년(명종 20)에 충청도 서산 의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 112판중에서 41-44장에 해당되는 1판이 결판되어 서산 개심사에는 111판이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목판은 충해와 균열로 인해 글자가 손상되어 있고, 마구리가 결손된 것도 약 30여개나 된다.

성달생서계 <묘법연화경>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05	고산 안심사	×	
1417	전라 문수사	×	
1422	경기 대자암	×	
1436	경상 동화사	×	
1443	전라 화암사	×	
1472	전라 중대사	×	
1477	전라 화암사	×	
1539	황해 심원사	×	
543	황해 석두사	×	
1545	강원 표훈사	×	
	전라 안심사	×	
	전라 영원사	×	
1547	경기 정수사	○	강화 전등사(결판 1판)
1554	황해 귀진사	×	
1559	황해 연봉사	×	
1561	경상 희방사	×	
1564	황해 중암	×	
1565	충청 북천사	×	
★1565	충청 보원사	○	서산 개심사(결판 1판)
1570	경상 불국사	×	
	전라 용천사	×	
1572	경상 대승사	×	
1574	강원 심원사	×	
	경상 불국사	×	
	충청 청룡사	×	
1575	강원 장안사	×	
1578	경기 서봉사	×	
1584	전라 실상사	×	
1586	전라 흥복사	×	
1604	경상 능인암	○	하동 쌍계사(112판 완판)
1613	충청 청룡사	×	
1622	경기 청계사	×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상세정보

목 관 명	妙法蓮華經
저 자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발행사항	清洪道 瑞山地 伽倻山 普院寺, 明宗 20年(1565)
형태사항	匡郭 18.9×27.8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四年乙丑季夏清洪道瑞山地伽倻山普院寺留板 版心題 : 法

#### ○ 소장판 목록

變相 : (0 · 0, 弘傳序-2 · 弘傳序-1)

要解序 : (卷1-2 · 1, 卷1-4 · 卷1-3)

卷1 (6 · 5, 7 · 8) (10 · 9, 12 · 11) (14 · 13, 15 · 16) (17 · 19, 18 · 20) (22 · 21, 24 · 23) (25 · 26, 28 · 27) (30 · 29, 31 · 32) (33 · 34, 35 · 36) (37 · 38, 39 · 40) (45 · 46, 47 · 48) (50 · 49, 51 · 52) (54 · 53, 56 · 55) (57 · 58, 59 · 60) (61 · 62, 施主秩 · 卷2-1)

卷2 : (2 · 3, 4 · 5) (7 · 6, 9 · 8) (10 · 11, 12 · 13) (15 · 14, 16 · 17) (19 · 18, 21 · 20) (23 · 22, 24 · 25) (26 · 27, 28 · 29) (33 · 30, 31 · 32) (35 · 34, 36 · 37) (39 · 38, 41 · 40) (43 · 42, 44 · 45) (47 · 46, 49 · 48) (50 · 52, 51 · 53) (54 · 55, 56 · 57) (58 · 59, 61 · 60) (62 · 64, 63 · 65) (卷3-1· 66, 卷3-2 · 卷3-3)

卷3 : (5 · 4, 6 · 7) (9 · 8, 11 · 10) (12 · 13, 15 · 14) (17 · 16, 18 · 19) (20 · 21, 23 · 22) (24 · 25, 27 · 26) (29 · 28, 31 · 30) (32 · 33, 35 · 34) (36 · 37, 38 · 39) (40 · 42, 41 · 43) (44 · 45, 46 · 47) (49 · 48, 50 · 51) (52 · 53, 54 · 55) (56 · 57, 施主秩 · 58)

卷4 : (1 · 2, 4 · 3) (6 · 5, 8 · 7) (9 · 10, 11 · 12) (13 · 14, 16 · 15) (17 · 20, 19 · 18) (22 · 21, 24 · 23) (26 · 25, 27 · 28) (30 · 29, 31 · 32) (33 · 34, 35 · 36) (37 · 38, 39 · 40) (42 · 41, 44 · 43) (46 · 45, 48 · 47) (49 ·

50, 51 · 52) (53 · 54, 55 · 56) (57 · 58, 60 · 59)

卷5 : (1 · 2, 4 · 3) (8 · 5, 6 · 7) (10 · 9, 11 · 12) (13 · 14, 15 · 16) (18 · 17, 19 · 20) (21 · 24, 22 · 23) (25 · 28, 26 · 27) (29 · 30, 32 · 31) (35 · 33, 34 · 36) (37 · 38, 39 · 40) (41 · 42, 44 · 43) (46 · 45, 48 · 47) (49 · 50, 51 · 52) (54 · 53, 56 · 55) (施主秩 · 卷6-3, 卷6-2 · 卷6-1)

卷6 : (4 · 5, 6 · 7) (9 · 8, 11 · 10) (12 · 13, 14 · 15) (17 · 16, 19 · 18) (20 · 21, 22 · 23) (24 · 25, 27 · 26) (30 · 28, 29 · 31) (33 · 32, ×) (34, 35) (36 · 39, 38 · 37) (40, 42) (41 · 43, ×) (44 · 45, 46 · 47) (48 · 49, ×) (50 · 51, ×) (52 · 53, ×) (54, 55) (56 · 卷7-1, 卷7-2 · 卷7-3)

卷7 : (4 · 7, 5 · 6) (8 · 9, 11 · 10) (12 · 13, 14 · 15) (16 · 19, 17 · 18) (23 · 20, 21 · 22) (27 · 24, 25 · 26) (28 · 29, 30 · 31) (32, 33) (35 · 34, ×) (36 · 37, 44) (39 · 38, 53 · 54) (43 · 40, ×) (41 · 42, ×) (45, 46 · 47) (48, 49) (50, 52 · 51)

※ 1판 4장 결 : 권1(41, 42, 43, 44)

## ○ 구성 및 내용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며, 일반적으로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 한역본의 계환 주해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본 목판은 1565년(嘉靖 44) 서산의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院寺)에서 판각된 성달생서본계(成達生書本系) 복각판으로, 현재 111판이 개심사(開心寺)에 전하고 있다.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조선초기 1443년(正統 8) 성달생이 정서하여 새긴 고산 화암사판을 저본으로 1565년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복각한 것이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원문에 계환의 주해(註解)가 붙은 판본으로 모두 7권 28품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체제는 변상도를 시작으로 홍전서, 요해서, 본문 1-7권, 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별로 장수를 보면 변상과 홍전서, 요해서가 모두 5장이고 권1-63장, 권2-66장, 권3-59장, 권4-60장, 권5-57장, 권6-56장, 권7-52, 발문·연화질 2장으로 총 41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서품제일(序品第一)」부터 「보현보살권발품제이십팔(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까지 모두 28품이 각각의 권에 2-6개씩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권과 3-7권말에 시주질을 새겼으며, 일부 목판은 광곽의 좌·우측 하단에도 시주자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이 모두 끝나고 덧붙인 권7 (53, 54)장에는 혜능(慧能)이 찬한 발문에 이어 개판기(開板記)와 왕실축원문 그리고 각수·연판 등 판각과 관련된 직책 및 실무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 조사내용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총 111판에 419장이 판각되어 있다. 대부분 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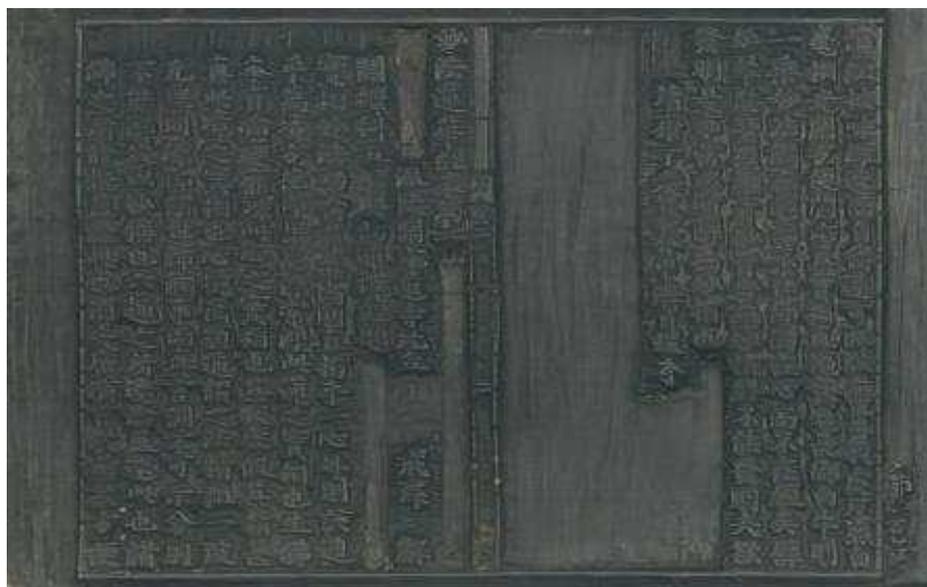
에 2장을 새겨 1판에 4장씩을 판각하였는데 2장 혹은 3장을 새긴 예도 있다. 현재 개심사에는 105판이 소장되어 있고, 본사인 수덕사의 근역성보관에 6판이 기탁된 상태이다.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보인다. 마구리는 별도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측면에는 권장차를 음각으로 새겨 쉽게 판종과 장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판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 세로 23.2cm, 가로 84.7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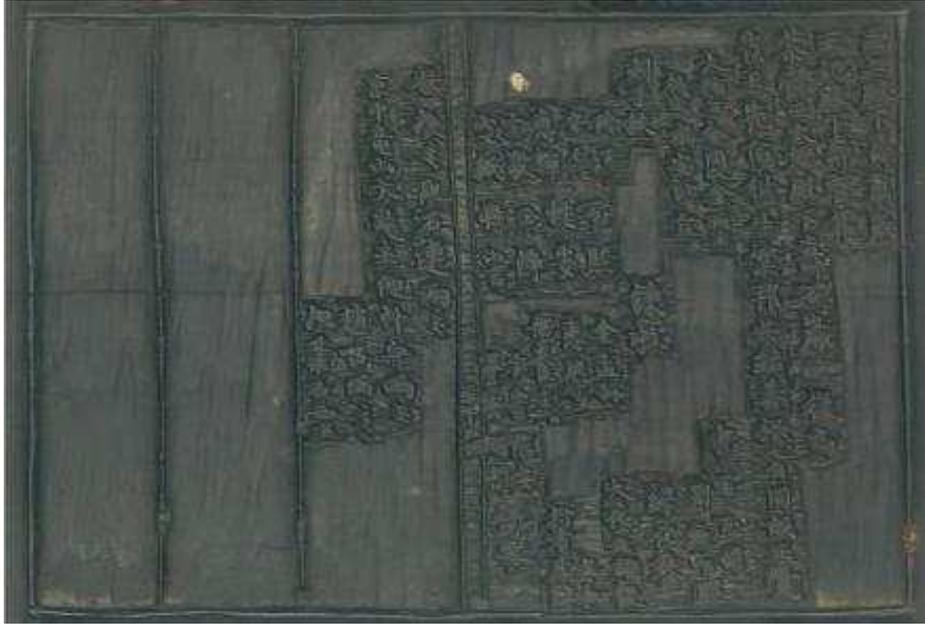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9cm, 가로 27.8cm이다. 반곽에 행자수는 10행20자이며, 계환의 주해는 한 단을 내려 적고 있다. 판심부는 대체로 흑구와 어미가 없으나 일부 판에서는 상대흑구와 상하향흑어미가 보이기도 한다. 판심제는 ‘法’이고 하단에 장차를 새겼는데, 권의 마지막장은 장차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7권 말미에 있는 혜능(慧能) 발문의 간행기록을 통해 본 목판이 1565년(嘉靖 44)에 충청도 서산 가야산의 보원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의 대부분에서 충해 및 균열로 인해 마구리나 글자가 손상된 모습이 확인되며, 마구리가 결손된 목판도 약 30여판에 이르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묘법연화경 권1 \_ 1장 · 요해서1장



[도 2] 묘법연화경 권1 \_ 1장



[도 3] 묘법연화경 권7 \_ 54장

## 15. 계초심학인문 목판(誠初心學人文 木板)

### 가. 심의사항

‘계초심학인문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계초심학인문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계초심학인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8판 (完)
- 규 격 : 광곽 15.4×23.3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제작자 : [鍊板 兼 刻手] 妙淳 / [刻手] 廣惠, 妙淳, 戒禪

### 라.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현재 소장 사찰인 가야산 개심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동

일한 서명의 다른 판본들과 마찬가지로 「계초심학인문」 외에 「발심수행장」, 「자경서(自警序)」,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몽산화상법어약록」 등이 함께 편성되어 있다. 전 8판(32장)으로 결판 없이 완전하게 전한다. 총해나 균열은 없으나 일부 목판은 마구리가 결손 되어 장식의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계초심학인문> 목판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25	대광사	×	
1536	신흥사	×	
1540	석왕사	×	
1563	광흥사	×	
1563	쌍봉사	×	
1566	보현사	×	
1567	쌍계사	×	
1570	무위사	×	
1572	귀진사	×	
1572	용천사	×	
1572	표훈사	×	
1574	월정사	×	
1579	신흥사	×	
1583	덕주사	×	
★1584	개심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03	능인암	○	하동 쌍계사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상세정보

목 판 명	誠初心學人文
저 자	知訥(高麗) 外 著
발행사항	忠淸道 瑞山地 伽耶山 開心寺, 宣祖 17年(1584)
형태사항	匡郭 15.4×23.3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6字, 上下內向混用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十二年甲申八月日忠淸道瑞山地伽耶山開心寺新開刊 版心題 : 誠, 章, 自, 法, 六

### ○ 소장판 목록

(1 · 2, 3 · 4) (5 · 6, 32 · 7) (8 · 9, 10 · 11) (12 · 13, 14 · 15) (16 · 18, 17 · 19) (21 · 20, 22 · 23) (24 · 25, 27 · 26) (28 · 29, 30 · 31)

### ○ 구성 및 내용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은 고려 지눌(知訥,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자경서(自警序)」, 「몽산화상범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등 여말선초에 활동한 고승들의 법어(法語)를 한데 묶어 간행하였다. 본 목판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8판이 전해지고 있다.

『계초심학인문』은 보조국사 지눌이 1205년(開熙 1)에 저술한 것으로 불교수행의 초보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미과(沙彌科)의 이력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단독으로 간행하기보다는 원효의 「발심수행장」, 야운의 「자경서」 등과 묶여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으로 합본되거나 또는 여기에 선사들의 법어를 첨부하여 『계초심학인문』이라는 표제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본 목판도 합본의 형태로 판각되었는데, 「계초심학인문」을 포함하여 신라말 원효(元曉)가 지었다고 전하는 「발심수행장」, 고려 말에 야운(野雲覺牛)가 저술한 「자경서(自警序)」,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하는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범어(院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범어(古潭和尚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그리고, 중국

원대의 승려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저술한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순으로 장차가 이어진다.

###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현재 8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면에 2장씩 판각되어 총 8판에 32장이 새겨져 있다. 1-4장이 「계초심학인문」이고, 5-7장이 「발심수행장」, 8-16장까지 「야운자경서」, 17-21장까지 5대 법어, 21장부터 32장까지 「몽산화상법어약록」이 수록되어 있다.

목판은 각 면에 2장씩 새겨 하나에 목판에 모두 4장씩 판각되었는데 이로 인해 목판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보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와 결구하여 첩로 된 장석(裝錫)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일부 판은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고 장석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목판의 크기는 각 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구리를 제외한 최대크기는 세로 16.2cm, 가로 64.0cm에 이른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5.4cm, 가로 23.3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8행16자이며, 「몽산화상법어약록」은 9행 18자로 새겼다.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와 화문어미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판심은 각 저술별로 ‘誠’, ‘章’, ‘自’, ‘法’, ‘六’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32장의 개판기를 살펴보면, 1584년(萬曆 12) 8월 충청도(忠淸道) 서산지(瑞山地) 가야산(伽耶山) 개심사(開心寺)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 있는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도 같은 해 9월에 개판하였고, 연판 검 각수도 모두 같아 동일한 장인집단이 연속해서 개판에 참여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목판은 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마구리가 결손되어 장석의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마구리 및 장석 등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계초심학인문 \_ 1·2장



[도 2] 계초심학인문 \_ 1장 확대



[도 3] 계초심학인문 \_ 32장

## 16.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道家論辨牟子理惑論 木板)

### 가. 심의사항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4판 (缺)
- 규 격 : 광곽 16.6×22.6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0년(선조 13)
- 제작자 : [書寫] 崔豪世 / [開刊] 妙敬, 惠崙, 廣惠, 太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0년(선조 13)에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간행되었다. 이

도가논변모자리혹론(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또는 『리혹론(理惑論)』라고도 한다. 전 5판중에서 제1장 등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서산 개심사에는 4판이 전한다. 그런데 마지막 제17장은 『달마대사관심론』 속에 편입 판각되어 있다. 목판은 전체적으로 흰개미가 목판 내부로 들어간 흔적이 확인된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80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결판 1판)
1636	영취산 통도사	×	
1638	보성 대원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道家論辨牟子理惑論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伽耶山 普願寺, 宣祖 13年(1580)
형태사항	匡郭 16.6×22.6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7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八年庚辰四月日新刊于伽耶山普願寺 版心題 : 牟子

○ 소장판 목록

(3 · 2, 14 · 13) (4 · 5, 7 · 6) (8, 15 · 16) (9 · 11, 10 · 12)

※ 1판 1장 결 : 1

※ 17장 : 『達磨大士觀心論』에 편입

○ 구성 및 내용

『도가논변모자리혹론(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한(漢)나라 사람으로 전하는 모자(牟子)가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쓴 글로, 일반적으로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혹은 『리혹론(理惑論)』로 불린다. 본 목판은 1580년(萬曆 8)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4판이 전해진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중국 양(梁)나라 승우(僧祐, 445-518)에 의해 『홍명집(弘明集)』 1권에 편입되어 간행되었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초조(初雕) 및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에도 『홍명집』으로 포함되었으며, 단독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시대 중엽 이후로 여겨진다.

본문은 37편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내용에 따라 불교의 연원과 역사, 불교 교리, 불교 윤리, 불교 풍속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질문은 불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비판한 것으로서 불경(佛經)이 지나치게 광대하다는 지적, 당시 승려들의 행동과 불교에서 주장하는 청정(淸淨)과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 도가의 신선술(神仙術)과 불도와의 관계, 불경에 나오는 부처의 모습인 32상 80종호에 대한 사람들의 시비, 불교의 출가와 효(孝)로 대표되는 유교적 인륜과의 문제, 불교가 외래 종교인만큼 중국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현재 1장은 유실되어 총 4판이 전해지고 있으며, 마지막 17장은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論)』 목판의 종장인 22장과 함께 새겨져 있다.

목판은 대부분 한 면에 2장씩 새겨졌기 때문에 좌·우로 긴 장방형이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4· 5, 7· 6)판은 마구리가 결손되었는데, 장부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마구리를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구리를 제외한 목판의 전체크기는 세로 약 19.0cm, 가로 75.9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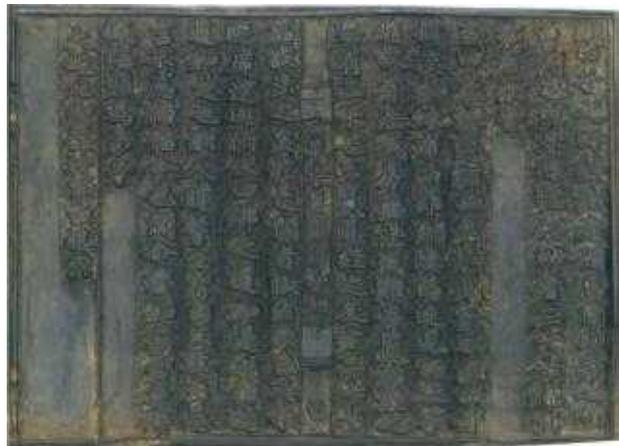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6.7cm, 가로 22.7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7행15자이고,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에 흑구(黑口)는 새기지 않았으며, 판심제는 ‘牟子’이고, 하단에 장차를 기록하였다.

본 목판의 개판기록은 『달마대사관심론』 22장과 나란히 새겨진 17장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1580년(萬曆 8) 가야산 보원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각을 담당한 각수 가운데 광혜(廣惠)는 개심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7)과 『달마대사혈맥론(達磨大師血脈論)』(1579)의 판각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가야산 맞은편에 자리한 개심사에서 1584년 개판한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에도 각수로 참여한 점이 확인되므로 당시 양 사찰에서 동일한 장인집단이 활발하게 목판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은 마구리가 결손된 1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흰개미가 뚫고 목판 내부로 들어간 흔적이 확인된다. 마구리 및 충해방지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도 1] 도가론변모자리흑론 \_ 3 · 2장



[도 2] 도가논변모자리흑론 \_ 16장



[도 3] 도가논변모자리흑론 \_ 17장

## 17.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

### 가. 검토사항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6판 (完)
- 규 격 : 광곽 18.9×28.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제작자 : [鍊板 兼 刻手] 妙淳 / [刻手] 廣惠, 妙淳, 戒禪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충청도 서산의 가야산 개심사에서 판각된 것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한다. 그 중에서 개심사에서 간행한 이 목판은 6판(23장)으로 완전하게 전한다. 목판은 흙으로 인해 오염된 것이 다수이며, 일부 목판은 충해와 균열 등으로 글자까지 훼손되어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97년	전라 진안 현암	×	
1522년	충청 무량사	×	
1536년	지리산 신흥사	×	
1539년	안동 광흥사	×	
1541년	안변 석왕사	×	
1565년	황해도 석두사	×	
1566년	평안도 안국사	×	
1566년	전라 고산 안심사	×	
1568년	충청 쌍계사	○	공주 갑사(결판 1판)
1568년	보은 법주사	×	
★1584년	가야산 개심사	○	서산 개심사(완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蒙山和尚六道普說
저 자	蒙山(元) 著
발행사항	忠淸道 瑞山地 伽耶山 開心寺, 宣祖 17年(1584)
형태사항	匡郭 18.9×28.1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6行不定字, 上下內向混用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十二年九月日忠淸道瑞山地伽耶山開心寺新開刊

○ 소장판 목록

(1 · 2, 5 · 6) (4 · 3, 7 · 8) (9 · 10, 18 · 17) (11 · 12, 15 · 16) (13 ·

### ○ 구성 및 내용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은 원(元)의 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본 목관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개관한 것으로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6관이 전해지고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우리나라 선종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의 승려 몽산 덕이가 육도윤회와 사성(四聖)을 설명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육도(六道)란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 등으로 인간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을 일컫는다. 여기에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佛) 등의 사성을 더해 십계(十界)를 설하고 있다.

### ○ 조사내용

개심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 목관은 한 면에 2장씩 새겨진 형태로 총 6관23장이 전하고 있다. 권수제는 ‘蒙山和尚六道普說’이며, 마지막 23장에는 간기와 시주질 등이 새겨져 있다.

목관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형태로 세로 20.0cm, 가로 72.9cm에 이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한 형태이며, 일부의 목관은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또한 마구리와 장부를 나무못으로 고정하고, 더불어 마구리 상·하단부에 철로 된 장식을 이용하여 목관과 마구리를 고정하고 있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9cm, 가로 28.1cm이다. 반곽은 6행이며, 1행의 자수는 13-15자로 일정하지 않다. 판심부의 어미는 흑어미와 화문어미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흑구는 없으며, 판심제 없이 하단에 장차를 새겼다.

마지막 장의 개관기록을 통해 본 목관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忠淸道) 서산(瑞山) 가야산(伽耶山) 개심사에서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하는데, 진안 용출사 현암본(1497) 계통의 해서체 13자본이 가장 많으며, 개심사본은 행서체의 15자본인 일월사본(1432), 자비령사본(1490), 대광사본(1509)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개심사본에는 광혜(廣惠), 묘순(妙淳), 계선(戒禪) 등이 연판 겸 각수자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광혜는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관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7)에도 각수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목관은 흙으로 인해 오염된 판이 다수이며, 일부 판에서는 충해 및 균열 등으로 글자면까지 훼손되고, 마구리가 유실된 목관이 많아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몽산화상육도보설 \_ 1·2장



[도 2] 몽산화상육도보설 \_ 23장 간기

## 1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 가. 심의사항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26판 (缺)
- 규 격 : 광곽 20.3×3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77년(선조 10)
- 제작자 : [刻字] 道明, 廣惠, 信峯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77년(선조 10)에 충청도 서산의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현재 개심사에는 26판(55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원래의 목재 모양을 목판에 그대로 이용한 탓에 U자형, V자형 등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개심사에서 간행한 목판의 한 특징이다. 흙으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다수의 목판이 곰팡이 등의 충해와 균열이 확인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66	평안도 안국사	×	
1576	안동 광흥사	×	
★1577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32	수청산 용복사	×	
1647	순천 송광사	○	송광사(완판)
1662	보성 개흥사	×	
1670	계룡산 갑사	×	
1680	묘향산 보현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저 자	大愚(朝鮮) 集述
발행사항	忠清道 瑞山地 伽耶山 普願寺, 宣祖 10年(1577)
형태사항	匡郭 20.3×35.4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五年丁丑季夏六月日忠清道瑞山地伽耶山普願寺留鎮 版心題 : 豫修文, 豫修疏, 豫修通, 緘, 緘受

○ 소장판 목록

- 豫修通 : (1, 豫修文-11) (2, 豫修文-18)  
 豫修文 : (1, 2) (3, ×) (4, 31) (5 · 37, 16 · 15) (6 · 12, 7 · 8) (9, 10) (19 · 13, 17) (14, ×) (20, 29) (21, 27) (22, 23) (24 · 28, ×) (25, 30) (26, 38) (32, ×) (33, 34) (35, 36) (39, ×) (40, 豫修疏-3) (41, ×) (42, ×)  
 豫修疏 : (1 · 4, 緘-6 · 緘-5) (2, 7)

壽生經 : (10 · 8, 9 · 11)

※ 2판 7장 결 : [수생경] 1, 2, 3, 4, 5, 6, 7

### ○ 구성 및 내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의식인 예수재(豫修齋)에 대한 의식집이다. 편찬자인 송당 대우(松堂大愚)의 생몰년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16세기 간본이 전하고 있어 그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목판은 1577년(萬曆 5) 충청도(忠淸道) 서산지(瑞山地)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판본을 보면 여러 의식문들이 합철되어 있어 체제는 판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수천왕통의(豫修薦王通儀)」를 시작으로 「예수문(豫修文)」이 이어지며, 본문인 「예수문」은 통서인유편(通敘因由篇),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등 총 31편으로 구성되고, 각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소청사자소(召請使者疏)」, 「수설명사승회합합소(修說冥司勝會咸合疏)」,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으로 연결된다.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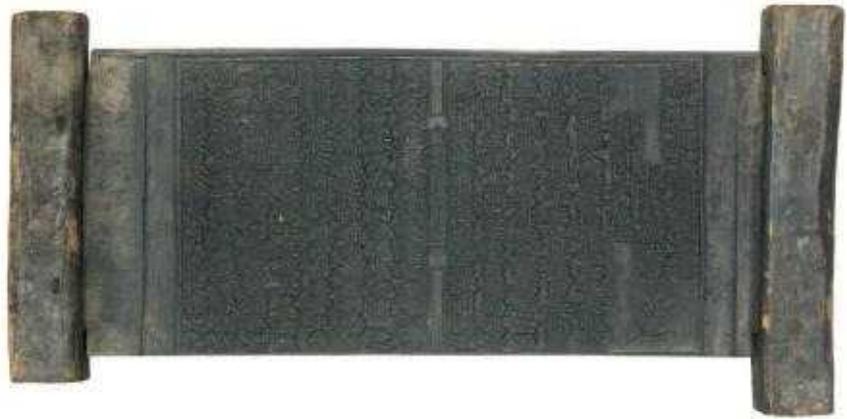
개심사 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여러 가지 의식문을 합철하여 새긴 것으로 본문 42장과 「예수천왕통의」, 「소청사자소」 등과 함께 총 26판에 55장이 전해진다. 구성과 행자수가 동일한 안동 광흥사간본(1576년)과 비교해 보면 「예수문」 31장이 유실되었으며, 42장에 시주질을 비롯한 간행 기록을 새기고 있다.

목판은 판목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목을 재단하지 않고, U자형, V자형, 계단형 등으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판재의 형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판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 판에 전후로 2장 내지 4장을 새긴 것이 대부분이나 1장이나 3장을 판각한 경우도 있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는 형태로 결구하였는데, 대부분의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각 목판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대 세로 27.7cm, 가로 81.4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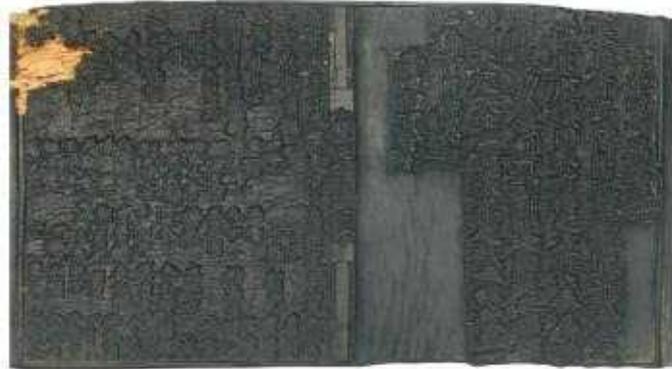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0.3cm, 가로 35.4cm이다. 반곽에 행자수는 8행16자이고, 「예수천왕통의」 등의 의식문은 11행19자이다. 판심부는 상하내향 흑어미에 상하대흑구이고, 판심제는 ‘豫修通’, ‘豫修文’, ‘豫修疏’, ‘咸’, ‘受’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져 있다.

「예수문」 42장에 새겨진 간행 기록을 통해 본 목판은 1577년(萬曆 5)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개판에 참여한 ‘大施主 朴允石’ 등 시주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아래로 ‘道明’, ‘廣惠’, ‘信峯’ 등의 각수의 이름이 이어진다.

목판은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크고, 대부분 마구리가 유실되어 보존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흙으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다수의 목판이 곰팡이 등의 충해와 균열이 확인되어 마구리와 함께 보수가 필요하다.



[도 1]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豫修文 \_ 1·2장



[도 2]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豫修文 \_ 42장



[도 3]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佛說壽生經\_ 8장

## 19.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木板)

### 가. 심의사항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5판 (完)
- 규 격 : 광곽 15.7×22.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21년(광해 13)
- 제작자 : [刻手] 敬崧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621년(광해군 13)에 충청도 덕산의 상왕산 가야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현재 개심사에는 목판 5판(19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흠으로 인한 일부 오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현황

간행시기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60	肅川府 館北	×	언해본
1568	순창 취암사	×	
★1621	상왕산 가야사	○	서산 개심사(완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淸洪道 德山地 象王山 伽倻寺, 光海 13年(1621)
형태사항	匡郭 15.7×22.1cm 四周單邊, 有界, 半葉 7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天啓元年辛酉三月日淸洪道德山地象王山伽倻寺開板 版心題: 六字經

○ 소장판 목록

(參禪圖, 六字經-16 · 梅竹軒志) (1 · 9, 4 · 2) (6 · 3, 7 · 5) (10 · 8, 12 · 11) (13 · 14, 15 · 眞言)

○ 구성 및 내용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은 육자진언(六字眞言)에 의해서 선정을 닦는 행법(行法)과 공덕을 설하고 있는 책으로, 줄여서 『육자신주(六字神呪)』, 『육자주(六字呪)』라고도 부른다. 본 목판은 1621년(天啓 元年) 충청도(당시 淸洪道) 덕산(德山) 상왕산(象王山) 가야사(伽倻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총 5판이 소장되어 있다.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은 관음보살을 부르는 주문 6자만 암송하면 온갖 과업을 끊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편자(編者) 및 성립시기 등은 미상이나 중국에서 원(元)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재를 살펴보면, 크게 「참선도(參禪圖)」와 「매죽헌(梅竹軒)」의 간행기 그리고 본문과 개판기로 구성된다. 「매죽헌(梅竹軒)」은 불가의 선정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근본이라 하여 편찬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은 선정에 처음 들었을 때 주의할 점을 밝힌 초입선정(初入禪芝)을 시작으로 심신청정(心身淸淨), 삼보공양(三寶供養), 염송진언(念誦眞言), 관상육자관음상(觀想六字觀音相), 관념육자공덕상(觀念六字功德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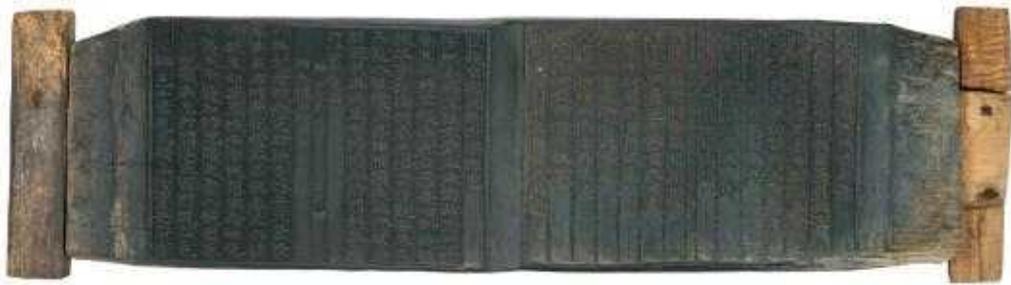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여 1판에 모두 4장이 새겨진 형태로 총 5판에 19장이 새겨져 있다.

목판은 각 면에 2장씩 새겨졌기 때문에 좌우로 길어진 직사각형 형태이며, 크기는 최대 세로 16.9cm, 가로 60.3cm에 이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도록 홈을 파서 결구하였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5.7cm, 가로 22.1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7행15자이고, 판심부는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의 형태에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판심제는 ‘六字經’ 또는 ‘六字’이며, 그 아래로 장차를 새겼다.

마지막 16장에 새겨진 간기를 통해 본 목판이 1621년(天啓 元年) 충청도 덕산지 상왕산 가야사에서 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여러 경전을 판각한 공덕으로 모든 육도 중생이 정토왕생하여 부처의 설법을 듣기를 바라는 발원문(願我以諸經刻板功德 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 同歸淨土同見彌陀 同聞正法同化衆生)과 함께 목판이 판각된 시기와 판각처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불사를 시주한 김국남(金國男) 등 6명의 속인과 판각을 담당한 각수 경은(敬崧) 등이 확인된다.

목판은 흙으로 인한 일부 오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도 1]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1·9장



[도 2]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참선도



[도 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16장 간기

## 20.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 가. 심의사항

‘오대진언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오대진언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6차 회의(11.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11.14~'17.12.13)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오대진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9판 (完)
- 규 격 : 광곽 17.5×2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04년(선조 37)
- 제작자 : 미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604년(선조 37)에 가야산 강당사(講堂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오대진언

은 1485년(성종 16)에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어 범자(梵字)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달아 처음 간행되었다. 그래서 범자와 한글의 용법 연구에 자료가 된다. 개심사 소장의 이 목판은 판심체가 「五大」인 것으로 보아 오대진언 중에서 수구즉득다라니만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심사에는 9판(28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은 마구리의 결손과 충해로 인한 훼손이 있다.

<오대진언(수구즉득다라니)>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sup>2)</sup>

간행년	명칭(간행범위)	간행지	현존 여부	비고
[1485]	오대진언		×	학조 발문
1531	오대진언	지리산 철굴	×	
1534	오대진언	묘향산 도솔암	×	
1535	오대진언	황해도 심원사	×	
1550	오대진언	풍기 철암	×	
★1604	오대진언 (수구즉득다라니)	가야산 강당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34	오대진언	불명산 쌍계사	○	합천 해인사(완판) 2판(4장)은 후대보판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2)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이응백외, 한국사전연구소, 1998)에서는 오대진언수구경(五大眞言隨求經)으로 되어 있음.

## 조사보고서

### ○ 상세정보

목 관 명	五大眞言
저 자	不空(唐) 譯
발행사항	瑞山地 伽耶山 講堂寺, 宣祖 37年(1604)
형태사항	匡郭 17.5×25.4cm 四周雙邊, 有界, 半葉 9行15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三十二年甲辰十二月瑞山地伽耶山講堂寺開刊 版心題 : 五大

### ○ 소장판 목록

(1, 施主秩) (2 · 1, ×) (4 · 3, 6 · 5) (7 · 8, 9 · 10) (11 · 16, 12 · 15)  
(13,14) (18 · 17, 19 · 20) (21, 22 · 23) (24, 26 · 25)

### ○ 구성 및 내용

『오대진언(五大眞言)』은 인수대비(1437-1504)의 명으로 1485년(成化 21) 학조(學祖, 생몰년 미상)가 당시 가장 많이 신앙되고 독송되었던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어 범자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단 책이다. 본 목판은 그 가운데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부분만을 떼어내어 개관한 것으로 현재 9판이 개심사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진언』은 불교의 다섯 가지 진언을 모은 경전으로 이 판은 범자를 쓰고 그것을 음역한 한자 ·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다섯 가지 진언은 수록 순서대로 보면 「대비심대다라니(大悲心大陀羅尼)」 · 「관세음보살여의주수진언(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다. 그런데 개심사 소장 『오대진언』 목판은 그 중에서 「수구즉득다라니」만을 떼어내서 개관한 것으로, 이는 구하는 바를 즉시 얻는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다라니를 설하기 전에 그 주체인 부처님을 찬미하고, 다라니를 들을 마음이 짐을 바로잡는 의미의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계청(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卽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啓請)」을 시작으로 한다. 「계청」 부분은 7언의 한자구로 되어있다.

계청이 끝난 후 「불설일체여래보편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總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가 나오는데 범자를 먼저 쓰고 행을 바꾸어 한글과 한자를 새기는 방식으로 새겼다. 이어지는 진언은 「일체여래심인진언(一切如來心印眞言)」, 「일체여래결계진언(一切如來心眞言)」, 「일체여래심진언(一切如來心眞言)」 등 총 7개이다.

##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 목판은 「수구즉득다라니」 부분만을 판각한 것으로 계청과 시주질 2장, 본문 1장부터 26장까지 총 9판에 28장이 전한다.

목판은 대부분 각 면에 2장씩 새겨져 하나의 목판에 총 4장씩 판각되었는데, 일부의 판은 2장, 3장이 새겨진 판도 있다. 목판은 직사각형으로 좌우 끝에 장부를 마련하고 마구리를 따로 제작하여 결구한 형태인데, 1판을 제외하고는 마구리가 모두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최대 세로 18.8cm, 가로 66.8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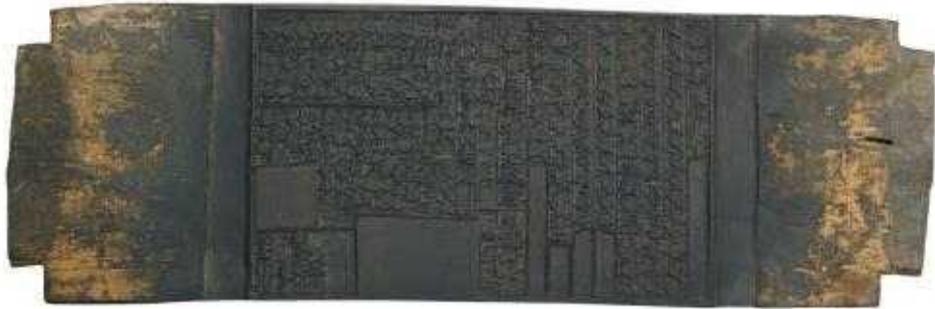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쌍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7.5cm, 가로 25.4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9행15자이고, 판심부의 어미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에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수구즉득다라니」만 판각하였지만 판심제는 ‘五大’로 본래 『오대진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간기판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본 목판은 1604년(萬曆 32) 가야산(伽耶山) 강당사(講堂寺)에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19년(萬曆 47)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서산군 읍지 성격의 『호산록(湖山錄)』에 보원사가 강당사로 불린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강당사는 보원사의 다른 이름인 것이 확인된다.

목판은 1판을 제외하고 마구리가 결손되어 마구리의 보완이 필요하며, 충해로 인한 목판 훼손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존처리도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오대진언 \_ 1장



[도 2] 오대진언 \_ 시주질



[도 3] 오대진언 \_ 시주질 확대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7-07-021

### 2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關係文書)

#### 가. 심의사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의 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4.3.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2017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바 있음.
- 검토 결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일괄 비교조사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보물 제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비교조사(‘17.4.2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3차 회의(6.8)에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관계문서’는 보물 유지 여부 및 지정범위 등 차기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함.
- 관계문서 일괄(총11건) 보완조사(‘17.9.8)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5차 회의(‘17.10.12)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결과, 기 지정 4점에 대해서는 보물로 유지하고 그 외 7점에 대해서는 보물로서의 지정가치 미흡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보물 제575호의 지정 명칭을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에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로 변경하여 30일간 지정예고(‘17.10.27~‘17.11.25)하고, 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575호(관계문서 4종은 제575-1부터 제575-4호)
- 명 칭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關係文書)
- 소유자 : 대승사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대승사 (전두리)
- 수 량 : 문서 11종(4종은 보물로 지정)
- 규 격 : 각 문서별로 기록하였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869~1876년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라.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관계문서 보물지정 여부)

○

고문서 11종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송 문서이다. 조선시대 고문서 중에서 소송문서는 노비와 토지 소유 문제, 그리고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산송(山訟)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문경 대승사에 소장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련 문서는 사찰간의 불상 이안에 따른 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희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부족해 보인다.

첫째, 기 지정된 4점을 제외한 7점은 물금체를 제외한 전령(傳令), 소지(所志), 등장(等狀), 서목(書目) 등의 자료는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는 고문서 양식이다.

둘째, “(9)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는 제사가 앞면과 뒷면 하단에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면을 한 장의 종지로 배접을 해 놓았다. 배접 이후에 제사를 볼 수 있도록 뒷면의 배접지를 문질러 없애면서 원래의 종이까지 훼손되었고, 2개의 관인은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셋째, 문서의 발급시기가 19세기 중·후반이어서 시기적으로도 국가문화재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이미 보물로 지정(1973.12.31)된 4점을 제외한 나머지 7점은 국가문화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마. 조사자 검토 의견(관계문서 국보 승격)

###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목각탱의 소유를 둘러싸고 부석사와 대승사 간에 벌어진 송사에서 생산된 11종의 문서들은 조선후기 사찰의 제반 상황을 연구하는데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작성연대가 19세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화재 지정의 절대연대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목각탱의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문서를 국보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보물로 기 지정된 4종을 포함한 문서 11종은 목각탱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서이다. 그러나 이 소지류의 문서들은 시대적,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찰간의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된 것이며, 생산시기도 19세기 후기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서들은 보물급 문화재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서들은 목각탱의 국보승격과는 별도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11종은 19세기 후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나, 사찰간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 변경

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大乘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관계문서 중의 문서는 모두 11종이다. 내용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浮石寺)와 대승사간에 소송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들이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移安)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 보물 제575-3호), 완의(完議 : 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이들 11종을 <표1>로 정리하고, 문서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관계문서

연번	文書名稱	年代	指定與否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2	보물제575-1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1876.1	보물제575-2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1876.1	보물 제575-3
4	완의(完議)	1876.3	보물 제575-4호
5	금물체(勿禁帖)	1869.1	비지정
6	전령(傳令) 1	1869.3	비지정
7	전령(傳令) 2	1869.3	비지정
8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1	1875.4	비지정
9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2	1875.4	비지정
10	순흥부석사승도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1875.12	비지정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1876.1	비지정

①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二月 日, 題辭: 初八日.

부석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을 대승사로 이안(移安)하려는 시도에 따른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혜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이안을 청원한 문서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②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十七日.

대승사(大乘寺)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벌” 하라 하였다.

③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④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大清 光緒二年 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에 발급한 문서이다.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대승사에서 부석사에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⑤ 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正月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⑥ 전령(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⑦ 전령(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⑧ 부석사승도등장1(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乙亥(1875) 四月 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소장을 보내 대승사가 강탈해 간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다.

⑨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12年(1875)

年代：乙亥(1875)四月 日. 題辭：十七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결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⑩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려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⑪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總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 丙子正月十九日.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감영(監營)의 제사는 “터무니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의 관계문서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11종이다. 이 문서들은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보물 제575-3호), 「완의」(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표1>의 문서 11종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구분	年紀	문서제목	지정현황
1	1869.2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	보물 제575-1호
2	1876.1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	보물 제575-2호
3	1876.1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	보물 제575-3호
4	1876.3	완의	보물 제575-4호
5	1869.1	물금체	비지정
6	1869.3	전령 1	비지정
7	1869.3	전령 2	비지정
8	1875.4	부석사승도등장1	비지정
9	1875.4	부석사승도등장2	비지정
10	1875.12	순흥부석사승도등장	비지정
11	1876.1	영남도총섭서목	비지정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1869년 정월에 대승사로의 이안 시도가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혜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전령으로 알리시어 불상을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2월 8일에 내린 제사에서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였다.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의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결”하라고 하였다.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참된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아마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전령」 1(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7) 「전령」 2(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말도록”한 것이다.

(8) 「부석사승도등장」 1 (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내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9)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4월 17일의 제사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고 하였다.

(10)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현재는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쟁사실의 조사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아마 조사사실이 수록된 별도의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나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정월 19일의 감영(監營)의 제사에서는 “터무니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벌을 주라.”고 하였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의 고문서 11점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문서는 고종 6년(1869) 1월부터 3월 9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대승사 관련 문서, 고종 12년(1875)~고종 13년(1876) 사이에 작성된 대승사와 부석사 간 소송 문서, 고종 13년(1876)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 등이다.

그 중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서는 다음의 4점이다.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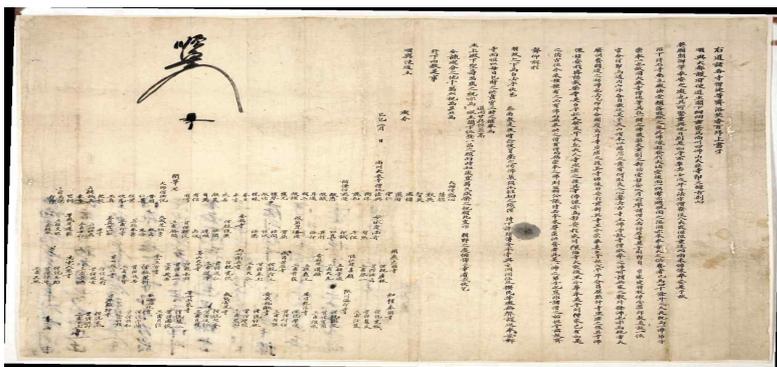
각 문서별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년 정월에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이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大乘寺), 윤필암(潤筆菴), 묘적암(妙寂菴), 반야암(般若菴), 김용사(金龍寺), 혜국사(惠國寺), 남장사(南長寺) 등 많은 사암(寺菴)의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불상의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右道諸各寺僧徒等齋浴焚香百拜上書于順興大都護府使道主閣下細細垂察焉. 尙州四佛山大乘寺卽三韓古刹而英廟朝御筆奉安之處也. 其所緊重與他自別是如乎, 不幸去壬戌年分法宇僧寮沒入火僅僅重建而尙未佛像奉安是乎故, 治下浮石寺金色殿法堂頽落毀撤之後其佛像移安於大法堂後面一隅, 常不避風雨之滲漏亦未奉香火之供養者已爲四十餘年之久矣. 旣爲一佛弟子崇奉一也. 故同大乘寺僧徒等其在一隅之佛像渠矣重創之新法堂移安次月前率諸僧入去浮石寺是乎則, 卽自官家定將校傳令禁斷敎是故一依官分付卽爲退出山外各自散送是乎矣, 山僧本以慈悲之意有何不良之心奪去古寺主佛乎. 該寺僧欲奉之佛可謂無家之數外餘佛也, 亦爲絕香火廢供養悶遣之朽佛也. 去乙卯年分聞慶烏井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京新興寺至今崇奉是白乎口, 戊午年分昌原熊神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密陽載藥寺是白乎口, 又癸亥年大丘夫人寺空虛之後其寺佛像亦爲移安於永川銀海寺火後至今尊奉是乎則, 僧家已有如是之法古往今來種種有之, 而有佛而無奉供之僧有僧而無崇奉之佛則互相公議待去奉來尊崇供養者此是一佛之弟子也, 豈非諸僧之始祖乎. 茲敢齊聲仰訴於明政之下爲白去乎, 伏乞參商敎是後特念彼冒塵之朽佛哀悶此經劫之殘僧特下許題傳令本寺與方洞洞任及口民等處無弊護送奉安新寺. 而恒以每日巳時之供晝宵三時之禮奉爲主上殿下聖壽萬歲之祝, 亦爲道內甘兵位益高城主閣下位登一品之願, 而時和歲豐萬民咸樂之祝願, 此豈非朝野之慶儒釋之幸者哉. 伏乞分諫處分之地千萬血祝爲是1)只爲行下向敎是事.

順興使道主處分

己巳二月日

順興使 [押]

경상우도(慶尙右道) 여러 절 승도(僧徒)들의 상서(上書)

경상우도 여러 절의 승도(僧徒)들은 목욕재계하고 향 사르어 백 번 절하며 순흥대도호부(順興大都護府) 사또님 합하(閣下)께 상서(上書)하오니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상주(尙州)의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는 삼한시대의 고찰이자 영조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요긴하고 소중한 곳이 다른 곳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불행히도 지난 임술년(1862) 즈음 법우(法宇)와 승료(僧寮) 등이 화재를 당해 근근히 중건하였으나 아직도 불상을 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부석사(浮石寺)의 금색전(金色殿) 법당이 퇴락, 훼손된 뒤 그곳에 있던 불상을 큰법당 뒤 한쪽 구석에 옮겨두었는데, 항상 비바람이 들이침을 피하지 못하옵고, 또한 향화를 만들지 못한 지가 이미 4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일불제자(一佛弟子)가 되었으니 존송해 받드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대승사 승도들은 한쪽 구석에 옮겨둔 그 불상을 저희가 중창한 새 법당에 옮겨 모시려고 한 달쯤 전에 여러 승려들을 거느리고 부석사에 들어갔사운데, 관가(官家)에서 장교(將校)를 보내 전령(傳令)으로 금지하셨기에 한결같이 관가의 분부에 따라 즉각 산 밖으로 물러나 각자 흩어져 돌아왔습니다. 산

승들이 본디 자비로운 뜻에서 한 일이지 무슨 불량한 마음으로 옛절의 주불(主佛)을 빼앗으려 했겠습니까? 저희 사찰의 승려들이 받들고자 하는 부처님은 가히 집 없는, 숫자 밖의 여벌 불상이며, 또한 향화가 끊기고 공양이 그친, 민망히 버려진 낡은 부처님입니다. 지난 을묘년 무렵 문경(聞慶)의 오정사(烏井寺)가 비게 된 뒤 그 절의 불상을 서울의 신흥사(新興寺)로 이안(移安)하여 지금까지 귀하게 받들고 있사오며, 무오년 무렵에 창원(昌原)의 웅신사(熊神寺)가 비게 된 뒤에는 그 절의 불상을 밀양(密陽)의 재약사(載藥寺)로 이안하였사옵고, 또한 계해년에 대구(大丘)의 부인사(夫人寺)가 비게 된 뒤로는 그 절의 불상을 역시 화재 뒤의 영천(永川) 은해사(銀海寺)로 이안하여 지금까지 존송하여 받들고 있사옵니다. 그러한즉 절집에 이미 이와 같은 법도가 예전부터 종종 있었사오니, 부처님은 있되 받들어 모실 스님네가 없거나 스님네는 있되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다면 서로 의논하여 모셔가고 받들어와 존송, 공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일불제자의 도리이니, (불상은) 어찌 모든 스님네의 시조(始祖)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우리러 밝은 다스림을 펼치시는 사또께 호소하오니, 엎드려 청하건대 잘 참작하신 뒤 특별히 저 먼지를 무릅쓰고 있는 낡은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액운을 겪은 잔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내리시되 본사와 방동(方洞)의 동임(洞任) 및 계민 등에게 전령으로 알리시어 호송하여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 사시(巳時)의 공양과 밤낮 세 때의 예불을 올릴 때마다 주상전하의 성수만세를 발원토록 하며, 또한 도내 감병(甘兵)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성주(城主) 합하게서는 일품(一品)의 지위에 오르도록 기원드리며, 시절은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즐겁도록 축원한다면 이것이 어찌 조야의 경사가 아니겠으며 유가와 불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청하건대, 잘 분간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흥사또님 처분

기사년(1869) 2월 일

순흥사(順興使)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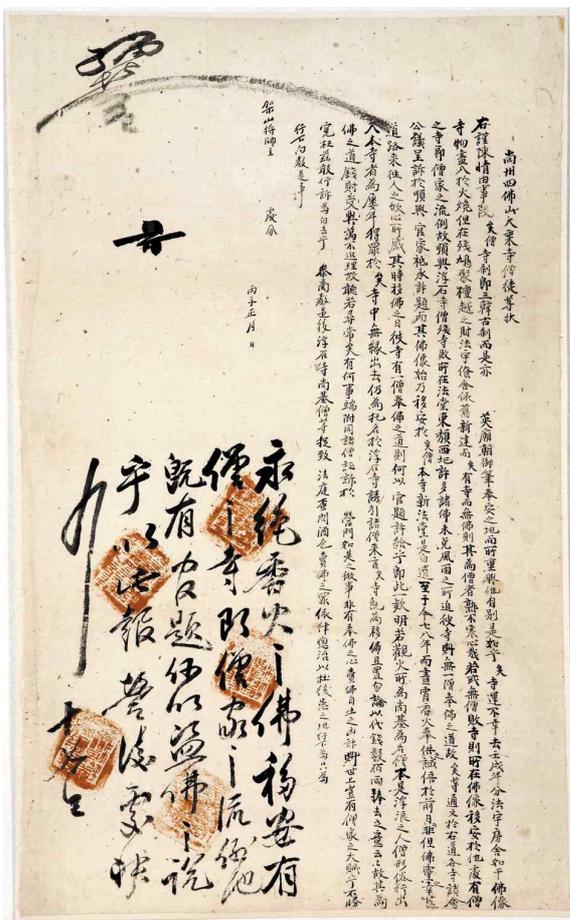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가산장수(架山將帥)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승사에서 순흥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허락을 받은 이후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자 이를 처벌하여 달라 청원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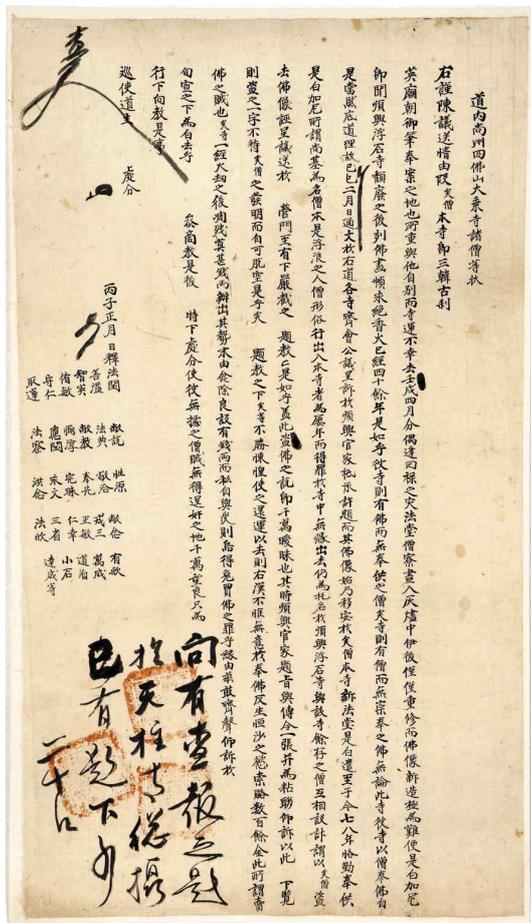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 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1869년에 순흥 관아에서 내린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전령을 첨부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 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의 내용과 같이 관의 허락을 받고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청원이다.



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卽三韓古刹」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 所重與他自別而寺運

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法堂僧寮盡入灰燼中。伊後僅僅重修而佛像新造極爲難便是白加尼」 卽聞順興浮石寺頽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 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供」是白加尼，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人僧形俗行。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以矣僧盜」去佛像誣呈議送於營門至有下嚴截之題教教是如乎，蓋此盜佛之說卽千萬曖昧也。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聯，仰訴以此下覽」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教之下矣等不勝悚惶使之還運以去則右漢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慾索賂數百餘金，此所謂賣」佛之賊也。矣寺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辦出其勢末由口除良，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緣由茲敢齊聲仰訴於」旬宣之下爲白去乎，商教是後 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日

삼가 의송(議送)하는 사정은 저희들의 본사(本寺)는 삼한의 고찰로서 영조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소중함이 다른 절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절의 운수가 불행하여 지난 임술년(1862) 4월 즈음 우연히 불이 나는 재앙을 만나 법당과 승료(僧寮)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뒤 겨우겨우 중수를 하였으나 불상을 새로 조성하는 일은 극히 어렵더니, 순흥(順興)의 부석사(浮石寺)가 퇴락해진 뒤 각불화탱(刻佛畫幀)에 향화가 끊긴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절은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저희 절은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습니다. 이 절이니 저 절이니를 막론하고 승려로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심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사년(己巳年, 1869) 2월 아무 날 경상우도의 각 사찰로 통문을 띄워 함께 모여 공의로 순흥 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삼가 허락하는 관제(官題)를 받들어 그 불상을 비로소 저희들 본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7~8년 동안 근실하게 받들어 왔습니다. 이른바 상기(尙基)라고 이름하는 승려는 본디 부랑자로서 걸모습은 승려이나 행실은 속인이옵니다. 본사에 드나든지 여러 해이온데, 저희 사중(寺中)에 죄를 지어 인연을 끊고 떠나더니 그 길로 순흥 부석사에 이름을 의탁하고는 그곳에 남아 있는 승려들과 일을 꾸며 저희들이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誣告)로써 영문(營門)에 의송(議送)을 올려 마침내 엄중한 제교(題敎)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이 부처님을 훔쳤다는 말은 대단히 애매한 일입니다. 그때 순흥 관가의 제지(題旨)가 전령(傳令)한 장과 함께 첨부되었사오니, 우러러 호소하던대 이것을 살펴보면 훔쳤다는 ‘도(盜)’ 한 글자는 저희들의 발명(發明)을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억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교(題敎)가 내려오자 저희들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들에게 되가져 가도록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자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끝없

는 욕심을 내어 수백 금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부처님을 팔아먹는 도적입니다. 저희 절은 한번 화재를 겪은 뒤 쇠락함이 참으로 심해 돈을 마련해 내놓을 형편이 못 될 뿐더러,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로이 주고받는다면 어찌 부처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죄를 면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이에 감히 목소리를 합하여 왕명에 따라 다스리시는 순사또께 우러러 호소하오니 참작하신 뒤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저 불일 데 없는 승려 도적으로 하여금 멋대로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천만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사또님 처분

병자년(1876) 정월 일

(4) 완의(完議)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完議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대청 광서2년 병자(大清光緒二年丙子, 1876) 삼월(三月)에 이루어진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일은 귀 대승사(大乘寺)와 저희 부석사(浮石寺)는 서로 백리 밖에 떨어져 있으나 모두 같은 도에 있는 옛 가람인데, 총림(叢林)의 흥망성쇠는 이치로나 운수로나 늘 있는 일입니다. 근자에 절의 운세가 부새(否塞)하여 대중들이 흩어진 나머지 금색전(金色殿)이 퇴락하고 기울었으나 수리조차 어려워 제불탱상(諸佛幀像)을 무량수전(無量壽殿)으로 옮겨 모신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귀 사貴寺는 화재 뒤 건물을 새로 세울 즈음 불상을 조성하기가 극히 어려워 저희 절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興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不塞大眾渙散之餘金色殿頽圯難緝，故諸佛幀像移安於無量壽殿多年矣。貴寺火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懇誠。故不得固留而移安間撓弄彼此妄舉也。鄙寺方欲修補祖師殿之舉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無一言證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久愈厚表裏修好之地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의 목조불상(木彫佛像)을 도모하려는 뜻이 있었으니, 같은 불자 동포의 도리로는 간절한 정성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묵혀 두지 않고 옮겨 모시도록 했으니, 그 사이 소란이 생기면 피차간에 잘못된 망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절은 바야흐로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려 합니다. 귀사에서 250냥으로 수리를 돕겠다는 뜻은 참된 정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찌 한마디 말로써 뒷날의 증거가 되는 유적(遺蹟)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합의하오니 오늘 이후 이 일을 살피 날이 갈수록 우의를 두터이 하여 안팎으로 정의(情誼)가 돈독해진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대청 광서(光緒) 2년 병자(丙子, 1876) 3월 일“

이상 보물로 기지정된 문서 외의 7점의 문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관부문서의 하나인 물금체(勿禁帖)로서 관아에서 금한 일을 특정인에게 특별히 허가하여 준 사실을 적은 문서이다. 기사(己巳, 1869) 정월(正月)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물금체

慶尙左道奉化縣太白山城覺華寺  
 璿源實錄兩閣守護兼藝文館僧風糾「正都摠  
 攝爲勿禁護送事」卽者順興浮石寺今者僧殘  
 寺敗佛宇頽」圯佛像顛壞之餘一佛世界一佛  
 弟子」頽圯之像見者旣歎之久矣。不意今  
 者」尙州大乘寺灰堆年久寺勢凋殘永無」佛  
 像。故浮石寺木幘佛陪去奉供之意今」爲侍  
 去爲去乎所到諸處勿爲煩說之」次茲以勿禁  
 護送爲去乎 所經各處」無護送幸甚幸甚。

己巳正月日勿禁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상좌도 봉화현 태백산성 각화사(覺華寺)의 선원각(璿源閣)과 실록각(實錄閣) 수호 겸 예문관 승풍 규정 도총섭은 물금호송할 일

이제 순흥(順興) 부석사(浮石寺)가 근자에는 승려는 줄어들고 절은 피폐해졌으며 건물들은 퇴락하고 불상은 넘어져 무너지니, 같은 부처님 세계의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 쇠락한 모양을 보며 안타까워한 지 오래입니다. 뜻하지 않게 근래에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는 (화재를 당해) 잿더미가 된 지 여러 해여서 사세(寺勢)가 쇠미하고 오래도록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석사의 목탱불(木幀佛)을 모셔다 받들려는 뜻으로 이제 모셔가려 하므로, 이르는 곳마다 번다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게 하니, 경유하는 곳마다 탈 없이 호송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기사년(1869) 정월 일”

(2) 전령(傳令)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기사(己巳, 1869) 삼월초구일(三月初九日)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傳令鳳陽面浮石寺僧徒及近洞頭民洞長  
爲惕念舉行事. 月前大乘寺僧徒以浮石寺佛  
尊移奉次一齊來到而不告于官自下擅便者事  
甚未妥. 故至有逐送之舉是加尼, 今則道內  
諸僧會同公議有此列名等訴. 故不得已許施  
爲去乎移奉之際毋論僧俗更不必岐貳而所經  
各處各別護送是矣, 如或有浮浪之輩橫出作  
拏則懲礪次捉上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傳令

“봉양면(鳳陽面) 부석사(浮石寺) 승도(僧徒) 및 인근 동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에게 보내는 전령(傳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할 일. 한 달쯤 전 대승사(大乘寺)의 승도들이 부석사의 불존(佛尊)을 옮겨 모시려고 일제히 들이닥쳐 관가에 고하지도 않고서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한 것은 그 일이 심히 타당하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쫓아 보내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더니, 지금은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모여 공의(公議)로써 이처럼 이름을 나열하여 등소(等訴)하였다. 그러므로 부득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옮겨 모실 때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다시는 의논이 나뉘지 않도록 하여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되, 만일 부랑배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징려(懲礪)키 위해 잡아 올릴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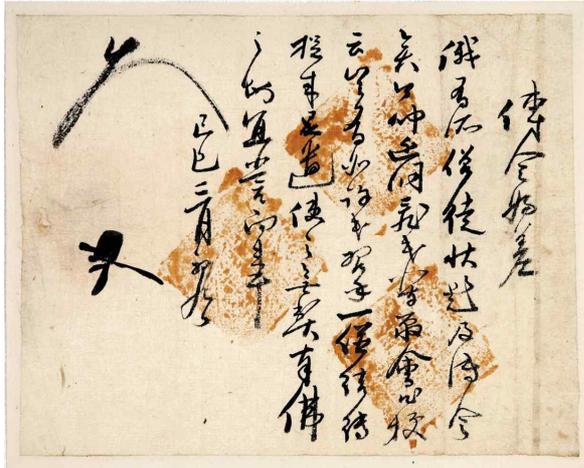
### (3) 전령(傳令)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 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령

傳令將差

俄有所僧徒狀題及傳令矣. 今聞近洞亂民輩聚會作梗云豈有如許民習乎. 一併結縛捉來是遣使之無契奉佛之地宜當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장차(將差)에게 내리는 전령(傳令)

지난번 승도(僧徒)들의 장제(狀題) 및 전령(傳令)이 있었다. 이제 듣자니 인근 동네의 난민(亂民)들이 모여서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어찌 이 같은 민간의 습속이 있겠는가? 모조리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모셔가는 일을 막지 말도록 마땅히 거행할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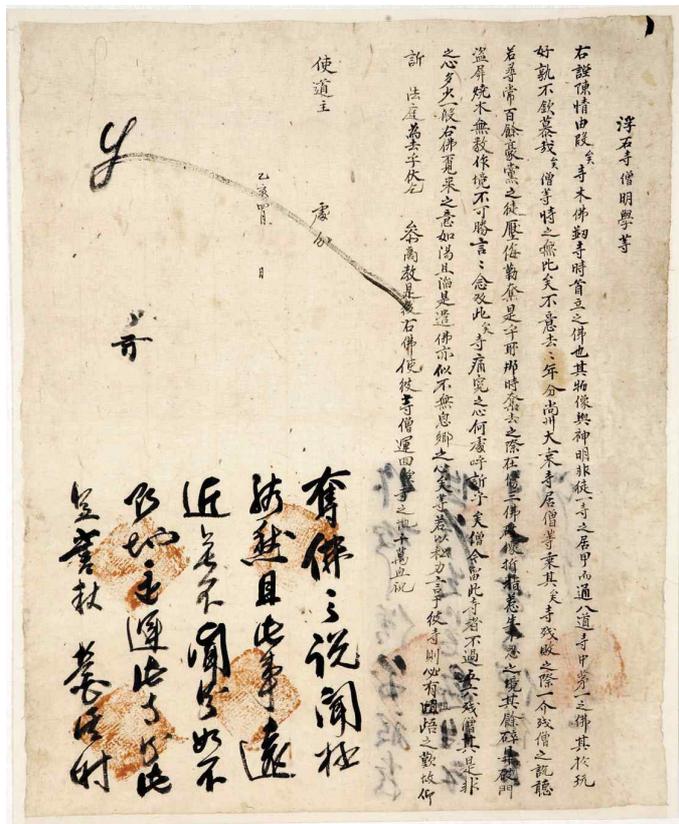
(4)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 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내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부석사 승 명학등(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浮石寺僧徒等狀

浮石寺僧明學等

右謹陳情由段矣寺木佛寺時首立之佛也. 其物像與神明非徒一寺之居甲而通八道寺中第一之佛, 其於玩好孰不欽慕哉. 矣僧等恃之無比矣. 不意去去年分尙州大乘寺居僧等乘其矣寺殘敗之際一介殘僧之說聽」若尋常百餘豪黨之徒壓侮勒奪是乎所, 那時奪去之際在傍三佛破像折指惹生不忍之境. 其餘碎鼎破門」盜屏燒木無數作境不可勝言. 言念及此矣寺痛冤之心何處呼訴乎. 矣僧今留此寺者不過五六殘僧其是非」之心多少一般右佛覓來之意如渴且滔是遣佛亦似不無思鄉之心. 矣等若以私力言于彼寺則必有之歎, 故仰」訴法庭爲去乎伏乞商教是後右佛使彼寺僧運回矣寺之地千萬血祝.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석사(浮石寺)의 승려 명학(明學) 등이 삼가 아뢰올 사정은 저희 절의 목불(木佛)은 절을 창건할 때 처음 세운 부처님입니다. 그 물상(物像)과 신명(神明)함은 비단한 절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팔도(八道)의 절을 통틀어서도 제일가는 불상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 누구인들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비할 바 없이 자랑스

러워하는 바이온데, 뜻하지 않게 지지난해 즈음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에 살고 있는 승려들이 저희 절이 쇠락함을 틈타 일개 못된 승려의 말을 듣고 마치 심상한 일인 양 백여 명의 거친 무리들을 동원해 모욕을 가하고 능탈(勒奪)하온 바, 그 당시 빼앗아 갈 때 곁에 있던 세 불상 또한 형상을 파괴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킴이 차마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숲을 깨트리고 문을 부수며, 병풍을 훔치고 나무에 불을 내는 등 무수한 사단을 일으킴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침에 저희 절의 원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요즈음 이 절에 머무는 저희는 불과 대여섯에 지나지 않지만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이야 매일반이오니, 앞에 말씀드린 불상을 되찾아 오려는 뜻은 마치 목마른 듯, 큰물이 넘치듯 하옵고 부처님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사적으로 저쪽 절에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저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러 법정(法庭)에 호소하오니 엿드려 청하건대 잘 참작하신 뒤 말씀드린 부처님을 저쪽 절의 승려들로 하여금 저희 절로 되돌려주도록 하옵시길 천만 번 소원하옵니다.

사또님 처분

을해년(1875) 4월 일 사”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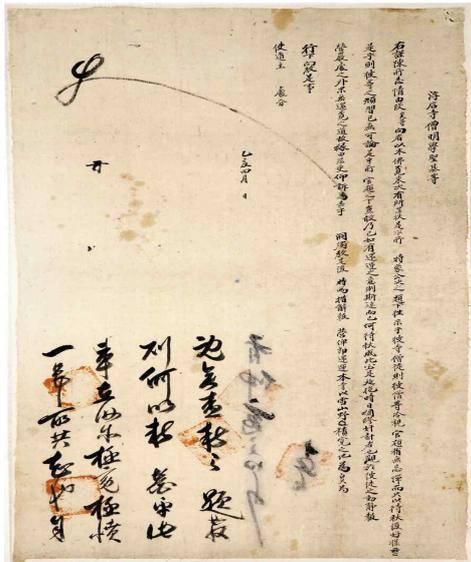
(5)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결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浮石寺僧徒等狀

(6)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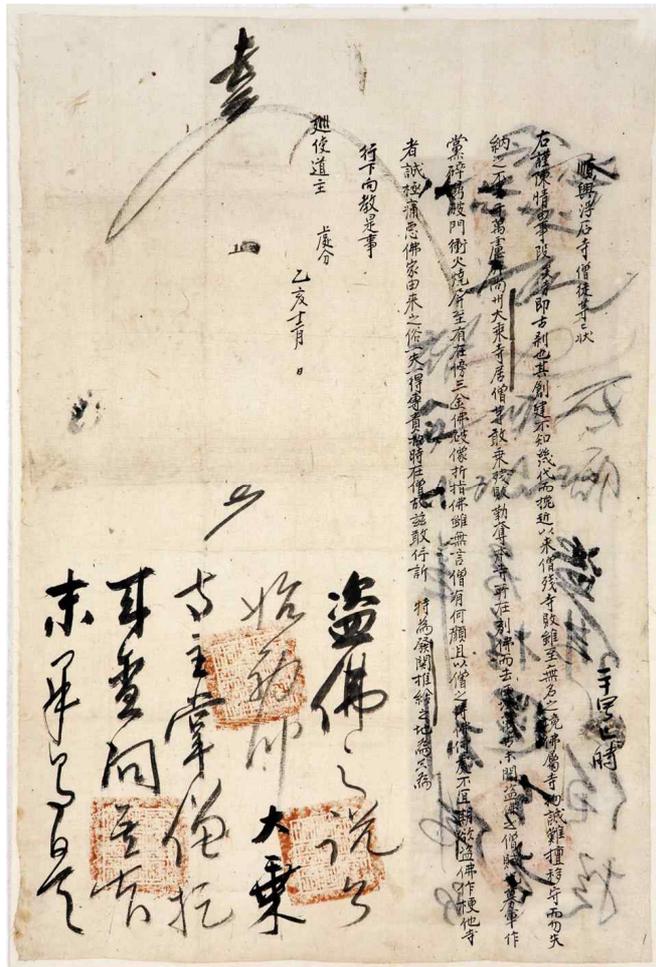
浮石寺僧明學聖基等

右謹陳所志情由段矣等向者以木佛覓來次  
有所呈狀是乎所特蒙公決之題下往示于彼  
寺僧徒則彼僧云「是乎則彼等之頑習已無  
待秋後好樣云」是乎則彼等之頑習已無  
可論是乎所官題之下豈敢乃已. 如有還運  
之意則斯速而已何待秋成. 此必是延拖時日  
網繆奸計者也. 觀於彼徒之動靜報營嚴  
處之外果無還覓之道. 故緣由茲更仰訴為  
去乎洞燭教是後特為措辭報營即還運本寺  
以雪山野積寬之地為白只為  
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右謹陳情由事段矣寺即古刹也。其創建不知幾代而挽近以來僧殘寺敗雖至無名之境佛屬寺物誠難擅移守而勿失。納之不去。千萬慮外尚州大乘寺居僧等敢乘殘敗勒奪本寺所在刻佛而去。西域萬古未聞盜佛之僧賊，況募軍作。黨碎鼎破門衝火燒屏至有在傍三金佛破像折指，佛雖無言僧有何顏。且以僧之侍佛何處不宜期欲盜佛作梗他寺。者誠極痛惡。佛家由來之俗一失一得專責於時在僧。故茲敢仰訴特為發關推給之地為只為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處分

乙亥十二月日  
都巡使 [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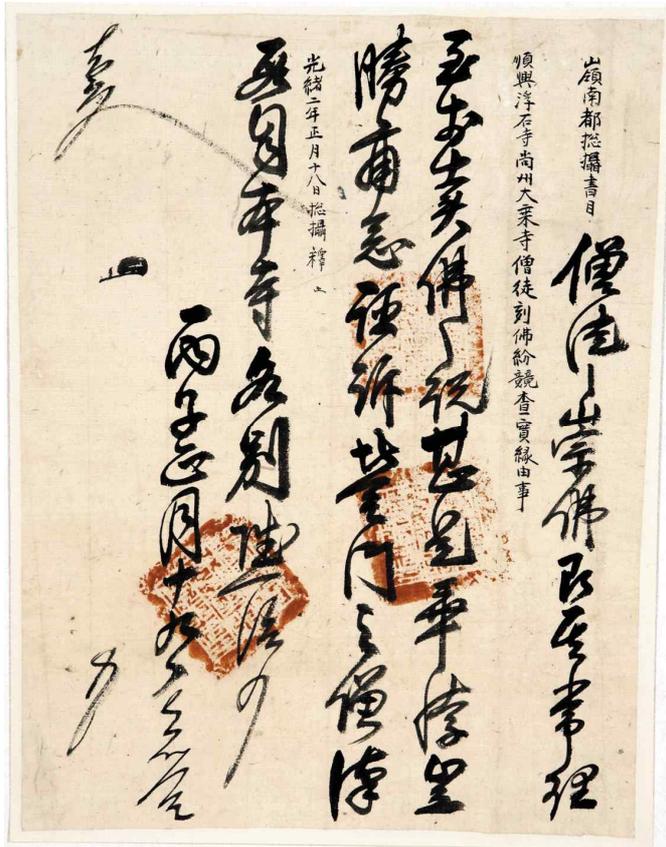
(7)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光緒二(1876) 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aq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쟁사실의 조사 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嶺南都摠攝書目

順興浮石寺尙州大乘寺僧徒刻佛紛競查實緣由事.

光緒二年正月十八日攝釋[手決]

순흥 부석사와 상주 대승사 승도들의 각불 분쟁의 연유를 사실대로 조사한 일.

僧徒之崇佛即其常理.」至於賣佛之說甚是乖悖豈」勝痛念. 誣訴營門之僧漢」段自本寺各別懲治事.

丙子正月十九日在營

都巡使 [押]

승도들이 부처님을 존송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부처님을 팔아먹는다는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니 어찌 애통한 마음을 가눌 수 있겠는가? 영문에 터무니없이 무고한 승려는 본사에서 각별히 징치할 일.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7-07-022

## 22.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문중 전적’ 현상변경

### 가. 심의사항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문중 전적’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부터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문중 전적’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박재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탁보관)
- 수 량 : (지정수량) 일괄(7종 46점) / (보존처리 대상) 4종 41점  
제1008-1호 나암수록(羅巖隨錄) 4책 / 제1008-2호 당시고취(唐詩鼓吹) 1책  
제1008-3호 당조책림(唐朝策林) 1책 / 제1008-5호 저장일월(渚上日月) 20책  
제1008-6호 저장일용(渚上日用) 16책 / 제1008-7호 통감(通鑑) 3책  
[※ 제1008-4호 만국전도(萬國全圖) 1매 도난신고 됨]
- 규 격 :  
제1008-1호 나암수록 冊1 25.9×23cm, 冊2 31×16.5cm, 冊3 29×17cm, 冊4 28×17cm  
제1008-2호 당시고취 26.5×15.5cm / 제1008-3호 당조책림 21.3×14.2cm  
제1008-5호 저장일월 28×16cm / 제1008-6호 저장일용 28×16cm  
제1008-7호 통감 24×14.7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1989. 08. 01.
- 문화재내용 : 함양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주로 조선 후기의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연대가 오래된 것과 희귀한 것,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뽑아 7종 46점만을 지정하였다. 『나암수록』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당시고취』, 『당조책림』, 『만국전도』, 『저상일월』, 『통감』, 『저상일용』 등이 있다.

『나암수록』은 구한말 유학자였던 나암 박주대(1836~1912) 선생이 구한말의 격변하는 당시의 세태와 상황들을 연차적으로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함양 박씨 정랑공파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미산고택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고취』는 조선 전기 목간본으로 간행한 책으로 1책(권 1~4)이며, 『당조책림』은 조선 전기에 당나라 조정의 책문 75문을 편찬한 것이다. 『통감』은 조선 전기 목활자 간행본으로 18권 3책이다. 『저상일월』은 대하일기의 성격이며, 『저상일용』은 6대 140여년 동안 매일 집에서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20책이다.

이러한 함양 박씨 소유의 전적들은 조선 후기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라. 현 상태

- **당조책림** : 청색계열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장정한 형태이다. 연속적인 습해가 관찰되며, 장정끈이 손상되어 있다. 판심이 분리된 부분이 관찰되며, 표지의 오염과 마모가 심화되어있다.
- **나암수록** : 각권별로 서책의 크기가 불규칙하며, 사용된 지질도 다양한 종이를 혼용해 필사하였다. 표지와 내지의 크기 차이가 심하여 두께 단차로 인해 표지의 추가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판심이 노화로 인해 분리된 부분과 일부 갈라진 본지의 이면에 필사한 부분이 다수 관찰된다. 또한 갈라진 본지의 반엽이 유실된 부분도 관찰된다.
- **저상일월** : 저상일월은 본지를 닥지로 배접 보강한 서책이 다수 관찰되며, 이는 본래 서책의 두께보다 2배 가량 두꺼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매우 다양한 색상으로 청색, 홍색, 황색, 녹색, 보라색 등이 관찰되며, 홍색표지는 본지로 이염된 부분이 다수 관찰되었다. 본지는 한지, 산성지, 유지를 사용하여 혼용해 제작하였으며, 산성지는 노화속도가 매우 빨라 중앙부를 제외한 가장자리 부분의 열화가 심화되어있다. 장정형태는 서로다른 크기의 서책을 많게는 5권 씩 혼입해 장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 **저상일용** : 저상일용은 표지가 유실된 유물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저상일월과 마찬가지로 한지, 산성지, 유지를 혼용해 서책을 제작하였다. 또한 유지로만 제작된 서책도 발견되었으며, 관심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됨에 따라 본래 연결되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상일용 5-15를 제외한 모든 서책은 지심을 이용해 가장정하였으며, 5-15는 견사로 추정되는 책사를 이용해 5침 안정법으로 장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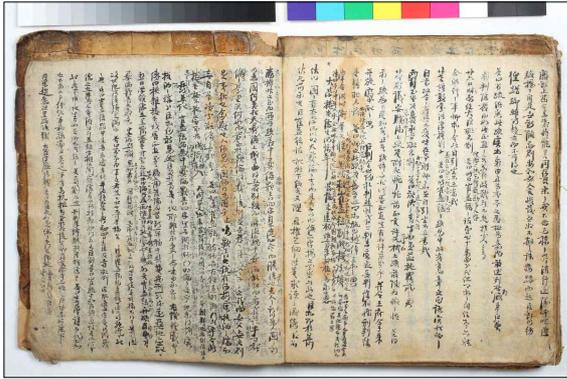


그림 242. 나암수록1-1, 표지와 내지 크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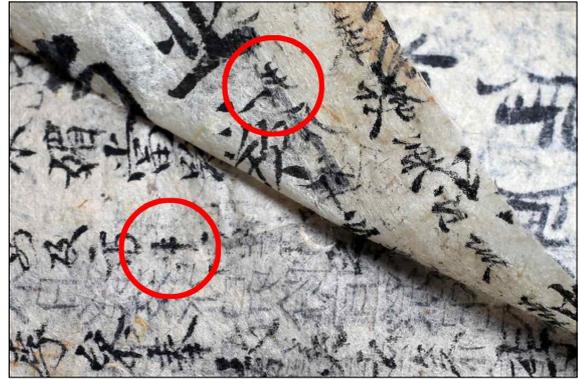


그림 243. 나암수록 1-2, 글씨부분 탈락



그림 244. 나암수록 1-3, 충해



그림 245. 당조책림 장정끈 손상



그림 246. 당조책림, 습해



그림 247. 저상일월 4-8, 내지 해체 및 분리



그림 248. 저상일월 4-11, 표지 염료 이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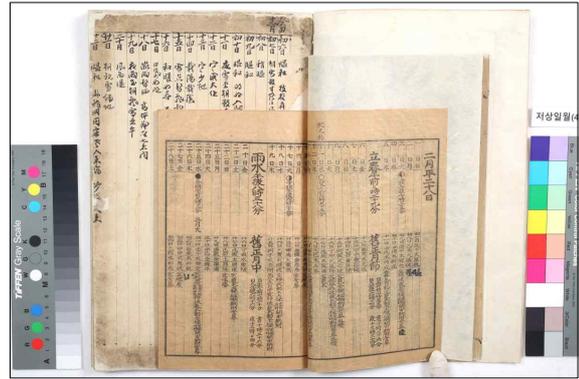


그림 249. 저상일월 4-12, 펄프지 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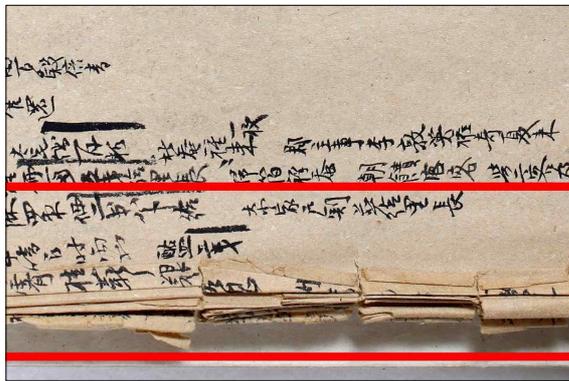


그림 250. 저상일월 4-19, 펄프지 찢김, 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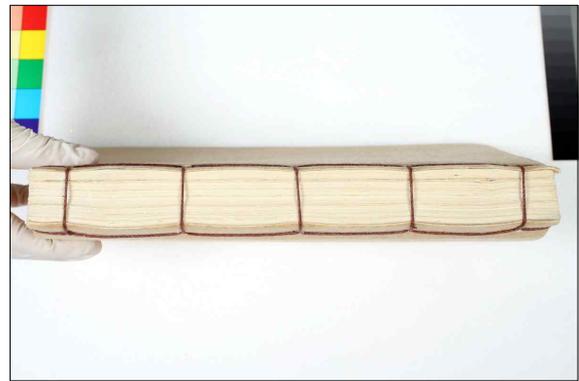


그림 251. 저상일월 4-3, 책지 배접에 의한 두께 증가



그림 252. 저상일월 5-3, 책지 찢김

##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량공파문중 전적’의 보존처리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물리적 손상 가속화 방지 및 원형 보존

## 바. 보존처리 계획

###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처리 전 상태 조사 및 기록(사진촬영, 적외선 촬영, 실측 등)
- 유물의 기본물성(무게, 크기, 두께 등) 및 색도, pH 측정
- 섬유 재질 분석

### ○ 유물 해체

- 유물의 장정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데이터화한 뒤 해체작업을 시행한다.
- 내지가 배접된 책지의 경우 구배접지 제거 여부는 내지의 지질강도, 안정 상태를 점검한 뒤, 지도자문을 받아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거여부를 결정한다.
- 본문내용이 번짐, 또는 탈락 우려가 있는 부분에 아교수용액을 도포하여 박락 막기 작업을 시행한다. 아교액의 접착성분은 오염물을 정착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위에 대한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 ○ 건식클리닝 및 습식클리닝

- 양모뱃을 이용해 유물에 산재된 먼지나 오염물을 털어내고 유물에서 탈락된 부분에 대한 수습작업을 시행한다.
- 습식클리닝 전, 번짐 우려가 있는 잉크나 염료 부분을 체크하여 분리한다.
- 정제수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 및 탈산처리 작용으로 pH를 안정화 시키는 습식클리닝을 시행한다.
- 습식클리닝은 대상유물 표면 안정 상태에 따라 클리닝 방법을 달리한다.

### ○ 메움처리 및 평판작업

- 결손부위에 대한 메움처리를 시행한다. 메움지는 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보존지를 사용하여 메움처리하며 발촉수, 발실간격, 두께 색상 등 최대한 근접하게 제작 및 천연염색 하여 사용한다.
- 분리된 판심은 연결하여 복원하되, 본지의 이면에 내용이 필사된 부분은 서지학 전문분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연결여부를 결정 한다.
- 메움처리 및 판심연결이 완료된 서책은 소량의 습을 가하여 보조지와 흡습지를 삽입해 수일간 압착 건조하여 완전히 퍼주는 작업을 시행한다.

○ 표지 보존처리 및 색맞춤

- 현대식으로 임시 보존처리된 부속품은 분리한 뒤 원형으로 추정되는 표지를 보존처리 및 사용하여 유물의 격식을 되찾는다. 원형으로 추정되는 표지가 유실된 경우 동시대 유사유물 조사를 통해 지도자문을 받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 원형으로 추정되는 표지의 구배접지를 제거한 뒤 메움처리를 시행한다, 메움처리는 표지의 색상, 형태적 조사결과에 따라 제작, 공수된 한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메움처리 후 배접 보강하여 건조판에 부착해 완전건조 한다.
- 배접 보강이 완료된 대상유물의 본지와 메움지간 색상의 이질감이 완화 되도록 색맞춤 처리한다.(색맞춤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재단 및 장정

- 평판작업이 완료된 내지는 원형에 맞게 재단한 뒤 반접하여 원형과 동일하게 정렬한다.
- 정렬된 내지는 해체 시 기록된 장정형식으로 재 장정하되, 기존장정 형식이 원형 방식이 아니거나, 추가적으로 원형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문을 받아 복원작업을 시행한다.

○ 보관 상자 제작

-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책은 오동나무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한다. 보관상자는 서책이 5권 이하로 보관되도록 제작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 보존처리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8. 09. 26.까지 예정  
(사업 계약기간 : 2017. 11. 01. ~ 2018. 09. 26.)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장항문화재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리감독)에서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3.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현상변경

### 가. 심의사항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부터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순흥안씨종중(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탁보관)
- 수 량 : 1첩
- 규 격 : 50 × 37.8 cm
- 재 질 : 장지(壯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1994. 05. 02.
- 문화재내용

사재 안처순(1492~1534)이 중종 13년(1518)에 구례현감에 제수 되어 떠날 때, 동료나 친구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써준 송별 시문을 모아 하나의 첩으로 엮은 것이다. 안처순은 고려시대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안향의 9대손으로, 예문관검열, 홍문관박사와 구례현감 등의 벼슬을 거쳤다.

이 수필첩은 안처순이 세상을 떠난 후인 선조 36년(1603)에 김인후의 발문과 함께 첩으로 만들어졌고, 순조 29년(1829)에 조인영에 의해 전라감영에서 다시 제본한 것이다. 총 3면에서 50면에 이르고 있는데, 수필첩 끝에는 총 24명의 명현들의 성명, 호, 관직 등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중기의 정치사상사 및 서지학 등 학술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라. 현 상태

수회 배접된 합지를 반접하여 첩으로 연결 부착한 형태의 서첩 유물로 당시 서책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17세기 초, 첩으로 재 장황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임시 수리한 흔적이 다수 관찰되며, 표지부분에 부착된 접착식 비닐커버와, 중간부분에 서첩이 분리된 부분을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임시 연결한 부분이 관찰된다. 서첩의 본문부분 바탕지는 오염물질로 인한 변색과, 노화로 인해 갈라짐 등이 관찰된다. 또한 습에 의한 얼룩, 인위적으로 재단된 본문부분, 자연훼손으로 추정되는 찢김, 결손부분이 다수 관찰된다.

본문의 변아에 둘러진 종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분리된 서첩을 연결하기 위해 부착한 셀로판테이프 부착부분의 갈변현상과 배킹 부분의 고착 및 경화 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표지는 황색계열로 염색된 능화표지를 사용하여 장정하였으며, 앞표지의 경우 현대재료인 접착식 비닐커버를 부착하여 원형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비닐 커버는 테스트결과 접착제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무리하게 표지에서 떼어낼 경우 손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보존처리 전 적용재료의 테스트를 통해 유물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전면 사진 (표지 및 분리된 서첩의 본문)



그림 2.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앞표지 접착형 필름지 덮임)



그림 3.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앞표지 접착형 필름지로 인한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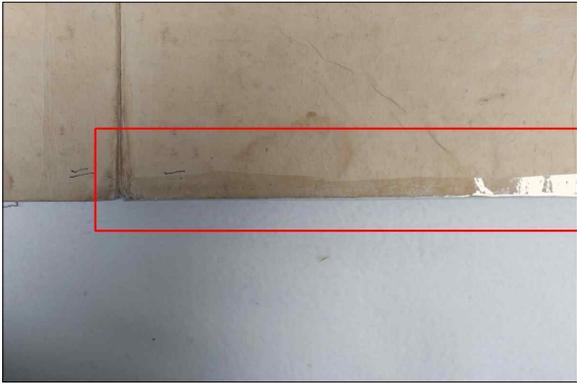


그림 4.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본지 접착형 필름지 덮임 부분)



그림 5.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뒷표지 표면 손상)



그림 6.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과거 보수 부분)



그림 7.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본지 분리 상태)



그림 8.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본지 분리 및 임시 보강된 셀로판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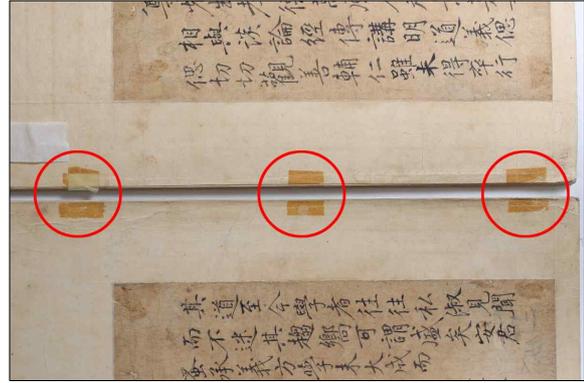


그림 9.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본지 분리 및 셀로판테이프에 의한 갈변)



그림 10.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세부 상태 (본지 오염)

####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의 보존처리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물리적 손상 가속화 방지 및 원형 보존

#### 바. 보존처리 계획

#####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처리 전 상태 조사 및 기록(사진촬영, 적외선 촬영, 실측 등)
- 유물의 기본물성(무게, 크기, 두께 등) 및 색도, pH 측정
- 섬유 재질 분석

##### ○ 자문회의 운영 계획

- 자문회의는 지류 보존처리 관련 전문가 3인을 초빙하여 보존처리 전·중·

후 총 3회를 개최하며, 보존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 ○ 건식 클리닝

- 양모붓을 이용해 유물에 산재된 먼지나 오염물을 털어내고 유물에서 탈락된 부분에 대한 수습작업을 시행한다.

#### ○ 유물 해체

- 유물의 장정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데이터화한 뒤 해체작업을 시행한다.
- 본지와 회장의 분리 시 건식으로 시행하되, 풀의 고착이나, 회장의 강도에 따라 국소적으로 미량의 수분을 가하여 분리작업을 시행한다.
- 해체 시 facing작업을 통해 첩의 본래 형태를 유지한다.

#### ○ 습식클리닝

- 정제수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 및 탈산처리 작용으로 pH를 안정화 시키는 습식 클리닝을 시행한다.
- 습식클리닝은 대상유물 표면 안정 상태에 따라 클리닝 방법을 달리한다.

#### ○ 메움처리

- 결손부위에 대한 메움처리를 시행한다. 메움지는 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보존지를 사용하여 메움 처리하며 발촉수, 발실간격, 두께 색상 등 최대한 근접하게 제작 및 천연염색 하여 사용한다.

#### ○ 표지 보존처리 및 색맞춤

- 앞표지의 경우 접착 필름지의 분리작업을 시행하되,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 유물의 손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상을 유지한다.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지도자문을 받아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 원형으로 추정되는 표지의 구배접지를 제거한 뒤 메움처리를 시행한다, 메움처리는 표지의 색상, 형태적 조사결과에 따라 제작, 공수된 한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메움처리 후 배접 보강하여 건조관에 부착해 완전건조 한다.
- 배접 보강이 완료된 대상유물의 본지와 메움지간 색상의 이질감이 완화 되도록 색맞춤 처리한다.(색맞춤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본지 상황 및 배접

- 보존처리가 완료된 본지와 회장의 배접지를 재단하고, 기존 형식과 동일하게 재장정 한다.

- 장황된 본지는 한지를 이용해 배접하여 보강하고, 배접횟수는 원형유물의 배접횟수와, 자문회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 서첩 제작

- 배접이 완료된 본지는 정렬하여 기중 장정방식으로 연결 부착하여 수일간 압축한다.
- 압축된 본지는 기존제원에 맞게 재단하고 표지를 부착하여 장황을 마무리 한다.

○ 보관 상자 제작

-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책은 오동나무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한다.

○ 보존처리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8. 09. 26.까지 예정  
(사업 계약기간 : 2017. 11. 01. ~ 2018. 09. 26.)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장황문화재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리감독)에서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 토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7-024

### 24. 보물 제525호 및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

#### 가. 검토사항

‘보물 제525호 및 제723호 삼국사기’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0.10)된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및 국보 지정조사 대상 선정 동산분과 제2차 소위원회('17.3.14)에서 추천된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조사('17.7.6/10.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지정현황	보물 제525호	보물 제723호
지정명칭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三國史記)
소유자(관리자)	옥산서원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수량	50卷 9冊	50卷 9冊
규격	各樣(書誌記述 參看)	各樣(書誌記述 參看)
채질	楮紙	楮紙
판종	木板本	木板本
형식	線裝	線裝
조성연대	1573년(선조 6)	1512년(중종 7) 추정
비고	정덕본, 옥산서원장본	정덕본, 성암장본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三國史記」는 한국 최초의 官撰史書라는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그 속에 반영된 國史意識의 객관성과 民族自我意識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조사본 보물 제723호와 보물 제525호의 「三國史記」는 통일신라시대를 포함한 韓國古代史를 연구함에 있어 일연의 「三國遺事」와 더불어 귀중한 史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종조 간본의 완질이 2종뿐이라는 점과 나아가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版本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보물 제723호와 보물 제525호의 「三國史記」는 국가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國益일 듯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본과 보물 제723호 조병순 구장본은 완질본(完帙本)으로 전래되는 삼국사기 판본으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한 참고가 되는 유일한 관찬 역사서이다. 조사대상 자료중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그 후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과 중종 때에 또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이판(異板)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수(卷首) 난(欄) 외부에 『만력원년(萬曆元年)(1573) 월(月) 일(日) 옥산서원상(玉山書院上)』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이 자료가 선조(宣祖) 6년(1573) 무렵 경주부에서 인출되어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이 전존(傳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역시 고려시대에 판각한 것과 조선시대본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권14 제1장 하단부와 권26 제2-9장 하단의 일부분이 손상되었으나 배접되지 않아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본 삼국사기는 50권9책 완질본으로 결질이 없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국보로 기지정된 삼국유사와 함께 높은 자료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의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13세기 후반 이래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을 저본으로 찍은 인출본으로, 『삼국유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국·통일신라·후삼국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다. 12세기 중엽까지의 고려사회의 역사·문화적 실체도 담고 있다. 그리고 완질본으로 보물 제723호의 인출본과 함께 『삼국사기』의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도 주목되며, 고려 및 1394년 잔존 목판본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려왕조에 대한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50권 9책으로 완전하며, 인출상태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특히 인출시기와 유통경로 및 소장경위와 더불어 1573년 당시 경주부에서의 인출종이 종류와 장정형태 등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중세사회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담고 있는 조사대상의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사대상의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는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을 저본으로 찍은 인출본으로, 『삼국유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국·통일신라·후삼국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다. 12세기 중엽까지의 고려사회의 역사·문화적 실체도 담고 있다. 그리고 완질본으로 옥산서원 소장의 인출본과 함께 『삼국사기』의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도 주목되며, 고려 및 1394년 잔존 목판본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려왕조에 대한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50권 9책으로 완전하며, 인출상태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중세사회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담고 있는 조사대상의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옥산서원본) 및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조병순 구장본)은 완질본(完帙本)으로 한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그 후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과 중종 때에 또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이판(異板)이 섞여 있는데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학술적 동향은 물론 목판인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국보로 기지정된 『삼국유사』와 함께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현 상

####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장본)

三國史記. 50卷9冊 / 金富軾(1075-1151,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6(1573)]. 楮紙. 線裝.

내용: 제1책(권01-05): 四周單邊, 半郭 20.1×17.8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1×21.5cm. -제2책(권06-11): 四周單邊, 半郭 19.5×17.4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3cm×21.5cm. -제3책(권12-19): 四周單邊, 半郭 19.8×17.7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3cm×21.6cm. -제4책(권20-26): 四周單邊, 半郭 19.8×18.0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9.3cm×21.6cm. -제5책(권27-29): 四周單邊, 半郭 19.8×18.0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3cm×21.6cm. -제6책(권30-31): 四周單邊, 半郭 20.1×17.5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6cm×21.8cm. -제7책(권32-37): 四周單邊, 半郭 20.7×18.2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9.5cm×21.7cm. -제8책(권38-43): 四周單邊, 半郭 20.2×17.9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5cm×21.5cm. -제9책(권44-50): 四周單邊, 半郭 19.6×18.0cm, 有界, 半葉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3×21.5cm.

#### <보물 제723호> (성암장본,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소장)

三國史記. 50卷9冊 / 金富軾(1075-1151,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7(1512)]. 楮紙. 線裝.

내용: 제1책(권01-05): 四周單邊, 半郭 19.6×17.7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1cm×20.2cm. -제2책(권06-11): 四周單邊, 半郭 20.8×17.5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0×20.8cm. -제3책(권12-19): 四周單邊, 半郭 20.0×17.5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1×20.8cm. -제4책(권20-26): 四周單邊, 半郭 20.0×17.6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1×21.0cm. -제5책(권27-29): 四周單邊, 半郭 19.7×17.2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2×21.0cm. -제6책(권30-31): 四周單邊, 半郭 21.2×17.7cm, 有界, 半葉 行字數不定, 上下內向黑魚尾; 30.0×20.8cm. -제7책(권32-37): 四周單邊, 半郭 19.8×17.3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3×21.0cm. -제8책(권38-44): 四周單邊, 半郭 21.9×17.2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1×20.8cm. -제9책(권45-50): 四周單邊, 半郭 19.5×17.6cm, 有界, 半葉 9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0.0×20.8cm. 楮紙. 線裝.

##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三國史記」는 고려 인종 23(1145)년에 金富軾(1075~1151)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역사를 紀傳體로 엮은 正史로 「三國遺事」와 더불어 한국고대사 연구에 최고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史書이다. 전체의 규모는 <本紀> 28권(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통일신라 12권), <志> 9권, <表> 3권, <列傳>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0권 9책이다.

고려 仁宗의 명에 따라 김부식의 주도하에 崔山甫·李溫文·許洪材·徐安貞·朴東桂·李黃中·崔祐甫·金永溫 등 8인의 參考와 金忠孝·鄭襲明 등 2인의 管句 등 도합 11인의 編史官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이들 편찬자들은 「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독단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古記」·「三韓古記」·「新羅古史」·「舊三國史」 등과 金大問의 「高僧傳」·「花郎世記」·「鷄林雜傳」 및 崔致遠의 「帝王年代曆」등의 국내문헌은 물론 「三國志」·「後漢書」·「晉書」·「魏書」·「宋書」·「南北史」·「舊唐書」·「新唐書」 및 「資治通鑑」등의 중국문헌까지 참고하여 저술한 것이다.

보물 제723호의 「三國史記」는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등에 의하여 소장되고 있는데, 이 성암장본은 중종 7(1512)년에 慶州府에서 간행된 50권 9책의 완질본으로 明朝 武宗의 正德年間に 간행되어 正德本이라 통칭되고 있으며, 이 판본은 板面을 통해서 볼 때 字體와 板式이完연히 다른 3종의 판본이 혼합되어 있다. 이 판본은 고려시대부터 「三國遺事」와 함께 慶州府에 전해오던 「三國史記」의 목판을 朝鮮太祖 3(1394)년에 그 중에서 마멸된 목판만을 古板에 의하여 飜刻하고 中宗 7(1512)년에 이르러 고판 가운데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목판을 새로 補刻한 판본이 혼재된 목판에서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물 제525호는 玉山書院의 淸芬閣에 소장되고 있는데, 이 옥산서원장본은 보물 제723호의 성암장본과 같은 판본이나 옥산서원장본에는 每冊의 제1장 하단 欄外에 「萬曆元年八月日 玉山書院上」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宣祖 6(1573)년 8월 모일에 慶州府가 印出하여 玉山書院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암장본과 같은 목판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출된 것이나 各張의 匡郭과 界線의 단절된 상태 등으로 비교할 때 성암본이 약간 먼저 인출된 듯하다.

「三國史記」는 한국 최초의 官撰史書라는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그 속에 반영된 國史意識의 객관성과 民族自我意識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조사본 보물 제723호와 보물 제525호의 「三國史記」는 통일신라시대를 포함한 韓國古代史를 연구함에 있어 일연의 「三國遺事」와 더불어 귀중한 史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종조 간본의 완질이 2종뿐이라는 점과 나아가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版本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보물 제723호와 보물 제525호의 「三國史記」는 국가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 현 상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장본)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三國事記 / 金富軾(1075~1151, 高麗)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初].

50卷 9冊 : 四周雙邊 半郭 18.9×17.2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5×21.8cm

楮紙.

線裝.

책별 형태사항

책1. 삼국사기 <권 1~5>(三國史記 <卷 一~五>)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8.9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2. 삼국사기 <권 6~11>(三國史記 <卷 六~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9cm×17.3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3. 삼국사기 <권 12~19>(三國史記 <卷 十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3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4. 삼국사기 <권 20~26>(三國史記 <卷 二十~二十六>)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1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6cm×21.7cm

책5. 삼국사기 <권 27~29>(三國史記 <卷 二十七~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3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6cm×21.8cm

책6. 삼국사기 <권 30~31>(三國史記 <卷 三十~三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5cm×17.3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7cm×21.8cm

책7. 삼국사기 <권 32~37>(三國史記 <卷 三十二~三十七>)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8.9cm×16.8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8. 삼국사기 <권 38~43>(三國史記 <卷 三十八~四十三>)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9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6cm

권38 1장-10장 대흑구 없음 / 11장 19.5cm×17.2cm

책9. 삼국사기 <권 44~50>(三國史記 <卷 四十四~五十>)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5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7cm×21.8cm

<보물 제723호> (성암장본,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소장)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三國事記 / 金富軾(1075~1151, 高麗)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初].

50卷 9冊 : 四周雙邊 半郭 19.7×17.4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0×20.2cm, 楮紙. 線裝.

책별 형태사항

(2) 삼국사기 <권 제1~5>(三國史記 <卷 第一~五>)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小 19.7cm×17.4cm 大 21.0cm×17.5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2cm

책2. 삼국사기 <권 제6~11>(三國史記 <卷 第六~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1cm×17.4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책3. 삼국사기 <권 제12~19>(三國史記<卷 第十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0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8cm

책4. 삼국사기 <권 제20~26>(三國史記 <卷 第二十~二十六>)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0cm×17.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1.0cm

책5. 삼국사기 <권 제27~29>(三國史記 <卷 第二十七~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7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2cm×21.0cm

책6. 삼국사기 <권 제30~31>(三國史記 <卷 第三十~三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2cm×17.7cm, 유계(有界), 반엽(半葉) 행자수 부정(行字數不定),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책7. 삼국사기 <권 제32~37>(三國史記 <卷 第三十二~三十七>)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1cm×16.9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3cm×21.0cm

책8. 삼국사기 <권 제38~44>(三國史記 <卷 第三十八~四十四>)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9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8cm

책9. 삼국사기 <권 제45~50>(三國史記 <卷 第四十五~五十>)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5cm×17.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발문 20.5cm×10.6cm, 20.7cm×15.2cm

○ 내용 및 특징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고려 인종 23년(1145)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 삼국유사와 함께 삼국시대 연구의 기본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 1 新羅本紀, 권2 始祖赫居世居

西干~逸聖尼師今, 권3 阿達羅尼師今~訖解尼師今, 권4 奈勿尼師今~昭知麻立干, 권5 智證麻立干~眞平王, 권 6-7 善德女王~太宗王, 권8 文武王, 권9 神文王~聖德王, 권10 孝成王~宣德王, 권11 元聖王~神武王, 권12 文聖王~眞聖女王, 권13 孝恭王~敬順王. 高句麗本紀, 권14 始祖東明聖王~瑜璃王, 권15 大武神王~慕本王, 권16 太祖王~次大王, 권17 新大王~山上王, 권18 東川王~美川王, 권19 故國原王~長壽王 권20 文咨王~平原王, 권21-22 嬰陽王~建武王 권23 寶藏王. 百濟本紀 권24 始祖溫祚王~肖古王 권25 仇首王~枕流王 권26 辰斯王~蓋鹵王 권27 文周王~聖王, 권28 威德王~武王, 권29-31 義慈王. 表, 권32 年表. 志, 권33 祭祀,樂. 권34-37 車服,屋舍 권38-40 地理, 권41-50 職官. 列傳

삼국사기의 간행에 대하여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중간발(重刊跋)을 통하여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쓴 발문에는 '우리나라의 삼국본사(三國本史)와 유사(遺事) 두 책이 다른곳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본부(本府)(경주부(慶州府))에 판(板)이 있는데, 연대가 오래되어 판이 망가져서 한 줄에 겨우 4~5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김거두(金居斗)가 쓴 발문에는 '경주에 있는 『삼국사기』 인본(印本)이 오래되어 망가져 세상에는 사본(寫本)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안렴사(按廉使) 심효생(沈孝生)이 한 벌은 구하여 전부사(前府使) 진의귀(陳義貴)와 간행할 계획을 세워 계유칠월(癸酉七月)에 간행에 착수했다가 모두 이임(離任)하고 그 해 10월에 내가 관찰사(觀察使)(민개(閔開))의 명을 받들어 사업을 계속하여 갑술(甲戌)(1394)에 일을 마쳤다' 라고 하였다.

이 두 개의 발문을 종합하여 보면 삼국유사는 조선 태조(太祖) 3년(1394)에 처음 간행하였고 이계복에 의하여 중종(中宗) 3년(1512)에 중간(重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자료중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그 후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과 중종 때에 또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이판(異板)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수(卷首) 난(欄) 외부에 『만력원년(萬曆元年)(1573) 월(月) 일(日) 옥산서원상(玉山書院上)』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이 자료가 특히 선조(宣祖) 6년(1573) 무렵 경주부에서 인출되어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이 전존(傳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명나라 정덕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정덕본', 옥산서원에 소장된 것으로 '옥산(서원)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또한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역시 고려시대에 판각한 것과 조선시대본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권14 제1장 하단부와 권26 제2-9장 하단의 일부분이 손상되었으나 배접되지 않아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료의 일부면에 불펜으로 면수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학계에서는 '정덕본' 혹은 1512년 임신년을 따라 '임신본'으로 칭하기도 한다.

한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으로 '성암본'으로 일컬어지는 보물 제722호 삼국사기 7권1책은 13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권말이 낙장되어 간기나 발문이

남아있지 않아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후쇄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자료의 평가

조사대상본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본과 보물 제723호 조병순 구장본은 완질본(完帙本)으로 전래되는 삼국사기 판본으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한 참고가 되는 유일한 판찬 역사서이다. 따라서 야사로 평가받는 삼국유사와 함께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간행된 삼국유사가 국보로 기지정되어 있고 보물 지정에 따라 자료의 검증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사대상본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이바지하고 자료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사례

	종목	번호	명칭	수량	시기	관리자(단체)	지정일
1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50권9책	1573년 인출 추정	옥산서원	1970-12-30
2	보물	제722호	삼국사기 권 44-50	7권1책	13세기 추정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1981-07-15
3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50권9책	1512년경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1981-07-15

### ○ 문헌자료

- 천혜봉, “새로 발견된 고판본 삼국사기에 대하여 -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고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5(1982)
- 권덕영,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정리와 편찬 현황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7(2007)
- 김희만, “『삼국사기』 句讀本의 간행과 성격”, 『장서각』 37(2017)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장본)

### ○ 현 상

조사대상의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 경주부에서 찍어 옥산서원으로 보내준 이래 현재까지 전하는 기록유산으로, 『삼국사기』의 인출본 가운데 가장 앞선 1970년 12월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었다.

조사대상본의 전체 50권 9책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앞표지-격지(隔紙)-본문-격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표지·격지는 인출 당시의 장정으로 짐작되며,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삼국사(三國史) 이(二)’, ‘삼국사(三國史) 권지오(卷之五)’ 등의 표제가, 오른쪽 상단에는 작은 글자로 ‘신라본기(新羅本紀)’, ‘백제본기(百濟本紀)/ 연표상(年表上)’ 등의 편목명이 각각 묵서되어 있다.

내지의 본문은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별 책의 제1장 오른쪽 변란 밖에는 ‘만력원년팔월일옥산서원상(萬曆元年八月日玉山書院上)’이라는 묵서와 함께 그 위에 붉은 인장이 찍혀있어 1573년 8월 경주부에서 인출·제책하여 옥산서원으로 보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상란에도 ‘시조(始祖)’ 등의 내용이 묵서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은 권수제-편찬정보-편목-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개별 장에는 판심제도 새겨져 있다. 권50의 권미제 다음 장부터는 2장에 걸쳐 편수관정보-목판조성정보를 포함한 발문이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는 권미제와 마찬가지로 ‘삼국사기권제일(三國史記卷第一)’, ‘삼국사기권제오십(三國史記卷第五十)’과 같이 책명+권제+권차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목록의 경우는 ‘삼국사기목록(三國史記目錄)’의 형식으로 새겨져 있다.

권수제 다음 행에 위치한 편찬정보는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감수국(監修國)……김부식봉(金富軾奉)/ 선찬(宣撰)’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앞 행이 생략되고 ‘선찬(宣撰)’만 새겨진 경우도 있다. 본문은 서체와 함께 상·하란의 규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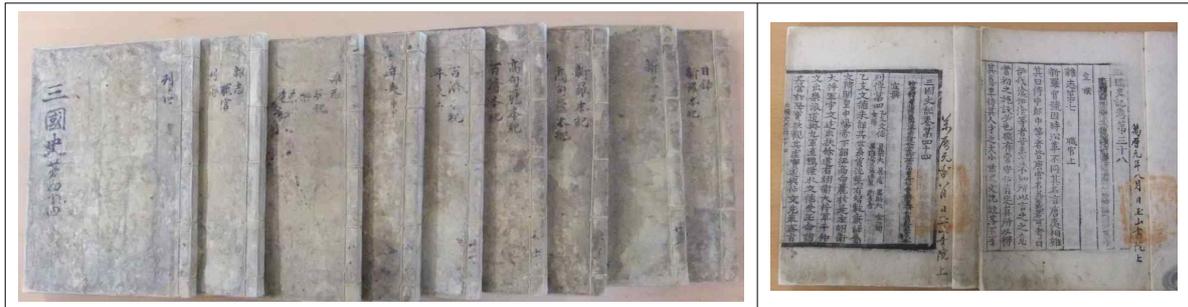
판심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상하향흑어미·무어미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흑구(黑口)·백구(白口) 등도 뒤섞여 있다. 판심제는 작은 글자로 ‘삼국사목록(三國史目錄) 일(一)’, ‘삼국사본기일(三國史本紀一) 일(一)’, ‘삼국사연표이십구(三國史年表二十九) 일(二)’, ‘삼국사지삼십이(三國史志三十二) 일(一)’, ‘삼국사열전사십일(三國史列傳四十一) 일(一)’ 등과 같이 약책명+편목명+권차+장차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발문은 ‘발종(跋終)’이라 새겨져 있다. 편목은 ‘신라본기제일(新羅本紀第一)’처럼 되어있으며, 그 아래 주쌍행의 작은 글자로 ‘시조혁거세거서간(始祖赫居世居西干)……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으로 개별 항목이 표기되어 있다.

발문의 편수관정보는 김영온(金永溫) 등 참고(參考) 8명과 편수(編修) 김부식(金富軾) 및 동관구(同管句) 김충효(金忠孝), 그리고 관구(管句) 정습명(鄭襲明)의 관직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목판조성정보에는 김거두(金居斗)·최득경(崔得罔)·민개(閔開)의 현직이 표기되어 있다. 그 뒤에는 1394년(태조 3) 4월 경주부사(慶州府使) 김거두가 지은 발문이 새겨져 있다. 이 발문으로 인해,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조선초기에 조성된 목판을 찍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보물 제723호 조동기 외 3인 소장의 『삼국사기』 인출본과 마찬가지로 고려판, 1394년 목판, 1512년(중종 7) 목판 3종을 원천자료로 삼아

1573년 8월 인출·제책되었다.

조사대상의 『삼국사기』 인출본은 목록이나 본문 내용이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있고 가필되어 있으며, 어떤 장에는 새김이 생략된 사례도 보인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인출본은 권차나 장차의 결락이 거의 없이 완전하고, 수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은 인출상태가 대체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출시기와 유통경로 및 소장경위 등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 ○ 내용 및 특징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경 김부식(金富軾) 등이 고려 국왕 인종의 명령으로 편찬한 관찬역사서로, 목록과 함께 삼국의 본기와 연표 및 지·열전과 같이 기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삼국사기』는 1281년(충렬왕 7)경 승려지식인 보각국존(普覺國尊) 일연(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역사·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텍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통일신라 및 후삼국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으며, 발해와 고려사회의 역사·문화도 담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에는 삼국~후삼국사회에 대한 고려왕실이나 문인지식인들의 역사인식도 담겨져 있다.

『삼국사기』의 판본은 1174년(명종 4) 이전에 조성된 이후, 13세기 후반, 1394년(태조 3), 1512년(중종 7 : 正德壬申)에도 간행 또는 보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394년 조성사업은 경주부사 김거두(金居斗) 등이 주도하였으며, 1512년의 중간은 같은 해 음력 12월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지은 『삼국유사』의 발문에서

확인된다. 이계복 등이 보각한 목판을 임신본(壬申本)·정덕본(正德本)이라 하며, 현재는 고려판 및 조선초기판과 함께 임신본의 목판이 전하지 않고 있다. 인출본의 경우도 고려판 등은 보물 제722호와 같이 잔존본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의 『삼국사기』는 13세기 후반 이래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을 저본으로 찍은 인출본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의 서체와 상·하란의 규격 및 어미 등의 차이에서 여러 목판을 저본으로 인출하였다고 짐작되며, 저본의 목판은 3종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대상본은 역사·문화적으로나 서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고대~후삼국사회 및 고려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도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물 제723호 등과 같이 완질본으로 『삼국사기』의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주목된다. 그 다음으로, 고려 및 1394년 목판의 잔존본도 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목판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왕조에 대한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의 권50, 궁예전(弓裔傳) 등에는 태조 왕건 등에 부분에서 존경하는 의미로 표시하는 대두(擡頭)가 나타나는 등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의 확인과정에서는 해당 인출목판의 조성시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삼국사기』 가운데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3사례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과 함께 조동기 외 3명 소장의 보물 제722호 및 보물 제723호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 문헌정보

- 유부현,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書誌學研究』 61, 한국서지학회, 2015.
- 천혜봉, 「새로 발견된 古板本 三國史記에 대하여- 書誌學的 側面에서 그 考證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2.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 ○ 지정사례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옥산서원 1970년 12월 지정 : 玉山書院本)
- 보물 제722호 삼국사기 권44~50(조동기 외 3인 1981년 07월 지정)
-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조동기 외 3인 1981년 07월 지정 : 正德本)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9호 삼국사기(계명대학교 2017년 01월 지정)

<보물 제723호> (성암장본,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소장)

○ 현 상

조사대상의 『삼국사기』는 조병순 관장이 운영한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의 소유하고 있는 기록유산으로, 1981년 7월 보물 제723호로 지정되었다.

조사대상본의 전체 50권 9책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앞표지-격지(隔紙)-본문-격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표지·격지는 인출 당시의 장정으로 짐작되며,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삼국사(三國史) 삼십팔지사십사(三十八之四十四)’ 등의 표제가 묵서되어 있다.

내지의 본문은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권에는 제1장의 오른쪽 변란 밖과 마지막 장의 왼쪽 변란 밖 등에는 하단 부분에 ‘성암고서박물관장서□(誠庵古書博物館藏書□)’라는 붉은 색의 소장인이 찍혀있다. 본문은 권수제-편찬정보-편목-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개별 장에는 판심제도 새겨져 있다. 권50의 권미제 다음 장부터는 2장에 걸쳐 편수관정보-목판조성정보를 포함한 발문이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는 권미제와 마찬가지로 ‘삼국사기권제일(三國史記卷第一)’, ‘삼국사기권제오십(三國史記卷第五十)’과 같이 책명+권제+권차의 순서로 표시되어 있으며, 목록의 경우는 ‘삼국사기목록(三國史記目錄)’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 다음 행에 위치한 편찬정보는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감수국(監修國)……김부식봉(金富軾奉)/ 선찬(宣撰)’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앞 행이 생략되고 ‘선찬(宣撰)’만 새겨진 경우도 있다. 본문의 서체와 함께 상·하란의 규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판심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상하향흑어미·무어미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흑구(黑口)·백구(白口) 등도 뒤섞여 있다. 판심제는 작은 글자로 ‘삼국사목록(三國史目錄) 일(一)’, ‘삼국사본기일(三國史本紀一) 일(一)’, ‘삼국사연표이십구(三國史年表二十九) 일(二)’, ‘삼국사지삼십이(三國史志三十二) 일(一)’, ‘삼국사열전사십일(三國史列傳四十一) 일(一)’과 같이 약책명+편목명+권차+장차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발문은 ‘발종(跋終)’이라 표기되어 있다. 편목은 ‘신라본기제일(新羅本紀第一)’처럼 되어있으며, 그 아래에 주쌍행의 작은 글자로 ‘시조혁거세거서간(始祖赫居世居西干)……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으로 개별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발문의 편수관정보는 김영온(金永溫) 등 참고(參考) 8명과 편수(編修) 김부식(金富軾) 및 동관구(同管句) 김충효(金忠孝), 그리고 관구(管句) 정습명(鄭襲明)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목판조성정보에는 김거두(金居斗)·최득경(崔得罔)·민개(閔開)의 현직이 표기되어 있다. 그 뒤에는 1394년(태조 3) 4월 경주부사(慶州府使) 김거두가 지은 발문이 새겨져 있다. 이 발문으로 인해,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조선초기에 조성된 목판을 찍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보물 제525호 옥산서원 소장의 『삼국사기』 인출본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고려판, 1394년 목판, 1512년(중종 7) 목판 3종을 원천자료로 삼아 1512년 이후 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에는 판심의 판심·어미·서체 등의 형태에서 여러 종류의 목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의 『삼국사기』 인출본은 권14 제1장 하반기, 권26 제2~9장, 권48 제4장의 앞면 하단, 권49 제4장의 뒷면 하단 등 본문 내용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며, 어떤 장에는 새김이 생략된 사례도 보인다. 그리고 판심 부분에도 일부의 훼손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인출본은 권차나 장차의 결락이 거의 없이 완전하고, 수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은 인출상태가 대체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경 김부식(金富軾) 등이 고려 국왕 인종의 명령으로 편찬한 관찬역사서로, 목록과 함께 삼국의 본기와 연표 및 지·열전과 같이 기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삼국사기』는 1281년(충렬왕 7)경 승려지식인 보각국존(普覺國尊) 일연(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역사·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텍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통일신라 및 후삼국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으며, 발해와 고려사회의 역사·문화도 담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에는 삼국~후삼국사회에 대한 고려왕실이나 문인지식인들의 역사인식도 담겨져 있다.

『삼국사기』의 판본은 1174년(명종 4) 이전에 조성된 이후, 13세기 후반, 1394년(태조 3), 1512년(중종 7 : 正德壬申)에도 간행 또는 보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394년 조성사업은 경주부사 김거두(金居斗) 등이 주도하였으며, 1512년의 중간은 같은 해 음력 12월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지은 『삼국유사』의 발문에서 확인된다. 이계복 등이 중간한 목판을 임신본(壬申本)·정덕본(正德本)이라 하며, 현재는 고려판 및 조선초기판과 함께 임신본의 목판이 전하지 않고 있다. 인출본의 경우도 고려판 등은 보물 제722호와 같이 잔존본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의 『삼국사기』는 13세기 후반 이래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을 저본으로 찍은 인출본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의 서체와 상·하란의 규격 및 어미 등의 차이에서 여러 목판을 저본으로 인출하였다고 짐작되며, 저본의 목판은 3종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대상본은 역사·문화적으로나 서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고대~후삼국사회 및 고려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1931년 고전간행회(古典刊行會)에서 영인 간행되었으며, 1984년에도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증수 보주한 영인본을 간행 보급하였다. 아울러 이를 저본으로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도 디지털

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옥산서원 소장의 보물 제525호 등과 같이 완질 본으로 『삼국사기』의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주목된다. 그 다음으로, 고려 및 1394년 목판의 잔존본도 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목판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왕조에 대한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의 권 50, 궁예전(弓裔傳) 등에는 태조 왕건 등에 부분에서 존경하는 의미로 표시하는 대두(擡頭)가 나타나는 등 조선사회의 역사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의 확인 과정에서는 해당 인출목판의 조성시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삼국사기』 가운데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3사례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과 함께 옥산서원 소장의 보물 제525호 및 조동기 외 3명 소장의 보물 제722호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 ○ 현 상

三國事記 / 金富軾(1075~1151, 高麗)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朝鮮初].

50卷 9冊 : 四周雙邊 半郭 18.9×17.2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5×21.8cm

책별 형태사항

책1. 삼국사기 <권 1~5>(三國史記 <卷 一~五>)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8.9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7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2. 삼국사기 <권 6~11>(三國史記 <卷 六~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9cm×17.3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3. 삼국사기 <권 12~19>(三國史記 <卷 十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3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4. 삼국사기 <권 20~26>(三國史記 <卷 二十~二十六>)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1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6cm×21.7cm

책5. 삼국사기 <권 27~29>(三國史記 <卷 二十七~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3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6cm×21.8cm

책6. 삼국사기 <권 30~31>(三國史記 <卷 三十~三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5cm×17.3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7cm×21.8cm

책7. 삼국사기 <권 32~37>(三國史記 <卷 三十二~三十七>)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8.9cm×16.8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8cm

책8. 삼국사기 <권 38~43>(三國史記 <卷 三十八~四十三>)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9cm×17.0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5cm×21.6cm

권38 1장-10장 대흑구 없음 / 11장 19.5cm×17.2cm

책9. 삼국사기 <권 44~50>(三國史記 <卷 四十四~五十>)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5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9.7cm×21.8cm

###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 ○ 현 상

三國事記 / 金富軾(1075~1151, 高麗)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朝鮮初].

50卷 9冊: 四周雙邊 半郭 19.7×17.4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0.0×20.2cm

#### 책별 형태사항

책1. 삼국사기 <권 제1~5>(三國史記 <卷 第一~五>)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小 19.7cm×17.4cm 大 21.0cm×17.5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2cm

책2. 삼국사기 <권 제6~11>(三國史記 <卷 第六~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1cm×17.4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책3. 삼국사기 <권 제12~19>(三國史記 <卷 第十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0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8cm

책4. 삼국사기 <권 제20~26>(三國史記 <卷 第二十~二十六>)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0cm×17.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1.0cm

책5. 삼국사기 <권 제27~29>(三國史記 <卷 第二十七~二十九>)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7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2cm×21.0cm

책6. 삼국사기 <권 제30~31>(三國史記 <卷 第三十~三十一>)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2cm×17.7cm, 유계(有界), 반엽(半葉) 행자수부정(行字數不定),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책7. 삼국사기 <권 제32~37>(三國史記 <卷 第三十二~三十七>)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1cm×16.9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3cm×21.0cm

책8. 삼국사기 <권 제38~44>(三國史記 <卷 第三十八~四十四>)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9cm×17.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1cm×20.8cm

책9. 삼국사기 <권 제45~50>(三國史記 <卷 第四十五~五十>)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5cm×17.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8자(字),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30.0cm×20.8cm

발문 20.5cm×10.6cm, 20.7cm×15.2cm

## ○ 내용 및 특징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고려 인종 23년(1145)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 삼국유사와 함께 삼국시대 연구의 기본사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古記」·「三韓古記」·「新羅古史」·「舊三國史」 등과 金大問의 「高僧傳」·「花郎世記」·「鷄林雜傳」 및 崔致遠의 「帝王年代曆」등의 국내문헌은 물론 「三國志」·「後漢書」·「晉書」·「魏書」·「宋書」·「南北史」·「舊唐書」·「新唐書」 및 「資治通鑑」 등의 중국문헌까지 참고하여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내용은 권 1 新羅本紀, 권2 始祖赫居世居西干~逸聖尼師今, 권3 阿達羅尼師今~訖解尼師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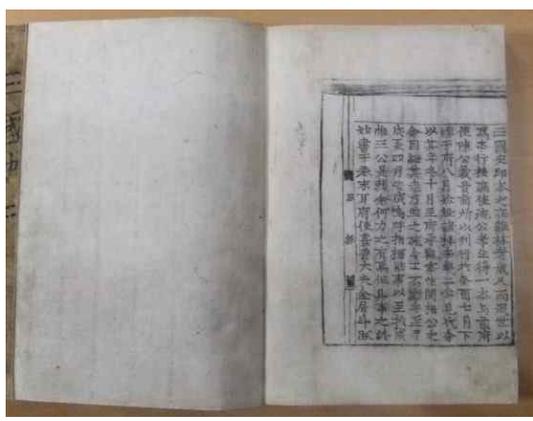
권4 奈勿尼師今~昭知麻立干, 권5 智證麻立干~眞平王, 권 6-7 善德女王~太宗王, 권8 文武王, 권9 神文王~聖德王, 권10 孝成王~宣德王, 권11 元聖王~神武王, 권12 文聖王~眞聖女王, 권13 孝恭王~敬順王. 高句麗本紀, 권14 始祖東明聖王~瑜璃王, 권15 大武神王~慕本王, 권16 太祖王~次大王, 권17 新大王~山上王, 권18 東川王~美川王, 권 19 故國原王~長壽王 권20 文咨王~平原王, 권21-22 嬰陽王~建武王 권23 寶藏王. 百濟本紀 권24 始祖溫祚王~肖古王 권25 仇首王~枕流王 권26 辰斯王~蓋鹵王 권27 文周王~聖王, 권28 威德王~武王, 권29-31 義慈王. 表, 권32 年表. 志, 권33 祭祀,樂. 권34-37 車服,屋舍 권38-40 地理, 권41-50 職官. 列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간행은 김거두(金居斗)가 쓴 발문에 '경주에 있는 『삼국사기』 인본(印本)이 오래되어 망가져 세상에는 사본(寫本)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안렴사(按廉使) 심효생(沈孝生)이 한 벌은 구하여 전부사(前府使) 진의귀(陳義貴)와 간행할 계획을 세워 계유칠월(癸酉七月)에 간행에 착수했다가 모두 이임(離任)하고 그 해 10월에 내가 관찰사(觀察使)(민개(閔開))의 명을 받들어 사업을 계속하여 갑술(甲戌)(1394)에 일을 마쳤다' 라고 하여 1394년(태조 3)에 초간본을 토대로 재간행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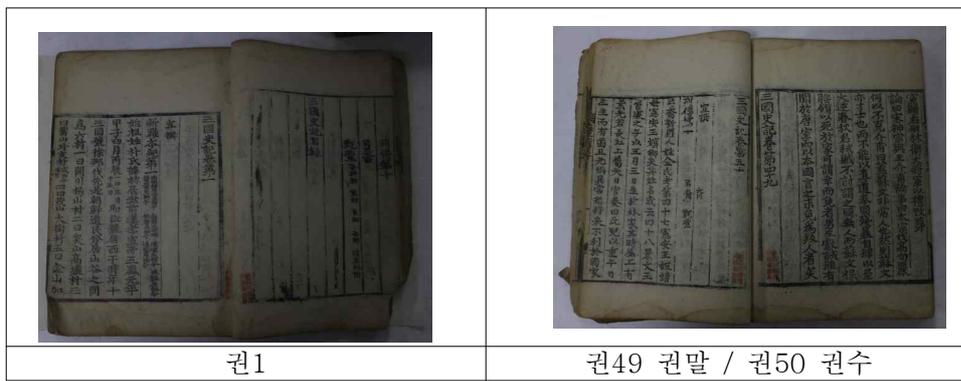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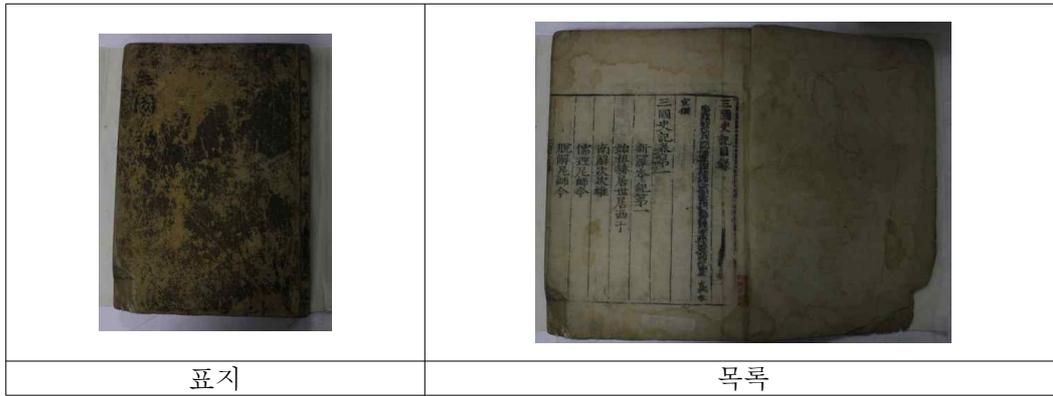
또한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쓴 발문에 '우리나라의 삼국본사(三國本史)와 유사(遺事) 두 책이 다른 곳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본부(本府;慶州府))에 판(板)이 있는데, 연대가 오래되어 판이 망가져서 한 줄에 겨우 4~5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라고 하여 1512년에 다시 중간(重刊)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조사본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청분각(淸芬閣)에 소장되고 있는데, 이 '옥산서원장본'은 보물 제723호의 '성암장본'과 같은 판본이나 옥산서원장본에는 每冊의 제1장 하단 欄外에 '萬曆元年八月日 玉山書院上'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서 1573년(宣祖 6)년 8월 모일에 경주부(慶州府)가 인출하여 옥산서원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그 후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과 중종 때에 또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이판(異板)이 섞여 있다.

한편,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는 '조병순 구장본'으로 알려진 것으로 고려시대에 판각한 것과 조선시대본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권14 제1장 하단부와 권26 제 2-9장 하단의 일부분이 손상되었으나 배접되지 않아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료의 일부면에 볼펜으로 면수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학계에서는 '정덕본' 혹은 1512년 임신년을 따라 '임신본'으로 칭하기도 한다.



김거두 발문



○ 지정사례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옥산서원 1970년 12월 지정 : 玉山書院本)
- 보물 제722호 삼국사기 권44~50(조동기 외 3인 1981년 07월 지정)
-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조동기 외 3인 1981년 07월 지정 : 正德本)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9호 삼국사기(계명대학교 2017년 01월 지정)

○ 문헌자료

- 천혜봉, “새로 발견된 고판본 삼국사기에 대하여 -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고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5(1982)
- 권덕영,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정리와 편찬 현황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7(2007)
- 유부현,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書誌學研究』 61, 한국서지학회, 2015.
- 김희만, “『삼국사기』 句讀本の 간행과 성격”, 『장서각』 37(2017)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5.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 가. 검토사항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8.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7.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866호
- 명 칭 :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 소유자(관리자)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31.1×가로 20.0cm
- 재 질 : 저지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線裝(改裝)
- 조성연대 : 조선시대 초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 권1~2는 조선시대 초기의 판본으로 <王曆>과

<紀異>(권1~2)이다. <王曆>은 三國·駕洛國·後高句麗·後百濟 등의 간략한 年表이며, <紀異>는 古朝鮮으로부터 後三國까지의 단편적인 歷史를 57항목으로 서술한 것이다.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결락된 부분이 없고 壬申本の 誤謬와 誤脫字를 校正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본 版本에 수록된 現傳하지 않는 引用文獻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이미 국보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영대 소장본이나 국보 제306-2호로 지정되어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 권1~2는 國家文化財 國寶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國益일 듯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 삼국유사는 전 소장자인 손보기(1922~2010)의 아호를 따라 학계에 파른本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자료이다. 또한 임신본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2015년 3월 4일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보면 기지정보인 국보 제306호 광영대 소장본이나 국보 제306-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대상본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향후 광영대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과의 상호보완 및 비교 대조를 통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의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는 1394년경 조성된 조선초기 판본의 인출본으로, 신라·고구려·백제·가야 및 통일신라·후고구려(고려 포함)·후백제의 간략 연표인 왕력(王曆)과 함께 고조선~후삼국의 역사·문화적인 사실을 기술한 기이(紀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대사회와 고려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원판이 조성된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되었다고 짐작되며, 권1~2의 전체 장차 가운데 결장도 없는 상태로 조선초기의 『삼국유사』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주목된다. 임신본의 오탈자 및 오류를 보완·교정하고 임신본의 변각 계통본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조선초기 고려왕조에 대한 역사인식도 밝힐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조사대상의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는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학산본·송은본)의 결권과 상호 보완하여 조선초기 판본을 거의 복원하고, 1512년 조성된 임신본의 오탈자 및 오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서의 역

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왕력 부분은 가장 오래된 무결장의 인출본으로 인출 상태와 글자도 선명하며, 임신본의 왕력 내용 가운데 발견되는 오류 및 오탈자를 바로잡는 동시에, 미확인 사실(史實)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를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삼국유사』는 전체 5권 가운데 「王曆」과 「紀異」에 해당하는 권1~2만 남아 있는 책이다. 그러나 조선초기본으로서 「王曆」은 현재 유일하게 확인되는 자료이다.

조선초기본의 복원은 물론 조선 중종대 간행된 임신본(壬申本)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비교 검토하고, 현전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삼국유사』를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三國遺事. 王曆, 卷1~2 紀異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朝鮮時代 初期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cm, 界線,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1.1×20.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表 紙: 後代改裝.

狀 態: 거의 全張이 補接되었음.

傳來歷: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遺族이 延世大學校博物館에 寄贈한 文化財로 2015년 3월 4일에 寶物 第1866號로 指定된 후, 2016년에 同博物館에서 校勘과 影印을 附錄한 「파른본 三國遺事 校勘」을 刊行하여 學界의 研究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評 述: 중종 7(1512, 壬申)년보다 앞선 조선시대 초기에 壬申本에 앞선 系統本의 翻刻으로 추정되며, 壬申本에서 判讀이 어려운 글자의 判讀이 가능하고 現傳하지 않는 引用文獻의 파악도 가능함.

既指定: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3권1책. 중종 7(1512)이전. 광영대 소장.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5권2책. 중종 7(1512)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사본 「三國遺事」는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교수의 유족이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연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한 뒤, 2015년 3월 4일에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되어 현재 연세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同博物館에서 校勘과 影印을 附錄한 「파른본 三國遺事 校勘」을 간행하여 학계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조사본 「三國遺事」의 현재 상태는 거의 全張이 補接되었으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 ○ 조사본의 배경

「三國遺事」는 충렬왕 7(1281)년경에 一然(1206~1289)이 편찬한 史書로 韓國學의 고전이며, 한국 古代의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敎美術·考古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史料의 寶庫이다. 그러나 構成과 體裁의 昏亂, 神異한 說話 그리고 誤字와 脫字 등은 종합적인 研究와 정밀한 校勘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편은 <王曆(권두)>·<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이다.

「三國遺事」는 1310년대와 태조 3(1394, 갑술)년경 그리고 중종 7(1512, 임신)년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초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一然의 제자인 無極(?-?)이 1310년대에 간행한 것이 初刊인지 重刊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후 조선 태조 3(1394)년 무렵에 慶州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일은 「東國通鑑」으로 귀결되는 韓國通史를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刊本으로는 宋錫夏(1904-1948) 舊藏의 石南本과 李仁榮(1911-?) 舊藏의 鶴山本(松隱本, 李秉直:1896-1973)이 전하는데 보물 제306호로 지정된 鶴山本(松隱本, 郭永大所藏)은 전 5권중에서 권3-5이며, 권3의 처음 6장과 권5의 마지막 4장은 결락되어 있다. 石南

本은 1940년부터 宋錫夏의 소장본으로 <王曆>과 제1권만 있는 零本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초기의 간행본으로는 泥山本, 趙種業本, 梵魚寺本 등 몇 종이 있으나 모두 殘本이며, 個人所藏本은 공개되지 않았다.

中宗 7(1512)년에 慶州府尹 李繼福(?-?)이 중간한 판본은 壬申本 또는 正德本이라 한다. 卷末의 跋文에 따르면, 慶州府에 소장된 冊版의 마멸이 심하므로 완전한 판본을 구하여 간행한다고 하였으나, 전 290장의 목판 중에서 약 40장은 옛 木板을 사용하였다. 이 판본은 몇 종이 국내외에 전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日本 天理大學圖書館所藏本(順菴安鼎福의 手澤本), 奎章閣所藏本, 高麗大學校所藏本 등이 있다. 이 壬申本의 影印本이 보급되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고 奎章閣 所藏本은 國史編纂委員會와 奎章閣에서 原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 ○ 조사본의 가치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 권1~2는 孫寶基(1922~2010) 교수의 雅號를 따라 枰本이라고도 일컫는다. 全卷 중에서 <王曆>과 권1-2(<紀異>)만 남아 있다. <王曆>은 三國·駕洛國·後高句麗·後百濟 등의 간략한 年表이고, 권1-2(<紀異>)는 古朝鮮으로부터 後三國까지의 단편적인 歷史를 57항목으로 서술한 것이다.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壬申本(1512)보다 앞선 조선시대 초기에 板刻되었으며, 板刻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印出된 것으로 지질은 얇은 편이다. 그런데 권1-2(<紀異>)에서 字劃의 角度와 劃사이의 공간 등이 壬申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壬申本의 앞선 系統本의 翻刻으로 추정된다. 또한 <王曆>은 두 板本의 書體가 다르나, 板本의 系統性은 조사본인 보물 제1866호 「三國遺事」의 筆體가 壬申本보다 세련되어 조선시대 初期本을 바탕으로 翻刻한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결락된 부분이 없고 임신본의 오류와 오탈자를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이 판본에 수록된 현전하지 않는 인용문헌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이미 국보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영대 소장본이나 국보 제306-2호로 지정되어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보물 제1866호의 「三國遺事」는 국가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三國遺事 卷3~5. 3권1책. 중종 7(1512)이전 판본. 광영대 소장.
- 국보 제306-2호. 三國遺事. 5권2책(완질). 중종 7(1512)년 판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보물 제419-2호. 三國遺事 卷2. 1권1책. 중종 7(1512)이전 판본. 조병순 구장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소장).

- 보물 제419-3호. 三國遺事 卷4~5. 2권1책. 고려시대 말기 판본. 범어사 소장.
- 보물 제419-4호. 三國遺事 卷3~5. 3권1책. 중종 7(1512)년 판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 문헌자료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남권희, “파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문화재검색
- 연세대학교박물관 편, 『파본본 三國遺事 校勘』(影印本 包含). 서울 :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

#### ○ 현 상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三國遺事. 王曆, 卷1-2 紀異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初].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5×17.1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1×20.0cm

楮紙.

線裝(改裝).

楷接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일부 半郭 23.6×16.9cm

#### ○ 내용 및 특징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충렬왕 7(1281)년에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편은 王曆(제1)·紀異(권 제1-2)·興法(권 제3)·塔像(권 제3)·義解(권 제4)·神呪(권 제5)·感通(권 제5)·避隱(권 제5)·孝善(권 제5)이다. 왕력에는 삼국, 가락, 후삼국의 王代와 年表, 기이 권 제1에는 고조선, 삼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역대 諸國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권 제

2는 통일신라와 백제, 후백제, 駕洛國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두 57항목이다. 흥법에는 삼국의 불교수용과 융성에 대한 내용이 6항목, 탑상에는 탑과 불상에 대한 내용 31항목, 의해에는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를 비롯한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 14항목, 신주에는 密敎 神僧의 사적 3항목, 감통에는 勤行感應의 古傳 10항목, 피은에는 행적을 감춘 고승들의 전기 10항목, 효선에는 효행에 대한 미담 5항목을 수록하였다.

삼국유사의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연의 제자인 무극(無極)이 간행했다고 추정하는 1310년대, 조선 태조 3년경 경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1394(갑술)년경, 그리고 중종 7(1512, 임신)년을 들수있다.

이들 중 영인본과 원문 디지털 파일이 제작되어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판본은 중종 7(1512)년에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중간한 ‘임신본’ 또는 ‘정덕본’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권말에 수록된 발문(跋文)에는 경주부에 소장된 책판의 마멸이 심하므로 완전한 판본을 구하여 간행한다고 하였으나, 전체 290장의 목판 중에서 약 40장은 옛 판목을 사용하였다. 국내외에 전하는 것으로는 일본 천리대 소장본(順菴安鼎福 手澤本), 규장각 소장본, 고려대학교 소장본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대상본인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삼국유사는 1512년 임신본보다 앞선 조선초기 간행본으로 추정되며 현재 왕력과 기이 권1-2이 수록된 1책이다.

### ○ 자료의 평가

조사대상본 삼국유사는 전 소장자인 손보기(1922~2010)의 아호를 따라 학계에 파룬본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자료이다. 또한 임신본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2015년 3월 4일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보면 기지정본인 국보 제306호 광영대 소장본이나 국보 제306-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대상본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향후 광영대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과의 상호보완 및 비교 대조를 통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접 후 일부 이미지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접 전 상태점검 촬영이미지와 대조의 필요도 요구된다.

### ○ 지정사례

	종목	번호	명칭	수량	시기	관리자(단체)	지정일
1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3권 1책	1512년이전	광영대	2003-02-03
2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5권 2책	151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04-14
3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1권 1책	1512년이전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2002-10-19
4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2권 1책	[고려말]	범어사	2002-10-19

5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3권 1책	1512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02-10-19
6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2권 1책	1512년이전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5-03-04

○ 문헌자료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162(2013)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2013)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동방학지』 162(2013)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162(2013)
- 연세대학교박물관, 『파른본 三國遺事 校勘』. 서울 : 연세대학교박물관 , 2016.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현 상

-서지사향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 21자/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흑구(黑口)

제첨제 : 三國遺事

권수제 : 三國遺事 王曆第一/ 三國遺事卷第二

관심제 : 三國遺事卷一 十四/ 三國遺事卷二 一

권미제 : 三國遺事卷第一/ 三國遺事卷第二

조사대상의 『삼국유사』 권1~2 인출본은 2013년 고 파른 손보기(孫寶基)교수의 유가족이 ‘파른본 『삼국유사』’라는 명칭으로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기록유산으로, 2015년 3월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된 상태이다.

조사본의 전체 2권 1책은 오침철장법의 선장본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표지·제첨제-격지(隔紙)-본문-격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본문은 권수제-본문(왕력·기이 등)-권미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개별 장에는 관심제도 새겨져 있다. 권수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제일(王曆第一)’, ‘삼국유사권제이(三國遺事卷第二)’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삼국유사권제일(三國遺事卷第一)’, ‘삼국유사권제이(三國遺事卷第二)’와 같이 새겨져 있다. 관심제의 경우는 작은 글자로 ‘삼국유사권일(三國遺事卷一) 십사(十四)’, ‘삼국유사권이(三國遺事卷一) 일(一)’처럼 책명+권+권차+장차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표지·제첨제·격지는 최근에 수리되었으며,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닥종이의 위에 ‘삼국유사(三國遺事)’라는 제첨제가 묵서되어 있다. 본문의 내지(內紙)도 거의 전

체적으로 배접되어 있으며, 판심제도 상당 부분 마모되어 있다. 권1의 제1장 하단에는 묵서된 내용이 지워진 흔적도 보이며, 일부 장에는 상란 부분에 보충 내용이 묵서되어 있다. 권2의 제24·31~34장 등에는 본문의 특정 글자 오른쪽에 점이나 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권2의 제23장 8행 가운데 12번째 글자 ‘세(世)’자와 13번째 글자 ‘계(雞)’자 사이에 작은 글자로 ‘전(傳)’자가 가필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권1~2의 본문 가운데는 오탈자가 발견되고, 권2의 제22장 14행 18번째 글자 ‘석(石)’자의 경우에는 위의 획(一) 부분이 가필되어 있으며, 권2의 제24장 17행 등에는 ‘민(民)’자의 윗부분에 먹칠하여 ‘씨(氏)’자로 수정한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인출본의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은 인출 상태가 대체적으로 선명하게 남아있으므로, 원판이 판각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인출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권1~2의 전체 장차 가운데는 결락된 부분도 없는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삼국유사』는 1281년(충렬왕 7)경 승려지식인 보각국존(普覺國尊) 일연(一然)이 편찬한 역사서로,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편은 왕력(王曆)·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이 편입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역사·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텍스트로, 역사·종교·지리·문학·언어·민속·불교미술 등 다양한 영역의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기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고대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원천자료도 상당하게 보완되어 있다.

『삼국유사』 판본은 초간본의 간행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310년대와 1394년(태조 3)경, 1512년(중종 7 : 正德壬申)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94년 간행된 조선초기 판본과 1512년 음력 12월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중간한 임신본(壬申本·正德本)은 현존하지 않으나, 해당 인출본은 분산적으로 전하고 있다.



[현존 『삼국유사』 인출본]

구분	명칭	현존상태		소장정보	비고	
		권차	결장			
1394년 경(조선 초기본)	과른본	왕력·권 1~2		연 세 대 박물관	과른 孫寶基교수 의 유족 기증	
	石南本	왕력·권1	결장		石南(宋錫夏) 舊藏	
	鶴山本(松隱本)	권3·4·5	권3, 1~6장 권5, 27~30장 발문	郭永大	鶴山(李仁榮)·松 隱(李秉直) 舊藏	
	泥山本	왕력·권1	불명	개인	성암고서 박 물 관 ( 조 동 기 외)	泥山南氏 舊藏
		권2	권2, 17~20장			
	趙種業本	권2	권2, 9·49장	조종업		
梵魚寺本	권4~5	권5, 26~27장	범어사성 보박물관	1907년 吳惺月 스님의 기증		
1512년 壬申本 (正德本)	順菴手澤本	완질본		天理大學 중앙도서 관	順菴(安鼎福) 舊 藏, 今西龍 입수	
	晩松文庫本	왕력·권 1~5	권2, 49장 권3, 1·2장(앞면) 권5, 30장 발문	고 려 대 만송문고	晩松(金完燮)의 기증	
	서울大本	완질		서 울 대 奎章閣	黃義敦 舊藏	
	六堂文庫本	권3·4·5	권3, 1~10장 권5, 18(뒷면)~ 30장 발문	고려대 육당문고	朝鮮光文會(六堂 崔南善) 舊藏	
※ 필사본 및 임신본의 후쇄본은 제외						

현재까지 『삼국유사』의 목판 인출본은 조선초기본이 6종, 임신본이 4종 정도로 국내외에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초기본의 경우는 완질본의 형태가 아닌 개별 권으로 각각 소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대상의 『삼국유사』 권1~2는 1394년경 조성된 조선초기 판본을 찍은 인출본으로, 역사·문화적인 면에서나 서지적인 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선초기의 『삼국유사』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 주목된다. 조사대상의 권1~2는 결장이 없는 상태로, 권3~5의 학산본(鶴山本·松隱本) 및 권4~5의 범어사본(梵魚寺本)과 상호 보완하여 조선초기 조성의 권1~5 원판을 거의 완

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임신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주목된다. 기이1의 고조선 항목에 환국(桓國)으로 오기된 임신본 내용을 환인(桓因)으로 바로잡는 등 임신본의 오탈자 및 오류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왕력의 내용은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다른 인출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본의 왕력 내용은 현재 공개된 조선초기 인출본 가운데 결장도 없이 완전하면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인출상태도 선명하다. 특히 임신본의 왕력 내용 가운데 발견되는 오류 및 오탈자를 바로잡는 동시에, 미확인 사실(史實)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가진다. 네 번째로, 임신본의 번각 계통본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임신본과의 서지학적 특성 및 서체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임신본이 조선초기본을 번각한 판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조선초기 고려왕조에 대한 역사인식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에는 태조 왕건을 비롯한 고려 국왕의 표기 부분에서 국왕을 존경하는 의미로 표시하는 격자(隔字)나 대두(擡頭)가 없는 등 고려왕조에 대한 조선초기의 역사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선초기본 및 임신본의 『삼국유사』 가운데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6사례이다. 국보로 지정된 경우는 광영대 소장의 학산본(鶴山本·松隱本)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서울大本이며, 보물로는 조사대상본인 파른本을 비롯하여 조동기 외 3명 소장의 니산본(泥山本) 권2, 범어사 소장의 범어사본(梵魚寺本),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육당문고본(六堂文庫本)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학산본은 조선초기본이면서 권3~5이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서울대본은 임신본으로 후대 조성경판의 인출본이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파른본은 조선초기 학산본의 결권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학산본 및 범어사본과 상호 연계하여 서울대본의 오류 등도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라 할 수 있다.

## ○ 문헌정보

- 채상식, 「『삼국유사三國遺事』 해제」 『三國遺事』 문화재청·금정구청, 2010.
-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王曆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王曆의 가치」 『新羅史學報』 28, 신라사학회, 2013.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東方學志』 16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연구」 『東方學志』 16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 남권희, 「파른본 『三國遺事』의 書誌 연구」 『東方學志』 16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 연세대학교 박물관,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도서출판 혜안, 2016.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곽영대 2003년 2월 지정 : 鶴山本・松隱本)
-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년 4월 지정 : 서울大本)
-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조동기 등 2002년 10월 지정 : 泥山本)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범어사 2002년 10월 지정 : 梵魚寺本)
-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고려대 중앙도서관 2002년 10월 지정 : 六堂文庫 本)
-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연세대 박물관 2015년 3월 지정 : 枰本)

### □

書誌事項

三國遺事. 王曆, 卷1-2(紀異) / 一然(1206-1289)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朝鮮時代 初期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17.1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1×20.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 ○ 현 상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2는 2013년 1월 16일 파른손보기(孫寶基, 1922~2010) 교수의 유족이 연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이다. 현재 거의 전체가 배접되었으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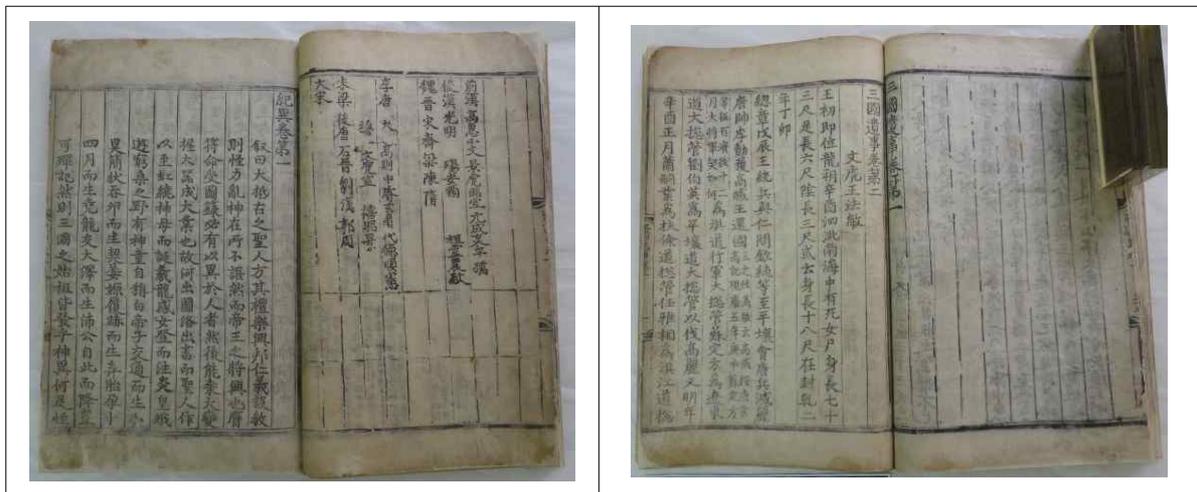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삼국유사(三國遺事)』는 1281년(충렬왕 7)에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사서로 한국학의 고전이며, 한국 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민속·사상·불교 미술·고고학 등에 대한 사료의 보고이다. 그러나 구성과 체재의 혼란, 신이한 설화 그리고 오자와 탈자 등은 종합적인 연구와 정밀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내용은 「王曆」(권1)·「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유사』 판본은 초간본의 간행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310년대와 1394년(태조 3)경, 1512년(중종 7, 正德壬申)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은 옛 소장자인 손보기 교수의 아호(雅號)를 따라 ‘파른本’이라고도 일컫는데 현재 全卷 중에서 「王曆」과 권1~2(「紀異」)만 남아 있다. 판각의 기법으로 보아 1512년(中宗 7)에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중간한 판본인 임신본(壬申本; 正德本)보다 앞선 판본의 번각본(翻刻本)으로 추정된다.

권1의 제1장 하단에는 묵서된 내용이 지워진 흔적도 보이며, 일부 장에는 상란 부분에 보충 내용이 묵서되어 있다. 권2의 제24·31~34장 등에는 본문의 특정 글자 오른쪽에 점이나 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권2의 제23장 8행 가운데 12번째 글자 ‘세(世)’자와 13번째 글자 ‘계(雞)’자 사이에 작은 글자로 ‘전(傳)’자가 가필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권1~2의 본문 가운데는 오탈자가 발견되고, 권2의 제22장 14행 18번째 글자 ‘석(石)’자의 경우에는 위의 획(一) 부분이 가필되어 있으며, 권2의 제24장 17행 등에는 ‘민(民)’자의 윗부분에 먹칠하여 ‘씨(氏)’자로 수정한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조사본은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의 인출 상태가 대체적으로 선명하게 남아있어 원판이 판각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삼국유사』의 목판 인출본은 조선초기본이 6종, 임신본이 4종 정도로 국내외에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초기본의 경우는 완질본의 형태가 아닌 개별 권으로 각각 소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광영대)
-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서울 조병순)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 문헌자료

- 김상현, “『三國遺事』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남권희, “파른본 『三國遺事』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하일식, “『三國遺事』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7-026

### 26.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가. 검토사항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육경합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2.6.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6.26)를 실시하였음.
- 2014년도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14.12.11) 안건으로 부의한 결과, 조선 초기의 판본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육경합부’와는 다른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자 보완조사(’17.11.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담선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치인리24)
- 수 량 : 1卷 1帖(20板 100折)
- 규 격 : 세로 17.0(11.3) × 가로 701.0(35.7)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절첩본(折帖本)

○ 조성연대 : 1370년(공민왕 19)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일반적으로 「六經合部」는 6가지의 佛敎經典을 合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1)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四十二章經」·「佛遺敎經」·「滄山警策」·「首楞嚴神呪」 등이 合本된 「六經合部」와 (2)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이 合本된 「六經合部」의 2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전자인 고려시대의 유형으로 ①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③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 「佛遺敎經」 /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 「滄山警策」, ⑥ 「大佛頂首楞嚴神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부분적인 缺落과 毀損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經典의 構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 판단되며, 또한 跋文과 施主帙 및 刊行帙 등을 통하여 刊行時期와 刊行의 參與人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六經合部」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용담선원 소장의 이 불서는 손상된 부분은 제법 있으나 고려말기 지도층의 주도로 간행된 불경 合本이자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아울러 고려말기에 가장 유행되던 불경들이 어떤 종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은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四十二章經』, 『佛遺敎經』, 『滄山警策』, 『首楞嚴神呪』, 『摩利支天陀羅尼』 등 당대 유행하던 불경을 合本한 것으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서 고려말

조선초의 불교사상사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또한 소형의 절첩본으로 1판 45행 22자 전후로 판각된 것으로 고려시대 목판인쇄문화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전’으로 함)

###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本 「六經合部」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六經合部 / 鳩摩羅什(344~413, 姚秦) 等譯.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恭愍王 19(1370) 推定].

1卷1帖(20板100折): 上下單邊, 全匡 11.3×35.7cm 內外, 無界, 45行22-24字, 無魚尾; 17.0× 701.0cm. 楮紙. 折帖裝.

板頭題: 金, 行, 四, 遺, 滂

卷末跋: 安愼參薦信佻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洪武三(1370, 恭愍王 19)年九月有日 大告新生惠樓東雨書并跋

卷末: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參安輯/ 隨喜助緣山夫安克仁(?~1383)/ 同願龜城郡夫人勝賢/ 同願江陵郡夫人妙藏

卷末: 宏贊 刊/ 同願正林典香竺雲

內容: -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 [郎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1072~1147) 註]. - 「佛遺教經」[一名佛入涅槃略說教誡經] / 後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 「滄山警策」 / [大圓禪師 靈祐(771~853) ; 大洪嗣祖沙門守遂(1072~1147) 註]. - 「首楞嚴神呪」

表 紙: 비단

板 折: 20板100折(板當5折)

狀 態: 卷頭の 제1-4판과 중간부에 부분적으로 缺落이 있고 전체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으로 보수되어 있으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傳來歷: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 )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현재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이다.

既指定: 高麗時代板本(無), 朝鮮時代板本(보물 제965, 보물 제965-2 등)

## ○ 현 상

조사본 「六經合部」는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 )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로,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에 소재한 海印寺 龍塔禪院의 道永禪師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현재 상태는 卷頭の 제1-4판과 중간부에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고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원형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으로 보수되어 있으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六經合部」는 6가지의 불교경전을 합본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유형에는 크게 (1)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首楞嚴神呪」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와 (2)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

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의 2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자는 高麗時代에 유행한 유형의 「六經合部」인 듯하며 후자는 朝鮮時代에 유행한 유형의 「六經合部」인 듯하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전자인 고려시대의 유형으로 ①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③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 「佛遺教經」 /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 「滄山警策」, ⑥ 「大佛頂首楞嚴神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 등은 흔히 「佛祖三經」으로 불리는 경전들로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던 경전들이다. 「四十二章經」은 불교의 要旨를 42장으로 나누어 간명하게 기록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佛垂涅槃略說教誡經」의 약칭으로 불타가 입멸할 때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遺誡를 기록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靈祐禪師(771~853)가 당시 學人들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木板의 板數는 「金剛般若波羅蜜經」 7판,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6판, 「四十二章經」 2판, 「佛遺教經」 3판, 「滄山警策」과 「首楞嚴神呪」 2판으로 도합 20판이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의 앞에는 <金剛經啓請>과 <淨口業眞言> 및 <發願文>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에는 <金剛心眞言>이 수록되어 있으며,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끝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와 <普賢菩薩滅罪呪> 및 <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首楞嚴神呪」의 끝에는 3편의 <摩利支天陀羅尼>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1卷 1帖(20板100折)으로 板頭題는 ‘金’, ‘行’, ‘四’, ‘遺’, ‘滄’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每板의 全匡은 세로 11.3cm 가로 35.7cm 內外이고 行字數는 45行 22-24字의 小字小型本인 점에서 간편하게 受持讀誦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卷末에는 1370(홍무3, 공민왕 19)년 9월에 東雨禪師(?~?)가 지은 “安愼參薦信佗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洪武三(1370, 恭愍王 19)年九月有日 大告新生惠獲東雨書并跋”의 跋文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清益禪師(?~?)와 安輯(?~?)의 主導下에 東雨禪師가 板下本을 쓰고 跋文을 지어 붙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卷末에 있는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參安輯/ 隨

喜助緣山夫安克仁(?~1383)/ 同願龜城郡夫人勝賢/ 同願江陵郡夫人妙藏”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본서의 刊行을 위한 發願과 施主는 釋 清益(?~?), 愼參 安輯(?~?), 山夫 安克仁(?~1383), 龜城郡夫人 勝賢(?~?), 江陵郡夫人 妙藏(?~?) 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宏贊 刊/ 同願正林典香竺雲”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宏贊(?~?), 正林(?~?), 典香(?~?), 竺雲(?~?)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부분적인 缺落과 毀損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經典의 構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 판단되며, 또한 跋文과 施主帙 및 刊行帙 등을 통하여 刊行時期와 刊行의 參與人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六經合部」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사례

조사본 「六經合部」와 동일한 高麗時代板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없으며, 이 보다 늦은 朝鮮時代板本이 보물 제965와 보물 제965-2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 ○ 현 상

제1~4장까지는 평균 절반 정도 손상, 제5, 10~12장은 부분적인 손상이 있음. 미숙한 장인의 솜씨로 개장되었음.

#### ○ 내용 및 특징

이 합본 불경은 모두 20장이며, 1장당 5폭으로 절첩하여 휴대 가능한 소형본(17.0×7.0cm)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하단변이며, 1장은 45행 22자 전후이다. 인쇄상

태로 보아 간행 당시의 초인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 『수능엄신주(首楞嚴神呪)』,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陀羅尼)』 등 7종의 불경과 다라니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홍무 3년(공민왕 19, 1370) 9월에 동우(東雨)가 쓴 발문이 있다. 여기에서 “洪武”의 “武”자는 내리긋는 획이 결획되어 있는데, 고려본에서만 보이는 피휘 결획(避諱缺劃) 방식이다. 발문을 직접 짓고 쓴 동우는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제(愼叅) 안집(安輯)은 부처를 믿음이 독실하였으므로 나와는 사이가 좋았다. 안집의 조카뻘 중에 승려인 청익(淸益)은 지조와 행실이 있었다. 멀리서부터 (내가 머무는) 암자에 와서 “제가 『금강경』을 찍어 베풀고자 하오니, 암자에서 판하본을 마련해준다고 승낙하시겠습니까?” 하였다. 나 또한 이 일에 뜻을 두고 근심으로 삼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글씨를 써서 마치게 되었다. 이에 반야(般若)의 수행과 서원이 없을 수 없으므로 『보현』(『보현행원품』)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이것은 군더더기와 같다. 하물며 6~7장(『사십이장경』, 『위산경책』)과 『유교경』(『불유교경』)을 보태어 처음과 끝을 갖추었으니 어찌 군더더기에 또 군더더기를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반야의 칼날을 사용하면서 이 군더더기를 빼버린다면 혹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리주』(『摩利呪』: 『마리지천다라니』와 『수능엄신주』)도 더욱 가소로울 수 있으나 요즈음 생명을 보호하는 부적이 이것이다. 승려 청익을 위하여 공경히 쓴다. 여러 사람들이 속속들이 살핀다면 꼭 다행일 것이다.

발문과 같이 이 합본 불경은 처음 『금강경』을 간행하고자 한 청익의 뜻에 동우가 동조하였고, 동우는 『금강경』 외에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 등도 함께 엮어 간행한 것이었다. 비록 동우가 『금강경』 이외의 불경에 대해 군더더기라는 겸양의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불경과 다라니는 당시 유행하던 것들을 모은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 합본 불경의 특이한 점은 앞에 수록된 4종의 불경과 다라니 말미에 “『금강경』의 뜻은 사람들이 이치를 깨달아 견성성불”한다거나 “삼본 『화엄경』 180권의 뜻은 드넓으나 가장 요긴한 『보현행원일품』은 화엄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추가 된다.”거나 “사람들이 이 주문(『마리지천다라니』)을 베끼고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 일체의 악은 모두 물러날 것이다.”고 하는 식의 설명을 각각 달아 놓은 점이다.

발문 뒤에 있는 간행기록에 따르면, 당시 발원과 인경은 청익(淸益), 같은 마음으로 발원한 안집(安輯)은 주연(主緣), 기뻐하며 함께한 안극인(安克仁)은 조연(助緣), 구성군부인(龜城郡夫人) 승현(勝賢), 강릉군부인(江陵郡夫人) 묘장(妙藏), 정림전향(正林典香) 축운(竺雲)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각수는 굉찬(宏贊)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연인 안집은 안축(安軸, 1287~1348), 안보(安輔)의 아우이며, 이 삼형제는 고려 말기의 명신들이다. 안극인은 공민왕비인 정비(定妃, ?~1428)의 아버지이자 이승휴의 조카사위이다. 그는 이보다 10년 전인 공민왕 9년(1360)에 경주에서 『제왕운기』를 재간(再刊)한 사실이 있었다. 판각과 간행 등의 실무를 맡았던 굉찬은 이 불서를 간행한 6년 뒤인 1376년에도 정포(鄭誦)의 문집인 『설곡집(雪谷集)』을 새기고 인쇄하는 등 당대 출판 인쇄의 실무적인 역할을 두루 담당한 인물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합본 불경에는 불경과 다라니 7종이 편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보현행원품』은 조선 초기 간행의 『육경합부』에 수록된 것과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또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은 주석을 제외한 경문만 수록되었으나 고려 말기 간행의 『불조삼경』에 수록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나머지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다라니』 등 2종은 경문을 제외하고 주문(呪文)만을 발췌해 놓았다. 곧 『수능엄신주』는 3행의 주문만 발췌되어 있으므로, 5회(會)로 구성되어 도표화되어 있는 『육경합부』의 『대불정수능엄신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또 『마리지천다라니』도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에서 경문을 제외하고 세 가지 주문만을 발췌해 놓았다.

이 합본 불경은 비록 앞부분에 손상된 부분이 제법 있으나 각 불경 뒤에 간단한 해제까지 붙여 간행한 매우 특색이 있는 합본 불경이자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고려말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되던 불경들이 어떤 종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신청대상 문화재의 명칭(『육경합부』)에 대하여

용담선원 소장의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신청되었다. 그러나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 그 연유를 살핀다.

『육경합부』란 조선 초기에 널리 독송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대불정수능엄신주』·『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종류의 경전을 모은 것을 말한다.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성종 3년(1472)에 간행된 『육경합부』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이 해에 인수대비는 세조·의경왕(懿敬王)·예종 및 인성대군(仁城大君) 등의 명복과 대왕대비, 국왕 및 왕비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29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 간행된 불서와 간행부수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六經合部』 五百件”와 같이 합본 불경을 『육경합부』이라고 일컫었던 것이다. 이후부터 이 여섯 종의 경전을 모은 것을 『육경합부』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472년 이후의 『육경합부』는 위에서 소개한 여섯 종의 경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물 제965-1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965-2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793-13·14·15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 『육경합부』, 1472년 또는 이후 간행) 등 5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소개한 여섯 경전이 합편된 간본이다.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육경합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책은 이보다 이전에 간행되었다. 곧 세종 6년(1424)에 성달생(成達生)이 정서한 판하본을 바탕으로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편성된 여섯 종의 경전은 동일하다. 혹 후대에 위의 여섯 종의 경전 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세 종류만 합편된 것을 『삼경합부』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불조삼경(佛祖三經)』이란 『사십이장경』, 『불교유경』 그리고 『위산경책』 등 반드시 이 세 종류의 불경을 합편한 것이다. 이 합본 불서의 명칭은 오래된 것이다. 곧 『불조삼경』이란 “선가에서 『사십이장경』, 『불교유경』, 『위산경책』 등 삼부(三部)를 일컫는 것이다. 이 명칭은 북송 인종(1022~1063) 때 수

수선사(守遂禪師)가 삼경(三經)의 주석을 달 때에 이미 있었다.”(『佛光電子大辭典』, “禪家指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等三部. 此名目起於何時已不可考. 蓋北宋仁宗時代, 守遂禪師爲三經, 作註時卽已有之.”)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조삼경』은 11세기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명칭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제694-1·2호(1361년간), 제695호(1384년간), 보물 제1224-1·2호(1384년간) 등이 전한다.

그렇다면 용담선원 소장의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먼저 수록된 불경과 다라니가 모두 7종이므로 “육경”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또 7종을 세별하면, 『육경합부』에 속하는 불경이 세 종(『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보현행원품』, 『수능엄신주』)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중에서 『수능엄신주』는 3행의 주문만 발췌되어 있으므로, 5회(會)로 구성되어 도표화되어 있는 『육경합부』의 『대불정수능엄신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나머지 4종은 원문만 수록된 『불조삼경』(『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과 『마리지천다라니』이다. 이 중에서 『마리지천다라니』는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에서 세 가지 주문만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는 아니며, 또 『불조삼경』이라고도 일컬을 수 없다. 굳이 적절한 명칭을 찾는다면, 동우가 쓴 발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곧 청익은 “『금강경』을 간행하여 베풀고자 하였고”, 동우 역시 “『금강경』 간행에 뜻을 둔지 오래되었으며, 나머지는 군더더기 또는 가소로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행의 주역들인 청익과 동우는 먼저 『금강경』을 간행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후 다른 종류의 불경들을 합편하여 함께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합본 불서의 명칭으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그 중에서 적합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머지 합편된 불경에 대해서는 해제나 설명에서 소개하면 될 것이다.

## ○ 문헌자료

- “합천 해인사 용담선원 소장 육경합부”(『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합천군, 2012))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경상남도, 2011. 10. 28)
- 『고려사』 109 안축전 부 안보전
- 『불광전자대사전』
-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2001)
- 김유리, “육경합부의 판본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 국가기록유산
- 문화재청

□

- 書誌事項

六經合部 / 鳩摩羅什(344~413, 姚秦) 等譯.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恭愍王 19(1370) 推定].

1卷1帖(20板100折) : 上下單邊, 全匡 11.3×35.7cm 內外, 無界, 45行22~24字, 無魚尾 ; 17.0× 701.0cm. 楮紙. 折帖裝.

板頭題: 金, 行, 四, 遺, 滂

卷末跋: 安慎參薦信佻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 洪武三年(1370, 恭愍王 19)九月有日 大告新生惠樓東雨書并跋

卷 末: 發願命刊印施釋清益 / 同願主緣慎參安輯 / 隨喜助緣山夫安克仁(?~1383) / 同願龜城郡夫人勝賢 / 同願江陵郡夫人妙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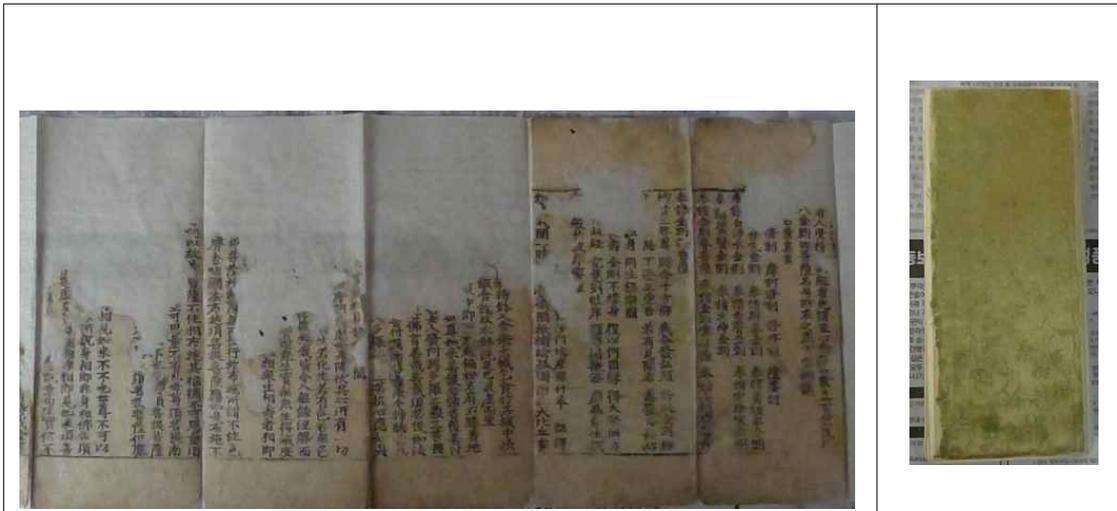
卷 末: 宏贊 刊 / 同願正林典香竺雲

○ 현 상

용담선원(龍塔禪院) 소장본은 선원을 창건한 용성선사(龍城禪師, 1864~1940)가 수지독송하다가 전법제자인 고암선사(古庵禪師, 1899~1988)에게 전하고 고암선사는 다시 법손인 중천선사(中天禪師, 1939~ )에게 전하여 보관되었던 것이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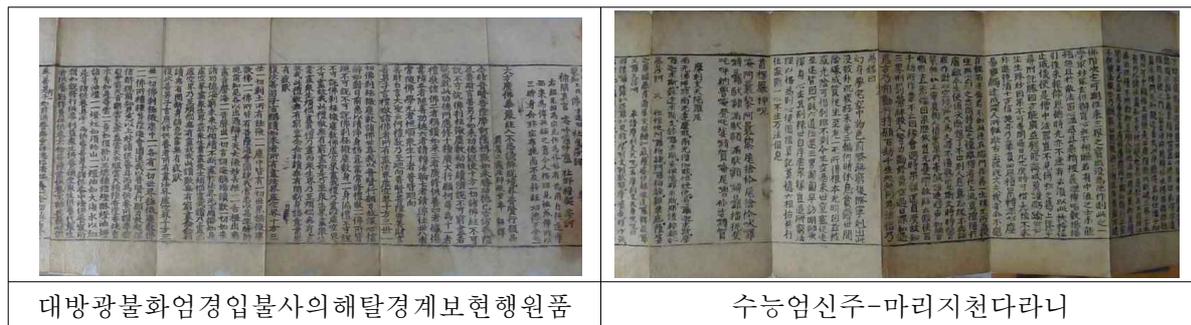
조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현재 제1판부터~제4판까지는 절반 이상이 손상되었고, 제5판과 제10판~제12판은 부분적으로 결락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원형은 유지되고 있다.

모두 20판으로 1판당 5폭으로 절첩하였는데, 소형본(17.0×7.0cm)으로 만들어져 휴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판은 45행 22자 전후이다. 인쇄상태로 보아 간행 당시의 초인본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은 ① 『金剛般若波羅蜜經』 (7판)/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6판)/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③ 『四十二章經』 (2판)/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 『佛遺教經』 (3판)/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 『滄山警策』 (2판) 그리고 ⑥ 『首楞嚴神呪』 와 ⑦ 『摩利支天陀羅尼』 (1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육경합부(六經合部)』의 내용과는 약간 다르다.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성종 3년(1472)에 간행된 『육경합부』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이 해에 인수대비는 세조·의경왕·예종 및 인성대군 등의 명복과 대왕대비, 국왕 및 왕비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29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 간행된 불서와 간행부수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六經合部』 五百件”와 같이 합본 불경을 『육경합부』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472년 이후의 『육경합부』는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종류의 경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물 제965-1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965-2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793-13·14·15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 『육경합부』, 1472년 또는 이후 간행) 등 5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상기한 여섯 경전이 합편된 간본이다.

한편 조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보이는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과 『불유교경(佛遺教經)』 그리고 『위산경책(滙山警策)』의 3경은 일반적으로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제694-1·2호(1361년간), 제695호(1384년간), 보물 제1224-1·2호(1384년간) 등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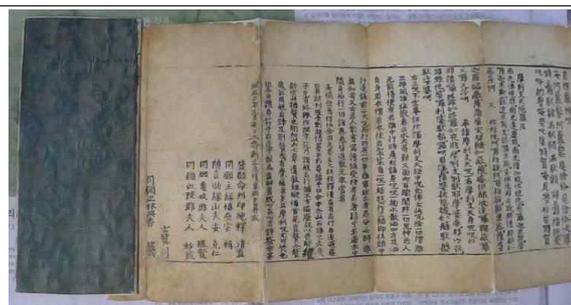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발문

또한 조사본의 권말에는 1370(홍무3, 공민왕 19)년 9월에 동우선사(東雨禪師)가 지은 발문과 함께 시주한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청익선사(淸益禪師)와 안집(安輯)의 주도하에 동우 선사가 관하본(板下本)을 쓰고 발문을 지었으며, 산부(山夫) 안극인(安克仁), 구성군부인(龜城郡夫人) 승현(勝賢), 강릉군부인(江陵郡夫人) 묘장(妙藏), 평찬(宏贊), 정림(正林), 전향(典香), 축운(竺雲) 등의 인물들이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은 부분적인 결락과 훼손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경전의 구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문

과 시주질 및 간행질 등을 통하여 간행 시기와 함께 간행에 참여한 인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학 및 서지학의 연구에는 물론 고려시대 목판인쇄문화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고려시대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없다.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 27.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가. 검토사항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자사로부터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16.2.2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7.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21호(1995.8.5.)
- 명 칭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쌍계사
- 수 량 : 불교조각상 3구(불좌상 1구, 보살좌상 2구)  
복장유물(조상기 3점, 후령통 3점, 전적 12점, 다라니일괄)
- 규 격 : 불좌상 높이 140cm, 좌협시 131.5cm, 우협시 130cm
- 재 질 : 목조, 도금
- 제작자 : 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진도 쌍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회장 등 9명의 조각승이 1665년 6월에 완성한 석가여래삼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좌우 보처

상은 미륵과 제화갈라 보살상으로 추정되었다. 수조각승 회장은 보조 조각승 시기인 1630-40년대에 청헌, 승일 등 현진·청헌파의 주요 조각승들을 따라 수련기를 거쳤으며, 1640년대 후반부터 166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조상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삼존상은 제작연대, 조각승의 이름, 봉안처 등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정보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17세기 중반 전라도 지역 불상 제작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작품의 완성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불상이 조성된 이후 원 봉안처를 떠나지 않아, 원래의 전각과 불상이 갖는 종교적 컨텍스트가 잘 간직되어 있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1. 이번에 지정신청된 진도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작가, 연대, 출처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범어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보물 제1526호 지정되어 있으므로 쌍계사 대웅전 삼존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후기 조각사에 있어 회장파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인물인 회장이 진도와 같은 고립된 섬에서도 직접 작업한 작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사례로 생각된다. 또한 그의 활동범위에 있어 가장 남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토된 복장기록물을 통해 회장과 조각승들의 활동과 당시 지역민들의 후원상황 등을 알 수 있어 진도의 지역사와 역사적 위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진도라고 하는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서 사찰이 창건된 후 400여년 동안 유일한 전통 사찰로서 기능해온 진도 쌍계사에 봉안된 중요한 불상군이 오랜 기간 진도 군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종교문화적 위상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5. 회장의 다른 조각사례와 비교했을 때 보관의 형식, 좌우보처보살이 연화가지를 들고 있는 방식, 별도의 손을 조합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공통점이 보여 이 삼존불상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삼존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존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각승 회장의 만년기의 작품이다. 절첩식으로 작성

된 조연문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불상제작에 필요한 각종 시주 목록과 시주자, 그리고 제작에 직접 참여한 증명, 조각승, 화주 등 불상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 17세기 후반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존 상태와 도상의 구성, 대좌 등도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변화 없이 완전한 편이며, 작품에서도 조각승 회장의 조각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조형적으로도 17세기 전반기 장중한 대형불상의 여운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불신에 비해 머리가 보다 강조되었고, 무릎도 한결 넓고 높아졌으며 주름선도 얇고 간결해지는 등 시대흐름에 따른 양식과 미감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외 불상의 복장에서는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安立 당시의 모습을 크게 훼손 하지 않고 발견되어 17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삼존상은 우리나라 서남단 도서 지역에서 제작된 17세기 조각 작품이라는 점도 주목되고, 당시 珍島 城主 景成翼이 시주자의 제일 첫머리에 이름을 올려 불사를 이끌고, 이에 僧俗의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발원, 동참하여 제작한 진도군의 기념비적 불상으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목조삼존불상 복장유물의 지정 가치( )

목조삼존불상 복장 전적은 1417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판본을 비롯하여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발문이 수록된 1493년 홍산 무량사본 『묘법연화경』, 1570년 담양 폭포암본 『묘법연화경』, 1633년 해남 대흥사본 『묘법연화경』, 1646년 해남 대흥사본 『금강반야바라밀경』, 1653년 해남 대흥사본 『묘법연화경』 등 여러 경전류는 불상의 조성발원문이 작성된 1665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서 사찰의 역사와 목조삼존불의 연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1570년 담양 폭포암본 『묘법연화경』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은 완질본이 아닌 영본(零本)이며, 일부 책은 낱장으로만 확인되는 등 완전하지가 않은 상태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전적 가운데 1417년 문수사 판각본과 매월당 김시습의 발문이 수록된 1493년 무량사 판본은 아쉽게도 완질본이 아닌 결본으로 발견되었지만, 국내에 남아 있는 판본이 매우 드문 자료라는 점 그리고 복장에서 확인된 유물들이 목조삼존불상 조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 시 일괄 지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대좌 등 추가조사 필요

###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석가여래삼존상이다. 주존 석가모니불은 오른팔을 정강이까지 내려 향마촉지인을 짓고 있으며, 왼팔은 결가부좌한 오른발 위로 45도 각도로 손바닥을 위로 하여 두었다. 좌보처보살상은 왼팔을 위로 들었으며, 우보처보살상은 오른팔을 위로 들어, 각각 연꽃으로 추정되는 가지를 들고 있다. 석가모니불과 양 협시보살은 좌우의 외곽을 보살의 두 팔로 감싸 안은 형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의 삼존상 구성에서 주존 석가모니불의 좌우 협시는 아미타불-약사불이거나 제화갈라-미륵의 두 경우가 있을 뿐이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한 삼존상은 단 1건도 보고된 바 없다. 다만, 4보살상 또는 6보살상으로 구성된 보살들 중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제화갈라와 미륵은 좌상으로 나타나고, 문수, 보현, 관음 등은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완주 위봉사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05년 작 4보살상(문수, 보현, 관음, 지장)은 모두 입상이다. 또한, 고흥 능가사 응진당의 1685년 작 6보살상(제화갈라, 미륵, 가섭, 아난, 문수, 보현) 중 주존 석가불과 좌우보처인 제화갈라와 미륵은 좌상인데 반해 가섭과 아난은 입상이며, 문수와 보현은 좌상인지 입상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1703년 작 3여래4보살상(문수, 보현, 관음, 지적) 중 3여래상은 좌상이고, 4보살상은 모두 입상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찰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좌우의 협시보살로서는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이 봉안되었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봉안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진도 쌍계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좌상 좌우의 두 보살좌상은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삼존상은 모두 머리의 앞뒤 깊이가 매우 두껍고 신체가 건장한 점은 熙藏派 불상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중앙에 폭이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고 대칭으로 옷주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왼쪽 다리의 정강이에 끝이 뾰족한 대의 모서리가 표현된 점도 역시 희장과 불상의 특징이다. 얼굴은 1660년대 초반의 작품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등근 형태보다 길어져 1660년대 후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발원문의 1665년 제작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조각승 熙藏은 1630-40년대에 淸憲, 勝一 등 조각승들 문하에서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1649년 구미 水多寺에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한 이래 1660년대 후반인 1666년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까지 전라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상활동을 하였다.

-조성발원문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sup>3)</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첩본 4張 32.5面, 1면: 15.0×10.0cm 전체: 15.0×320.5cm

康熙四年乙巳季夏<sup>4)</sup>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珍島尖察山雙溪寺

佛<sup>5)</sup>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城主景成翼<sup>6)</sup>

一代教主釋<sup>7)</sup>迦如來大施主申儀<sup>8)</sup>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sup>9)</sup>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sup>10)</sup>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 兩主

3) 2015.9.21.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6行 기준)

4) 康熙四年乙巳季夏: 1665.6.

5) 佛: ㅍ+天.

6) 景成翼: 珍島郡守 1665.2.15~1666.9.11

7) 釋: 释.

8) 儀: ㅍ+又.

9) 太玄: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施主)

10) 處信: 淸潭處信. 略譜 10世20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嘉善)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 <sup>11)</sup> 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sup>12)</sup>	比丘
燈 <sup>13)</sup> 燭大施主禮 <sup>14)</sup> 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 <sup>15)</sup> 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sup>16)</sup>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 <sup>17)</sup>	兩主
裊布大施主德厚 <sup>18)</sup>	比丘
裊布大施主自瓊	比丘
裊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鐵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實 <sup>19)</sup>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禮	兩主

11) 美: 美

12) 楚嘗: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3) 燈: 灯

14) 禮: 礼

15) 還: 还

16) 義俊: 雲坡義俊. 略譜 11世13番 참조

17) 興: 興

18) 德厚: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9) 實: 突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sup>20)</sup>	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 <sup>21)</sup> 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贅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燈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 <sup>22)</sup> 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袱布施主僅罔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燈燭勸善紙施主贅悟	比丘
座臺施主朴毘 <sup>23)</sup> 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燈燭施主明益 <sup>24)</sup>	比丘
面金施主盧迂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五宝施主盧鐵 <sup>25)</sup> 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驢 <sup>26)</sup> 芻伊	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20) 玉玲: 廣濟玉玲, 略譜 10世5番 참조

21) 從: 從

22) 命: 命

23) 毘: 毘, ㄱㅂㅇ. 똥.

24) 明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25) 鐵: 鐵

26) 驢: 驢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sup>27)</sup>

道雨<sup>28)</sup>

宝海<sup>29)</sup>

敬信<sup>30)</sup>

玉淳<sup>31)</sup>

一訓<sup>32)</sup>

新學<sup>33)</sup>

呂尙<sup>34)</sup>

道澄<sup>35)</sup>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治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清澤<sup>36)</sup> 比丘

神玉 比丘

應和<sup>37)</sup> 比丘

供養主雪心<sup>38)</sup>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性環 比丘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

27) 熙壯: 熙藏. 希藏. 조각승. 활동기간 1639~1661. 추가 1665

28) 道雨: 道祐. 조각승. 활동기간 1633~1664. 추가 1665

29) 宝海: 普海. 조각승. 활동기간 1646~1680

30) 敬信: 조각승. 활동기간 1655~1664. 추가 1665

31) 玉淳: 조각승. 활동기간 1649~1655. 추가 1665

32) 一訓: 一熏. 조각승. 활동기간 1660~1665

33) 新學: 神學. 조각승. 활동기간 1661. 추가 1665

34) 呂尙: 조각승. 첫등장

35) 道澄: 조각승. 첫등장

36) 清澤: 淸擇.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37) 應和: 朽木應和. 略譜 11世19番 참조

38) 雪心: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化主)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sup>39)</sup>主

敬遠 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諶<sup>40)</sup> 大德守初<sup>41)</sup>

大德處愚<sup>42)</sup> 大德惠寬<sup>43)</sup>

大德廣海<sup>44)</sup> 大德覺圓<sup>45)</sup>

大德海寬 大德天敏<sup>46)</sup>

大德克和 大禪師義欽<sup>47)</sup>

大禪師猷克<sup>48)</sup> 大禪師克玄<sup>49)</sup>

大禪師玉俊<sup>50)</sup> 大禪師印閑<sup>51)</sup>

大禪師雲學<sup>52)</sup> 大禪玄卞<sup>53)</sup>

大禪師覺弘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sup>54)</sup> 處日 印天<sup>55)</sup>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sup>56)</sup> 正律 德厚

信卓 戒文<sup>57)</sup> 日學

39) 功德: 原文은 德功이나 上下 표시로 수정

40) 義諶: 楓潭義諶. 1592~1665.3.8. 금강산 정양사에서 入寂. 略譜 9世11番 참조.

41) 守初: 翠微守初. 1590~1668. 略譜 9世19番 참조

42) 處愚: 葆光處愚. 略譜 9世3番 참조

43) 惠寬: 龜嶺惠寬. 慧觀. 略譜 10世16番 참조

44) 廣海: 雙運廣海. 略譜 9世4番 참조

45) 覺圓: 寒梅覺圓. 略譜 9世 10番 참조

46) 天敏: 略譜 9世27番 참조

47) 義欽: 松坡義欽. 略譜 11世1番 참조

48) 猷克: 唯克. 略譜 9世26番 참조

49) 克玄: 水月克玄. 略譜 9世9番 참조

50) 玉俊: 雲岩玉俊. 略譜 11世11番 참조

51) 印閑: 清湖印閑. 略譜 10世8番 참조

52) 雲學: 翠岩雲學. 略譜 10世7番 참조

53) 玄卞: 枕肱懸辯. 1616-1684. 略譜 9世2番 참조

54) 處明: 雲岩處明. 略譜 10世24番 참조

55) 印天: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大施主. 上樑布施主. 嘉善)

56) 智森: 太眞智森. 略譜 10世21番 참조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sup>58)</sup> 英敏  
 太俊<sup>59)</sup> 道尖 勝悅<sup>60)</sup>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sup>61)</sup>  
 道式 道林<sup>62)</sup> 道嚴<sup>63)</sup>  
 道閑<sup>64)</sup> 道嘿<sup>65)</sup> 道應  
 應暹<sup>66)</sup> 雪連 雪坦  
 道欽 清彥 清欽<sup>67)</sup>  
 清念 清淳<sup>68)</sup> 清揖<sup>69)</sup>  
 清益<sup>70)</sup> 清洽 清侃<sup>71)</sup>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三綱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禽立 雖然  
 士連 起玄  
 信命 忝奉  
 善明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sup>72)</sup>湜 兩主

---

57) 戒文: 花谷戒文. 略譜 11世23番 참조  
 58) 法敏: 雲溪法敏. 略譜 10世18番 참조  
 59) 太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60) 勝悅: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1) 道欣: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布施主)  
 62) 道林: 略譜 11世22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3) 嚴: 卍  
 64) 道閑: 略譜 11世12番 참조  
 65) 道嘿: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供養施主)  
 66) 應暹: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7) 清欽: 略譜 10世14番 참조  
 68) 清淳: 霧霞清淳. 清順. 略譜 9世25番 참조  
 69) 清揖: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70) 清益: 1720.8. 쌍계사 중종 개주(山中老德)  
 71) 清侃: 凌虛清侃. 略譜 9世17番 참조  
 72) 繼: 繼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兪 <sup>73)</sup> 同	保体
供養大施主郭儀敏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步蓮大施主任次方	兩主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贅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泉施主朴厚元	兩主

\*「珍島 雙溪寺 木造左補處(弥勒)菩薩坐像 造成發願文」<sup>74)</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  
 첩본 5張 40面, 1면: 14.1×7.2cm 전체: 14.1×290.5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珍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73) 兪: 갓

74) 2015.9.10.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4行 기준).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儀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比丘

体金大施主處熙比丘

面金大施主礼仁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兩主

普施大施主朴始海兩主

面金大施主覺悟比丘

面金大施主羨生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兩主

唐荷葉大施主戒磷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灯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吳兩主

褰布大施主德厚 比丘

褰布大施主自瓊 比丘  
褰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大施主朴以立兩主  
鐵物施主金海信兩主  
清蜜施主郭吹實<sup>75)</sup>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禮 兩主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比丘  
喉玲桶施主玉玲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終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比丘  
金剛經施主贅休比丘  
引燈施主朴五男兩主  
金剛經施主模屹比丘  
清蜜施主朴命<sup>76)</sup>漢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兩主  
揮帳施主朴千生兩主  
袱布施主 儀<sup>77)</sup>問比丘  
座臺施主權得精兩主  
座臺施主朴毘伊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贅悟比丘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迂湜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鐵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

75) 實: 突.

76) 命: 尙.

77) 儀: 彳+義. 儀.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駙芻伊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道澄

呂尙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治匠崔得哲

清澤<sup>78)</sup>比丘

神玉比丘

應和比丘

供養主雪心比丘

性環<sup>79)</sup>比丘

饌物化主思淨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太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

78) 澤: 泽

79) 環: 王+衆.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道嚴<sup>80)</sup> 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暹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綱勝海

首僧思祐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兩主

佛事大施主妙尙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保体

普施大施主任佗同保体

---

80) 嚴: 卍.

供養大施主郭義敏兩主  
 佛<sup>81)</sup>奠大施主任俊敏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珍島 雙溪寺 木造右補處(提花揭羅)菩薩坐像 造成發願文」<sup>82)</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첩본 1張 10面, 1면: 15.6×9.1cm, 전체: 15.6×90.8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珍島

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sup>83)</sup>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己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81) 佛: ㅍ+天.

82) 2015.9.21.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6行 기준).

83) 釋: 采+又.

緣化秩  
證明勝浩  
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道元  
小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雪眼  
清擇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憲  
處信  
性環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蒼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清風衲子大功徳主  
敬遠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改金發願文」<sup>84)</sup> 1961년 3월 1일, 白紙墨書  
改金佛事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  
(辛丑年)三月一日<sup>85)</sup>完成  
光州市鶴洞一區十四番地

84) 2015.9.10. 指定調査(古鏡).

85)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辛丑年)三月一日: 1961.3.1. 佛紀四千九百八十八年은 옛 佛紀로 二千九百八十八年の 오기

金喆鉉  
雙溪寺 主持 金慧性<sup>86)</sup>  
馬知錫<sup>87)</sup>

□

### ○ 현 상

현재 삼존불은 쌍계사 대웅전에 주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목재로 짜인 2단의 장방형 불단 위에 삼존이 함께 올라가 있고, 각각의 팔각형 대좌를 지니고 있다. 이 팔각대좌는 방형대좌의 네 모퉁이를 모죽임한 것에 가까운데 이 시대의 대좌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대좌의 중대에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고, 석가모니의 대좌만 중대 정면에는 운룡문, 난간도 용으로 조각하여 양협시와 차별을 두고 있다. 대좌 위에는 다시 복련의 연화대좌가 방석처럼 2단으로 받쳐져 있다.

본존 석가모니여래는 변형편단우견의 착의에 항마촉지인을 걸하고 있는데 왼손은 아마타구품인처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대고 있다. 왼손은 손목부터 별도의 목재로 손을 제작하여 꽂아둔 것이어서 분리가 가능하며, 촉지인을 걸한 오른손은 팔뚝이 노출되는 팔굽부터 별도로 만들어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접합 후에 개금을 하여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탈착도 불가하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완전히 밀착되어 올려진 것이 아니라 약간 이격되어 있다. 불두는 육계가 따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둥근 정수리에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아담한 크기로 표현되었고, 나발의 머리카락과 이마의 연결선에는 윤곽선을 따라 녹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턱선은 방형에 가깝고 측면에서 볼 때도 안면의 윤곽선이 방형에 가까워 묵중하게 표현된 것에서 조각가의 조형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뒷면의 나발이 내려온 끝단과 컷불의 끝, 그리고 턱선이 대략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비례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틀 속에 상호가 배열된 느낌이 강하다. 목 위의 삼도와 내의의 끝단 옷주름이 수평적으로 흐르며 대응을 이루고, 양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수직적 대응을 이루면서 상의 단정한 인상을 강조한다. 또한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가사 자락의 옷자락과 왼팔 상박을 지나가는 사선의 옷자락도 역시 유사한 각도로 좌우에서 대응구조를 보이며, 반대로 내의의 옷주름은 반대방향으로 사선으로 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적이고 엄격한 틀 속에 갇힌 듯한 인상에 미묘한 운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결가부좌한 두 발 사이로 흘러내리는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의 간격은 비교적 넓고 단순한 옷주름으로 간결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옷자락에 의해 감싸진 무릎은 둥그스름한 양감이 강조되었다.

양협시보살의 조형성은 본존불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통견착의라는 점과 보관을 쓰고 있는 점, 수인 및 지물을 들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관은 목재

86) 慧性: 慧性榮培. 주지 1961.1.15 ~ 1965.3.2. 略譜 24世15番 참조

87) 知錫: 慧峰知錫. 前주지 1959.10.22 ~1961.1.14. 略譜 23世6番 참조

로 제작한 것으로 형태는 앞뒤가 높고 측면이 낮은 배모양이며, 여기에 철사를 이용해 얇은 금속판으로 제작한 마니보주 장식을 주축으로 연꽃, 여의두문장식을 화려하게 부착했다. 보관 측면에서 늘어지는 관대 장식은 마치 관을 가로지르는 비녀 및 비녀에 매달린 두 가닥의 띠자락이 'S'자형으로 꼬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로 만들어 관 측면에 철사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수인은 좌우 보살이 대칭이며 각각 본존불로부터 바깥 쪽 방향의 손을 들고 안쪽 손을 내려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끝을 맞대다시피 한 상태에서 연꽃줄기를 잡고 있다. 연꽃도 나무로 별도로 만들어 조립한 것으로 탈착이 가능하다. 연꽃줄기는 끝에서 갈라지면서 여의두문 형식으로 장식화된 연잎과 아직 피지 않은 연꽃봉오리가 가지 끝에 표현되었다. 보살의 장엄은 보관 외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착용했다. 귀걸이는 귓볼 끝에 연관문의 귀걸이 장식을 새긴 것이고, 팔찌는 별도로 조각한 손의 손목을 감싸도록 양각으로 새겼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감싸지 않고 손목 위에서 끊어진 것도 있다. 팔찌에는 얇은 부조로 장식이 새겨진 것 같지만 도금 과정에서 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목걸이도 가슴에 일체형으로 새겨진 것인데, 대의에 가려져 있지만 양어깨에 걸쳐진 금속제의 목걸이 양 끝단이 보주문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 끝에서 다시 사슬장식이 양쪽을 이어주며 이 사슬에서 세 줄기의 영락이 늘어지는 형태이다.

이 삼존불상은 조상기를 통해 회장이 만든 것임이 밝혀졌는데, 이중 두 협시보살상의 존명은 회장이 1661년에 제작한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과 양식 및 도상이 거의 같고, 또한 복장발원문을 통해 제화갈라와 미륵보살로 밝혀져 있어서 서로 유사한 범어사상의 사례를 통해 쌍계사 삼존불의 두 협시보살좌상도 미륵과 제화갈라로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내용 및 특징

### 1. 역사·문화사적 특징

불복장물에서 발견된 조상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삼존불은 1665년(강희 4년)에 조각승 회장(熙壯)이 도우(道雨), 보해(宝海), 경신(敬信), 옥순(玉淳), 일훈(一訓), 신학(新學), 여상(呂尙), 도징(道澄) 등과 조성하여 쌍계사에 봉안한 작품으로서 작자와 제작 연대, 봉안처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사찰은 쌍계사 1곳 밖에 없는 진도라는 섬에서 17세기 전라·경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조각가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진도가 조선후반기에 어떤 곳이었던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진도 쌍계사는 비록 창건은 승려 의웅(義雄)에 의해 1648년(인조 26)에 창건되었지만, 이 삼존불은 창건과정에서의 주요 건축이 완공됨과 거의 동시에 조성되기 시작되어 대웅전에 봉안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쳐 진도 주민들의 불교신앙의 상징적 존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삼존불에

이어 1666년 쌍계사의 지장시왕상 역시 회장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회장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을 마치고 곧바로 명부전 존상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도 쌍계사를 둘러싼 성속의 불사(佛事)에 대한 염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쌍계사가 비록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키고 당대 이름난 조각승을 초빙하여 불상을 조성한 경제적 배경 등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진도에는 고려시대부터 ‘금갑진성’이라고 하는 수군병영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갑오경장 이전까지 운영되었을 정도로 조선 수군의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1808년에 씌여진 <쌍계사시왕전중수기>는 갑도에 귀양 와있던 호은노인(壺隱老人)이 찬했다고 되어 있고, 또 1863년에 씌여진 <대웅전불상개금소>는 초의 의순(草衣 意恂, 1786~1866)이 썼으며, 더불어 쌍계사 옆에는 소치 허련(小痴 許鍊, 1809~1892)의 ‘운림산방’이 있는 등 조선후기 진도는 지역유지 뿐 아니라 금갑진 방어를 위해 파견된 관리, 귀양온 지식인, 은둔한 예술가, 수행을 중시한 고승들이 서로 어울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되는 바, 회장과 같은 수준 높은 조각승에게 처음부터 쌍계사의 조상불사를 일임한 것은 이와 같은 높은 문화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 2. 양식사적 특징

조각승 회장의 작품으로서 진도 쌍계사 불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쌍계사보다 4년 전인 1661년에 제작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26호)을 들 수 있다. 쌍계사 삼존불과는 양식적으로는 대동소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회장의 말년으로 가면서 그의 불상은 방형의 괴체감이 더욱 강조되는 묵중한 느낌이 강하며, 때로는 불두가 불신에 비해 조금 커지는 비례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쌍계사와 범어사의 본존불은 이와 달리 더 유연하고 양감이 풍부하며 비례도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회장의 가장 전성기 작품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불상에 보이는 그의 완숙한 양식이 이미 1665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조각양식 연구에 있어 새로운 자료로서 중요하다.

더불어 회장이 조성한 삼존불이 일괄로 남아있는 경우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불을 비롯하여 양산 통도사 극락전,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등에 봉안된 아미타삼존불이 전하지만 이들 중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삼존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봉안처인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곳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을 옮겨온 것이다. 이에 반해 쌍계사 삼존불은 범어사 삼존불처럼 처음부터 쌍계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작품성 또한 거의 유사하다.

## ○ 기 타

조상발원문을 통해 현재의 위치가 원봉안처임이 밝혀졌다.



## ○ 내용 및 특징

진도 쌍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이다. 쌍계사는 1648년 義雄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내 주요 문화재로는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을 비롯하여 1666년에 조성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과 1695년에 중건된 시왕전, 그리고 1697년에 중창된 대웅전, 1702년에 조성된 범종 등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은 중앙에 석가여래를 안치하고, 좌우에 협시보살상을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삼존상은 2015년 대웅전을 해체보수 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이안하고 복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에서는 조연문(발원문),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원문은 절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表題로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이라 묵서하였다. 조연문은 일종의 조성발원문인데, 이곳에는 발원목적, 시주물목과 시주자, 연화질, 산중대덕질, 본사질, 삼강, 수록조연문 순으로 당시의 불사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였다. 시주질에는 시주물목과 시주자를 연계해서 기록하였는데, 시주 물목은 주로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복장관련 물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복장관련 목록에는 후령통·오약·오색사·오보·명경·『능엄경』·『법화경』·『금강경』 등의 물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복장의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주자의 제일 앞머리에는 진도군수 景成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1665년 2월 15일부터 1666년 9월11일까지 진도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가 제일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 쌍계사 불사가 진도군의 어떤 중요한 염원과 상징성을 담고 제작된 기념적인 불사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증명은 勝浩이며, 수화조각승은 熙壯, 보조조각승은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이 참여하였다. 수조각승 회장은 熙藏, 希藏, 熙莊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수조각승 청헌을 도와 1639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상을 7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46년에는 수조각승 승일을 도와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2위로 참여하였다. 수조각승으로서는 구미 수다사(원각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대세지보살상(1649년) 제작을 시작으로,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0년), 고흥 능가사 목조약사불좌상(1653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관음보살좌상(1654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61년),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1666년) 등을 제작하였고, 1650년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조성에는 시주자로 참여하여 불상제작을 후원하였다. 차화원 도우는 무염과 조각승으로 회장과는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조성 때 작업을 함께 하였다. 보해는 승일, 회장 등과 작업을 함께한 조각승으로, 대체로 회장과 많은 작품 활동을 함께하여 회장과 조각승으로 분류된다.

본존은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이며 좌우 협시는 보관을 쓰고 연꽃을 지물로 잡고 있는데, 발원문에 존명이 기재되지 않아 존명을 특정할 수 없다. 통상 대웅전에 봉안되는 석가여래의 좌우 협시보살상은 문수·보현보살상인데, 이 시기에는 미륵과 제화갈라보살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 삼존상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회장이 이보다 3년 전에 조성한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에서는 석가-미륵-제화갈라, 즉 수기삼존상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삼존상도 범어사상과 유사한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수기삼존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원문에 左補處·右補處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補處라는 의미는 부처가 입멸한 뒤 그 자리를 보충하는, 즉 석가여래에 이어 성불할 보살의 자리를 의미하므로 세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존 석가여래의 앉은 높이가 140cm, 좌우보처 보살상이 121cm에 이를 정도로, 규모면에서 중량감이 넘치는 중형급 불상이다. 삼존상은 대웅전 후불벽면 앞쪽에 마련된 높은 직육면체의 수미단 위에 팔각연화대좌를 놓고 그 위에 올려 앉은 모습 이어서, 더욱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팔각대좌의 난간에는 龍을 조각하여 장엄하였고, 이는 좌우 협시 대좌의 荷葉形 寶欄과의 위계상의 차이를 두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삼존상은 넓적한 얼굴에 뺨에 살집이 도톰하게 올라있고, 눈·코·입은 작고 부드럽게 모델링하여 이 시기 다른 조각승들의 불상들의 큼직한 콧날에 선 굵은 이목구비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소 다른 조각적 특징을 구가하고 있다. 이보다 3년 앞서 제작된 범어사 대웅전 삼존상보다 형태적으로 길어지고 이목구비도 작아지는 등 약간의 양식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드러운 얼굴에 듬직한 신체, 얇고 섬세한 선묘의 특징은 회장의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조각적 감성이다.

본존상의 오른쪽 어깨를 걸쳐 내려온 대의자락의 끝을 새 날개모양으로 예리하게 처리한 점과, 발목 아래로 도끼날처럼 벌어진 넓적한 띠 주름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여러 겹의 주름을 펼친 점은 회장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배려하였고, 형태나 표현기법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였고, 구렛나루와 뒷머리를 타고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둥근 고리모양으로 엮은 뒤

다시 세 가닥으로 드리웠다. 이러한 보살상의 머리모양은 17세기 보살상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큰 덩치에 비해 매우 세장하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두 손으로는 긴 줄기의 연꽃을 잡았고, 가슴에는 3줄로 늘어진 목걸이를 얇게 조각하여 佛身을 꾸몄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어 주름 잡은 裙衣를 표현하였고, 왼쪽 무릎에는 발가락을 슬쩍 덮고 짧게 드리운 跣형의 소매자락이 표현되었다. 특히 좌협시 보살상은 상호의 표현과 주름은 본존과 우협시와 약간 다른 감각이 드러나 있는데, 차화원 도우 등 보조화승의 공동 작업에 따른 것으로 이 시기 불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쌍계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이 시기 다른 조각승의 작품에 비해 측면의 범량이 두터운 편인데, 이는 측면의 묵중한 중량감을 강조하여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구미 수다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9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0년),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62년) 등 회장의 모든 시기의 조각 작품에서 찾을 수 있어 그가 추구한 조형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존불상에서는 발원문과 후령통 등 복장의 핵심유물을 비롯한 경전류 등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중 우협시보살상의 것만 해포 조사하였다. 은제로 제작된 원통형으로써, 뚜껑에는 세장한 관 모양의 후혈을 가지고 있으며, 후령통 내부에 안립한 오보병을 감은 오색사를 후혈로 뽑아내어 후신을 감은 오색사와 감은 오색사와 결합시켰다. 후신의 네 면에는 사방경을 배치하고 오색사를 감아 고정시켰다. 후령통의 외부 밑바닥에는 圓鏡을 안치하고, 황초폭자로 감싸 묶고 謹封紙帶를 돌려 마감한 형태이다. 황초폭자 네 면에는 사방주를 방위색에 맞게 적었다. 후령통 외면 바닥에 둔 원경은 원래는 손잡이가 달린 ‘柄鏡’의 형태였던 것을 손잡이를 떼서 사용하였으며, 표면에는 산수문과 “天下一”이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나 명문 등 양식적으로 볼 때 ‘倭鏡’으로 판단되며, 이는倭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황초폭자로 완전히 감싼 후령통은 다시 몇 장의 주색인본다라니로 포장하고 마감하였다. 석가여래의 후령통은 우협시 보살상의 그것과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하지만, 좌협시 보살상은 원경 대신 方鏡을 사용한 점이 차이점이다.



그림 1 쌍계사 대웅전 전경



그림 2. 우협시



그림3. 본존



그림4. 좌협시

[석가여래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2면 공란

3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珎島尖察山雙溪寺

伏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伏道

城主景成翼」

4면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儀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5면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6면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7면

黃金大施主蓮清 保体」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还來 兩主」

8면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9면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兩主  
褁布大施主德厚 比丘」  
褁布大施主自瓊 比丘」  
褁布大施主勝敏 比丘」

10면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鉄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実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礼 兩主」

11면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12면

金剛經施主贊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灯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鉄物施主鄭得仁 兩主」

13면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袱布施主仅問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灯燭勸善紙施主贊悟比丘」

座臺施主朴晁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14면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連(?)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15면

五宝施主盧鉄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16면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17면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18면

持殿 道元」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19면

清澤 比丘」

神玉 比丘」

應和 比丘」

供養主雪心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性環 比丘」

20면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贊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德(下)功(上)主」

敬遠 比丘」

21면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本寺秩」

22면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23면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太俊 道尖 勝悅」

24면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  
道式 道林 道叫」  
道閑 道嘿 道應」  
應暹 雪連 雪坦」

25면

道欽 清彥 清欽」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26면

三剛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命立 雖然」  
    連土 起玄」  
    信命 忝奉」

27면

善明

28면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念同 保体」

供養大施主郭仅敏 兩主」

29면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30면

步蓮大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31면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贊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32면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좌협시 보살상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2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玆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3면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仅色兩主

4면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5면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6면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7면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8면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生 兩主

9면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保体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10면

黃丹大施主楚嘗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11면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12면

引灯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兩主

13면

裹布大施主德厚 比丘」

裹布大施主自瓊 比丘」

裹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14면

鉄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実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礼 兩主」

15면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比丘」

三象施主幸宣 比丘」

16면

鋪團施主從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贊休 比丘」

引灯施主朴五男 兩主」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17면

清蜜施主朴命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鉄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18면

袱布施主仅罔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座臺施主朴晁伊 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贊悟比丘」

19면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連(?)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20면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鉄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21면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駙架伊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22면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23면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24면

玉淳」

一訓」

新學」

道澄」

25면

呂尙」

持殿 道元」

行者勝吉」

宗吉」

26면

治匠崔得哲」

清澤比丘

27면

神玉 比丘」

應和 比丘」

供養主雪心 比丘」

性環 比丘」

28면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贊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29면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30면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31면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32면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33면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34면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35면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36면

道卍 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暹」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37면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剛勝海」

首僧思祐」

38면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39면

布施大施主任佗同 保体」

供養大施主郭義敏 兩主」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蓋大施主勝輝 比丘」

40면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41면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우협시 보살상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2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瑯島郡」

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3면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4면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5면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6면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 道元」

7면

小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雪眼」

淸擇」

8면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惠」

處信」

性環」

9면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贊」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淸風衲子大功德主」

敬遠」

10면 공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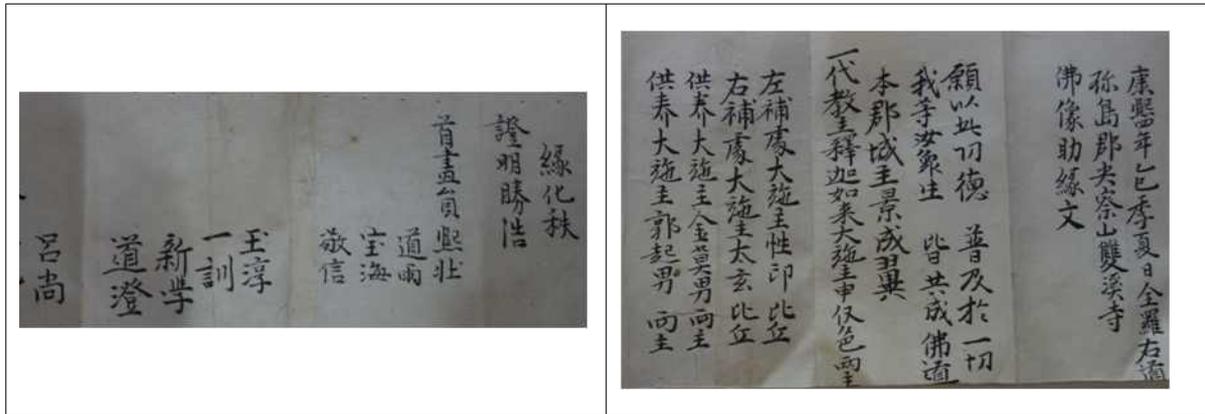
□

1. 釋迦牟尼佛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절첩본 4張 32.5面, 1면: 15.0×10.0cm 전체: 15.0×320.5cm

表題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sup>88)</sup>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珍島尖察山雙溪寺

佛<sup>89)</sup>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城主景成翼<sup>90)</sup>

一代教主釋<sup>91)</sup>迦如來大施主申儀<sup>92)</sup>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sup>93)</sup>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sup>94)</sup>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 兩主

88) 康熙四年乙巳季夏: 1665.6.

89) 佛: 1+天.

90) 景成翼: 珍島郡守 1665.2.15~1666.9.11

91) 釋: 釋.

92) 儀: 1+又.

93) 太玄: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施主)

94) 處信: 淸潭處信. 略譜 10世20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嘉善)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 <sup>95)</sup> 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豈 <sup>96)</sup>	比丘
燈 <sup>97)</sup> 燭大施主禮 <sup>98)</sup> 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 <sup>99)</sup> 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sup>100)</sup>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 <sup>101)</sup>	兩主
褰布大施主德厚 <sup>102)</sup>	比丘
褰布大施主自瓊	比丘
褰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鐵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實 <sup>103)</sup>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礼	兩主

95) 美: 美

96) 楚豈: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97) 燈: 灯

98) 禮: 礼

99) 還: 还

100) 義俊: 雲坡義俊. 略譜 11世13番 참조

101) 興: 興

102) 德厚: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03) 實: 实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sup>104)</sup>	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 <sup>105)</sup> 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贅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燈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 <sup>106)</sup> 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袱布施主僅問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燈燭勸善紙施主贅悟	比丘
座臺施主朴靛 <sup>107)</sup> 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燈燭施主明益 <sup>108)</sup>	比丘
面金施主盧迂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五宝施主盧鐵 <sup>109)</sup> 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驢 <sup>110)</sup> 芻伊	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104) 玉玲: 廣濟玉玲. 略譜 10世5番 참조

105) 從: 從

106) 命: 命

107) 靛: 靛. ㄱㅓㅇ. 똥.

108) 明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09) 鐵: 鐵

110) 驢: 驢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sup>111)</sup>

道雨<sup>112)</sup>

宝海<sup>113)</sup>

敬信<sup>114)</sup>

玉淳<sup>115)</sup>

一訓<sup>116)</sup>

新學<sup>117)</sup>

呂尙<sup>118)</sup>

道澄<sup>119)</sup>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治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清澤<sup>120)</sup> 比丘

神玉 比丘

應和<sup>121)</sup> 比丘

供養主雪心<sup>122)</sup>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性環 比丘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

111) 熙壯: 熙藏. 希藏. 조각승. 활동기간 1639~1661. 추가 1665

112) 道雨: 道祐. 조각승. 활동기간 1633~1664. 추가 1665

113) 宝海: 普海. 조각승. 활동기간 1646~1680

114) 敬信: 조각승. 활동기간 1655~1664. 추가 1665

115) 玉淳: 조각승. 활동기간 1649~1655. 추가 1665

116) 一訓: 一熏. 조각승. 활동기간 1660~1665

117) 新學: 神學. 조각승. 활동기간 1661. 추가 1665

118) 呂尙: 조각승. 첫등장

119) 道澄: 조각승. 첫등장

120) 清澤: 淸擇.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21) 應和: 朽木應和. 略譜 11世19番 참조

122) 雪心: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化主)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徳<sup>123)</sup>主  
 敬遠 比丘  
 山中大徳  
 大徳義謹<sup>124)</sup> 大徳守初<sup>125)</sup>  
 大徳處愚<sup>126)</sup> 大徳惠寬<sup>127)</sup>  
 大徳廣海<sup>128)</sup> 大徳覺圓<sup>129)</sup>  
 大徳海寬 大徳天敏<sup>130)</sup>  
 大徳克和 大禪師義欽<sup>131)</sup>  
 大禪師猷克<sup>132)</sup> 大禪師克玄<sup>133)</sup>  
 大禪師玉俊<sup>134)</sup> 大禪師印閑<sup>135)</sup>  
 大禪師雲學<sup>136)</sup> 大禪玄卞<sup>137)</sup>  
 大禪師覺弘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sup>138)</sup> 處日 印天<sup>139)</sup>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sup>140)</sup> 正律 徳厚  
 信卓 戒文<sup>141)</sup> 日學

---

123) 功德: 原文은 徳功이나 上下 표시로 수정  
 124) 義謹: 楓潭義謹. 1592~1665.3.8. 금강산 정양사에서 入寂. 略譜 9世11番 참조.  
 125) 守初: 翠微守初. 1590~1668. 略譜 9世19番 참조  
 126) 處愚: 葆光處愚. 略譜 9世3番 참조  
 127) 惠寬: 龜嶼惠寬. 慧觀. 略譜 10世16番 참조  
 128) 廣海: 雙運廣海. 略譜 9世4番 참조  
 129) 覺圓: 寒梅覺圓. 略譜 9世 10番 참조  
 130) 天敏: 略譜 9世27番 참조  
 131) 義欽: 松坡義欽. 略譜 11世1番 참조  
 132) 猷克: 唯克. 略譜 9世26番 참조  
 133) 克玄: 水月克玄. 略譜 9世9番 참조  
 134) 玉俊: 雲岩玉俊. 略譜 11世11番 참조  
 135) 印閑: 清湖印閑. 略譜 10世8番 참조  
 136) 雲學: 翠岩雲學. 略譜 10世7番 참조  
 137) 玄卞: 枕肱懸辯. 1616-1684. 略譜 9世2番 참조  
 138) 處明: 雲岩處明. 略譜 10世24番 참조  
 139) 印天: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大施主. 上樑布施主. 嘉善)  
 140) 智森: 太眞智森. 略譜 10世21番 참조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sup>142)</sup> 英敏  
 太俊<sup>143)</sup> 道尖 勝悅<sup>144)</sup>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sup>145)</sup>  
 道式 道林<sup>146)</sup> 道嚴<sup>147)</sup>  
 道閑<sup>148)</sup> 道嘿<sup>149)</sup> 道應  
 應暹<sup>150)</sup> 雪連 雪坦  
 道欽 清彥 清欽<sup>151)</sup>  
 清念 清淳<sup>152)</sup> 清揖<sup>153)</sup>  
 清益<sup>154)</sup> 清洽 清侃<sup>155)</sup>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三綱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禽立 雖然  
 士連 起玄  
 信命 恣奉  
 善明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sup>156)</sup>湜 兩主

---

141) 戒文: 花谷戒文, 略譜 11世23番 참조  
 142) 法敏: 雲溪法敏, 略譜 10世18番 참조  
 143) 太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44) 勝悅: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45) 道欣: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布施主)  
 146) 道林: 略譜 11世22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47) 嚴: 卍  
 148) 道閑: 略譜 11世12番 참조  
 149) 道嘿: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供養施主)  
 150) 應暹: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51) 清欽: 略譜 10世14番 참조  
 152) 清淳: 霧霞清淳, 清順, 略譜 9世25番 참조  
 153) 清揖: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54) 清益: 1720.8. 쌍계사 중종 개주(山中老德)  
 155) 清侃: 凌虛清侃, 略譜 9世17番 참조  
 156) 繼: 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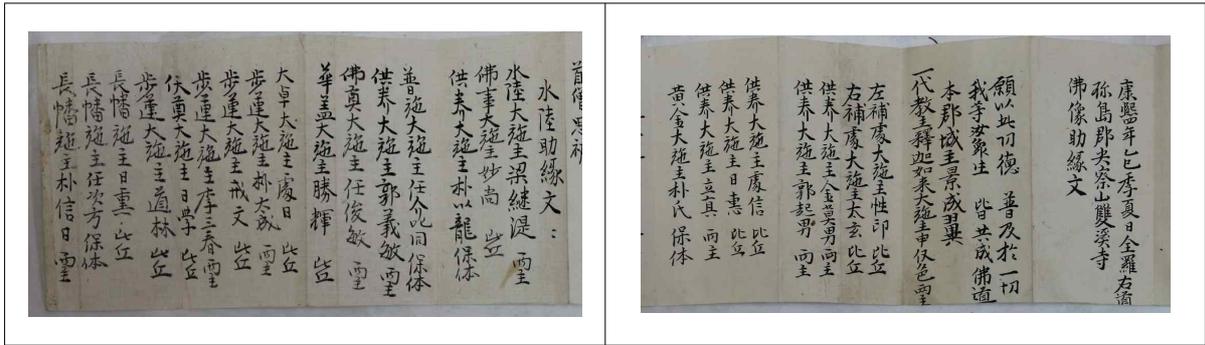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龕 <sup>157)</sup> 同	保体
供養大施主郭儀敏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步蓮大施主任次方	兩主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贊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

157) 龕: 갯

2. 左挾侍菩薩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절첩본 5張 40面, 1면: 14.1×7.2cm 전체: 14.1×290.5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瑠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儀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比丘

体金大施主處熙比丘

面金大施主礼仁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兩主

普施大施主朴始海兩主

面金大施主覺悟比丘  
面金大施主美生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豈 比丘  
燈燭大施主禮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吳兩主  
裹布大施主德厚 比丘  
裹布大施主自瓊 比丘  
裹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大施主朴以立兩主  
鐵物施主金海信兩主  
清蜜施主郭吹實<sup>158)</sup>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禮 兩主  
腹藏施主枌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比丘  
喉玲桶施主玉玲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終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比丘  
金剛經施主贅休比丘  
引燈施主朴五男兩主  
金剛經施主模屹比丘

---

158) 實: 突.

清蜜施主朴命<sup>159)</sup>漢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兩主  
揮帳施主朴千生兩主  
袱布施主 儀<sup>160)</sup>罔比丘  
座臺施主權得精兩主  
座臺施主朴晷伊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贅悟比丘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迂湜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鐵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駙芻伊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道澄  
呂尙  
持殿道元

---

159) 命: 尙.

160) 儀: 亻+義. 仅.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清澤<sup>161)</sup>比丘  
     神玉比丘  
     應和比丘  
 供養主雪心比丘  
     性環<sup>162)</sup>比丘  
 饌物化主思淨比丘  
 外別座學贊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

161) 澤: 泽

162) 環: 王+衆.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道嚴<sup>163)</sup>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暹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綱勝海

首僧思祐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兩主  
佛事大施主妙尙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保体  
普施大施主任念同保体  
供養大施主郭義敏兩主  
佛<sup>164)</sup>奠大施主任俊敏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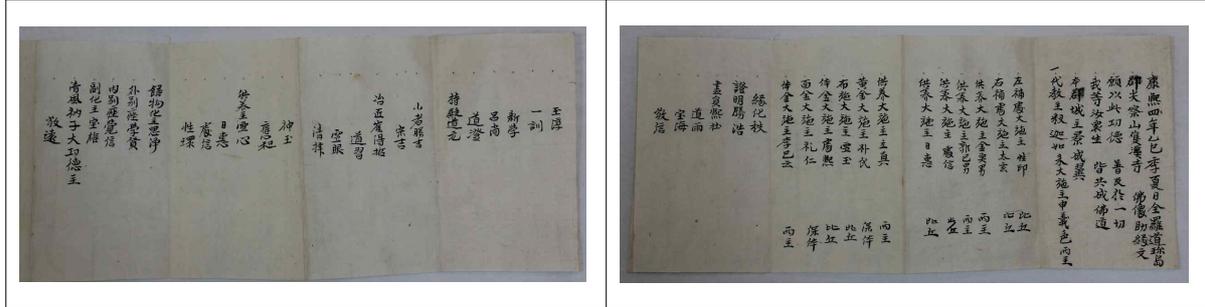
---

163) 嚴: 卍.

164) 佛: 卍+天.

3. 右挾侍菩薩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절첩본 1張 10面, 1면: 15.6×9.1cm 전체: 15.6×90.8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珍島

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奉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sup>165)</sup>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己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緣化秩

證明勝浩

畫員熙壯

道雨

165) 釋: 采+又.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道元  
 小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雪眼  
   淸擇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憲  
   處信  
   性環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贊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淸風衲子大功德主  
   敬遠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회장 등 9명의 조각승이 1665년 6월에 완성한 석가여래삼존상으로 확인되었다. 수조각승 회장은 보조 조각승 시기인 1630~40년대에 청헌, 승일 등 현진·청헌파의 주요 조각승들을 따라 수련기를 거쳤으며, 1640년대 후반부터 166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조상 활동을 전개하였던 장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복장 전적류

목조삼존불상 복장 유물가운데 전적류는 관세음보살보협진언(觀世音菩薩寶篋眞

言) 등 다라니를 포함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등 경전 등이 확인되었다.

불경은 표지가 없는 선장본(線裝本)과 낙장본(落張本)으로서, 그 중 간기가 확인되는 것은 『묘법연화경』으로 이를 통하여 1417년과 1493년 간본을 포함하여 1570년, 1633년 간본까지 불상 조성 이전까지의 경전이 복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기가 있는 『묘법연화경』은 다음과 같다.

- ① 영락 15년(1417), 전라도 고창 문수사, 영본1책(권1-3)
- ② 홍치 6년(1493), 충청 홍산 무량사, 영본1책(권5-7)
- ③ 융경 4년(1570), 전라도 담양 폭포암, 7권2책(완질본)
- ④ 승정 6년(1633), 전라도 해남 대흥사, 1책(권1)

1417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발문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仲春贅世翁金悅卿謹跋] 이 수록된 1493년 홍산 무량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현재 전하는 자료가 많지 않다. 또한 1570년 담양 폭포암본(7권 2책)과 1633년 해남 대흥사본(1책)과 함께 간행기록이 없는 3책 등은 조성발원문 이 작성된 1665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서 사찰의 역사와 목조삼존불의 연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상 복장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진도 쌍계사 목조삼존불 복장유물 현황<sup>166)</sup>

종별(명칭)		존상			비고						
		석가 모니	우협시	좌협시							
		크기		匡郭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다 라 니 진 언 및 날 장 경 전	觀世音菩薩寶篋 眞言	朱 印	大	77.0	48.5	31.5	21.0	198	357	212	
			中1	46.0	33.0	"	"	19	47	12	
			中2	52.0	36.5	"	"	0	7	0	1면 2판
			小	46.0	26.0	"	"	100	35	49	
			小小	33.0	24.0	"	"	0	16	28	
		소계					317	462	301		
		黙 印	大	77.0	50.0	31.5	21.0	166	22	106	
			中1	52.0	36.5	"	"	1,060	1,199	928	목서 6장
			中2	52.0	36.5	"	"	3	1	5	1면 2판
			小	46.0	26.0	"	"	0	7	3	
	소계						1,229	1,229	1,042		
	계						1,546	1,691	1,343		
	妙法蓮華經	석 가	1(묵음)	43.5	40.0	34.2	23.3	85	82	143	
			2(변상도)	44.4	42.5	34.2	22.7	85			
			3(卷一)	48.0	28.0	33.8	21.5	152			
보 현		1(묵음 권6)	44.0	40.0	34.0	22.5		59			
		2	46.0	34.0	34.0	22.0		83			
문 수		1	44.5	33.5	32.5	21.5			79		
		2(묵음)	46.0	41.0	34.0	23.5			66		
소계						322	142	145			
大佛頂首楞嚴神 呪						63	-	-			
金剛般若波羅密 經						103	-	-			
계						2,034	1,833	1,488	5,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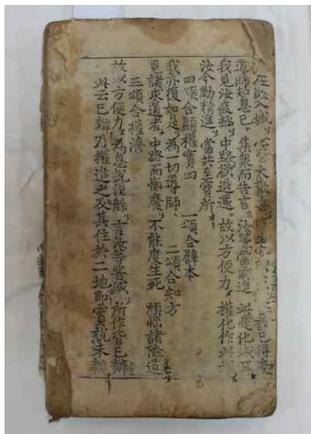
166) 복장유물 합계 : 5,370점(전적[묘법연화경] 8, 발원문 및 후령통 7, 다라니 진언 및 날장 경전 5,355) 20170714(금) 조사 확인. 김희태(전남 문화재전문위원), 김재호(진도 학예사), 최해수(쌍계사 사무장), 해종스님(쌍계사), 조한웅(쌍계사 처사)

1) 高敞 文殊寺 刻板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高敞]: [文殊寺], [永樂15年(1417) 刻板].  
 零本1冊(卷1-3): 上下單邊 全郭(上-下) 20.8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27.8x  
 15.7cm.

刊記: 永樂15年丁酉(1417) 全羅道高敞地文殊寺刻板

1417년에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이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불좌상의 복장에서만 확인되었다. 권1~3의 1책만이 남아 있는 영본으로, 앞뒤 표지는 없으며 권1의 앞부분 및 권3의 뒷부분 일부의 몇 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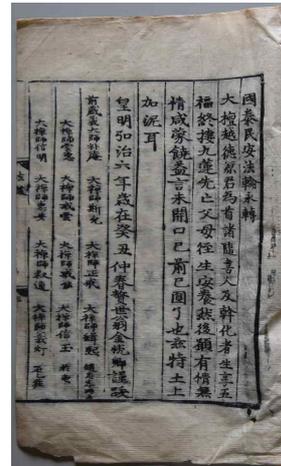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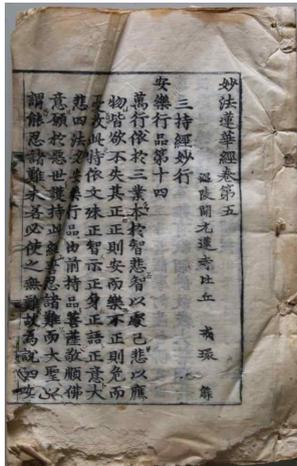
2) 鴻山 無量寺 刻板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忠淸)鴻山]: 無量寺, 弘治6年(1493) 謹跋.  
 零本1冊(卷5-7): 四周單邊 半郭 26.4x15.9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6.8x21.1 cm.

刊記: 萬壽山無量寺刊

跋: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1493)仲春 贅世翁金悅卿謹跋

우협시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된 경전으로 1493년에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권5~7의 1책 영본이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발문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仲春贅世翁金悅卿謹跋] 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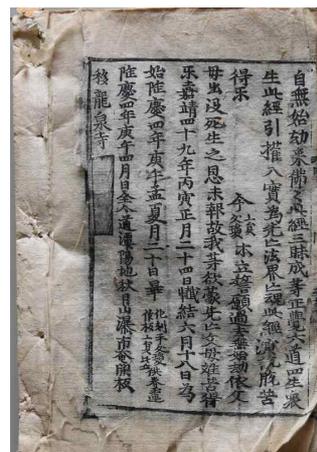


3) 潭陽 瀑布庵 刻板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潭陽: 瀑布庵, 隆慶4年(1570) 開板.

7卷2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6x13.3cm,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26.8 x18.1cm.

刊記: 隆慶四年庚午(1570)四月日全羅道潭陽地秋月山瀑布庵開板移龍泉寺



1570년에 담양 폭포암에서 간행된 이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불좌상의 복장에서만 확인되었다. 앞뒤 표지는 없으나 권1~7의 2책으로 완질본이다.

4) 海南 大興寺 刻板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海南: 大興寺, 崇禎6年(1633) 開板

零本1冊(卷1):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3x16.2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混葉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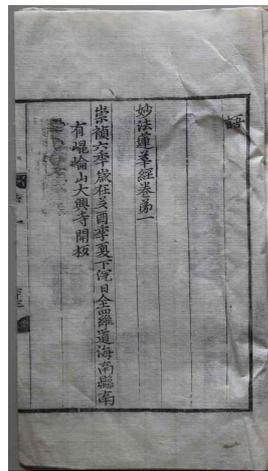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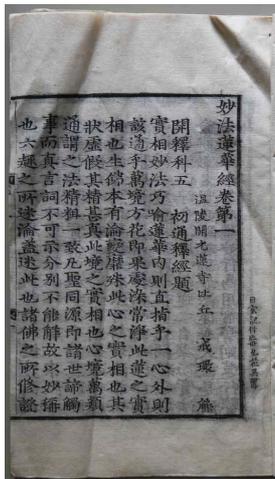
紋魚尾; 34.0x20.6 cm.

妙法蓮華經弘傳序: 終南山釋道宣述...朴忠獻書

妙法蓮華經要解序: 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及南撰...靖康丁未暮春中澣日謹序

刊記: 崇禎六季歲在癸酉(1633)季下浣日全羅道海南縣南有崑崙山大興寺開板

우협시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되었다. 1633년에 해남 대흥사에서 간행된 갑인자본 계열의 『묘법연화경』으로 권1 1책만 있는 영본이다. 앞뒤 표지는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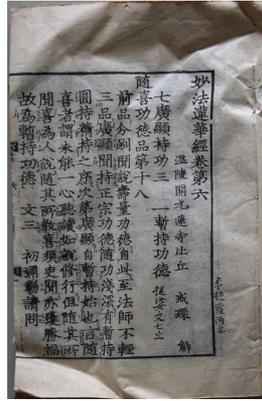


5) 10행 18자본 『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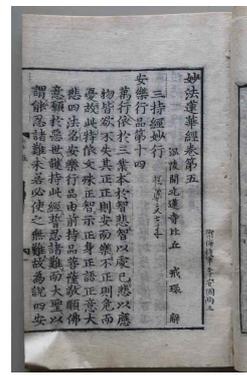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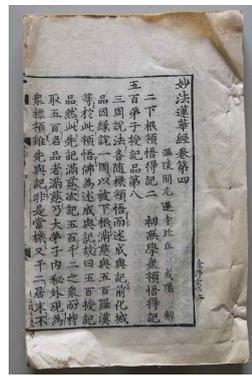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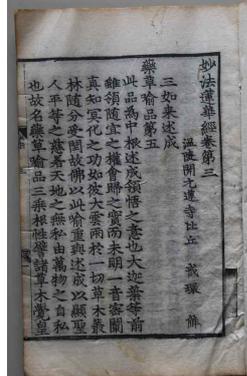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零本1冊(卷6-7): 四周單邊 半郭 24.8x15.9cm, 無界, 10行18字,上下下向3葉花紋魚尾(間出 上下下向黑魚尾); 35.3x22.1 cm.

간기가 확인되지 않은 갑인자본 계열의 『묘법연화경』으로 권6~7 1책의 영본이다. 한편 10행 18자본은 좌협시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되었는데 권2~3의 1책 그리고 권4~5의 1책 모두 2책이다. 그 중 권2는 54-80장만 남아 있는 상태로서, 크기는 반곽 23.5x16.8cm, 전체 31.5x20.4cm 정도이다. 또한 권4~5의 반곽 크기는 25.0x16.1 cm, 전체 35.5x22.3cm 정도로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책과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묘법연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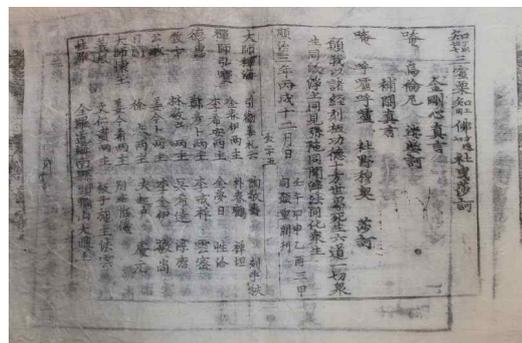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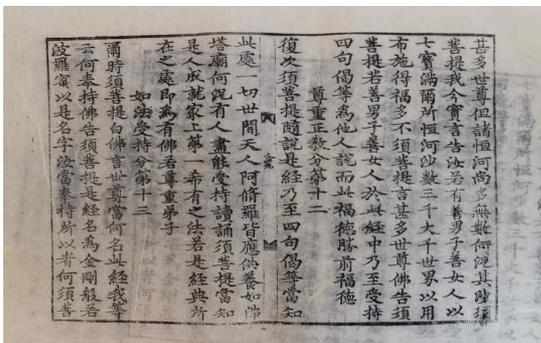


좌협시보살 복장 묘법연화경 권2-3

좌협시보살 복장 묘법연화경 권4-5

6) 날장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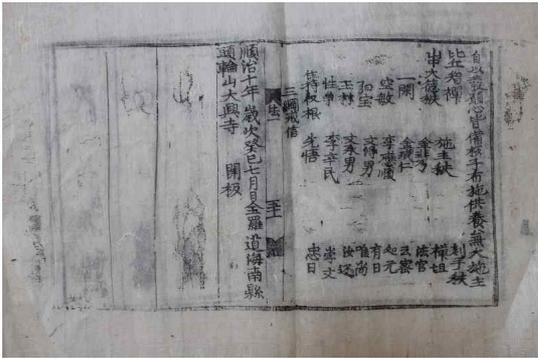
날장 경전가운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만 확인되었다. 모두 날장이거나 권말에 보이는 간기를 통하여 1646년(順治 3) 해남 대홍사에서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날장으로 확인되는 수량은 모두 103매로서 권6, 권8, 권9, 권11, 권13~권15, 권17, 권18, 권23, 권25 등 일부만이 확인된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금강반야바라밀경

7) 날장 묘법연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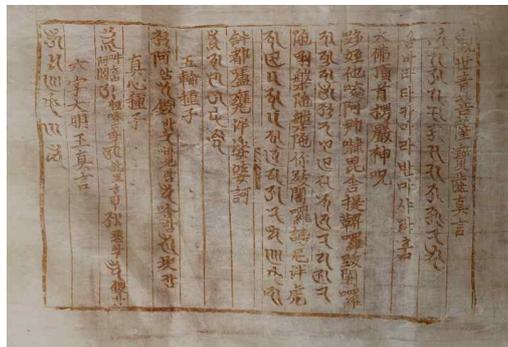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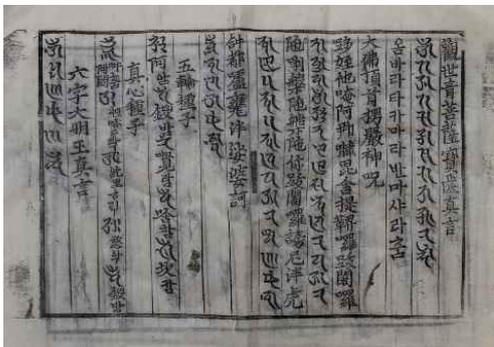
날장 경전가운데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 322매, 좌협시보살좌상 복장에서 145매, 우협시보살좌상 복장에서 142매가 확인되었다. 모두 날장이나 권말에 보이는 간기를 통하여 1653년(順治 10) 해남 대흥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곽의 크기는 21.5~23.5x32.5~34.2cm 내외이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날장 묘법연화경

8) 관세음보살보협진언(觀世音菩薩寶篋眞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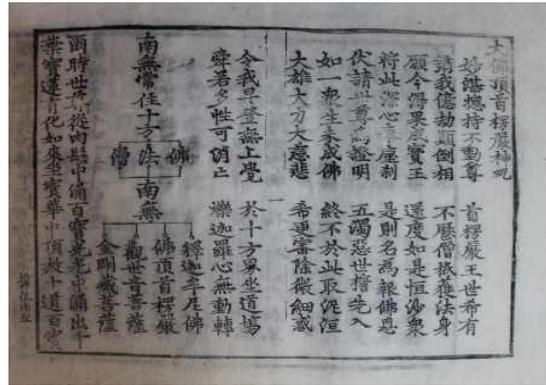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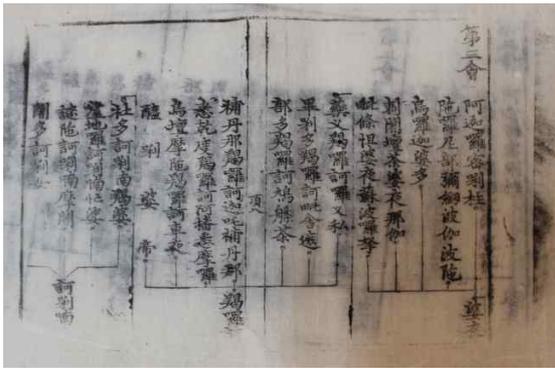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협진언과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오륜종자(五輪種子), 진심종자(眞心種子),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등 5종의 진언을 실고 있다. 관세음보살보협진언과 오륜종자, 진심종자의 경우 범자와 한글, 한자를 병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자 표기이다. 주판(朱板)과 묵판(墨板) 등 2종의 인출본이 있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는 주판 인본은 317매, 묵판 인본은 1,229매 모두 합해 1,546매가 확인되었고, 좌협시보살 복장에서는 주판 인본 301매, 묵판 인본은 1,042매 모두 1,343매 그리고 우협시보살좌상 복장에서는 주판 인본 462매, 묵판 인본 1,229매 모두 1,691매가 확인되었다. 광곽의 크기는 모두 21.0~23.3x31.5~34.2cm 내외이지만, 인쇄된 종이는 24.0~50.0x33.0~77.0cm 내외로 여러 유형이 확인되었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관세음보살보협진언

9)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날장 다라니 가운데 「대불정수능엄신주」는 석가모니불좌상 복장에서만 63매가 확인되었다. 「관세음보살보협진언」 등 5종의 진언과 다르게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한가지만을 담고 있다.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대불정수능엄신주

## 28. 정명공주 필 화정(貞明公主 筆 華政)

### 가. 검토사항

‘정명공주 필 화정’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명공주 필 화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명공주 필 화정(貞明公主 筆 華政)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
- 규 격 : 146.0 × 73.5cm /장황: 251.1 × 92.7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장황: 비단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세기 중·후반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화정(華政)>은 ‘華’·‘政’자를 각각 장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써서 함께 장황하고, ‘華’자의 오른쪽 아래와 ‘政’자의 왼쪽 위에 각각 ‘정명공주(貞明公主)’라는 인영이 있는 작품이다.

첫째, 작품의 조성연대는 남구만이 발문을 짓고 직접 쓴 「貞明公主筆蹟跋」에서 “공주의 막내 아드님 무주군(茂朱君, 洪萬恢)이 공주가 서궁에 있을 적에 쓴 ‘華政’이라는 두 글자의 큰 글씨를 나에게 보여 주며, 이는 나의 돌아가신 모친의 필적입니다.”라고 한 말과 <肅廟御製>에서 ‘弱年’이라 한 것으로 보아 서궁에 있던 1618년(16세)에서 1623년(21세)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작품의 가로와 세로의 배치, 인영의 위치, 서예의 용필·결구·서풍을 통해 분석하면, <華政>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작품인 <華·政>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작품에 가묵(加墨)한 흔적이 있고, 인영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서 후대에 찍었으며, 서풍이 서로 다르고 수준도 높은 경지가 아니어서 회귀성·역사적·예술적·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화정(華政)>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아직 미흡하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명공주의 「화정」 대필 두자는 73cm × 70cm 정도의 크기이다. 공주의 시가인 풍산 홍씨 가문에 전해오다가 20세기 전반에 간송미술관에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연혁과 유래를 통한 소중대를 살피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필치는 한석봉 체를 본받은 것으로서 그 진수를 잘 전하고 있다. 그런데 종이의 크기가 다르고 글자의 크기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흠이다. 또한 두자의 필치를 비교해 봐도 기필(起筆)부분에서 서로 상통하지 않는다. 특히 「政」 자에서 기필의 흔적이 확연한 것이 마치 쌍구분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 큰 하자로 드러난다. 이 밖에도 「華」 자의 오른쪽 아랫부분과 「政」 자의 오른쪽 위에 찍힌 <貞明公主> 인장은 후낙이 분명하며 날인의 위치상에서도 격도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내용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소지가 없지않지만 서예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높은 격도의 수준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명공주 묵서 「화정(華政)」은 글자가 70 × 70cm에 달하는 해서체의 큰 글씨이다. 이 작품의 작가인 정명공주(1603 ~ 1685)는 선조와 인목 왕후(1584 ~ 1632) 사이에 태어난 공주이다. 광해군 때 10년간 인목대비와 함께 서궁(西宮)에 갇혀 지내며 모후의 지도 아래 서예에 정진하여 일가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한석봉의 서풍으로 쓰여진 「華政」은 남구만의 “필적의 기상이 웅건할 뿐만이 아니라 온화하면서도 두터워 규중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필법은 심획(心劃)을 얻었습니다.”라는 품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서예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

에 가묵(加墨)한 흔적이 역력하고 인장 또한 후대에 찍은 것이고 찍힌 위치 또한 적절치 않다. 작품의 수준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심사자는 이 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명공주 묵서 「화정(華政)」은 글자가 70 × 70cm에 달하는 해서체의 큰 글씨이다. 이 작품의 작가인 정명공주(1603~1685)는 선조와 인목왕후(1584 ~ 1632) 사이에 태어난 공주이다. 인목왕후는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계비로서 영돈녕부사 김제남의 딸이며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에 이어 1602년 왕비에 책봉되었고 1606년에 영창대군을 낳았다. 소북과 대북 사이에서 당쟁이 발생하여 대북파의 이이첨 등이 영창대군에게 반역죄를 씌워 폐서인시킨 뒤 죽였다. 이에 인목왕후도 1617년에 삭호 당하고 서궁에 유폐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복호되어 대왕대비가 되었다. 조선의왕후 중에 글씨에 뛰어난 왕후로 알려져 있다. 정명공주는 10년간 인목대비와 함께 서궁(西宮)에 갇혀 지내며 어머니 인목왕후의 지도 아래 서예에 정진하여 일가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유합(類合)>에 첨부된 남구만의 발문에 나오는 “지금 공주의 막내 아드님 무주군(茂朱君, 洪萬恢)이 공주가 서궁에 있을 때 쓴 ‘華政’이라는 두 글자의 큰 글씨를 나에게 보여 주며 ‘이는 나의 돌아가신 모친의 필적입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서궁에 때 쓴 것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자료는 역시 <유합>에 첨부된 다음과 같은 숙종어제의 내용이다.

肅廟御製 貞明公主所書華政二大字贊 大書竅難 惟主能之 弱年筆法 雄健若茲 摹刊則夙予獨晚知 一展一覽 且驚且奇

숙종은 몸소 글을 지어 정명공주가 쓴 <화정> 두 글자의 큰 글씨에 대해 찬(贊)하시길 “큰 글씨가 가장 어려운데 오직 공주가 쓸 수 있었도다. 어린 나이의 필법은 웅건함이 이와 같도다. 모각하여 간행함이 오래이나 짐은 유독 늦게 알았다. 한번 펼쳐 보니 놀랍고 또한 기이하다.”라고 하시었다.

한석봉의 서풍으로 쓴 「華政」에 대하여 남구만(南九萬)은 “필적의 기상이 웅건할 뿐만 아니라 온화하면서도 두터워 규중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필법은 심획(心劃)을 얻었습니다.”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품평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품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華政」은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서예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구는 한석봉 해서의 결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자체, 혹은 필체를 연구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필획에는 문제가 많다. 일회성 필획으로 ‘쓴’ 글씨라고 보기에는 먹색이나 필획의 운율감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린’ 글씨로 보인다.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묵(加墨)을 함으로써 그 흔적이 역력

하고 먹색이 상당히 탁하다. 인장 또한 후대에 찍은 것으로 보이며 인장의 위치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정명공주 묵서 「화정(華政)」’을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 쪽염한 천에 싸여 오동나무상자에 보관.
- 이전 상황이 개장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 2014년 응급처리만 실시.
- 상황전체 두께가 얇은 편. 가로 방향 꺾임이 화본과 상황전반에 산재.
- 침수로 인한 얼룩이 마는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관찰. 변아까지 이염.
- 본지에 결손부 산재, 이전 수리 시 보채한 흔적 관찰.
- 상황과 본지에서 얼룩과 변색 관찰.
- 뒷면 은배접지, 귀접기부분에 배접지와 작품이 분리된 부분 관찰.
- 뒷면 보호천 부분 결손, 울이 풀린 부분, 들뜸 부분을 쪽염한 종지로 메움하고 풀로 올풀림과 들뜸 안착, 상축 연결부 갈라짐도 종지로 보강.
- 족자끈은 동다회와 두루마리용 끈으로 구성.

\*비록 가로 방향 꺾임이 있고, 침수로 인한 얼룩과 부분적 결손과 가묵(加墨)한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 1. 정명공주(貞明公主)

정명공주(1603-1685)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와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 연안김씨 사이에 태어난 공주이다. 정명공주가 태어났을 당시 인목왕후는 20세이고, 이복오빠이며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은 29세로 인목왕후보다 9살이 많았다. 남동생으로 3살 어린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이 있었고, 『한중록』으로 유명한 사도세자의 비 혜경궁(惠慶宮) 홍씨는 5대 손녀이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맹활약 하였던 광해군에게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한 광해군은 동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소성대비(즉 인목왕후)·정명공주·영창대군은 대비전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종종 소성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계기로 영창대군은 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다음해 강화부사 정황에게 살해되었다. 이 옥사를 빌미로 광해군 10년(1618) 소성대비도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당시 아직 하가(下嫁)하지 않았던 정명공주는 소성대비를 좌우에서 모시며 서궁에 함께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 사흘 뒤에 예조의 청을 받아들여 정명공주의 부마간택령을 내렸다. 공주의 나이가 많아 부마 후보자의 연령제한까지 풀어 8월 11일 초간택으로 9명을 선발하였고, 9월 12일 재간택에서 공주보다 3살 어린 중추부동지사 홍영(洪靈)의 아들 홍주원(洪柱元, 1603-1672)이 부마로 낙점되었다. 정명공주는 천부적인 필재에 부친 선조의 필법을 본받고 모후 인목왕후의 훈도를 더하여 웅건하며 혼후한 서풍으로 당시 제일의 명필 한호의 ‘석봉체’를 계승하였다. 이는 유작 <화정(華政)>·<유합(類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조선 후기 서예가 남구만의 칭찬에서 비롯됨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정명공주는 인조반정 이후 인조의 의심을 살 것이 두려워 한문서예를 하지 않고 한글서예를 하였으며, 바느질과 가사에만 전념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치를 외면하였다.

## 2. <화정(華政)>의 조성연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화정(華政)>은 정명공주가 서궁에 있을 때 썼다는 것을 <유합(類合)>에 첨부된 남구만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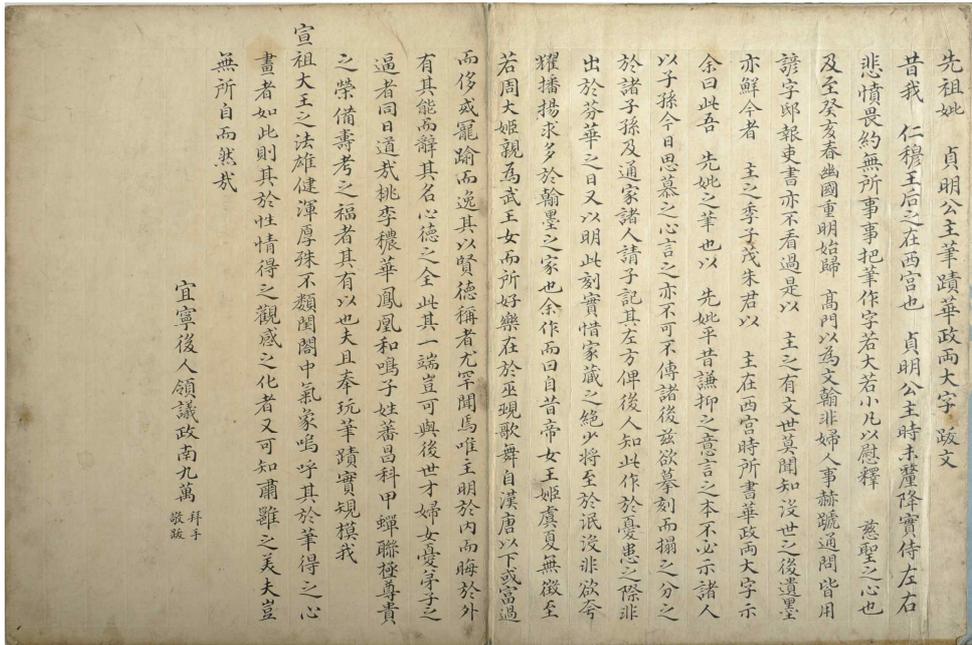
先祖妣 貞明公主筆蹟華政兩大字 跋文

昔我 仁穆王后之在西宮也 貞明公主時未釐降 實侍左右 悲憤畏約 無所事事 把筆作字 若大若小 凡以慰釋 慈聖之心也 及至癸亥春 幽國重明 始歸高門 以爲文翰非婦人事 赫蹏通問 皆用諺字 邸報吏書 亦不看過 是以主之有文 世莫聞知 沒世之後遺墨亦鮮

今者主之季子茂朱君以主在西宮時所書華政兩大字示余曰 此吾先妣之筆也 以先妣平昔謙抑之意言之 本不必示諸人 以子孫今日思慕之心言之 亦不可不傳諸後 茲欲摹刻而搨之 分之於諸子孫及通家諸人 請子記其左方 俾後人知此作於憂患之際 非出於芬華之日 又以明此刻實惜家藏之絕少 將至於泯沒 非欲夸耀播揚 求多於翰墨之家也

余作而曰自昔帝女王姬 虞夏無徵 至若周大姬 親爲武王女 而所好樂在於巫覡歌舞 自漢唐以下 或富過而侈 或寵踰而逸 其以賢德稱者尤罕聞焉 唯主明於內而晦於外 有其能而辭其名 心德之全 此其一端 豈可與後世才婦女憂弟子之逼者同日道哉 桃李穠華 鳳凰和鳴 子姓蕃昌 科甲蟬聯 極尊貴之榮 備壽考之福者 其有以

也夫 且奉玩筆蹟 實規模我 宣祖大王之法 雄健渾厚 殊不類閨閣中氣象 嗚呼 其於筆得之心畫者如此 則其於性情得之觀感之化者 又可知 肅離之美 夫豈無所自而然哉. 宜寧後人頌議政南九萬(拜手敬跋)167)



<화정(華政)>에 대한 남구만(南九萬)의 발문(跋文)

선조비 정명공주 필적 화정 두 글자의 큰 글씨에 대한 발문  
 옛날 우리 인목왕후가 서궁에 있을 때 정명공주는 당시 아직 하가(下嫁)하지 않아 실제로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다. 공주는 슬프거나 분하고 곤궁하거나 위축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붓을 잡고 글씨를 썼다. 크거나 작게 써서 모두 모친 소성대비<sup>168)</sup>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드렸다. 계해년(1623, 광해군 15년/인조 원년) 봄 어두운 나라가 다시 밝아져 비로소 높은 가문으로 하가 하고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은 부인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글씨를 쓰는 종이에 안부를 묻는 것은 모두 언문의 글자를 사용하였다. 관보(官

167) 이는 南九萬의 『藥泉集』 第二十七 「貞明公主筆蹟跋」 에도 보이는데, 본문은 같으나 앞의 ‘先祖妣 貞明公主筆蹟華政兩大字 跋文’과 끝의 ‘宜寧後人頌議政南九萬(拜手敬跋)’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성백효(成百曉)는 「정명공주의 필적에 대한 발문 貞明公主筆蹟跋」 (『국역 약천집』 370쪽,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2006.)에서 이는 신사년(1701)에 남구만이 쓴 것이라 하였다. 『숙종실록』 에 의하면,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1694년 4월 1일 임금이 영의정을 제배(除拜)한 이후 1696년 6월 17일 남구만이 영의정을 사직하자 1696년 6월 25일 영중추(領中樞)를 부직(付職)하였다. 그리고 1701년 당시에 서문중(徐文重)은 영의정, 남구만은 영부사(領府事), 정명공주의 아들 홍만희(洪萬恢)는 무주부사(茂朱府使)였다. 그러나 남구만의 발문 끝에는 ‘宜寧後人頌議政南九萬(拜手敬跋)’이라 썼다.

168) 자성(慈聖)은 임금의 어머니를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인목왕후를 가리키니, 선조 때 소성(昭聖), 광해군 때 정의(貞懿)라는 존호를 받아 소성대비(昭聖大妃)라 불린다. 시호는 인목(仁穆)이어서 인목대비(仁穆大妃)라 하는데, 정식 시호는 소성정의명렬광숙장정정숙인목왕후(昭聖貞懿明烈光淑莊定正肅仁穆王后)이다.

報)와 관청의 공문서도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주가 글재주가 있음을 세상에서 들어 아는 이가 없었고, 돌아가신 뒤의 유묵도 드물었다.

지금 공주의 막내 아드님 무주군(茂朱君, 洪萬恢)<sup>169</sup>이 공주가 서궁에 있을 때 쓴 ‘華政’이라는 두 글자의 큰 글씨를 나에게 보여 주며 “이는 나의 돌아가신 모친의 필적입니다. 돌아가신 모친의 평소 겸손의 뜻으로 말한다면, 본디 여러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손이 오늘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또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각하고 탁본하여 여러 자손들 및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니, 그대는 왼쪽에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이는 우환이 일어난 때에 쓴 것이지 영광스럽고 현달한 날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주시오. 또한 이 모각은 실제로 집에 소장한 것이 아주 적어 장차 없어짐을 아까워하는 것이지 자랑하고 널리 퍼뜨려 많은 것을 필묵에서 구하는 집안이 아님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나는 글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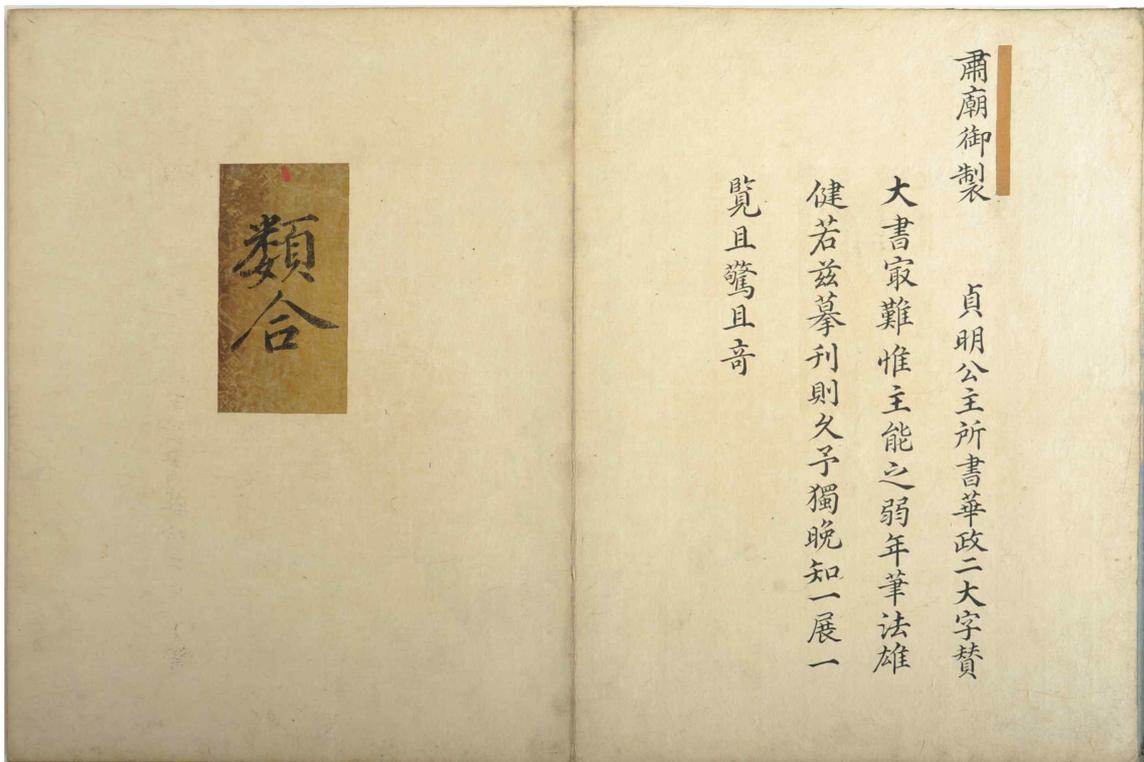
예로부터 제왕의 딸 공주는 유우씨와 하나라에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 주나라 태희와 같음에 이르러서는 무왕의 친 따님이었으나 좋아하는 것은 무당과 박수의 가무였다. 한·당나라 이래로부터 혹 부유함이 지나쳐 사치하거나 혹 충애가 넘쳐 안일해져서 어진 덕으로 칭송하는 이는 더욱 드물게 들린다. 오직 공주는 안에서 밝고 밖에서 어두우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사양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품성을 온전히 하였다. 이 작품은 그것의 일단이니, 어찌 재주가 있는 부녀자가 아우와 아들을 걱정하여 핍박하는 이와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피고 봉황이 서로 지저귀며, 자손이 번창하고 과거 급제가 이어지며, 존귀한 영화를 다하고 오래 사는 복을 갖추는 까닭이 있도다. 또한 필적을 받들어 완상하니, 실제 규모가 우리 선조대왕의 필법이다. 웅건하고 혼후함은 특별히 부녀자의 기상과 같지 않다. 아, 붓에서 얻은 마음의 그림이 이와 같다면 성정에서 얻은 감화를 보는 것도 알 수 있다. 엄숙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은 어찌 유래한 바가 없이 그러하겠는가?

의령후인 영의정 남구만이 두 손을 들어 마주잡고 절을 하며 공경히 발문을 쓰다.

이를 보면, 정명공주는 서궁에 있을 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인목왕후에게 서예

169) 홍만회(洪萬恢, 1643-1709)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증조부는 대사헌 홍이상(洪履祥), 조부는 예조참판 홍영(洪羹), 부친은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모친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이다. 현종 10년(1669) 사마시에 합격하고, 숙종 1년(1675) 음보로 장악원직장이 되었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외직으로 나가 안악군수·풍덕부사를 역임하고 숙종 35년(1709) 장례원판결사에 보임되었다가 죽었다.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19일 壬申 4번째기사 1701년 강희(康熙) 40년에 “무주부사 홍만회 등(茂朱府使洪萬恢等)”의 기록에 의하면, 무주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무주군(茂朱君)이라 한 것 같다.

지도를 받아 붓을 잡고 글씨를 썼는데, 크거나 작은 글씨를 잘 썼고 ‘화정(華政)’이란 두 글자의 큰 글씨는 이 시절에 썼음을 알 수 있다. 글씨는 선조의 필법이고, 선조는 당시 제일의 명필 한호(韓濩, 1543-1605, 호는 石峯)의 ‘석봉체’ 대가로 서풍은 웅건하고 혼후하였다. 정명공주가 이러한 선조의 필법을 본받은 것은 서궁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소성대비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선조의 왕비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작품이 서궁에 때 쓴 것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자료는 역시 <유합>에 첨부된 숙종어제의 내용이다.



숙묘어제(肅廟御製)

肅廟御製 貞明公主所書華政二大字贊 大書寂難 惟主能之 弱年筆法 雄健若茲 摹刊則久 予獨晚知 一展一覽 且驚且奇

숙종은 몸소 글을 지어 정명공주가 쓴 <화정> 두 글자의 큰 글씨에 대해 찬(贊)하시길 “큰 글씨가 가장 어려운데 오직 공주가 쓸 수 있었도다. 어린 나이의 필법은 웅건함이 이와 같도다. 모각하여 간행함이 오래이나 짐은 유독 늦게 알았다. 한번 펼쳐 보니 놀랍고 또한 기이하도다.”라고 하시었다.

여기에서 ‘弱年’은 어린 나이 또는 약관을 가리킨다. 이는 앞의 남구만 발문에서 “공주의 막내 아드님 무주군(茂朱君, 洪萬恢)이 공주가 서궁에 있을 때 쓴 ‘華政’이라는 두 글자의 큰 글씨를 나에게 보여 주며 이는 나의 돌아가신 모친의 필적입니

다.”라고 한 말과 시기가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광해군일기(중초본)』와 『인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무오(1618) 정월 30일……15인이 도당에 모여 폐비를 폄손(貶損)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었다.<sup>170)</sup>

존호를 낮추고 전에 올린 본국의 존호를 삭제하며, 옥책과 옥보를 내오며, 대비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서궁이라 부르며……서궁에게 바침은 후궁의 예에 따르고, 공주의 뇨료와 혼인은 옹주의 예에 따른다.<sup>171)</sup>

상이 의병을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sup>172)</sup>

이를 보면, 정명공주가 모후와 함께 서궁에 있던 기간은 1618년에서 1623년으로 정명공주의 나이 16-21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명공주 막내아들이 서궁에 있을 때 쓴 것이라 한 말과 숙종어제에서 ‘弱年’이라 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송미술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필력과 결구의 세련도로 보아 환갑 전후한 시기에 썼을 듯하니 현종 4년(1663) 계묘에 쓰지 않았나 한다.”<sup>173)</sup>라고 한 것보다는 서궁에 있던 1618년(16세)에서 1623년(21세) 사이를 작품의 조성연대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 3. <화정(華政)>의 서예적 의미

<화정(華政)>은 ‘華’·‘政’자를 각각 장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써서 함께 장황하고, ‘華’자의 오른쪽 아래와 ‘政’자의 왼쪽 위에 각각 ‘정명공주(貞明公主)’라는 인영이 있는 작품이다. ‘華’는 빛·꽃 혹은 화려하다는 뜻이고, ‘政’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니, 두 글자를 합친 화정(華政)은 빛나는 다스림, 혹은 화려한 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간송문화』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화정(華政 : 빛나는 정치)’라고 한 것 같다.<sup>174)</sup> 그러나 ‘華’자는 75.3 × 57.2cm 이고, ‘政’자는

170) 『광해군일기(중초본)』 43권 광해 10년 1월 30일 庚寅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 46년 : “戊午正月三十日……十五人會于都堂, 議貶損廢妃節目以啓.”

171) 『광해군일기(중초본)』 43권 광해 10년 1월 30일 庚寅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 “貶尊號, 削前上本國尊號, 出玉冊、玉寶, 去大妃二字, 稱西宮……西宮進排, 依後宮例, 公主廩料、婚姻, 依翁主例.”

172)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3일 癸卯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 “上舉義兵, 奉王大妃復位, 以大妃命, 卽位于慶運宮.”

173) 이는 『澗松文華』 70호 219쪽에 있고 끝에 (崔)라 하였으며, 또한 『澗松文華』 75호 162쪽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174) 『澗松文華』 70호(2006) 219쪽과 『澗松文華』 75호(2008) 162쪽.

71 × 73.8cm로 각각 크기가 다르다. 이를 보면, ‘華’자는 세로로 길고, ‘政’자는 가로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형적·서예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처럼 ‘華’자에서 마지막 세로획의 중심을 맞추어 세로로 배치하면 ‘華’자의 좌우 가장자리가 ‘政’자보다 좁아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이를 도판에 예시한 것처럼 가로로 배치하면, ‘華’자는 작고 ‘政’자는 커서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영의 위치도 세로로 배열하였을 때 ‘華’자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가로로 배열하였을 때 ‘政’자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인영은 ‘華’라는 글자 안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政’자의 ‘攵’ 부수 첫 획의 높이에 맞춰 왼쪽 위의 빈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華政’을 두 글자로 보고 세로나 가로로 배치하거나 혹은 한 글자씩 보더라도 인영의 위치는 서예의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華政의 세로배치

다음은 서예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용필에서 ‘華’자의 기필(起筆)은 대체로 필봉을 거슬러 들어가 약간 아랫부분에 힘을 주어 꺾는 역입절필(逆入折筆)을 운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절도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행필은 중봉을 운용



華政의 가로배치

하였고, 수필(收筆)은 회봉(回鋒)을 한 다음 다시 힘을 주어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누에머리와 같은 잠두(蠶頭) 형상을 나타내었다. 필획의 굵기는 거의 일정하나 마지막 세로획이 조금 더 굵어 전체 중심을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이루었다. 결국은 가로와 세로의 필획이 많아 긴밀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해 ‘政’자의 기필은 대체로 ‘華’자와 같은 역입절필(逆入折筆)을 운용하였으나 다른 점은 거슬러 들어가는 역입(逆入) 부분이 조금 길고 일단 붓을 세운 다음 다시 한 번 힘을 주어 강하게 누른 이후에 행필을 하였기 때문에 앞부분의 형상은 말발굽과 같은 마제(馬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행필과 수필은 ‘華’자와 대동소이하고, 결국은 필획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성글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용필·행필·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글자의 풍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華’자는 운필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침착하여 안온하면서 긴밀하며 정태적인 느낌이 들어 ‘政’자에 비해 차분한 여성적인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해 ‘政’자는 운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해서의 특징인 마제잠두(馬蹄蠶頭)와 필획이 분명하고 필력감이 있으며, 성근 결구를 하면서도 생동하고 활발한 동태적인 느낌이 들어 ‘華’자에 비해 호방한 남성적인 느낌이 든다. 따라서 전자는 침착하고, 후자는 통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조형적·서예적 측면의 분석 결과 이 두 글자는 같은 사람이 쓰지 않았거나, 비록 같은 사람이 썼더라도 쓴 시기가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華政’을 한 작품으로 보아 ‘화정(華政 : 빛나는 정치)’라 해석하는 것은 건강부회하며, 이를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고 <華·政>이라 함이 옳을 것 같다.

남구만 발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명공주가 쓴 이 작품은 선조의 필법을 본받아 웅건하고 혼후함은 특별히 부녀자의 기상과 같지 않다. 선조가 한호의 글씨를 특별히 좋아하였다는 것은 “큰 종이에 『동서당집고첩』을 썼을 때 하나하나 임모

하여 배졌는데 똑같지 않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모두 지극한 보배였다. 선왕께서 이를 들으시고 급히 내시에게 가서 바꾸어 모두 쥘내로 가져오도록 명하시었다. 다음날 고운 베·소금·쌀·종이·붓·먹·향·임금의 베틀·옷·신 등 물품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고, 이것으로 집을 사서 살도록 하였다.”<sup>175)</sup>라는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선조 16년(1583) 선조의 명으로 한호에게 중간 크기의 해서를 써서 <천자문>을 간행하도록 하였는데, 끝에 ‘만력십일년정월부사과신한호봉교서(萬曆十一年正月副司果臣韓濩奉教書)’라는 간기가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진망(李眞望, 1672-1737)도 정명공주가 서궁에 있을 때 큰 글씨를 쓴 것에 대해 “정명공주는 필법이 기이하고 뛰어나며, 절대로 부녀자의 기운이 없었다. 서궁에 있을 때 큰 글씨 8폭을 썼는데, 내외 자손들이 나누어 소장하였다.”<sup>176)</sup>라고 하였다. 정명공주의 큰 글씨는 필획의 기필과 수필 부분을 강조하고 긴밀한 결구를 한 것이 실제로 한호의 <대자천자문>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정명공주는 천부적인 필재에다 부친 선조의 필법을 본받고 모후 인목왕후의 훈도를 더하여 웅건하며 혼후한 서풍으로 당시 제일의 명가 한호의 ‘석봉체’를 계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 문헌자료

南九萬 『藥泉集』 第二十七, 『광해군일기(중초본)』 43권, 『인조실록』 1권, 『숙종실록』 35권, 李眞望 『西堂私載』, 許筠, 『惺所覆瓿稿』, 『간송문화(澗松文華)』 70·75호,



#### ○ 현 상

- 쪽염한 천에 싸여 오동보관상자에 보관.
- 이전 상황이 개장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 2014년 응급처리만 실시.
- 상황전체 두께가 얇은 편. 가로 방향 꺾임이 화본과 상황전반에 산재.
- 침수로 인한 얼룩이 마는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있음. 변아까지 이염.
- 본지에 결손부 산재, 이전 수리 시 보채한 흔적이 있음.
- 상황과 본지에서 얼룩과 변색이 있음.
- 뒷면 은배접지, 귀접기부분에 배접지와 작품이 분리된 부분이 있음.
- 뒷면 보호천 부분 결손부분, 울이 풀린 부분, 들 뜬 부분을 쪽으로 염색한 종이

175) 許筠, 『惺所覆瓿稿·惺翁識小錄下·韓濩書東西堂集古帖』 卷二十四 說部三：“又以大紙, 書東書堂集古帖, 一一臨搨, 無不酷似, 誠皆至寶也. 先王聞之, 亟命中使往換之, 盡數入內. 翌日, 賜細布鹽米紙筆墨香御硯衣靴等物甚厚, 因以置舍居之.”

176) 李眞望, 『西堂私載·御贊貞明公主墨跡跋』 卷四：“貞明公主, 筆法奇偉, 絕無脂粉氣. 在西宮, 嘗作大書八幅, 爲內外子孫所分藏.”

로 메우고 풀로 올이 풀린 곳과 들 뜬 부분을 수선하였으며 상측 연결부 갈라짐도 종이로 보강하였음.

-족자끈은 동다회와 두루마리용 끈으로 구성.

### ○ 내용 및 특징

‘華’자와 ‘政’자를 각각 장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써서 함께 표구하였는데 종이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빈 공간에 찍힌 ‘貞明公主’라는 인장은 후대에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 ○ 기 타

1930 ~ 40년 경에 간송미술관에서 수장하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 현 상

- 쪽염한 천에 싸여 오동보관상자에 보관.
- 이전 상황이 개장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 2014년 응급처리만 실시.
- 상황전체 두께가 얇은 편. 가로 방향 꺾임이 화본과 상황전반에 산재.
- 침수로 인한 얼룩이 마는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있음. 변아까지 이염.
- 본지에 결손부 산재, 이전 수리 시 보채한 흔적이 있음.
- 상황과 본지에서 얼룩과 변색이 있음.
- 뒷면 은배접지, 귀접기부분에 배접지와 작품이 분리된 부분이 있음.
- 뒷면 보호천 부분 결손부분, 올이 풀린 부분, 들 뜬 부분을 쪽으로 염색한 종이로 메우고 풀로 올이 풀린 곳과 들 뜬 부분을 수선하였으며 상측 연결부 갈라짐도 종이로 보강하였음.
- 족자끈은 동다회와 두루마리용 끈으로 구성.

### ○ 내용 및 특징

‘華’자와 ‘政’자를 각각 장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써서 함께 표구하였는데 종이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빈 공간에 찍힌 ‘貞明公主’라는 인장은 후대에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 ○ 기 타

1930 ~ 40년 경에 간송미술관에서 수장하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29. 정명공주 필 유합(貞明公主 筆 類合)

### 가. 검토사항

'정명공주 필 유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명공주 필 유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명공주 필 유합(貞明公主 筆 類合)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64엽)
- 규 격 : 40.8 × 30.7 × 3.0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장황: 종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서첩(호접장)
- 조성연대 : 조선 17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유합』은 정명공주가 쓴 호접장 서첩으로 청색 능화지의 앞뒤 표지가 있는데, 앞표지는 사합여의운문이고 뒤표지는 다중원형연속문이다. 앞뒤

표지 안에 있는 능화지 내지는 모두 32장 64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성연대는 오세창·홍중복의 발문에 의거하여 서궁에서 모후의 훈도를 받아 한문교육과 서예학습을 할 때 쓴 것이고, 숙종 계해년(숙종 9년, 1683)에 이르러 빠뜨린 글씨를 보충하였으며, 영조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서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명공주가 81세에 손자에게 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81세에 이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81세이면 사람과 글씨가 함께 노숙해지는 인서구로(人書俱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러나 필적을 보면, 정묘하고 원숙하며 노련한 ‘인서구로’의 필치라기보다는 필획·용필·결자가 아직 고르거나 정돈되지 않았으니 차라리 서예학습 기간의 글씨로 보는 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므로 조성연대는 <화정(華政)>과 같이 서궁에 있던 1618년(16세)에서 1623년(21세)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명공주가 쓴 『유합』은 자형·용필과 필획의 기울기, 가로획의 수필(收筆)과 책획(磔畫)·적획(趯畫)·전절(轉折) 등의 처리를 보면, 『신증유합』을 범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합』·『신증유합』은 사주쌍변(四周雙邊) 안에 가는 세로의 계선이 있어 행간이 고른 자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정명공주의 필적은 사주쌍변과 계선이 없어 자형은 좁거나 넓고 크거나 작으며 고르지 않다. 또한 정명공주의 필적에는 한자의 뜻풀이와 음을 쓰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합』·『신증유합』의 필획 굵기가 일정하고 자형이 고른 것에 비해 정명공주 필적의 필획은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으며, 자형은 크거나 작아 고른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종합하여 말하면, 조성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점, 한자의 뜻풀이와 음을 쓰지 않아 고어(古語)의 연구에 가치가 없다는 점, 서예의 수준이 높지 않아 사료적·예술적·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명공주의 묵서 「類合」도 「華政」과 마찬가지로 풍산 홍씨 가문에 전해오다가 간송 미술관에서 수장한 것이다. 모친인 인목왕후와 10살부터 21살 까지 유폐되었을 때 모친으로 부터 글씨를 배워 당시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에 손자 홍중복을 위해 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인목왕후의 칠장사 소장 <七言詩>나 동국대 소장의 <金光明最勝王經> 필사본의 필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노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묵서는 정명공주의 친필이라는 점에는 역사성이나 시대성에서 가치는 매우 크다. 다만 「유합」본연의 체계, 즉 어린이 한자교육을 위해 음과 훈을 단 완전한 것이 아닌 단지 어떠한 유합을 보고 필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서예성취에서도 유소년시의 필치와 방불해 모친의 필법을 이었다는 점 이외에는 큰 의의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미흡)

『유합(類合)』은 『천자문』과 함께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된 한자 학습용 초학 교재이다.

‘정명공주 묵서 『유합(類合)』’은 선조와 인목왕후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공주인 정명공주의 친필로 쓰여졌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들이 부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첩에는 일반 『유합』과는 달리 제시된 한자의 음과 훈에 대한 한글 표기가 없어 중세 국어 연구 자료로서는 가치가 없으며, 글씨 또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작품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명공주 묵서 『유합(類合)』〉은 선조와 인목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공주인 정명공주가 친필로 쓴 것이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들이 부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합』 조성연대에 대해 『간송문화』는 “14세의 손자 홍중복에게 주기 위해 81세의 고령에 쓴 서첩이다.”라고 하였으나, 『유합』의 마지막 장인 제32장에 붙은 오세창(吳世昌) 발문에 의하면 “글씨를 쓴 것은 광해군 때이고, 숙종 계해년(숙종 9년, 1683)에 빠뜨린 글씨를 보충하였으며, 영조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서첩을 만들었다[其下筆在於光海時 至肅廟癸亥補書 英廟庚申成帖.]”는 설명이 있다. 분만 아니라, 제28장에서 제30장까지 이어지는 홍중복의 발문은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명공주의 『유합』은 서궁에서 어머니인 인목왕후의 지도를 받아 한문을 익히고 서예를 연습할 때 쓴 것이고, 숙종 계해년(숙종 9년, 1683)에 이르러 빠뜨린 글씨를 보충하였으며, 영조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서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명공주가 81세에 손자에게 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81세에 이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실지 필적도 81세의 노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81세이면 사람과 글씨가 함께 노숙해지는 인서구로(人書俱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이다.

이 서첩형태의 『유합(類合)』에는 다른 판본의 『유합』과는 달리 제시된 한자의 훈과 음에 대한 한글 표기가 없다. 따라서 중세 국어연구의 자료로서는 가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글씨 또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사료적 가치 측면에서도 서예적 수준 측면에서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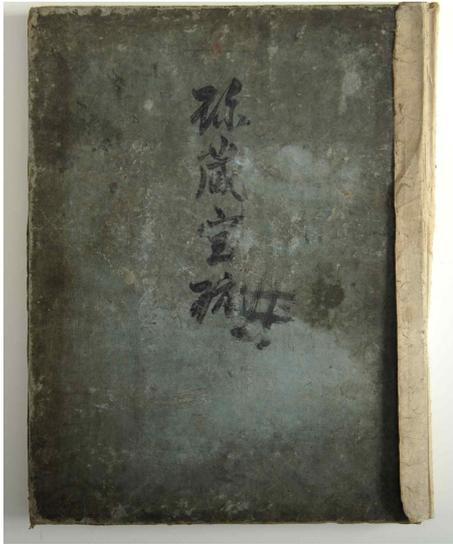


### ○ 현 상

- 오동상자에 넣어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표지 가장자리 마모가 심하고, 청색 능화지이나 앞, 뒤 문양과 두께가 상이.  
(앞표지: 사합여의운문, 뒤표지: 다중원형연속문)
- 앞표지에는 제침 없이 표제만 묵서로 기입. 뒤표지에는 제침을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 뒷면 가장자리 접힌 부위에 평견직물 잔존. 원형이 변형되었을 가능성 있음.
- 표지 및 내지 전반에 변·퇴색된 부위, 오염, 얼룩 등이 산재.
- 내지 묵서 일부가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고 배접지에 가필한 상태.
- 내지에 섬유 보풀, 곰팡이, 산화부 등 관찰.
- 내지 후반부에 변아 가장자리 및 내지 부착면이 부분적으로 분리.
- 4면에 표제로 추정되는 황색 능화지(사격회자문 바탕에 연보상화문 추정) 부착 존재.
- 서근에 묵서 기입.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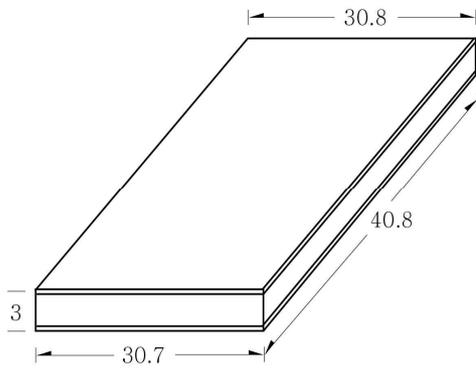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유합(類合)』은 정명공주가 쓴 호접장 서첩으로 청색 능화지의 앞뒤 표지가 있는데, 앞표지는 사합여의운문이고 뒤표지는 다중원형 연속문이다. 앞뒤 표지 안에 있는 능화지 내지는 모두 32장 64엽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제1장의 내지 2엽에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발문이 있다. 제2장의 오른쪽 내지에는 ‘肅廟御製’, 왼쪽 내지에는 ‘類合’이란 제침이 있다. 제3장에서 제26장까지는 『類合』의 내용을 서사하였다. 제3장의 내지 오른쪽 위에는 소해서로 ‘先祖妣 貞明公主親筆’이라고 1행에다 서사하였다. 제26장의 내지 왼쪽에는 제3장에서 쓴 것과 같은 필치의 소해서로 ‘先祖妣手澤二十四張’이라고 1행에 서사하였다. 제27장의 오른쪽 내지에는 ‘八十一歲書與孫兒’라고 쓴 제침이 있고, 왼쪽 내지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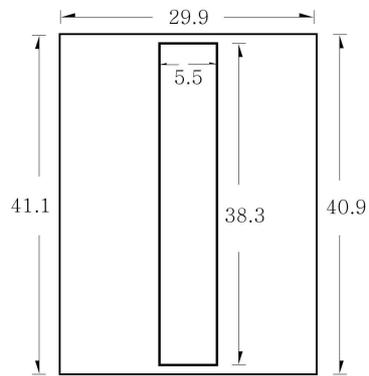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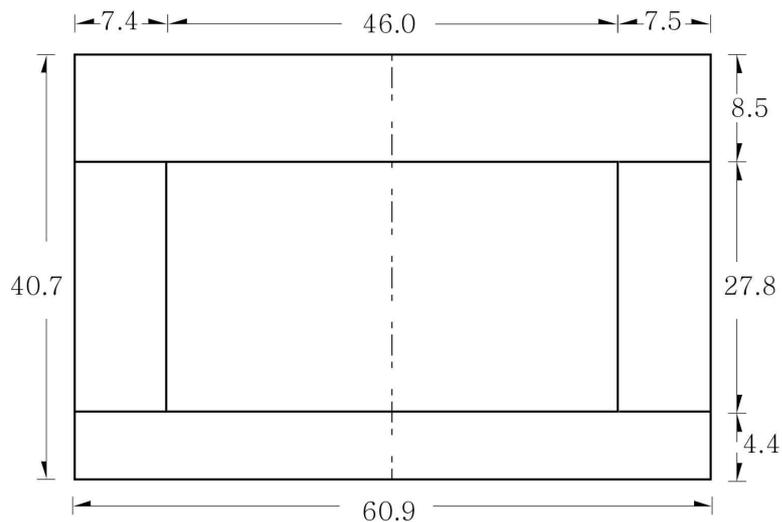
뒤표지



전체 크기 실측



뒷표지 실측



내지 실측

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워 두었다. 제28장에서 제30장까지는 2엽 가득 행서로 쓴 홍중복(洪重福, 1670-1747)의 발문이 있다. 제31장의 내지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워 두었고, 왼쪽 내지는 행서로 쓴 6행의 발문이 있다. 제32장의 오

른쪽 내지에는 행서로 쓴 3행의 이재(李穡, 1680-1746) 발문, 왼쪽 내지에는 행서로 쓴 6행의 오세창(吳世昌, 1864-1953) 발문이 있다. 이를 보관한 오동상자의 앞면에는 예서로 ‘풍산홍씨 집에 소장한 정명공주가 쓴 유합, 세창이 상자에 쓰다[豊山洪氏家藏 貞明公主書類合 世昌題箱].’라는 내용을 썼다.

## 1. 정명공주

정명공주(1603-1685)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와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 연안김씨 사이에 태어난 공주이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한 광해군은 동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소성대비(즉 인목왕후)·정명공주·영창대군은 대비전으로 옮겼다.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계기로 영창대군은 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를 한 다음해 강화부사 정황에게 살해되었다. 이 옥사를 빌미로 광해군 10년(1618) 소성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자 당시 아직 하가(下嫁)하지 않았던 정명공주는 서궁에 같이 있으며 소성대비를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9월 12일 재간택에서 공주보다 3살 어린 중추부동지사 홍영(洪羹)의 아들 홍주원(洪柱元, 1603-1672)이 부마로 낙점되었다.

정명공주는 천부적인 필재에 부친 선조의 필법을 본받고 모후 인목왕후의 훈도를 더하여 웅건하며 혼후한 서풍으로 당시 제일의 명필 한호의 ‘석봉체’를 계승하였다. 이는 유작 <화정(華政)>·<유합(類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조선 후기 서예가 남구만의 칭찬에서 비롯됨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정명공주는 인조반정 이후 인조의 의심을 살 것이 두려워 한문서예를 하지 않고 한글서예를 하였으며, 바느질과 가사에만 전념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치를 외면하였다. 이러한 생활은 인조 27년(1649) 인조가 승하하자 멈추었고, 이후 현종·숙종에게 종친의 어른으로써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정명공주는 인조의 승하 이후 36년을 더 살다가 숙종 11년(1685) 9월 8일(음력 8월 10일) 83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공주 가운데 가장 장수한 기록이다. 후손으로 사도세자의 비 혜경궁 홍씨·홍봉한·홍인한·홍국영, 및 원빈 홍씨 등이 있다.

## 2. 정명공주 『유합』의 조성연대

정명공주는 영안위(永安尉) 문의공(文懿公) 홍주원(洪柱元, 1606-1672) 사이에 7남 1녀를 두었고, 둘째아들 정간공(貞簡公) 홍만용(洪萬容, 1631-1692)은 송시길(宋時吉, 1597-1656)의 딸 여산송씨 사이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중에서 넷째 아들이 바로 홍중복(洪重福, 1670-1747)이다. 따라서 홍중복은 정명공주의 손자임을 알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유합』 조성연대에 대해 『간송문화』에 “14세의 손자 홍중복에게 주기 위해 81세의 고령에 쓴 서첩이다.(崔)”<sup>177)</sup>라고 하였으니, 숙

종 9년(癸亥, 1683)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명공주와 홍중복의 나이가 각각 81세와 14세라는 것에 부합한다. 또한 정명공주의 친필 『유합』 제27장의 오른쪽 내지에 ‘81세에 써서 손자에게 주었다[八十一歲書與孫兒].’라고 쓴 제침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명공주의 친필 『유합』 마지막 제32장 오세창(吳世昌) 발문에 “글씨를 쓴 것은 광해군 때이고, 숙종 계해년(숙종 9년, 1683)에 이르러 빠뜨린 글씨를 보충하였으며, 영조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서첩을 이루었다[其下筆在於光海時 至肅廟癸亥補書 英廟庚申成帖].”라고 하였으며, 제28장에서 제30장까지의 홍중복의 발문은 이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정명공주의 『유합』은 서궁에서 모후의 훈도를 받아 한문교육과 서예학습을 할 때 쓴 것이고, 숙종 계해년(숙종 9년, 1683)에 이르러 빠뜨린 글씨를 보충하였으며, 영조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서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보면, 정명공주가 81세에 손자에게 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81세에 이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81세이면 사람과 글씨가 함께 노숙해지는 인서구로(人書俱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러나 필적을 보면, 정묘하고 원숙하며 노련한 ‘인서구로’의 필치로 보기에 필획·용필·결자가 아직 고르거나 정돈되지 않아 보이니 차라리 서예학습 기간의 글씨로 보는 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므로 조성연대는 <화정(華政)>과 같이 서궁에 있던 1618년(16세)에서 1623년(21세)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유합』의 내용과 서예

『유합(類合)』의 저자는 성종 연간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라는 설과 이를 부인하는 설이 있어 확실하지 않다. 이는 기본 한자에 수량이나 방위 따위의 종류에 따라 한자의 음과 뜻풀이를 붙인 한자 입문서로 수록 한자는 1,515자이다. 의미에 따라 수목(數目)·천문(天文)·중색(衆色) 등으로 나누어 4언으로 대구를 만들고, 한글로 새김과 독음을 달았다.

선조 7년(1574)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종래의 『유합』에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배척하는 내용이 있고, 요긴한 한자가 많이 빠져 있어 이를 증보·수정한 『신증유합(新增類合)』을 2권 1책의 목활자본으로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일차 간행하였다. 이후 잘못이 있어 다시 수정·보완하고 서문·발문을 붙여 선조 9년(1576) 10월 교서관에서 개간하였다.<sup>178)</sup> 내용은 권상에 천문(天文)·중색(衆色)·지리(地理)·초훼(草卉)·수목(樹木)·과실(果實)·화곡(禾穀)·채소(菜蔬)·금조(禽鳥)·수축(獸畜)·인개(鱗介)·충치(蟲豸)·인륜(人倫)·도읍(都邑)·신체(身體)·실옥(室屋)·포진(鋪陣)·금백(金帛)·자용(資用)·기계(器械)·식찬(食饌)·의복(衣

177) 『潤松文華』 57(2008), 163쪽.

178)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五洲衍文長箋散稿』·『眉巖集』·『선조실록』·『영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服) 등으로 나누어 1,000자, 권하에 심술(心術)·동지(動止)·사물(事物) 등으로 나누어 2,000자의 한자를 수록하였다. 『신증유합』의 해주 간본은 사자관 이응복(李應福, 명종 3년(1548) 별시병과에 급제), 선조 9년(1576) 교서관에서 개간한 것은 송인(宋寅, 1517-1584)이 썼다.

『신증유합』 간본은 목활자본(木活字本)·목판본(木版本) 두 종류가 전하는데, 이 중에서 목활자본이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긴다. 현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현종 5년(1664) 안성(安城) 칠장사판(七長寺版)으로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 송광사(松廣寺)·선암사(仙巖寺)·안심사(安心寺) 등 사찰판과 근년의 방각본 10여 종의 이본(異本)이 있는데, 한자의 배열순서와 새김 등이 조금씩 다르다. 현전하는 간본은 선조 9년(1576) 교서관에서 개간한 것이거나 그 계통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되고 좋은 간본은 목활자로 된 서울대학교 일사문고에 있지만, 권상의 앞부분만 남아 있다. 비슷한 목활자로 되었 으면서도 서문과 발문까지 갖춘 완본으로 김동욱(金東旭) 소장인 나손본(羅孫本)이 전해지는데, 보사(補寫)된 부분이 많고 1972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영인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은 현재 일본의 도요문고(東洋文庫)·손케이카쿠문고(尊經閣文庫) 등에 전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목판본은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탈자가 있고 각법(刻法)이 매우 조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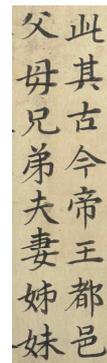
『유합』은 『천자문』과 달리 조선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천자문』·『훈몽자회(訓蒙字會)』와 함께 한자 입문서로 널리 이용하였고, 또한 고어(古語)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합(類合)』



『신증유합(新增類合)』



정명공주 『유합(類合)』

정명공주가 쓴 『유합』은 자형·용필과 필획의 기울기, 가로획의 수필(收筆)과 책획(磔畫)·적획(趯畫)·전절(轉折) 등의 처리를 보면, 『신증유합』을 범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정명공주가 쓴 『유합』의 내용과 서예는 제3장의 ‘先祖妣貞明公主親筆’이라 쓴 2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 億 能 察.

字 畫 初 知 第 179 數 可 達, 天 覆 地 載 乾 坤 分 位.

東西南北上下中外, 左右前後邊隅裏內.  
日日照臨星辰森列, 春夏秋冬溫涼寒熱.  
輪轉環迴次第時節, 晝夜朝夕曉宵翌昨.  
旦暮晨昏旬望朔晦, 晴暘明暗交宣迭作.  
風雨霜露水雪霰雹, 烟霞雲霧雷電霹靂.

일·이·삼·사, 오·육·칠·팔, 구·십·백·천, 만·억은 숫자를 살필 수 있다.

글자와 필획을 처음 알면, 수를 세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늘은 덮고 땅은 실으며, 하늘과 땅은 위치를 나눈다.

동·서·남·북, 위·아래·가운데·밖, 왼쪽·오른쪽·앞·뒤, 가장자리·모퉁이·속·안이다.

해와 달은 위에서 세상을 내리비추고, 별들은 촘촘하게 늘어서 있으며, 봄·여름·가을·겨울은 따뜻하고 시원하며 춥고 덥다.

바퀴처럼 돌고 빙 돌아 제자리로 되돌아오며, 순서에 따른 시절이니, 낮·밤·아침·저녁·새벽·밤·다음날·어제이다.

아침·저녁·새벽·해질녘, 열흘·보름·초하루·그믐, 개거나 구름이 끼고 맑거나 어두움은 교대로 펴고 갈마들며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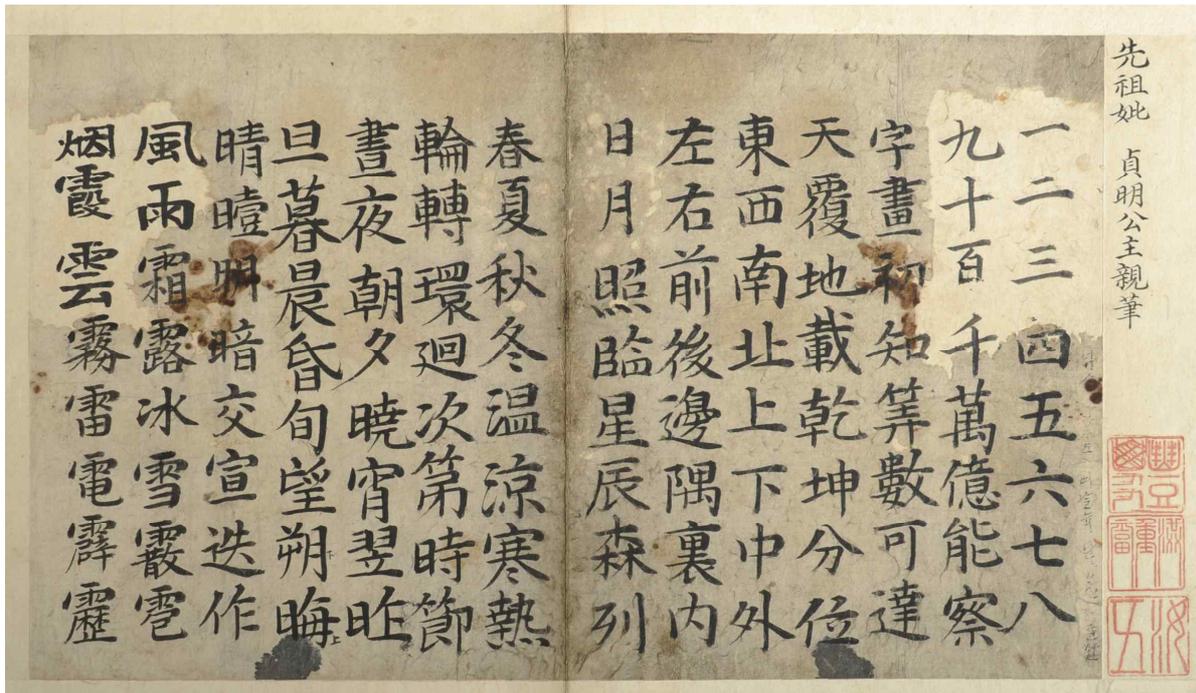
바람·비 서리·이슬, 얼음·눈·싸라기눈·우박, 연기·아지랑이·구름·안개, 우레·번개·벼락·천둥이다.

먼저 『유합』·『신증유합』은 사주쌍변(四周雙邊) 안에 가는 세로의 계선이 있어 행간이 고른 자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정명공주의 필적은 사주쌍변과 계선이 없어 자형은 좁거나 넓고 크거나 작으며 고르지 않다. 또한 정명공주의 필적에는 한자의 뜻풀이와 음을 쓰지 않았다. 좌우의 윗부분이 훼손되어 글씨를 보충하였으나 오른쪽은 섬세한 필치를 나타내고 ‘千’자의 세로획의 연결이 불안정하며, 왼쪽은 필획이 굵고 거칠며 필획 사이의 간격과 결자도 미숙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좌우에 보충하여 글씨를 쓴 이가 서로 다르거나 쓴 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용필과 결구를 살펴보겠다.

『유합』·『신증유합』은 기필(起筆)과 수필(收筆)에서 마제잠두(馬蹄蠶頭)의 형상이 뚜렷한데, 이는 『신증유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명공주의 필적은 대부분의 기필은 필봉을 가볍게 거슬러 들어서 아래 필획에 조금 힘을 주며 행필을 하였기 때문에 마제(馬蹄) 형상이 뚜렷하지 않으나 수필은 대체로 잠

179) 정명공자가 쓴 목적에는 ‘筭’, 『類合』에는 ‘籌’, 『澗松文華』에는 ‘算’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조사 대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자를 따른다.



두(蠶頭)의 형상이 분명하다. 책획(磔畫)은 필획 윗부분이 중심을 이루면서 연미하게 처리하였고, 적획(趨畫)은 대체로 세로획과 90°의 각도를 이루었으며, 힘을 주어 능각(棱角)이 나타나 굳센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필획 사이의 간격은 가로와 세로로 넓게 처리하여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결자는 대부분 넓고 크며 성글어 ‘인서구로(人書俱老)’의 노련한 필치라기보다는 아직 미숙하지만 훌륭한 인품과 고매한 성정을 갖춘 이가 정성을 다해 쓴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합』·『신증유합』의 필획 굵기가 일정하고 자형이 고른 것에 비해 정명공주 필적의 필획은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으며, 자형은 크거나 작아 고른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81세의 노련한 필치가 아니라 아직 배움이 성숙되지 않은 서공에 있을 때 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자료로 정명공주가 이보다 1년 전 숙종 8년(1682)에 쓴 <자위수택(慈闈手澤)>을 들 수 있다. 작품 마지막에 “임술(1682) 8월에 써서 홍만회 아들에게 준다[歲在壬戌八月日書贈恢兒].”라는 하관(下款)이 있고, 또한 서첩 뒷면에 붙어 있는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발문을 통해 80세가 되던 해에 40세의 막내아들 홍만회(洪萬恢, 1643-1709)에게 써 준 글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범질(范質, 911-964)의 「계아질팔백자(誠兒侄八百字)」 중간부분과 마원(馬援, 기원전 14-기원전 49)의 「계형자엄돈서(誠兄子嚴敦書)」 앞부분을 서사한 것이다. 입신과 효제로 시작하여 벼슬을 구하는 도리와 일상의 언어와 행실에 이르기까지 경계할 조목을 적은 것으로 당시 부녀자들도 많이 읽었던 『소학(小學)』·『가언(嘉言)』에도 실려 있다. 글씨는 한호의 ‘석봉체’와 흡사하고, 정명공주가 쓴

『유합』의 오른쪽을 보충한 ‘一·二·三·九·十·百·千’자와 필치가 닮았다. 전체적으로 ‘인서구로’의 원숙하고 깨끗하며 노련한 필치를 나타내면서도 필획은 과리하며, 필획 사이의 간격과 결자는 너그럽고 정방형에 가까워 자형이 매우 정돈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정명공주가 쓴 『유합』의 필획이 굵거나 거칠고 자형이 고른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과 비교하여도 필치와 서풍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명공주가 80세에 <자위수택>을 쓰고 다음 해에 『유합』을 썼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점으로 『유합』은 서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문헌자료

『五洲衍文長箋散稿』 · 『眉巖集』 · 『선조실록』 · 『영조실록』 · 『승정원일기』  
· 『간송문화(澗松文華)』 75. 『朝鮮王朝御筆』

□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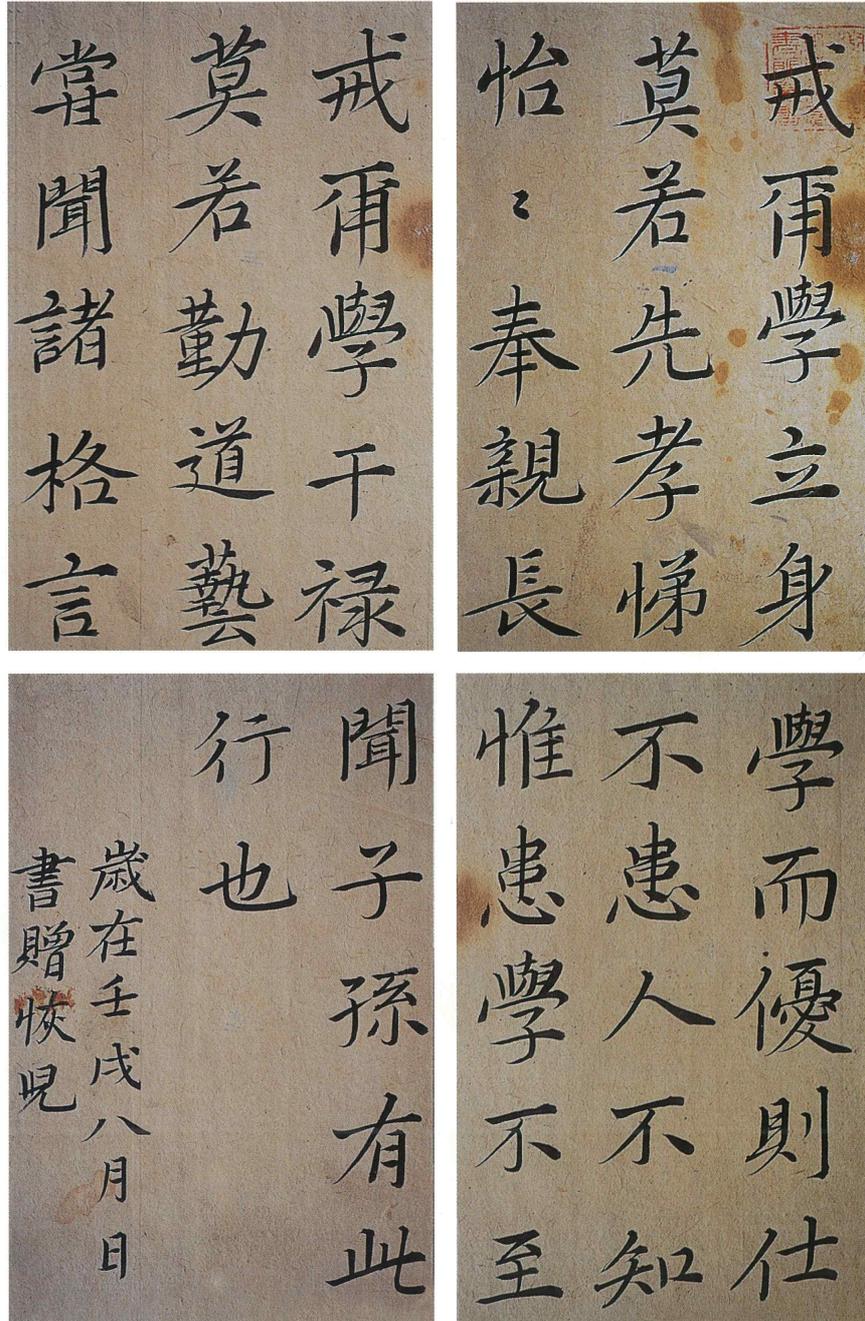
- 오동상자에 넣어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표지 가장자리 마모가 심하고, 청색 능화지이나 앞, 뒤 문양과 두께가 상이.  
(앞표지: 사합여의운문, 뒤표지: 다중원형연속문)
- 앞표지에는 제침 없이 표제만 묵서로 기입. 뒤표지에는 제침을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뒷면 가장자리 접힌 부위에 평견직물 잔존. 원형이 변형되었을 가능성 있음.
- 표지 및 내지 전반에 변·퇴색된 부위, 오염, 얼룩 등이 산재.
- 내지 묵서 일부가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고 배접지에 가필한 상태.
- 내지에 섬유 보풀, 곰팡이, 산화부 등 관찰.
- 내지 후반부에 변야 가장자리 및 내지 부착면이 부분적으로 분리.
- 4면에 표제로 추정되는 황색 능화지(사격회자문 바탕에 연보상화문 추정) 부착 존재.
- 서근에 묵서 기입.

###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아동 교육용 교재 가운데 하나였던 『유합』을 필사한 서첩으로 정명공주가 14세의 손자에게 주기 위해 81세의 고령에 쓴 것으로 전하나, 서품으로 보아 서궁 유포 시절 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기 타

1930 ~ 40년경 강송 미술관에서 수장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명공주, <자위수택(慈闈手澤)>, 25.5×16cm,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 현 상

-오동상자에 넣어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표지 가장자리 마모가 심하고, 청색 능화지이나 앞, 뒤 문양과 두께가 상이.  
(앞표지: 사합여의운문, 뒤표지: 다중원형연속문)
- 앞표지는 제침 없이 표제만 묵서로 기입. 뒤표지에는 제침을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뒷면 가장자리 접힌 부위에 평견직물 잔존.  
원형이 변형되었을 가능성 있음.
- 표지 및 내지 전반에 변·퇴색된 부위, 오염, 얼룩 등이 산재.
- 내지 묵서 일부가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고 배접지에 가필한 상태.
- 내지에 섬유 보풀, 곰팡이, 산화부 등 관찰.
- 내지 후반부에 변아 가장자리 및 내지 부착면이 부분적으로 분리.
- 4면에 표제로 추정되는 황색 능화지(사격회자문 바탕에 연보상화문 추정) 부착 존재.
- 서근에 묵서 기입.  
(별지 사진 참조)

## ○ 내용 및 특징

유합(類合)은 한자를 수량, 방위, 색깔 등으로 유별(類別)하여 각 글자마다 새김과 독음을 붙여 만든 한자 입문서이다. 한자를 오늘 날의 백과사전적 성격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배열함으로써 항목별로 한자를 익히게 한 책인 것이다. 대개 천자문을 배운 후에 배우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누가 지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칠장사, 송관사, 선암사, 안심사 등 절에서 판각한 판본과 근래에 새긴 방각본 등 10여 종이 전한다.

본 건 『유합』은 선조대왕의 딸인 정명공주가 14세의 손자에게 주기 위해 81세의 고령에 쓴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서품의 필획이나 결구 등으로 보아 서궁에 유포되었던 시절에 쓴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81세의 노인이 쓴 노필의 분위기를 찾기 힘들다.

## ○ 기 타

1930 ~ 40년경 강송 미술관에서 수장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30.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 가. 검토사항

‘이광사 필 서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이광사 필 서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3책
- 규 격 : 乾 27.4×13.0×3.0cm, 坤 27.4×13.0×3.0cm, 附 23.6×21.2cm
- 재 질 : 표지: 나무 / 본지: 견 / 장황: 종이
- 형 식 : 乾·坤: 서첩 (선풍엽) / 附: 선장 (5침)
-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광사의 『서결(書訣)』은 전편(前編)과 후편(後編)으로 나뉘고, 후편은 다시 상·하(上·下)로 나누었다. 전편은 영조 40년(甲申, 1764, 60세) 6월 1일 이광사가 썼고, 후편은 4년 뒤 영조 44년(戊子, 1768, 64세) 정월 아들 이영익이 초고의 글을 이룬 것을

이광사가 대략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내용을 보면, ‘전편’과 ‘후편상’은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에 대한 내용이고, ‘후편하’는 중국의 옛날 비첩에 대한 논의와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서예가들에 대한 논평임을 알 수 있다. 『서결』은 서예의 이론과 평론을 겸한 서예이론서이고, 여기에는 또한 서예사·서품·서체·서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서결』 권·곤은 전편(前編)에 해당하는 총 7,254자의 원본이다. ‘곤’ 마지막 1행에 소해서로 쓴 ‘籀谷邨舍 贈大兒肯翊’이라는 9자는 본문의 글씨체와 다르게 글자 크기가 매우 작으며, 『원교집』에도 없는 것이어서 이광사가 직접 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광사는 이서·윤순을 계승하였고, 당시 유미(柔媚)한 송설체와 명나라 서풍에 빠져 있던 것을 고법에 의한 근골과 험경(險勁)한 서풍으로 선도하며 조선 서풍을 개혁하였던 선구자이다.

둘째, 『서결』은 이광사가 해서·행서·초서로 쓴 것이어서 그의 ‘원교체’를 감상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이다.

셋째, 『서결』은 서예의 이론과 평론을 겸한 서예이론서이고, 여기에는 또한 서예사·서품·서체·서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서예이론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서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광사 묵서 『書訣』은 원교이광사(1705-1777)가 1764년에 지은 『書訣』중에 전편(前篇)을 필사한 원본이다. 끝 부분에 병술(1766)정월에 장자 공익에서 써서 준다고 부기 하였다.

이 묵서는 이광사의 글씨가 자가풍이 이미 확립된 필치의 것으로서 해서 행서 초서를 혼용하여 썼는데 각 체마다 이광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잘 조화된 장법미를 구사한 선본(善本)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소한 서예이론서란 점도 그러하고 그것을 자필로 써서 격도 있는 서예미를 구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18세기 한국서예의 흐름과 평론방면의 연구에 활용가치도 크다.

따라서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광사 묵서 『서결(書訣)』’은 18세기의 대표적 서예가인 원교 이광사(1705 ~ 1777)가 저술한 서예 이론서 가운데 일부이다.

이광사의 『서결』은 『원교집(圓嶠集)』 권 10에 편차되어 있는데 「서결 전편」, 「서결 후편 상」, 「서결 후편 하」로 편차되어 있다. 이 문헌은 「서결 전편」에 해

당하며, 1766년 정월에 저자가 직접 써서 장자인 이공익(1736 ~ 1806)에게 준 것이다.

이 문헌은 이서(李紱 1662 ~ 1732)의 『필결(筆訣)』을 잇는 서예 이론서로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할 만한 서예 이론서이다. 글씨 또한 동일한 면에 해·행·초를 혼용하여 독특한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필임에도 불구하고 웅혼한 필력을 드러내고 있어 이서 - 윤순 - 윤두서 - 이광사 - 이삼만으로 이어지는 동국 진체의 대성자다운 면모를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문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광사 묵서 『서결(書訣)』〉은 18세기의 대표적 서예가인 원교 이광사(1705 ~ 1777)가 저술한 서예 이론서 가운데 일부이다.

이광사는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서화가로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도보(道甫), 호는 원교(圓嶠) 또는 수북(壽北). 예조판서를 지낸 진검(眞儉)의 아들이다. 영조의 등극과 더불어 소론이 실각함에 따라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였으며, 50세 되던 해인 1755년(영조 31)에 소론 일파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부령(富寧)에 유배되었다가 신지도(薪智島)로 이배(移配)되어 그 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정제두(鄭齊斗)에게 양명학(陽明學)을 배웠고, 윤순(尹淳)의 문하에서 필법을 익힘으로써 조선서단에 이른 바 ‘동국진체’의 기풍을 진작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추사 김정희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서 추사와는 판이한 서품을 형성하였고 서예에 관한 이론도 상이한 점이 있음으로써 추사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조선 서예예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화가가 친필로 쓴 서예이론과 비평에 관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본 건 〈이광사 묵서 『서결(書訣)』〉은 내용적 측면과 서품적 측면 양 방면에서 다 가치가 높다. 이 『서결』 분장은 이광사의 문집인 『원교집(圓嶠集)』 권10에 수록되어 있는데 「서결 전편」, 「서결 후편 상」, 「서결 후편 하」로 편차되어 있다. 본 건은 「서결 전편」에 해당하며, 1766년 정월에 저자가 친필로 써서 장자인 이공익(1736~1806)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옥동(玉洞) 이서(李紱 1662 ~ 1732) 『필결(筆訣)』의 뒤를 잇는 서예 이론서로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할 만한 서예 이론서이다. 글씨 또한 한 지면 안에 해서, 행서, 초서를 혼용하여 씌으로써 독특한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다. 세필임에도 불구하고 필력이 웅혼하여 이서-윤순-윤두서-이광사-이삼만으로 이어지는 동국진체의 맥을 이어간 인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큰 서예가의 면모를 확인하게 하는 작품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하여 본 조사자는 이 문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현 상

#### (1) 乾

- 포갑에 넣어 보관.
- 나무 표지 두께는 약 4~5mm. ‘書訣乾’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과 충해에 의한 결손 존재.
- 본지 이물질 부착 및 변색, 얼룩 관찰.
- 41엽, 42엽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목서 기입.
-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충해로 인한 결손이 산재하고, 판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 (2) 坤

-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
- 나무 표지 두께는 약 5mm. ‘書訣坤’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 산재.
- 화본 및 변아 전반에 걸쳐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확인.
- 41엽, 42엽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목서 기입.
- 22~24엽 변아와 화본 부분 먹 얼룩 존재.
- 35~41엽 충해에 의한 결손.
-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판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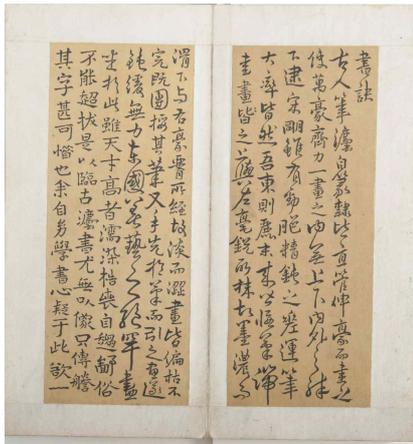
#### 3) 附- 필사본

- 총 61엽. 표제 筆訣 목서로 기입.
- 황색 장정끈 사용. 뒷면에서 끈이 끊어져 있는 상태.
- 내지는 티가 많은 닥섬유 종지로 추정.
- 내지 가장자리 변색. 표지 얼룩, 변색
- 앞표지에 세로로 반접은 흔적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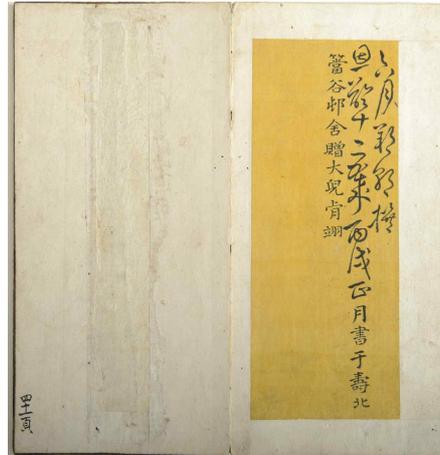
이상을 보면, 비록 부분적으로 변색·얼룩·결손·꺾임과 갈라짐이 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니 현 상태로 잘 보존하면, 우리나라 서예의 이론과 비평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서결』은 ‘古人筆法’으로 시작하여 ‘盡楷書種 可哀也’로 끝나는 건(乾)과 ‘夫欲書者’로 시작하여 ‘贈大兒肯翊’으로 끝나는 곤(坤)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 해서·행서·초서를 섞어 쓴 『서결』 전편(前編)에 해당하는 총 7,254자의 원본이다. ‘건’과 ‘곤’은 앞뒤 표지와 견으로 된 본지가 각각 21장 42엽으로 합하여 모두 42장 84엽으로 구성된 선풍엽 서첩이다. 본문은 모두 6행으로 서사하였는데, 다만 ‘곤’의 끝 41엽만 3행으로 서사하였을 뿐이다. 또한 ‘건’과 ‘곤’의 마지막 장 42엽에는 각각 도삭 흔적과 왼쪽 하단에 ‘四十一頁’이란 목서가 있다.



시작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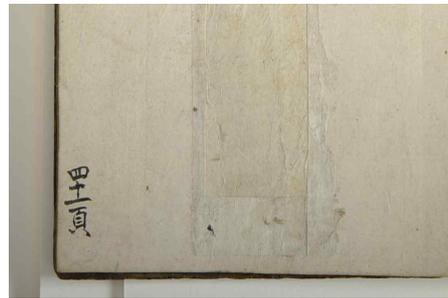


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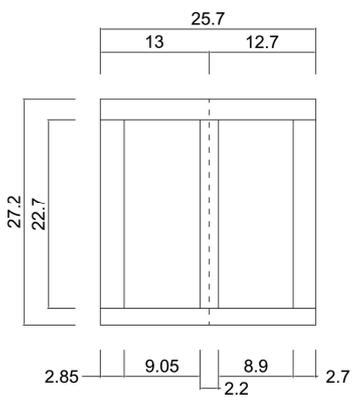


앞표지

뒤표지



도삭 흔적과 '四十一頁'의 묵서



내지 실측



포갑에 넣어 보관

## 1. 이광사

이광사(李匡師, 1705-1777)는 자가 도보(道甫), 호는 원교(圓嶠, 一作 員嶠, 一作 員喬)·수북(壽北)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소론계통의 강화학파(江華學派)로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이다. 그는 부친 예조판서 이진검(李眞儉, 1671-1727)과 통덕을 지낸 윤지상(尹趾祥, 1645-1682)의 딸 파평윤씨(1667-1724) 사이에서 5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왕실의 후예이고 육진팔광(六眞八匡)<sup>180</sup>이라 불릴 정도로 가문의 명예가 높았으며, 또한 뛰어난 명필가의 집안이었다. 그의 장남 이궁익(李肯翊, 1736-1806)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저자이고, 차남 이영익(李令翊, 1740-1780)은 그의 문학과 서예를 계승하였으며 저술로 『신재집(信齋集)』이 있다.

이광사의 집안은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친가와 외가는 모두 소론에 속하였으며, 백부와 부친은 소론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 정권이 수립되어 백부와 부친이 유배되는 등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의 나이 23세인 1727년 유배지에서 돌아온 부친이 병사하고, 26세인 1730년 이인좌(李麟佐, ?-1726)의 난에 연루된 백부가 옥사하자 벼슬길을 단념하며 학문과 서화에 침잠하였다. 그의 나이 51세인 1755년 소론에 속한 윤지(尹志, 1688-1755) 등이 노론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을 일으켰다. 평소 윤지와 서찰을 주고받았던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신유배형을 받고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 유배된 지 8년째인 영조 38년(1762, 58세) 전라도 진도를 거쳐 신지도(薪智島)로 이배(移配)되어 정조 1년(1777, 73세) 23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서결』은 이광사가 신지도로 이배된 3년 뒤인 1764년 6월 1일에 써서 장남 이궁익에게 준 작품이다.

## 2. 이광사의 서예

이광사의 집안은 대대로 문필로 뛰어났다. 그는 당대 명필이었던 윤순(尹淳, 1680-1741)에게 필법을 배웠는데, 윤순은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문하생이고 소론계통의 서예가이다. 윤순은 김생 이래의 우리나라 역대 명필과 중국의 당·송·원·명나라의 글씨를 소화하고 이를 왕희지체와 절충시켜 일가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광사는 윤순을 좇아 왕희지체를 전범으로 삼아 해서·예서·행서·초서·전서 등 각종 서체를 일관하는 필법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그는 『서결·전편』

180) 육진팔광(六眞八匡)은 효민공(孝敏公)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의 증손 북곡(北谷) 이진유(李眞儒)가 영조 6년(1730) 고령의 나이에 문초로 옥사하자 일체히 벼슬을 버리고 강화도에 들어가 살아갈 터를 잡은 후 출사를 단념하며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던 그 후손들을 말한다. 육진(六眞)은 이진검(李眞儉)·이진망(李眞望)·이진순(李眞淳)·이진유(李眞儒)·이진급(李眞眞)·이진경(李眞卿)이고, 팔광(八匡)은 이광덕(李匡德)·이광사(李匡師)·이광찬(李匡贊)·이광려(李匡呂)·이광회(李匡會)·이광세(李匡世)·이광보(李匡輔)·이광현(李匡顯) 등이다. 이들은 양명학을 수학하여 학문적으로 강화학파(江華學派)를 구성하고, 정치적으로는 소론에 속하였으며, 정치사상가·실학자·항일운동가·민족학자·국문학자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自年三十餘 始專法古人 然使余創知筆意者 白下之力 東方筆法之初開荒者 白下也 余二十 白下始見余臨聖教序 以爲若刻之 將不可辨 晚年常語人曰 某書不第東方數千年來所無 雖在中國 當擬魏晉 非唐以來可倫.<sup>181)</sup>

나이 30여 세부터 비로소 오로지 옛사람을 법으로 삼았으나 나에게 처음 필의를 알게 한 것은 윤순(호는 白下)의 힘이다. 우리나라 필법의 황무지를 처음 개간한 이는 윤순이다. 내 나이 스물에 윤순은 내가 임서한 <성교서>를 처음 보고 “만약 새긴다면 변별할 수 없다.”라고 하시었다. 만년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글씨는 차레를 매길 수 없고 우리나라 수천 년 이래 없던 것이며, 비록 중국에서 마땅히 위·진나라에 견줄 것이지 당나라 이래와 겨를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었다.

이광사는 이와 같이 30세부터 오로지 왕희지를 중심으로 하는 위·진나라의 고법(古法)을 배웠고, 아울러 전서·예서의 여러 비각들을 겸하며 40세 이후 글씨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필획의 법도만 추구하여 새기고 깎는 각삭(刻削)함을 면하지 못하였다가 신지도로 이배된 50대 후반부터 각고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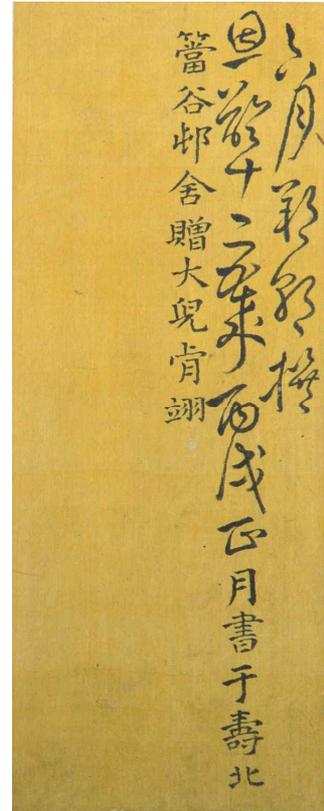
이광사 서예의 종지는 왕희지체를 전범으로 삼아 위·진나라의 고법과 전서·예서의 여러 비각들을 겸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삼고 여기에 대소(大小)·사정(斜正)·비수(肥瘦)·소밀(疏密) 등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독특한 서풍을 이루었다. 이는 이전 시대부터 유행하였던 왕희지체로의 복귀임과 동시에 또 다른 조선 서예의 토착화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서예이론서인 『서결』을 지어 이론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전범으로 삼았던 왕희지체의 <악의론(樂毅論)>·<동방삭화찬(東方朔畫贊)>·<황정경(黃庭經)> 등의 진위 판별에 대한 한계, 전서·예서의 가치를 인식하였지만 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한계, 진나라 이전만 고집하고 당나라 이후의 서풍을 부정하는 다양한 서풍에 대한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희지체를 전범으로 삼아 이를 변모시켜 조선 서예의 토착화를 이룬 점과 후대 서예가들에게 전서·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첩학(帖學) 중심의 서예를 비학(碑學)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서예가라 할 수 있다.

181) 이 글은 ‘坤’의 12장 2엽과 13장 1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第’를 ‘第’, ‘數千年來所無’를 ‘數千年所來無’로 썼다.

### 3. 『서결』의 내용과 의의

이광사의 『서결(書訣)』은 전편(前編)과 후편(後編)으로 나뉘고, 후편은 다시 상·하(上·下)로 나누었다. 전편은 영조 40년(甲申, 1764, 60세) 6월 1일 이광사가 썼고, 후편은 4년 뒤 영조 44년(戊子, 1768, 64세) 정월 아들 이영익이 초고의 글을 이룬 것을 이광사가 대략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서결』은 전편(前編)에 해당하는 총 7,254자의 원본이다. 이는 『원교집(圓嶠集)』, 『원교집선(圓嶠集選)』 권제십(卷第十)에 ‘서결(書訣)’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甲申六月朔朝壽北薪智島寫’로 끝난 것에 비해 지정 신청의 ‘書于壽北籐谷邨舍, 贈大兒肯翊’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정 신청의 ‘곤(坤)’ 마지막 1행에 소해서로 쓴 ‘籐谷邨舍 贈大兒肯翊’은 본문의 글씨체와 다르고 글자 크기가 매우 작으며, 『원교집』에도 없는 것이어서 이광사가 직접 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는 아마도 ‘書于壽北’에서 끝났는데, 다른 사람이 ‘籐谷邨舍 贈大兒肯翊’이라는 1행의 9자를 첨가한 것 같다. 이를 보면, 당곡 시골집에서 큰 아들 공익(李肯翊)에게 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결』의 자서(自序)에 해당하는 시작 부분에서 말한 저술동기와 글을 써서 이영익(李令翊)에게 준다는 내용과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한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곤(坤)’의 끝부분

古人筆法 自篆隸皆直管伸毫而書之 使萬毫齊力 一畫之內 無上下內外之殊 下逮宋明 雖有勁脆精鈍之差 運筆大率皆然 吾東則麗末來 皆偃筆端書 畫皆之上與左毫銳所抹 故墨濃而滑 下與右毫腰所經 故淡而澁 畫皆偏枯不完 既團按其筆 又手先於筆而引之 畫遂鈍緩無力 東國善藝之絕罕 盡坐於此 雖天才高者 濡染梏喪 自趨鄙俗 不能超拔 是以臨古法書 尤無以像 只傳贍其字 甚可惜也……致詳於用筆運畫之方者 恐朝露滲及 竟未有傳 不得已也 書以授令翊 汝宜精學 無使我苦心所得 終無發明也.<sup>182)</sup>

옛사람 필법은 전서·예서로부터 모두 필관을 곧게 세우고 붓털을 펴서 썼으며, 모든 붓털의 힘을 가지런히 하는 만호제력(萬毫齊力)으로 하나의 필획 안에 위아래와 안팎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아래로 송·명나라에 이르러 비록

182) 이 글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乾’ 제1-2엽과 제7엽에 있다. 그러나 『圓嶠集』과 조금 차이가 있다. 즉 ‘乾’에는 ‘之’자가 있고 『圓嶠集』에는 없으며, ‘乾’에는 ‘率’, 『圓嶠集』에는 ‘變’이라 하였고, 즉 ‘乾’에는 ‘皆’자가 있고 『圓嶠集』에는 없는 것 등이다.

굳세거나 약하고 정묘하거나 노둔한 차이가 있지만 운필은 대체로 모두 그러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이래로 모두 붓을 누이는 언필(偃筆)과 붓끝으로 써서 필획의 모든 위와 왼쪽은 붓털의 예리함이 지나가는 까닭에 딱색이 진하고 매끄러우며, 아래와 오른쪽은 붓 허리가 지나가는 까닭에 얇고 곱끄러워 필획은 모두 치우치고 마르며 완전하지 않았다. 이미 붓을 둥글게 문지르고, 또한 손은 붓보다 먼저 끌어당기니 필획은 노둔하고 느슨하며 힘이 없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예가 끊기어 드문 것은 모두 여기에서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난 이라도 속박과 환난에 젖거나 물들어 저절로 비속함을 좇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옛날 법서를 임모함은 더욱 형상이 없고 단지 글자만 베껴 전하였으니, 매우 애석하다.……자세하게 붓과 필획을 운용하는 방법에 이르러 한 것은 죽음이 마침내 이르러 끝내 아직 전해짐이 없을까 두려워 부득이한 것이다. 써서 영익에게 주니, 너는 마땅히 정미하게 배워 내가 고심하여 얻은 것이 끝내 분명하게 나타남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면, 저술 동기는 올바른 필법을 전하는 것이고 이를 둘째아들 이영익에게 써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끝부분의 본문은 ‘書于壽北’에서 끝났고, 다른 사람이 ‘簞谷邨舍 贈大兒肯翊’이라는 1행의 9자를 첨가한 것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후편상(後篇上)’의 시작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余既爲書訣一編 其有未盡詳者 欲復取古訣 論詮以廣之 顧力未暇焉 使兒令翊代艸文成 而委曲該悉 盡發蘊奧 不異余自爲 遂略修訂 而錄爲書訣後編.

내가 이미 『서결』 1편을 지었는데 아직 자세하게 다하지 않은 것이 있어 다시 옛날 서결을 취하여 논하고 설명하며 넓히고자 하나 힘을 돌아보니 겨를이 없다. 아들 영익에게 초고의 글을 이루게 하였는데, 찬찬하고 자세하면서 모두 갖추며, 깊고 오묘함을 전부 드러내어 밝히니, 내 스스로 지은 것과 다르지 않다. 마침내 대략 수정하고 기록하여 『서결』 후편이 되었다.

이를 보면,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 『서결』 전편을 써서 이영익에게 주고, 이영익은 이를 정미하게 배워 5년 뒤 1768년 정월에 후편의 초고를 이루니, 이광사가 대략 수정하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簞谷邨舍 贈大兒肯翊’이라는 1행의 9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서결』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前編 : 紙墨筆硯 · 執筆 · 點畫七條 · 六種用筆 · 結構 · 三過折 · 各體筆法(草篆 · 八

分·古隸)·學古碑·論蘇黃書

後篇上：筆·執筆·墨法·用筆·行畫四訣·永字古訣·結構·論質妍·臨書

後編下：五體一法·筆法·論二王小楷·論刻法·論東國筆法

이를 보면, ‘전편’과 ‘후편상’은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에 대한 내용이고, ‘후편하’는 중국의 옛날 비첩에 대한 논의와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서예가들에 대한 논평임을 알 수 있다. 『서결』은 서예의 이론과 평론을 겸한 서예이론서이고, 여기에는 또한 서예사·서품·서체·서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스승 윤순의 스승인 이서(李澈, 1662-1723)의 『필결(筆訣)』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인 서예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광사는 이러한 서예이론의 기초 위에서 길곡법(佶曲法)·만호제력(萬毫齊力)·삼과절(三過折)·추전법(推展去)을 통해 근골(筋骨)과 신기(神氣)를 지닌 창경발속(蒼勁拔俗)함을 나타내는 원교체(圓嶠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서결』은 우리나라의 서예이론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유미(柔媚)한 송설체와 명나라 서풍에 빠져 있던 것을 고법에 의한 근골과 험경(險勁)한 서풍으로 선도하며 조선 서풍을 개혁하였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서결』은 이광사가 해서·행서·초서로 쓴 ‘원교체’를 감상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서예 바탕을 이루는 이론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서예이론체계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歷代書畫家辭典』, 2011.
- 『澗松文華』 第75號, 2008.
- 金南馨 譯註, 『서예비평』, 서예문인화 2002.
- 예술의전당, 『員嶠李匡師展』, 1994.

□

#### ○ 현 상

##### 1) 乾

-포갑에 넣어 보관.

-나무 표지 두께는 약 4~5mm. ‘書訣乾’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과 층애에 의한 결손 존재.

-본지 이물질 부착 및 변색, 얼룩 관찰.

-41면, 42면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묵서 기입.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충해로 인한 결손이 산재하고, 판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 2) 坤

-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
- 나무 표지 두께는 약 5mm. ‘書訣坤’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 산재.
- 화본 및 변아 전반에 걸쳐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확인.
- 41면, 42면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묵서 기입.
- 22 ~ 24면 변아와 화본 부분 먹 얼룩 존재.
- 35 ~ 41면 충해에 의한 결손.
-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판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 3) 附 - 필사본

- 총 61면. 표제 ‘筆訣’ 묵서로 기입.
- 황색 장정끈 사용. 뒷면에서 끈이 끊어져 있는 상태.
- 내지는 티가 많은 닥섬유 종이로 추정.
- 내지 가장자리 변색. 표지 얼룩. 변색
- 앞표지에 세로로 반접은 흔적 있음.

## ○ 내용 및 특징

이광사의 『서결』은 서예원론, 획법, 결구법, 장법, 문방사우 선별법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글씨는 해, 행, 초를 혼용하여 독특한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다.

## ○ 기 타

1930 ~ 40년경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 ○ 현 상

### 1) 乾

- 포갑에 넣어 보관.
- 나무 표지 두께는 약 4~5mm. ‘書訣乾’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과 충해에 의한 결손 존재.
- 본지 이물질 부착 및 변색, 얼룩 관찰.
- 41면, 42면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묵서 기입.
-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충해로 인한 결손이 산재하고,

관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2) 坤

-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
- 나무 표지 두께는 약 5mm. ‘書訣坤’ 판각. 표면에 굵히고 찍힌 흔적 산재.
- 화본 및 변아 전반에 걸쳐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확인.
- 41면, 42면 도삭 흔적과 좌측하단에 ‘四十一頁’ 묵서 기입.
- 22 ~ 24면 변아와 화본 부분 먹 얼룩 존재.
- 35 ~ 41면 충해에 의한 결손.
- 장황종이 변색, 얼룩, 이물질 부착, 표면 박리, 관심부 마모로 꺾임과 갈라짐이 관찰.

3) 附 - 필사본

- 총 61면. 표제 ‘筆訣’ 묵서로 기입.
- 황색 장정끈 사용. 뒷면에서 끈이 끊어져 있는 상태.
- 내지는 티가 많은 닥섬유 종이로 추정.
- 내지 가장자리 변색. 표지 얼룩. 변색
- 앞표지에 세로로 반접은 흔적 있음.

○ 내용 및 특징

이광사의 『서결』은 서예원론, 획법, 결구법, 장법, 문방사우 선별법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글씨는 해, 행, 초를 혼용하여 독특한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다.

○ 기 타

1930 ~ 40년경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歷代書畫家辭典』, 2011.
- 『澗松文華』 第75號, 2008.
- 金南馨 譯註, 『서예비평』, 서예문인화 2002.
- 예술의전당, 『員嶠李匡師展』, 1994.

## 31. 혜경궁홍씨 필 한글서간(惠慶宮洪氏 筆 한글書簡)

### 가. 검토사항

‘혜경궁홍씨 필 한글서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혜경궁홍씨 필 한글서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혜경궁홍씨 필 한글서간(惠慶宮洪氏 筆 한글書簡)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
- 규 격 : 33.9 × 43.8cm / 장황: 135.6 × 62.7cm
- 재 질 : 지본묵서, 장황-비단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조선후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은 정조 13년(己酉, 1789) 정조가 자신의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으로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사도세자의 현궁(玄宮)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모친 혜

경궁 홍씨가 당시 우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내린 편지글이다. 12행에 184자를 한글로 서사하였고, 조선연대는 정조 13년(己酉, 1789) 10월 2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흘림체로 서사한 것으로 서품은 뛰어나지만 서사기법·서풍·필치로 볼 때 혜경궁 홍씨의 필적임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둘째, 편지글의 서예는 뛰어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훌륭한 수준은 아니다.

셋째, 혜경궁 홍씨가 정조에게 현궁(玄宮)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채제공에게 부탁하는 편지글의 내용만으로 희귀성·역사적·예술적·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혜경궁 홍씨 <한글서간>은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가 채제공에게 쓴 편지로 55세위 글씨로 알려져 있다.

내용은 부군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장할 때 정조가 관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부탁한 것이다. 이렇듯이 내용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료의 하나이다. 글씨도 성숙된 반 흘림의 궁체로서 필력이나 결체로 볼 때 궁체예술의 상급에 해당된다. 다만 이 서간이 혜경궁 홍씨의 친필로 확실하기가 어렵고 서사상궁의 대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은 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혜경궁 홍씨 묵서 서간문’은 정조 13년(1789) 사도세자(1735 ~ 1762)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으로 천장할 때 혜경궁 홍씨(1735 ~ 1815)가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관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은 한글 반흘림체의 서품 또한 비범하나 혜경궁 홍씨의 친필로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1면으로 이루어진 서간의 글씨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지정 가치 미흡)

<혜경궁 홍씨 묵서 서간문>은 정조 13년(1789) 사도세자(1735 ~ 1762)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으로 천장할 때 혜경궁 홍씨(1735 ~ 1815)가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관

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은 한글 반흘림체로서 서품 또한 비범하다. 그러나, 혜경궁 홍씨의 친필로 확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 데도 없는 데에다가 1면으로 이루어진 서간의 글씨가 비록 예사 서품은 아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조사보고서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본지 전반에 변색, 꺾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 이전 수리 시 상·하 도삭 부분에 다른 종이를 연결하여 보강. 또한 세로로 6조각 도삭 된 것을 거의 동일 간격으로 배열하여 부착. 부착 시 겹침 없음.
- 본지에서 접합 관찰.

이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은 정조 13년(1789) 정조가 자신의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으로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사도세자의 현궁(玄宮) 즉 관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모친 혜경궁 홍씨가 당시 우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내린 편지글이다.

### 1. 혜경궁 홍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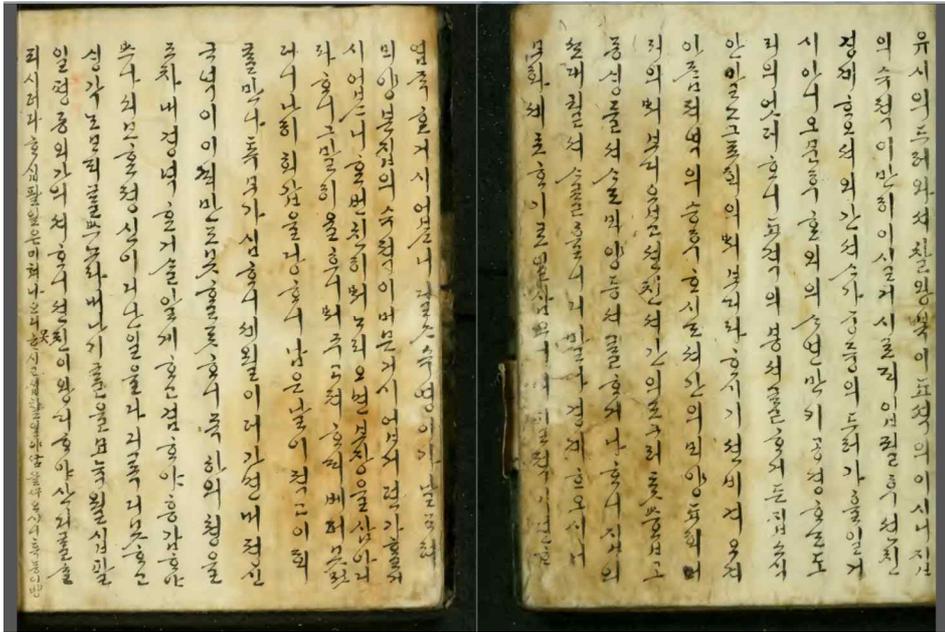
혜경궁 홍씨(1735-1815)는 영풍부원군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딸로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정실이며,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모친이다. 이외의 자녀로는 일찍 죽은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과 청연공주(淸衍公主,

1754-1821)· 청선공주(淸璿公主, 1756-1802)가 있다.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5대손으로 홍주원의 부인이 선조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였기 때문에 선조의 6대손이기도 하다. 혜경궁 홍씨는 영조 20년(1744, 10세) 어린 나이로 동갑내기 사도세자와 혼인하고, 영조 26년(1750, 16세) 의소세손을 낳았는데 3세의 어린 나이에 죽었으며, 같은 해 정조를 낳았다.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와 16세부터 22세까지 총 6번 임신을 하여 2남 2녀를 낳고 2명이 유산되었는데, 매년 임신을 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

혜경궁 홍씨는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인해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당일에 혜빈(惠嬪)이라는 존호를 받고 영조의 명으로 친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창덕궁에 머물렀다. 정조가 즉위한 뒤에 부친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란 시호를 올리고, 모친 혜빈 홍씨에게는 혜경궁(惠慶宮)이란 궁호를 올리며 자궁(慈宮)이라 일컬었다. 당시 왕실에서 혜경궁 홍씨가 제일 연장자였으나 10살 아래인 정순왕후가 대비의 위치에 있어 왕실 서열상 제2위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친정 풍산홍씨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800년 정조가 죽고 혜경궁 홍씨의 손자인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순조 즉위 직후 혜경궁 홍씨는 아들 정조의 약속을 이유로 친정에 대한 신원을 요구하였고, 순조 14년(1814) 친정이 복권된 다음해에 죽었다. 이후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면서 혜경궁 홍씨는 헌경왕후(獻敬王后)로 추존되었는데, 원래 헌경혜빈(獻敬惠嬪)이란 시호를 추증하여 효강자희정선휘목유정인철계성헌경황후(孝康慈禧貞宣徽穆裕靖仁哲啓聖獻敬王后)가 되었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광무 7년(1903) 정조가 장조의 황제(莊祖懿皇帝)로 추존되며 함께 헌경의황후(獻敬懿皇后)로 격상되었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 19년(1795) 회갑을 맞이하여 회고록인 『한중록』을 저술하였다. 이는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십 수 년에 걸쳐 쓴 것으로 필적과 수신자가 각각 다르고, 후대에 누군가가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사본에 따라 『한중록』·『한중만록』·『읍혈록』 등의 이칭(異稱)이 있고, 4편의 종합본은 『한중록』·『한중만록』의 두 계통뿐이다. 모두 4편으로 제1편은 1795년, 제2편은 1801년, 제3편은 1802년, 제4편은 1805년에 쓴 것이다. 필사본 14종이 있으며, 국문본·한문본·국한문혼용본이 있다. 제1편은 수신자가 친정조카 홍수영(洪守榮, ?-1798)으로 출생부터 어릴 때의 추억, 세자빈 간택 이야기, 궁중생활 등을 회고한 글이다. 제2편은 수신자가 손자 순조로 사도세자 사건 이후부터 정조 초까지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은 이야기를 써서 명예회복을 탄원하는 글이다. 제3편은 제2편의 내용과 비슷한데, 정조의 지극한 효성과 검소함 등에 대해 회상하면서 생전에 사도세자의 왕위 추숭을 약속했다는 글이다. 제4편은 순조에게 제1편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사건 내막을 설명한 글이다. 저술 동기는 사도세자 사건으로 비난받았던 부친 흥봉한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인물묘사나 서사구조와 문체 면에서 높은 수준의 서사성을 갖춘 실기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크다. 특히 문체가 유창하고 아름다우며 멋스런 고어와 궁중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를 서사한 서체는 한글서예의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중록』

## 2. 작품의 조성연대와 내용

작품의 조성연대는 사도세자의 관을 꺼내는 현궁(玄宮), 관을 두는 곳을 이르는 찬궁(欝宮), 장사를 지내기 전에 빈소를 차리는 성빈(成殯)을 한 것이 정조 13년(己酉, 1789) 10월 2일이니, 이날 쓴 편지로 추정된다. 이는 『정조실록』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현궁(玄宮)을 꺼내 찬궁(欝宮)에 성빈(成殯)하고 재궁(梓宮)을 봉출(奉出)하여 출안막차전(出安幕次奠)을 행하였다. 상이 웅가(瓮家)의 서쪽에 있는 소차(小次)에 있다가 막차(幕次)에서 전(奠)을 행하면서 찬배(贊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도보로 웅가 안에 나아가 곡벽(哭擗)하였다.<sup>183)</sup>

당시 혜경궁 홍씨는 55세였고, 이 편지글을 보면 뛰어난 서예 솜씨 및 정조와 사도세자 간의 지극한 정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원문과 이를 현대어로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3)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2일 甲寅 6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 “出玄宮, 成殯于欝宮, 奉出梓宮, 行出安幕次奠. 上在甕家西小次, 聞幕次行奠時臚唱贊拜之聲, 步詣甕家內, 哭擗.”

주상이 지통등을 달포 심녀로 디내○, 습시고 자,로 미령ㅎ, ○, 습셔 성테  
 손상ㅎ, ○, 습시기 니르올거시 업사, 온디 출현궁ㅎ, 오시니, 습 일을 보○  
 , 습시게 ㅎ, ○, 습기 츠, 마 절박ㅎ, ○, 습고 지통을 겸ㅎ, 와 병이 이러  
 위듯ㅎ, 올분 아니오라 성궁위ㅎ, ○, 습니, 습 녀녀가 기, 습 절ㅎ, 와 붓드  
 ○, 습고 못가시게 ㅎ, 오니 이제 즉시 가려ㅎ, ○, 습시니 지정을 심각ㅎ,  
 셔 동가전의 성빙ㅎ, ○, 습고 알외게 ㅎ, ○, 습쇼셔

주상이 지통등 달포 심녀로 디내○, 습시고 자,로 미령ㅎ, ○, 습셔 성테  
 손상ㅎ, ○, 습시기 니르올거시 업사, 온디 출현궁ㅎ, 오시니, 습 일을 보○  
 , 습시게 ㅎ, ○, 습기 츠, 마 절박ㅎ, ○, 습고 지통을 겸ㅎ, 와 병이 이러  
 위듯ㅎ, 올분 아니오라 성궁위ㅎ, ○, 습니, 습 녀녀가 기, 습 절ㅎ, 와 붓드  
 ○, 습고 못가시게 ㅎ, 오니 이제 즉시 가려ㅎ, ○, 습시니 지정을 심각ㅎ,  
 셔 동가전의 성빙ㅎ, ○, 습고 알외게 ㅎ, ○, 습쇼셔

주상(정조)이 몹시 애통한 가운데 한 달 남짓 근심으로 지내시고, 자주 병환  
 이 드셔서 성체가 손상되시기 이를 데 없는데, 현궁(玄宮)을 꺼내는 일을 보  
 게 하는 것이 차마 절박하다. 지극한 애통을 겸하여 병이 되어 위중할 뿐  
 아니라 성궁(聖宮)을 위하는 염려가 간절하여 붙들고 못가시게 하나 이제 곧  
 가려 하니 지극한 정성을 생각하여 주상께서 거동하시기 전에 성빈(成殯)하  
 고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글은 정조 13년(1789) 정조가 자신의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永祐園)  
 을 수원 화산으로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사도세자의 현궁(玄宮) 즉 관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모친 혜경궁 홍씨가 당시 우의정이었던 채제공  
 (蔡濟恭, 1720-1799)에게 내린 편지글이다. 만약 정조가 사도세자의 현궁(玄宮)을  
 보게 되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몸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장사를 지내기 전에 빈

소를 차리는 성빈(成殯)을 한 후 알려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사도세자는 부친 영조에게 신임을 얻지 못해 뒤주에 갇힌 후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고, 정조는 이를 애통하게 생각하여 묘를 정성스럽게 이장하며 효도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모습이 혜경궁 홍씨가 쓴 이 편지글에 의해 잘 전달되고 있다. 또한 이 편지글에는 이러한 아들의 효성스런 태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아들을 걱정하는 모정(母情)도 잘 드러나 있다.

내간(內簡)은 한글로 쓴 부녀자들의 글이다. 내간은 부녀자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섬세한 관찰력과 솔직한 정감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글도 궁중의 내간인데, 혜경궁 홍씨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심정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편지의 용건은 정조가 가니 사도세자의 빈소를 미리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는 “정조가 효성이 지극하여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다가 몸이 아픈 상태에 있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 정조의 몸 상태와 심리를 위하여 미리 빈소 준비를 해달라는 것인데, 받는 이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는 사연이라 하겠다. 여성이 가진 일종의 정감에 근거한 호소가 강요를 넘어서 연민과 지극한 정성을 느끼게 한다.

영조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은 자신들 편이 종가(宗家)에서 세자를 추대하려 하였으나 영조는 노론과가 아닌 사도세자를 세자로 책봉하였다. 영조 38년(1762) 윤급(尹汲, 1697-1770)은 나경언(羅景彦, ?-1762)을 사주하여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내시들과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참언을 형조에 고변(告變)하도록 하자 영조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분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도세자를 폐위시키고 서인(庶人)으로 만들어서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이것이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임오화변(壬午禍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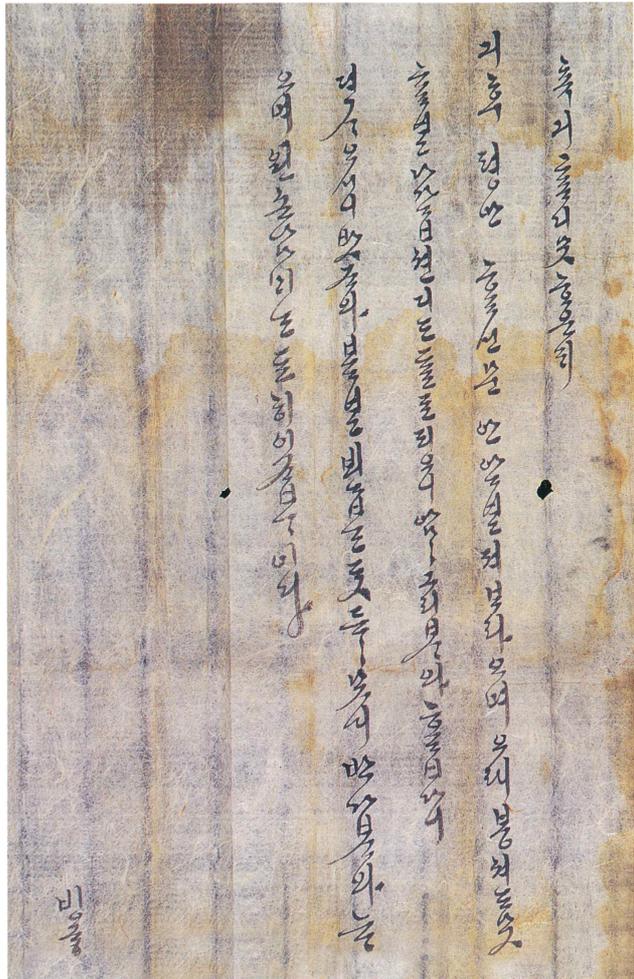
### 3. 혜경궁 홍씨의 서예

혜경궁 홍씨는 정명공주의 5대손으로 글씨를 잘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진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편지글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쓰지 않아 작자를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또한 기년(紀年)을 적은 분명한 기준작이 없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록』과 <화순옹주에게 보낸 언간>을 통해 혜경궁 홍씨의 한글서예 면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는 영조의 차녀이고 김정희의 증조부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 1720-1758)과 혼례를 치렀다. 1758년 김한신이 세상을 떠나자 죽음을 애도하고 곡기를 끊었으며, 영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바꾸지 않아 곡기를 끊은 지 14일 만에 죽었다. 화순옹주는 김정희의 증조모이면서 혜경궁 홍씨와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 집안에 전하는 <화순옹주에게 보낸 언간> 끝에 ‘빙궁’이라 쓴 서명은 혜경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중록』의 필적은 비록 모두 같지 않지만 혜경궁 홍씨의 한글서예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다.

한글서예는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 이후 15세기의 문헌이나 필사본의 자료는 주로 고체와 정자가 대부분이고, 16세기 중반부터 편지글에서 주로 흘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7세기의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인현왕후·장령왕후 등의 편지글 왕래는 한글의 서체 변천과 글씨의 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문예부흥기와 맞물려 한글서예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는 주로 왕후들의 편지글에서 수려한 흘림이 나타났다. 즉 한문서예의 행서·초서와 같이 한 글자 안에서 견사(牽絲)를 운용하여 끊어지지 않고 숨처럼 이어지는 연면체(連綿體)를 이루거나 필획을 생략하면서도 여러 글자와 호응하며 필의가 이어지는 흘림은 이후 한글서예사에서 가장 완벽한 서체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글씨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던 것을 점차 오른쪽 ‘|’ 모음으로 옮겨 대칭에서



혜경궁 홍씨, <和順翁主에게 보낸 諺簡>, 35×30cm, 개인소장

비대칭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후반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한글서예는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완성도를 높이면서 유명한 서사상공들을 배출하였다. 예를 들면, 신정왕후의 글씨를 대필한 천상궁이나 서기이씨, 명헌왕후의 글씨를 대필한 현상궁·서희순 상궁 등은 조선 최고의 한글서예 대표적인 서사상공들이다. 왕후와 서사상공들의 글씨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서사상공들은 대체로 노봉(露鋒)과 가독성을 위주로 한 것에 비하여 왕후들은 장봉(藏鋒)과 견사를 많이 섞어 글씨에서 자신의 성정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열거한 혜경궁 홍씨의 한글서예는 이러한 시기에 서사한 작품들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들을 옆두에 두고 지정 신청의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이하 간칭 ‘서간’)을 『한중록』·<화순옹주에게 보낸 언간>(이하 간칭 ‘언간’)과 비교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한글서예의 특징과 차별성이 잘 나타나는 것들을 모아서 표를 만들어 비교하도록 하겠다.

	서간	한중록	언간
ㅁ	심 미 마 념	막 골 머 감	을 의 옥 버
	‘ㅁ’의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꺾이는 전절(轉折)과 안의 공간을 살펴보면, 서간은 모나게 꺾는 절법(折法)을 운용하고 안의 공간은 정방형에 가까운 고른 네모 형태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한중록과 언간은 전절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의 공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ㅂ	읍 업 병 붓	성 흥 보 번	붓 붓 막 음
	‘ㅂ’에서 양쪽 세로획의 각도와 분배된 공간을 살펴보면, 서간은 양쪽 세로획이 평행을 이루면서 곧은 편이고 안의 공간은 ‘ㅂ’자에서 위의 필획이 없는 고른 분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한중록과 언간은 이와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오른쪽 세로획은 곧고 왼쪽 세로획은 아래로 향해 기울어 내려 그어 위는 좁으며 아래는 넓은 공간으로 변화의 대비를 나타내었다.		
ㅅ	상 심 시 손	시 실 수 성	소 성 수 쇠
	‘ㅅ’에서 왼쪽 필획의 기필과 수필을 보면, 서간의 기필은 방필이고 수필은 현침(懸針)으로 뾰족하게 뺐었으며, 각도는 아래로 향해 약 45°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한중록과 언간은 기필은 대부분 원필이고 수필은 서간의 것보다 길면서 회봉(回鋒)으로 처리하였으며, 각도는 아래로 향해 약 50°를 이루어 안의 공간이 약간 벌어져 납작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ㅇ	둥 등 오 알	유 이 중 을	안 옥 옥 익
	‘ㅇ’에서 등근 정도와 에워싼 필획의 굵기를 보면, 서간은 대체로 완전히 등글고 필획의 굵기는 일정하다. 이에 비해 한중록은 대체로 등글면서 필획 굵기의 변화가 있고, 언간은 옆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면서 필획 굵기의 변화가 있다.		
ㅊ	마 와 가 라	나 타 가 찰	와 타 와 후
	‘ㅊ’에서 오른쪽 점을 처리한 방향을 보면, 서간은 대체로 평평한 수평선 방향이다. 이에 비해 한중록과 언간은 뒷부분을 굵게 짚어 올렸기 때문에 비록 아래는 평평한 수평선 방향이더라도 중심이 위에 있어 수평선보다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ㅋ	너 령 병 경	저 혁 경 선	형 췌 쇠 선
	‘ㅋ’에서 앞의 ‘=’을 처리한 것을 보면, 서간은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한중록은 마치 삼각형에서 앞부분이 없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였고, 언간은 이 두 가지 형태를 겸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은 ‘=’에서 아래 필획을 처리할 때 서간은 직선이나 한중록과 언간은 밖으로 굽는 곡선으로 처리하여 안의 공간을 넓고 시원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ㄱ	이 시 미 너	이 시 너 의	이 히 구 리
	‘ㄱ’의 운필(運筆)을 보면, 서간은 방필로 기필을 하여 중봉으로 행필을 하다가 수필은 현침(懸針)을 운용하면서 붓끝을 글씨 안쪽으로 향하여 뾰족하게 뽑았다. 이에 비해 한중록과 언간은 대부분 원필로 기필을 하여 중봉으로 행필을 하다가 수필은 그대로 곧게 내리그으면서 끝을 뾰족하게 하거나 혹은 붓끝을 글씨 안쪽으로 향하여 뾰족하게 뽑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한글서예의 서사기법에서 지정 신청의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은 『한중록』·<화순옹주에게 보낸 언간>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 서풍과 필치를 보면, <혜경궁 홍씨 묵서 한글서간>은 침착하고 단정하며 법도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비록 자형은 고르고 아름다우나 정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중록』은 비록 글을 서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정함을 유지하지만 운필 속도와 필치의 변화를 통하여 활발한 서풍을 나타내었다. 같은 편지글인 <화순옹주에게 보낸 언간>은 필획의 굵거나 가늘, 운필의 빠르거나 느림, 먹색은 진하거나 옅은 대비를 통해 정감을 충분히 나타내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말하면, 지정 신청의 작품이 혜경궁 홍씨가 썼다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시의 조급하거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편지를 쓸 때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시 마음이 혼란하고 조급하여 정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절제하는 서사상공이 대필하였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 문헌자료

- 이정자, 「한글서예의 서사기법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광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광노봉·이정자, 『서사기법』, 다운샘 2013.
- 『澗松文華』 第75號, 2008.
- 예술의전당, 『朝鮮王朝御筆』, 우일출판사 2002.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본지 전반에 변색, 꺾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 이전 수리 시 상·하 도삭한 부분에 다른 종이를 연결하여 보강. 또, 세로로 6조각 도삭된 것을 거의 등간격으로 배열하여 부착. 부착 시 겹침 없음.
- 본지에서 접힘 관찰.

#### ○ 내용 및 특징

혜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장할 때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관을 보지 못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품위 있는 한글 반흘림체로 쓰여져 있다.

#### ○ 기 타

1930 ~ 40년경에 간송미술관에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종이 외함 있음.
- 본지 전반에 변색, 꺾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 이전 수리 시 상·하 도삭한 부분에 다른 종이를 연결하여 보강. 또, 세로로 6조각 도삭 된 것을 거의 등간격으로 배열하여 부착. 부착 시 겹침 없음.
- 본지에서 접합 관찰.

○ 내용 및 특징

혜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장할 때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관을 보지 못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품위 있는 한글 반흘림체로 쓰여져 있다.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32. 정조 필 정혜공연시연시(正祖 筆 靖惠公延諡宴詩)

### 가. 검토사항

‘정조 필 정혜공연시연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정조 필 정혜공연시연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조 필 정혜공연시연시(正祖 筆 靖惠公延諡宴詩)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
- 규 격 : 작품: 81.5 × 154.3cm / 장황: 96.7 × 203.8cm
- 재 질 : 작품: 지본묵서(紙本墨書), 장황: 견 (絹)
- 형 식 : 횡축(橫軸)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정조 묵서 정혜공연시연시>는 정명공주의 고손자이고 혜경궁 홍씨의 백부이면서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 홍상한(洪象漢, 1701-1769)이 죽은 지 24년이 되는 해에 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 연시연(延諡宴)에 정조가

축시를 써서 보낸 작품이다. 12행에 98자를 행서로 썼다. 앞 4행은 서문이고, 중간 6행은 본문으로 칠언절구 2수를 썼으며, 뒤 2행은 “내 즉위 17년 임자(1792) 9월 15일 이를 쓰다[予踐阼十七年壬子九月十五日, 書此].”라는 하관(下款)으로 조성연대가 1792년 9월 15일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정조와 풍산홍씨 가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전하는 정조어필에 비해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둘째,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이 많은데, 이 작품은 보물 제1632-1호로 지정된 칠언율시의 <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臚提學鄭民始出按湖南)>(1791, 국립진주박물관)과 서풍·필법·필획·결자·행기(行氣)·장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흡사하지만 반드시 더 낮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작품은 정조와 풍산홍씨 가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희귀성·예술적·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정조 묵서 정혜공연시연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조묵서 <靖惠公 延諡宴詩>는 정조가 당시 예조 판서 홍상한에게 諡號를 하사하는 날에 그 延諡宴을 축하한 축시를 쓴 것이다. 81.5cm× 154.3cm의 크기로서 글씨도 크고 활달하여 정명공주의 후예로서 제왕의 필치나 풍모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내용상에서 풍산 홍씨와의 족벌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글씨도 평년작에 속한다.

보관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정조의 유작 중에 수작들이 이미 여러 건 지정된 정황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겠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조 묵서 「정혜공 연시연시(靖惠公延諡宴詩)」’는 정명공주의 4대손이자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인 홍상한에게 시호를 하사했을 때 홍상한의 장자인 홍낙성(1718 ~ 1798)의 집에서 벌어진 연시연을 축하하기 위하여 정조가 보낸축시이다.

활달한 행서체로 쓰여진 이 작품은 글씨와 작품의 크기가 크고 서품 또한 현존하는 정조의 묵적 가운데 우수한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정조와 풍산 홍씨 가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조의 묵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작품의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지정 가치 미흡)

정혜공(靖惠公) 홍상한(洪象漢:1701~1769)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풍산(豊

山). 자는 운장(雲章).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홍석보(洪錫輔)이며, 어머니는 승지 조의징(趙儀徵)의 딸이다. 어유봉(魚有鳳)의 문인이며 사위이다. 선조대왕의 딸인 정명공주의 4세손이자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이다. 1728년(영조 4) 진사시에 합격하고, 1734년 의금부도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1738년 예문관검열에 천거되었고, 이듬해 지평이 되었다. 이후 관직이 올라 1746년 대사헌을 거쳐, 1748년 형조판서가 되어서는 법에 어긋난 장형(杖刑)의 남용을 금지시켰다. 1752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54년 예조판서가 되어 조헌(趙憲)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죽은 자들을 봉안한 창절(彰節)·민민(愍民)의 두 서원을 중수하였으며, 황보 인(皇甫仁) 등에게 증직과 시호가 내려지게 하였고, 사육신과 엄흥도(嚴興道)를 포향하였다. 1755년 병조판서를 지내고 판돈녕부사를 거쳐, 1759년 판의금부사로서 세손의 사부를 겸하였고, 1769년 병이 심하여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풍산세고』·『정혜공유고(靖惠公遺稿)』가 있다.

〈정조대왕 묵서 「정혜공연시연시(靖惠公延諡宴詩)」〉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큰 인물이자,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인 홍상한에게 정조가 시호를 내렸을 때 홍상한의 장자인 홍낙성(1718~1798)의 집에서 연시연(延諡宴)이 벌어졌는데 이 연시연을 축하하기 위하여 정조가 보낸 자작(自作), 친필(親筆)의 축시(祝詩)이다. 이 축시의 제작 사실은 『정조실록』에 기록과도 완전히 부합한다. 정조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승지 홍의영을 보내서 정명공주와 고 판서 정혜공 홍상한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 날은 영돈녕 홍낙성이 홍상한의 시호를 맞아 잔치를 베푸는 날인 까닭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칠언절구 2편을 지어 규장각의 관원에게 명하여 가져다가 홍낙성에게 전하고 술을 내리며 일등 음악을 하사한 다음 공경 이하 모든 관원이 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신칙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조성연대가 1792년 9월 15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날은 혜경궁 홍씨의 백부이면서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인 홍상한이 작고한지 24년이 되는 해이므로, 죽은 지 24년 후에야 시호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장남 홍낙성(洪樂性, 1718-1799)은 75세로 영돈녕부사였는데 이듬해 영의정으로 승진했다.

활달한 행서체로 쓴 이 작품은 글씨와 작품의 크기가 크고 서품 또한 현존하는 정조의 묵적 가운데 우수한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정조와 풍산홍씨 가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정조의 묵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과, 이 작품의 보존 상태가 적잖이 불량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상서, 종이 외함 있음.
- 분당지로 추정, 결손, 박락 진행. 도포된 흰색 안료에서 변색 진행.
- 마는 방향에서 꺾임 발생. 꺾임을 따라 표면처리 된 안료에서 박락 진행.
- 본지와 변아 연결부 사이에 들뜸 발생.
- 이전 수리 시 결손부 메움을 한 2곳에 금박장식이 있는 분당지를 사용하여 메운 것으로 추정.
- 뒷면 제첩, 양지라벨지 부착.
- 상황목 연결부 갈라짐.
- 끈은 탁목조직의 일본식 끈.

왼쪽 전반부의 변색이 확연하고, 중간 부분과 오른쪽 끝부분에서도 변색이 보인다. 이외에 꺾임이 있고, 꺾임을 따라 표면처리 된 안료에서 박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지와 변아 연결부 사이에 들뜸이 발생하고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정조 묵서 정혜공연시연시>는 정명공주의 고손자이고 혜경궁 홍씨의 백부이면서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 홍상한(洪象漢, 1701-1769)이 죽은 지 24년이 되는 해에 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 연시연(延諡宴)에 정조가 축시를 써서 보낸 작품이다. 12행에 98자를 행서로 썼다. 앞 4행은 서문이고, 중간 6행은 본문으로 칠언절구 2수를 썼으며, 뒤 2행은 “내 즉위 17년 임자(1792) 9월 15일 이를 쓰다[予踐阼十七年壬子九月十五日, 書此].”라는 하관(下款)이다.

#### 1. 정조

정조(正祖, 1752-1800)는 조선왕조 제22대 왕으로 이름은 산(禔),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조부는 제21대 왕 영조이고, 부친은 영조의 둘째 아들 장헌세자이다. 외조부는 당시 최고 문벌 가문을 형성했던 풍양홍씨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이고, 모친은 혜경궁 홍씨(1735-1815)이다. 그는 장헌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청원부원군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딸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를 비로 맞이하였다. 1759년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장헌세자가 사망한 후 1764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후사로 동궁이 되었다. 1776년 영조 승하로 즉위하여 1800년 영충현에서 승하하기까지 25년간 재위하였다. 묘호는 정종(正宗)이었다가 1899년 정조로 개호되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을 정도로 개혁 군주임과 동시에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 2. 정조의 서예

정조는 조선왕조 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서예작품을 남길 정도로 서예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그는 서예는 기교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학문과 인품을 읽을 수 있는 매개체이고 세도(世道)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서예를 마음의 그림인 ‘심화(心畵)’라 불렀고, 기교와 미적인 글씨보다는 돈후하고 원융한 글씨를 추구하였다. 그의 서예는 해서·행초서·전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서는 재위 초기에 왕희지의 진체(晉體)를 구사하였으니, <사도장헌세자영우원비(思悼莊獻世子永祐園碑)>(1777)·<검암기적비(黔巖紀蹟碑)>(1781) 등은 왕희지의 소해서 <황정경(黃庭經)>·<악의론(樂毅論)>을 본받았다. 그러나 1780년대 중반 이후 정조는 조선 중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로 자신의 서풍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자형·필획·서풍은 한호의 해서 <천자문>과 상당히 유사하였으니, <무안왕묘비(武安王廟碑)>(1785)·<정성왕후홍릉표(貞聖王后弘陵表)>(1785)·<진종대왕영릉비(眞宗大王永陵碑)>(1785)·<대로사비(大老祀碑)>(1787)·<지알명릉급역배소령원유감(祇謁明陵及歷拜昭寧園有感)>(1787)·<진안대군묘비(鎭安大君墓碑)>(1789) 등이 그러하다. 이들 글씨는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에 큰 차이가 없고, 점과 필획의 기필과 수필은 ‘석봉체(石峯體)’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석봉체’에 기반을 둔 정조의 서풍은 재위 후반까지 이어져 <안변설봉산석왕사비(安邊雪峰山釋王寺碑)>(1790)·<인평대군치제문비(麟坪大君致祭文碑)>(1792)·<독서당구기비(讀書堂舊基碑)>(1797)·<치마대구기비(馳馬臺舊基碑)>(1797)·<정조어필(正祖御筆)>(1799년 경) 등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조어필>은 자신의 독서활동에 관해 쓴 것으로 해서작품에서 보기 드문 묵적임과 동시에 재위 후반기 해서 서풍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필봉의 날카로움을 잘 나타내면서 필획은 힘차고 경쾌하며, 각 글자들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사불란한 군대 사열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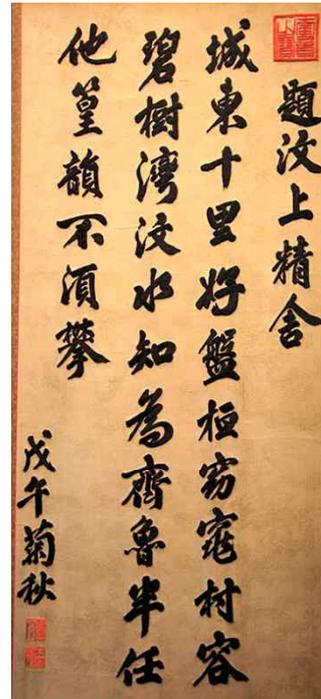
행서의 초기 서풍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종대왕어필간첩(正宗大王御筆簡帖)>(1772)이 있는데, 필획은 가늘고 뾰뾰하며 경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필치는 1777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해서와 마찬가지로 왕희지체를 본받았으니,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정조어필>(1770)의 말미에 “자못 의식적으로 <난정서>를 생각하였다[頗有意思蘭亭].”라는 구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필획을 부드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아직 왕희지체에 능숙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17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미불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었으니, 김재찬(金載贊)에게 써 준 <성도백전석구점(成都伯餞席口占)>(1785)이 대표적인 예이다. 필획의 연결은 자연스럽고 운필의 속도는 빠르며, 굵기의 변화가 심하면서 빠침을 강조하였다. 1790년대는 조맹부의 서체를 일컫는 송설체(松雪體)의 영향을 받아 다시 자신의 서풍을 변모시켰다. 18세기 이후 많이 쓰지 않던 송설체의 구사는 정조가 보수적 서풍으로 회귀하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송설체로 유명한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의 글씨를 본받았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칠언율시(七言律詩)>(1791) · <제번암시문고(題樊巖詩文稿)>(1791) · <정혜공연시연시(靖惠公延諡宴詩)>(1792) 등의 글씨는 안평대군의 작품과 직접 비교될 수 있다. 한 글자 안에서 가로획이 가지런하게 평행을 이룬 것과 필획을 연결하여 쓸 때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겹쳐 쓴 것 등은 서로 닮았다. 다만 정조는 일부 필획을 가운데로 모은 상태에서 세로획을 직선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종세(縱勢)를 강조함으로써 안평대군과 다른 개성적인 서풍을 이루었을 뿐이다. 1790년대 중반은 정조의 이러한 개성적인 서풍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예를 들면, <제선정퇴계간첩후(題先正退溪簡帖後)>(1794) · <제이언적서후(題李彦迪書後)>(1794) · <정조어필(正祖御筆)>(1795, 동아대박물관) · <정조시고(正祖詩稿)>(1796) 등이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이 시기 행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운필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흘림의 정도를 약화함으로써 해서의 필치에 가까워졌고, 일사불란한 필획의 배열은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세도 이전보다 덜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조 특유의 개성적인 필치라 하겠다. 이러한 개성적인 필치가 극명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제문상정사(題汶上精舍)>(1798) · <증철옹부백부임지행(贈鐵翁府伯赴任之行)>(1799) 등이 있다.

초서는 1790년 이후 간찰문에 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써 준 두 점의 간찰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정조 편지첩>이 있다. 이들 초서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서풍을 보일 뿐 특정 서풍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기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조의 초서는 조선시대 수없이 제작된 초서 간찰의 전통과 그의 행서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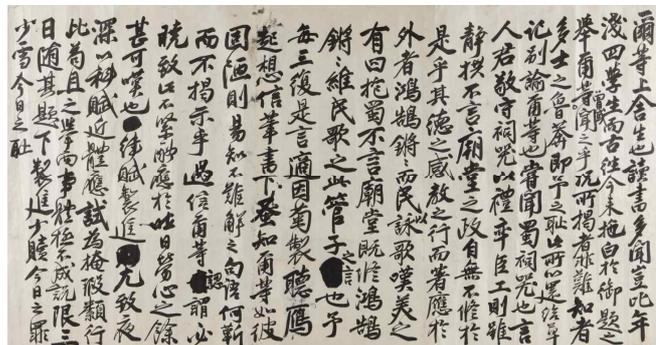
전서의 대표작은 <사도장헌세자영우원비(思悼莊獻世子永祐園碑)>(1777) · <진종대왕영릉비(眞宗大王永陵碑)>(1785) · <대로사비(大老祀碑)>(1787) 등의 비액들이



정조어필, <칠언율시(七言律詩)>  
(보물 제1632-1) 1791, 진주박물관



정조어필,  
<제문상정사  
(題汶上精舍)>  
(보물 제1632-2)  
1798, 국립중앙박물관



정조어필,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  
(보물 제1632-3), 1798,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이는 당나라 이양빙의 <삼분기(三墳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조의 전서는 1790년대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의 비액(碑額)은 해서로 대신하였다.

종합하여 말하면, 정조 재위 초기의 해서와 행서는 당시 유행서풍을 따랐다. 왕희지체와 미불 서풍의 수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780년대 중반 이후 서풍은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790년대 중반부터 정조의 개성적인 서풍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해서는 한호의 서풍, 행서는 미불과 조맹부의 송설체를 수용하여 새로운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이들 서풍을 바탕으로 삼아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서풍을 창출하였다. 이는 자신이 추구한 서예관에 합당한 글씨를 스스로 제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 3. 지정 신청의 조성연대와 서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의 <정조 묵서 정혜공연시연시>는 정명공주의 고손자이고 혜경궁 홍씨의 백부이면서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 홍상한(洪象漢, 1701-1769)이 죽은 지 24년이 되는 해에 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 연시연(延諡宴)에 정조가 축시를 써서 보낸 작품이다. 12행에 98자를 행서로 썼다. 앞 4

행은 서문이고, 중간 6행은 본문으로 칠언절구 2수를 썼으며, 뒤 2행은 “내 즉위 17년 임자(1792) 9월 15일 이를 쓰다[予踐阼十七年壬子九月十五日, 書此].”라는 하 관으로 조성연대가 1792년 9월 15일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貞明貴主宅, 設靖惠公延諡宴<sup>184</sup>, 詩以寵之. 命內閣臣, 賚示主人, 頒敘寧.

傾都珂馬映朝霞, 喬木千章大主家.  
賢尉<sup>185</sup>典型如可見, 中堂華髮對黃花.

尙憶先卿致仕時, 箕疇五福<sup>186</sup>摠兼之.  
天官是日宣嘉諡, 依舊門闌百祿宜.

予踐阼十七年壬子九月十五日, 書此.

정명의 존귀한 공주 집안에 정혜공의 연시연을 베푼다하여 시로 기린다. 내 각 신하에게 명하여 가져다가 주인에게 보이고 추서함과 문안을 널리 알려라.

서울을 기울 만큼 화려하게 장식한 말들 아침노을을 비추고,  
곧고 굽으며 높이 자란 천 그루 나무 공주 집안을 과시하도다.  
어진 부마 전형을 보는 듯  
대청에서 백발노인 국화를 대하네.

아직 돌아가신 부친 사직할 때를 기억하니,  
이 땅의 오복을 모두 겸하였네.  
이조(吏曹)는 이날 아름다운 시호 전달하니,  
집안과 많은 복록 예전 그대로 걸맞도다.

내 즉위 17년 임자(1792) 9월 15일 이를 쓰다.

이는 또한 『정조실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승지 홍의영을 보내서 정명공주와 고 판서 정혜공 홍상한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날은 영돈녕 홍낙성이 홍상한의 시호를 맞아 잔치를 베푼는 날인 까닭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칠언절구 2편을 지어 규장각의 관원에게

184) 延諡宴은 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이르는 말.

185) 尉는 정명공주의 남편 永安尉 洪柱元을 가리킨다.

186) 箕疇五福에서 箕疇는 洪範九疇를 가리키고, 五福은 壽[장수]·富[부유함]·康寧[편안함]·攸好德[덕을 좋아함]·考終命[늙어서 편히 죽음]을 가리킨다.

명하여 가져다가 홍낙성에게 전하고 술을 내리며 일등 음악을 하사한 다음  
공경 이하 모든 관원이 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신칙하였다.<sup>187)</sup>



이를 보면, 정조가 칠언절구 2편을 지어 보냈다는 『정조실록』의 기록과 지정 신청 작품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조성연대가 1792년 9월 15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날은 혜경궁 홍씨의 백부이면서 정조의 큰 외할아버지 홍상한(洪象漢, 1701-1769)이 죽은 지 이미 24년이 되는 해이고, 장남 홍낙성(洪樂性, 1718-1799)은 75세로 직책은 당시 영돈녕부사였으나 다음해 1793년 영의정이 되었다.

정조 재위 초기의 해서와 행서는 당시 유행서풍을 좇아 왕희지체와 미불 서풍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1780년대 중반 이후 서풍은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790년대 중반부터 정조의 개성적인 서풍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의 <정조 묵서 정혜공연시연시>는 조성연대가 1792년 9월 15일이기 때문에 정조의 개성적인 서풍이 강하게 나타날 때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 필세는 종세(縱勢)가 뚜렷하여 절도가 있으면서도 시원하고 활발한 느낌이 든다. 서풍은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삼아 미불 서풍의 영향을 수용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필획의 굵거나 가는 대비의 변화와 일사불란하게 끝은 배열의 종세(縱勢)를 통해 굳세고 강직하면서도 변화의 묘함을 다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개성적인 서풍일 뿐만 아니라 글씨와 작품의 크기가 크고, 서풍 또한 현전하는 필적에서 우수한 편에 속한다. 이를 이미 보물 제1632-1호로 지정된 칠언율시의 <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臚提學鄭民始出按湖南)>(1791, 국립진주박물관)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정 신청의 것보다 1년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서풍·필법·

187)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9월 15일辛亥 2번째 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 “遣承旨洪義榮, 致祭于貞明公主, 故判書靖惠公洪象漢. 是日, 領敦寧洪樂性, 將延象漢諡, 故有是命. 又御製七言絕句二篇, 命閣臣, 賚傳於樂性宣醜, 賜一等樂, 飭公卿以下悉與宴.”

필획·결자·행기(行氣)·장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작품은 지정 신청의 것보다 운필의 속도가 빨라 상쾌하고 활발함이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조의 어필이 지금까지 보물로 지정 된 것으로는 제1632-1호 칠언율시로 쓴 <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臚提學鄭民始出按湖南)>(1791, 국립진주박물관), 제1632-2호 <제문상정사(題汶上精舍)>(1798, 국립중앙박물관), 제1632-3호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1798,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923호 <정조 어찰첩>(1796-1800, 케이옥션) 등이 있고, 이외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6호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正祖御製蔡濟恭誄文碑)>(1978,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98호 <정조 어필 비망기(正祖御筆備忘記), 수원화성박물관) 등이 있다.

### ○ 문헌자료

- 광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한국역대서화가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澗松文華』 第75號, 2008.
- 이성훈, 「正祖의 書藝觀과 書體」,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민식, 「정조의 서예관과 書體反正」, 『正祖時代의 名筆』, 신구문화사 2002.
- 예술의 전당, 『朝鮮王朝御筆』, 우일출판사 2002.
- 『정조실록』 35권.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상서, 종이 외함 있음.
- 분당지로 추정, 결순, 박락 진행. 도포된 흰색안료에서 변색 진행.
- 마는 방향에서 꺾임 발생. 꺾임을 따라 표면처리 된 안료에서 박락 진행.
- 분지와 변아 연결부 들뜸 발생.
- 이전 수리 시 결순부 메움 한 2곳에 금박장식이 있는 분당지를 사용하여 메움 한 것으로 추정.
- 뒷면 제첩, 양지라벨지 부착.
- 상황목 연결부 갈라짐.
- 끈은 탁목조직의 일본식 끈.

### ○ 내용 및 특징

이 작품은 정명공주의 후손이자 정조의 외척인 홍상한(洪象漢 1701 ~ 1769)에게

시호를 하사한 날 정조가 그 연시연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어제시로 글씨 또한 활달한 행서체의 어필이다.

### ○ 기 타

2014년 (사)국립중앙박물관회로부터 기증 받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나전 경함이다.

###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 현 상

- 오동상자에 보관, 상서, 종이 외함 있음.
- 분당지로 추정, 결순, 박락 진행. 도포된 흰색안료에서 변색 진행.
- 마는 방향에서 꺾임 발생. 꺾임을 따라 표면처리 된 안료에서 박락 진행.
- 본지와 변아 연결부 들뜸 발생.
- 이전 수리 시 결순부 매움 한 2곳에 금박장식이 있는 분당지를 사용하여 매움 한 것으로 추정.
- 뒷면 제첩, 양지라벨지 부착.
- 상황목 연결부 갈라짐.
- 끈은 탁목조직의 일본식 끈.

### ○ 내용 및 특징

이 작품은 정명공주의 후손이자 정조의 외척인 홍상한(洪象漢 1701 ~ 1769)에게 시호를 하사한 날 정조가 그 연시연(延諡宴)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어제시(御製詩)로 글씨 또한 활달한 행서체의 어필(御筆)이다.

### ○ 기 타

1930 ~ 40년 즈음 간송 미술관에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 ○ 문헌자료

『간송문화(澗松文華)』 75호

### 33.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 가. 검토사항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17.2 x 52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마상청앵도>는 김홍도가 40세 이후에 제작한 그의 후기 인물화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물 묘사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말과 마구에 사용된 부드러운 몰골법, 선비의 시선과 표정, 대담한

공간 운용 등이 잘 어우러져 김홍도가 추구한 사대부적인 詩情과 한국적인 서정성이 잘 표출된 작품이다. 더욱이 김홍도의 인장과 관서가 있고, 그림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동료 화원 이인문이 지은 제시가 있어 이 그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

따라서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 후기 사인풍속도의 대표작이며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가 남긴 土俗美와 시적 분위기가 짙은 士大夫를 주인공으로 한 풍속화 범주의 代表作이자 名品이며 秀作으로 국내외 특별전에 출품된 文化財的 가치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필 <마상청앵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최고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가 조선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세심한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한 걸작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료 화가였던 이인문과의 깊은 우정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바탕에는 결손부에 메움 흔적이 있고 약간의 가필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전체적

으로 먼지에 의한 오염으로 바탕색이 탁해진 감이 있으며 가로 주름도 있으나 그림의 내용이나 필치 등 화격(畫格)에는 방해되지 않는다.

### ○ 내용 및 특징

시동을 대동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찌꼬리 한 쌍이 노니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찌꼬리를 무심히 응시하는 모습이 그려진 인물화이다. 버드나무의 녹색, 말의 갈색, 지면의 청색 등 부분적으로 담채가 있고 원숙한 필선은 가늘고 섬세하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특유의 사선 구도를 사용한 간결한 구도와 공간 처리는 선비의 내면적 정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김홍도의 후기 회화 중에 한국적인 시정(詩情)이 잘 표현된 가작이다. 화면 상단 원편에는 이인문(李寅文, 1745-1824)이 지은 칠언절구 “佳人花底簧千舌 韻士樽前柑一雙 歷亂金梭楊柳崖 惹烟和雨織春江 碁聲流水古松館道人 李文郁證 檀園寫”가 김홍도의 글씨로 쓰여 있다. ‘檀園寫’라는 관서가 있고 주문방인 ‘弘道’와 ‘士能’, 그리고 ‘心醉好求’라는 유인(遊印)이 찍혀 있다.

□

### ○ 현 상

격임 등에 의해 화면의 손상이 산견되며, 수리시의 가필 흔적도 보이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건식 크리닝으로 이물질과 벌레분비물을 제거하고, 화면의 들뜬 곳들을 전분풀로 부착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동갑 화원 이인문의 제시가 적혀 있고, 앞머리에 ‘心醉好求’라는 遊印이 찍혀있다. 제시 하단 옆으로 ‘檀園寫’라는 관서를 쓰고 주문방인 ‘弘道’와 백문방인 ‘士能’을 찍었다.

### ○ 내용 및 특징

총각 하인을 마부로 대동하고 봄나들이 하던 선비가 새싹을 내기 시작한 수양버드나무 옆을 지나다가 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찌꼬리 소리에 잠시 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수하인물도의 구도에 여백의 효과와 함께 필묵과 담채의 원숙한 구사로 시적 정취와 서정성이 넘치는 김홍도 후기 사인풍속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 ○ 현 상

화면바탕에 剝落이 적지 않으며 일부 加筆과 다시 화면 내 일직선으로 들뜬 곳을 부분적으로 補修한 부분도 보인다. 하지만 전체 그림 이해엔 별 문제가 없다. 화면 좌측 상단에 단원과 닮은 字劃의 오른쪽이 들려 경사지게 비스듬히 올라간

書體로 동갑 화원으로 切親인 李寅文(1745-1824이후)의 題詩가 있고, 頭印 ‘心醉好求’, 제시에 이어 관서 ‘檀園寫’, 주문방인 ‘弘道’와 백문방인 ‘士能’이 연이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의 선비를 주인공으로 한 풍속화 중에서 집을 나서 접하는 풍광을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두 틀이 전하는 8폭 行旅風俗圖屏 중 한 틀을 통해 살필 수 있었던 친숙한 정경이다. 봄날 童子를 거느리고 집을 나선 선비가 버드나무 곁에 지나다가 우짖는 노란 피꼬리 울음소리에 잠시 멈춰 시선을 두는 장면이다. 들뜬 봄날의 분위기, 心懷가 잘 드러나며 피꼬리 울음소리마저 시각화 한 양 들리는 듯하다.

화면 내 너른 여백과 點描法으로 묘사된 버드나무 새잎, 말 탄 주인공과 시종드는 동자 모두가 趙熙龍(1789-1866)의 “壺山外記” 인물묘사처럼 키가 커 현철한 모습이다. 自畫像적 面貌마저 감지된다. 특히 인물의 衣褶 묘사에서 가는 鐵線描가 두드러진다. 주인공 주변에 路面과 우축이 화면 밖으로 이어지는 折枝 형태의 버드나무 등 매우 간단한 구성이나 너른 여백과 함께 필묵에 淡綠과 淡黃 加彩 등 해맑고 밝은 화면 처리에 詩的情趣로 抒情性이 짙어 김홍도적인 화면 구성과 필치 등 화풍에서 完熟美가 돋보이는 걸작이다.

### ○ 참고문헌

오주석, 『단원 김홍도-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 (열화당, 1998)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6)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화면 오른편 중간에서 왼편 아래로 길게 난 흙길 위로 시동이 모는 갈색 나귀를 탄 선비가 지나가고 있다. 선비는 등자에 발을 걸고 안장에 앉아 오른손으로는 고삐를 왼손으로는 부채를 들고 있다. 나귀 뒤쪽에 선 동자는 오른손으로 채찍을 들고 있다. 선비와 동자 모두 고개를 들어 오른편에 높게 솟은 버드나무 가지를 쳐다보는데 시선을 따라가 보면 노란 피꼬리 한 쌍이 보인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기다랗게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푸릇푸릇한 나뭇잎 사이로 피꼬리 두 마리가 보인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유인(遊印) “心醉好求”를 찍고 “佳人花底簧千舌韻士樽 前柑一雙歷亂金梭楊 柳崖惹烟和雨織春江 碁聲流水古松館道 人李文郁證 檀園寫”라는 칠언시 목서를 적은 후, 주문방인 “弘道”와 “士能”을 찍었다. 현재의 장황으로 만들면서

상하좌우가 조금씩 잘려나갔다. 그림의 상태 매우 양호하며 색채도 잘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그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선비와 시동을 보면 가는 선으로 옷과 주름을 표현한 반면, 나귀는 윤곽선 없이 갈색으로만 번지는 효과를 살려 묘사함으로써 서로 대비를 이룬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버드나무와 비스듬한 언덕은 간결하면서도 능숙한 필치로 그렸다. 그림의 절반 이상을 여백으로 남겨놓아 주제가 더욱 돋보이게 했다. 버드나무의 연두빛 이파리는 초봄의 절기를 알려준다.

김홍도는 51세가 되던 1795년에 그린 <풍속화팔첩병풍>(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 네 번째 폭에 같은 주제를 그렸다. 거의 같은 구도를 좌우를 바꿔서 그렸으며 차이점은 시동이 두 사람 등장한다는 것이다.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풍속화첩병풍의 경우는 일상의 한 장면을 기록한 듯하지만 <마상청앵>의 표현은 훨씬 간결하고 정감이 풍부하다. <마상청앵>은 한 폭의 독립적인 그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나중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김홍도 말년에 그린 것이 된다.

그림에 적혀있는 시는 동갑내기 화원 친구였던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이 지어준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운 여인 꽃 밑에서 천 가지 소리로 생황을 부는 듯,  
시인의 술동이 앞에 굴 한 쌍이 놓인 듯하다.  
금빛 벼들 북이 어지러이 버드나무 물가를 오가더니  
안개와 비를 엮어 봄강을 짜내누나.(백인산 번역)

피꼬리의 울음을 생황으로 천 가지 소리를 내는 것으로, 피꼬리의 노란 색은 굴 한 쌍으로 비유했다. 나뭇가지를 바쁘게 옮겨 다니는 모습은 벼들에 북이 왔다갔다 하는 모양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인문은 종종 김홍도의 그림에 관화기(觀畫記)를 남기기도 했다.

이른 봄날에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섬세한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며 조선 선비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풍속적인 장면인 동시에 서정성이 풍부한 그림이 되었다.

○ 참고문헌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백인산, 『간송미술 36 회화』 (컬처그라퍼, 2014)



그림 444.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 3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 가. 검토사항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八幅)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8폭
- 규 격 : 111.9 × 62.6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는 김홍도 만년의 대표적인 중국고사도라 할만하다. 김홍도의 자필 관서를 갖추고 있으며 화면구성, 구도, 인물 묘법, 수지법, 준법 모든 면에서 만년의 원숙한 화풍과 필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8폭>은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동아시아의 문사들이 애호했던 고사를 조선식으로 창출해 낸 대표작이며,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성된 걸작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性理學을 國是로 탄생한 조선왕조에 있어 자주 膾炙되던 이들을 나름대로 일괄로 함께 그렸다. 등장인물 각자에 대한 전해오는 介潔한 삶과 문인들로 逸話와 더불어 尊崇의 대상이던 靑史에 足跡이 선명한 이들이다. 이를 朝鮮式으로 창출해 낸 산수를 배경으로 그 안에 등장시킨 김홍도 만년 傑作이다.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주제를 조선 그림답게 화풍상 특징을 담아 펼친 국경을 넘어 天才性이 돋보이는 그림 例로 제시된다 하겠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필 <고사인물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최고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가 유명한 역사 인물을 소재로 교훈적인 내용을 예술성 높게 재구성하여 표현한 걸작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김홍도 고사인물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인물을 마치 조선시대로 옮겨 온 것처럼 산수배경과 인물표현을 한국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도록 바꾸어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다. 위대한 은일자와 성리학자를 숭상하던 유교사상의 반영된 예술품으로 역사적 가치도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원래는 8첩 병풍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8폭이 같은 방식의 화축(畫軸)으로 각각 꾸며져 있다. 각 폭의 화면 상태는 편차가 있는 편인데 대체적으로 세로 방향을 따라 좌우 가장자리 부분의 바탕 훼손이 심하다. 이는 애초에 8

폭이 병풍으로 제작되었던 것임을 시사한다. 결손부에는 색맞춤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가필의 흔적도 발견된다. 8폭 중에서는 <오류귀장도>가 가장 상태가 좋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된 유물 8폭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경)의 작품으로 중국 의 고사를 그린 것이다. 각 폭에는 위쪽 여백에 각각의 화제(畫題) 4글자와 김홍도의 별호 ‘丹丘’가 쓰여 있고 두인(頭印) ‘心醉好山川’, 주문방인 ‘弘道’, 백문방인 ‘士能’의 인장이 찍혀 있다. 원래 병풍으로 꾸며졌을 당시의 그림 순서는 알 수 없다. 소장처에서 임의로 정한 순서에 따라 8폭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융봉취하도(融峰醉下圖)> : 주자(朱子)가 호남성 형산(衡山)의 축융봉(祝融峰)에 올라 지은 시 「취하축융봉작시(醉下祝融峰作詩)」를 화제로 삼은 그림이다.
2. <서호방학도(西湖放鶴圖)> : 북송의 임포(林逋)가 서호 고산(孤山)에서 매화를 처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 삼아 은거했다는 ‘매처학자(梅妻鶴子)’의 고사를 내용으로 한 그림이다. 화면의 일각(一角)을 살린 사선 구도와 과감한 여백 처리는 김홍도의 1796년 작인 <한정품국도(閒亭品菊圖)>와 상통하는 그의 개성적인 화면 구성법이다.
3. <무이귀도도(武夷歸棹圖)> : 중국 복건성 무이산(武夷山)은 주자가 은거하여 더욱 유명해진 명승지이다. 가파른 기암절벽을 끼고 굽이치는 구곡(九曲)을 뚫을 내린 채 지렛대로 절벽을 밀며 빠져 나가는 주자 일행이 그려져 있다. 바위에 사용된 김홍도 특유의 하엽준(荷葉皴)은 1804년 작인 <기로세련계회도(耆老世聯契會圖)>와 매우 유사하다.
4. <동산휴기도(東山携妓圖)> : 동진(東晉)의 문장가 사안(謝安)이 회계(會稽)의 동산에 은거하며 기생과 유유자적했다는 고사가 화제(畫題)이다. 의관을 갖춘 사안이 기녀 세 명을 거느리고 돈(敦)이 놓인 누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화면 구성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한그루 소나무에서도 김홍도의 특징적인 묘법이 잘 나타나 있다.
5. <동강조어도(東江釣魚圖)> : 후한 광무제(光武帝)가 즉위 후 어린 시절의 친구 엄광(嚴光)을 찾았으나 절강성 동려현(桐廬縣)에서 낚시하며 은거하던 엄광은 황제의 부름을 고사(固辭)했다는 일화를 그린 것이다. 엄광은 화면 하단의 구석에 조그맣게 돌출한 언덕에 무심한 듯 배치되고 화면의 대부분은 여백을 남겼다. 이렇게 과격적이면서도 공간의 깊이감을 살리는 구도는 <서호방학도>와 상통한다.
6. <황정환아도(黃庭換鵝圖)> : 평소 거위를 좋아하던 동진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가 산음(山陰)의 도사에게 황정경(黃庭經)을 써주고 거위를 얻었다는 고사를 그린 것이다. 괴석, 다구(茶具), 오동나무, 대나무 등으로 잘 꾸며진 정원에서 황정경을 쓰는 왕희지와 도사가 서탁(書卓)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광경이다.
7. <화외소거도(花外小車圖)> : 북송 사마광(司馬光)이 친구 소옹(邵雍)을 기다리며 지은 시 중의 한 구절 ‘꽃 밖의 작은 수레(花外小車)’를 화제로 삼은 그림이다.

8. <오류귀장도(五柳歸庄圖)> : 집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놓고 스스로 오류 선생(五柳先生)이라 불렀던 도연명(陶淵明)이 관직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김홍도는 과감한 사선(대각선) 구도와 ‘之’자형 구도 등을 사용하여 원근의 깊이감을 살리고 효과적으로 화제(畫題)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화가인데 조사된 <고사인물도 8폭>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잘 살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지법, 바위의 준법, 인물의 묘법 등 필묵법은 1796년의 <한정품국도>나 1804년의 <기로세련계회도> 등에도 나타나는 김홍도의 개성있는 만년 작품들과 매우 유사하다.

김홍도는 40세 이후 후반기에 병풍 형식의 중국고사도를 여럿 남겼다. 고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 서울대학교박물관(4폭)에, 국립중앙박물관(8폭)에도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조사된 <고사인물도 8폭>이 만년의 가장 무르익은 필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 제목 변경 제안

현재 제목이 <고사인물도 8폭>으로 되어 있으나 작품의 내용이 중국 고사를 다룬 것이고 인물 보다는 산수의 비중이 크므로 현재의 제목이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작품의 제목을 “중국고사도(中國故事圖)” 8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 현 상

원래는 병풍이었을 것이나 현재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8폭으로 분리되어 있다. 화면에 얼룩과 결손 및 손상부분이 적지 않게 산견되지만, <용봉취하>와 <화외소거>를 제외하고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각 화폭의 상단에 화제를 적고 만년에 즐겨 쓴 별호인 ‘丹丘’로 관서했으며, ‘心醉好求’라는 백문 유인과 주문방인 ‘弘道’와 백문방인 ‘土能’을 찍었다.

#### ○ 내용 및 특징

주자가 축융봉에서 취해 시를 지었다는 <용봉취하>와, 임포의 <서호방학>, 주자의 <무이귀도>, 사안의 <동산휴기>, 엄광의 <동강조어>, 왕희지의 <황정환아>, 사마광의 <회화외소거>, 도연명의 <오류귀장> 등의 고사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산수화의 비중이 큰 산수인물화로 그렸다. 고전적 주제를 후기화풍인 단원법의 개성적인 산수화 양식을 망라하여 표현하여 조선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며, 간략하게 묘사된 조선풍 인물들의 표정이 일품이다.

□

### ○ 현 상

현재는 8폭 簇子로 상황이 바뀌었으나, 원래 병풍임을 알려주니 各幅 중앙에 세로 긴 풀 자국이 이를 분명히 한다. 거실에 상당한 기간 췌음을 알려주듯 화면 내, 특히 접히는 부분 세로 길게 손때가 묻어있다. 부분적인 보수도 감지된다. 이는 거주공간에 뒹다 접었다 할 때와 자두 드리워져 화면 내 얼룩과 접힌 부분에 때 등 오염이 심하다.

매 폭 그림 작품명[畫題]을 단원의 다른 그림의 제사에서 살필 수 있는 綺園 俞漢芝(1765-?) 書風으로 네 자씩 적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花外小車>와 <融峰醉下>의 화면 상태가 나쁜 편이고 그 외 6폭은 양호하다. 같은 형식으로 네 폭씩 좌우에 제사가 있고 매 폭 ‘心醉好求’ ‘弘道’, ‘士能’ 3과씩 같은 도장이 제사와 함께 동일한 위치에 있다.

### ○ 내용 및 특징

하나같이 조선사대 文人 내지, 識者層에 친숙한 여덟 인물을 주인공으로 故事人物畫이다. 이들의 복색은 畫本風이나 안면을 살피면 단원의 풍속화에서 쉽게 살필 수 있는 전형적인 된 친숙한 얼굴이 아닐 수 없다. 주자가 축융봉에서 취해 시를 지었다는 <융봉취하>와, 西湖 孤山에 은거해 매화를 자식삼고 두루미를 자식 삼은 梅妻鶴子의 주인공 林逋의 <西湖放鶴>, 朱子の <武夷歸棹>, 謝安의 <東山携妓>, 후한 광무제의 竹馬故友인 현자 嚴光의 <東江釣魚>, 거위를 남 달리 사랑한 王羲之가 황정경과 바꾼 <黃庭煥鵝>, 사마광의 <花外小車>, 국화를 사랑한 도연명의 歸去來를 담은 <五柳歸庄> 등의 고사를 주제로 다루었다.

화면 내 등장한 인물에 비해 배경에 보다 비중을 둔 듯 산수화의 비중을 더한 산수인물화로 표출했다. 전반적으로 상화좌우 너른 餘白에 斜線적인 구도로 사계절의 풍광을 아우르며 다양한 시점으로 전개해 전체를 함께 살피면 다양한 변화를 꾀한 화면구도를 감지하게 된다. 비록 중국의 역사적 인물들이 대상이나 화풍 측면에서 단원 나름의 개성적인 기법이 망라된 중국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야말로 조선적인 화풍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정형산수에서 조선적인 정취가 무엇인지를 雄辯한다 하겠다.

□

### ○ 현 상

여덟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화면의 좌우 끝 부분에 손상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격자 나무틀 흔적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는 병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덟 폭 모두 똑 같은 방식으로 장황되었는데 별도의 보관 상자는 없다.

산, 바위, 나무, 강변 등 산수를 배경으로 가옥과 인물을 배치하였다. 화면 윗 부분의 여백에는 타원형의 백문유인 “心醉好山川”을 찍고 예서로 네 글자의 제목을 적은 후 “丹邱”라고 관서하고 백문방인 “弘道” 주문방인 “士能”을 찍었다.

소장처의 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融峰醉下> 먹구름이 끼고 흰 눈이 덮인 산봉우리 사이의 계곡을 긴 모자를 덮어 쓴 사람들이 내려온다.
  2. <西湖放鶴> 강건너 매화꽃이 핀 쪽으로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선비가 사립문 밖에서 쳐다본다.
  3. <武夷歸棹> 가파른 계곡 사이로 흐르는 급류에 선비가 탄 배한 척이 내려오는데 사공들이 긴 막대로 절벽을 밀어내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東山携妓>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위에 솟아 있고 그 뒤로 높이 쌓은 대(臺)가 보인다. 선비와 여인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5. <東江釣魚> 강을 가운데 두고 멀리 계곡물이 굽이쳐 내려오는데 아래쪽에서 선비가 낚싯대를 기울이고 있다.
  6. <黃庭換鵝> 괴석, 파초, 오동나무가 있는 뜰에서 선비 둘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아래쪽에는 돌다리 아래 흰 거위가 헤엄치고 있다.
  7. <花外小車> 나무에 단풍잎이 달려있는 가운데 시동이 미는 수레를 탄 선비가 언덕을 내려온다.
  8. <五柳歸庄> 바위 뒤로 초옥이 보이고 사립문에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린다. 수레가 놓여 있고 배를 타고 오는 선비를 두 아이가 마중하는 중이다.
- <融峰醉下>와 <花外小車>가 양쪽 편에 다소 손상부위가 많은 편이지만 나머지 폭들은 상태가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김홍도는 중국의 유명한 고대 인물을 그리는 소위 “고사인물도”에도 능하였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사인물팔폭병풍>, <고사인물십폭병풍> 등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대개는 중국에서 이미 정형화된 소재이며 표현

방식도 중국 도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融峰醉下> 축융봉(祝融峰)은 호남성의 형산(衡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남송의 주희(朱熹)가 이곳을 내려오며 지은 시 「취하축융봉작시(醉下祝融峰作詩)」가 유명하다. 이 그림은 주희가 동료들과 산을 내려오는 장면이다.
2. <西湖放鶴> 오월의 백성이던 임포(林逋)는 북송에 의해 오월이 망하자 항주에 있는 서호에 은거했다. 그는 매화를 심고 학을 키우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 매처학자(梅妻鶴子)라는 구절로 유명한데 이를 그린 것이다.
3. <武夷歸棹> 복건성의 무이산에서 주희가 후학을 가르치고 유람을 하면서 「무이도가(武夷棹歌)」를 지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렸다.
4. <東山携妓> 동진의 사안(謝安)은 절강선 회계(會稽)이 동산에 은거했는데, 귀족 출신이어서 산의 경치를 볼 때도 기녀를 거느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를 그린 것이다.
5. <東江釣魚> 엄광(嚴光)은 어렸을 때 친구가 후한의 광무제(光武帝)가 되어 황제로 즉위하자 절강성 동려(桐廬)로 은거하여 낚시로 소일하였다. 엄광을 그린 것이인데 동강(桐江)과 발음이 같은 동강(東江)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6. <黃庭換鵝> 서성으로 불리는 동진의 왕희지(王羲之)는 거위를 좋아했다. 어느 도인이 좋은 거위를 기른다는 소식을 듣고 『황정경(黃庭經)』을 써주고 거위와 바꾸었다는 일화를 그린 것이다.
7. <花外小車> 북송의 관료이자 학자였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 내용이다. 친구 소옹(邵雍)이 오기로 하고 나타나지 않자 그가 꽃구경하느라 늦을 거라는 구절을 그린 것이다.
8. <五柳歸庄> 동진의 시인 도잠(陶潛)의 호가 오류선생(五柳先生)이다. 집 주변에 다섯 그루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잠이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렸다.

기본적인 도상은 중국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김홍도를 이를 마치 조선의 풍속을 묘사하듯이 재해석하였다. 바위나 나무를 그리는 방식은 그가 오랫동안 연마하여 진경산수를 그릴 때 자주 사용하던 것이기에 더욱 한국적인 풍경이 되었다. 인물 또한 중국 복식을 하고 있지만 그가 풍속화, 인물화에서 구사하던 화풍을 적용하였기에 역시 한국적인 풍모가 두드러진다.

그가 그린 다른 고사인물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능숙한 필치와 효과적인 구도, 주제의 서정적인 표현 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작품을 김홍도의 고사인물도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구(丹邱)”라는 호를 주로 60세 전후에 사용했으며, “심취호산천”이라는 유인도 50대 이후 만년에 즐겨 쓴 도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김홍도가 화가로서의 기량이 무르익은 말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강관식, 도판해설, 『간송문화』 68 (2005)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그림 47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팔폭>

## 35.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 가. 검토사항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56.6 x 134.6cm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된 <과로도기도>는 얼굴·신체·나귀 등에 각기 다르게 사용된 필치, 선택적으로 가해진 명암처리, 사실적인 나귀의 표현 등이 잘 어우러져 장과로의 신비한 면모를 잘 표출해 낸 작품이다. 삼성미술관 소장 <군선도8첩병풍>(1776년 작)에 그

려진 장과로와 도상이 매우 유사하고 필치도 상통하며 주문방인 “士能”도 같아서 두 작품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 그림은 김홍도의 전기(前期) 신선도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으로서 그의 전기 도석인물화를 대표할만한 그림이라 평가된다. 아울러 그림의 회화적 수준을 상찬하는 강세황의 화평도 적혀 있어서 이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

따라서 조사된 <과로도기도>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도석화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는 김홍도 초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대표작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모든 畫目에 두루 能手能爛한 르네상스 맨 격인 김홍도의 초기 道釋人物畫의 眞面을 알려주는 그림으로 작품의 뒹뒹이인 기량과 격조 등 完成度와 더불어 선생 강세황의 評과, 다른 이의 제시까지 함께한 작품으로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필 <과로도기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으로써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단의 총수였던 강세황의 품평이 함께 적혀있어 역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상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

나귀를 거꾸로 타고가는 당나라 때의 신선 장과로(張果老)를 그린 신선도이다. 장과로는 팔선(八仙)의 한사람으로 김홍도의 대표적인 신선도인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군선도 8첩병풍>(1775년 작)에도 같은 도상으로 그려져 있다. 장과로는 백발의 용모를 지녔고 흰색 당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흰 박쥐의 정(精)이 화(化)했다는 신선전(神仙傳)의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진하고 굳센 필치의 의습 선과는 대조적으로 흥기가 도는 장과로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옅은 먹으로 부드럽게 처리되었다. 장과로가 들고 있는 책, 박쥐, 당나귀 등에는 호분을 사용하였다. 나귀에는 담묵(淡墨)으로 음영처리하여 입체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명암이 가해지지 않은 장과로의 신체와 대비를 이루며 인물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화면에는 표암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의 “김홍도의 가장 득의작(此最爲士能得意作)”이라는 화평(畫評)이 있으며 그 옆에는 석초(石樵) 정안복(鄭顔復)의 제시가 있다. 화면 우측 아래쪽에 “士能寫”라 쓴 관서와 주문방인 “士能”이 찍혀 있다.



○ 현 상

화면 꺾임과 결손부분이 산견되며, 색맞춤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물질과 벌레분비물을 제거하고, 화면과 장황비단의 울퉁퉁을 전분풀로 안 착시켰다. 화면 상단 우측에 豹菴(姜世晁, 1713~1791)의 평문이, 그 좌측으로 石樵(鄭顔復, 19세기 후반)의 제시가 적혀있다. 화면 하단 우측에 ‘士能寫’로 관서하고 주문방인 ‘士能’을 찍었다.

○ 내용 및 특징

당나라의 신선 張果가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김홍도 초기 도석화의 정묘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보 제139호인 그의 <군선도병>중의 과로도기 도상과 흡사하면서도 보다 정밀하고 세련되게 묘사되었다. 중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득의작이라고 표명한 강세황의 평가가 실감난다.



○ 현 상

이 한 폭만 그린 것인지 일괄로 그려진 연폭 중 하나인지 아직 확인되진 않으나 화폭이 넓은 셈이며 傳稱作 중에 비슷한 것들이 전래되어 병풍은 아니더라도 대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화면 내 접힌 선이 있으나 대단히 양호한 그림

이다. 적이 보인다. 오른쪽 상단에 姜世晁(1713-1791)의 6行 評에 이어 3行 鄭顏復(19세기 후반)의 제시가 있다. 화면 하단 우측에 ‘士能寫’로 관서하고 주문방인 ‘士能’이 있어 제작연대에 대해 시사한다.

### ○ 내용 및 특징

상단에 흰 박쥐가 묵서 위로 보인다. 박쥐의 화신인 唐 현종 때 8仙 중의 속한 張果老를 별도의 배경 없이 나타냈다 김홍도가 화가로 처음 名聲을 얻은 것도, 그를 조선의 畫仙으로 불리는 것도 도석인물과 뉘 수 없는 관계이다. 병풍 전체가 한 폭으로 이어진 국보 제139호인 삼성미술관 리움의 <群仙圖>병풍을 비롯해, 8폭 병풍이되 한 폭에 두세 신선을 그려 각 폭이 독립된 병풍,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적지 아니한 이 분야의 명품이 전한다. <군선도>에도 등장하듯 나귀를 거꾸로 탄 당나라의 신선 張果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30대 중반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도 초기 도석화의 정묘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화면이 비단인 점에서도 관련이 있는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필선이 共存하며 세부에 기우린 정성도 드러난다. 중국에서 시작작된 소재며 주제이되 得意作으로 평가한 스승이기도 한 강세황 寸評이 말해주듯 震源地보다 進一步한 靑出於藍의 예로 제시됨직하다.

□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별다른 배경 없이 노인이 나귀를 거꾸로 탄 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화면 가득히 그렸다. 왼쪽 위에서 박쥐가 한 마리 날아오고 있다. 머리가 벗겨진 노인의 얼굴은 가는 필선으로 상세히 묘사한 반면, 입고 있는 옷은 굵고 짙은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표현했다. 나귀는 마르고 거친 필선을 사용하여 터럭의 느낌을 나타냈다. 갈색, 붉은 색, 초록색, 연두색 등으로 책, 호리병, 안장, 안장덮개 등을 색칠했다.

그림 위쪽에는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이 “果老倒跨紙 驢手持一卷書 目光直射行墨 間此最爲士能 得意作求之中華 亦不可易得 豹菴評”이라고 품평을 적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과로는 종이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손에는 한 권 책을 들었는데, 눈빛이 글줄 사이로 곧게 쏟아진다. 이는 사능에게 가장 득의작이라 할 수 있으니 중화에서 그것을 구한다 해도 쉽게 얻을 수는 없다. 표암이 평하다.(최완수 번역)

그 옆에는 정안복(鄭顏復 생졸년 미상)이 “手裏神訣乃 命理正宗何由 卽我暮境契 瀾 石樵題”라고 제사를 적었는데 “손안이 신결은 『명리종정』이라는 책 일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 말년의 신수를 물을 수 있을까(최완수 번역)”이라는 뜻이

다. 그림 오른편 맨 아래에는 “土能寫”라는 묵서를 쓰고 주문방인 “土能”을 적었다. 별도의 보관상자는 없으며 그림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결실부와 꺾임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며 색채도 잘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김홍도는 불교와 도교를 주제로 한 도석화를 자주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신선을 즐겨 그렸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장과로(張果老)라고 하는 신선으로 팔선(八仙) 중 한 명이다. 장과로는 당나라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흰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는데 하루에도 수만리를 다녔다.神通력을 발휘해서 밤에는 당나귀를 종이처럼 얇게 접어서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낮이 되면 물을 뿌려 다시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홍도가 32세되던 1776에 그린 <군선도>(국보 제139호)에도 당나귀를 거꾸로 탄 장과로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간송미술관의 장과로의 얼굴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옷주름 등에 사용된 필선도 더 능숙하고 세련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조금 더 후대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 품평을 한 강세황은 김홍도가 어린 시절부터 스승처럼 모시던 인물로 김홍도 그림에 여러차례 품평을 남겼다. 정안복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데 대구 사람이었고 화가였다. 김홍도가 1782년에 그린 <협잡도>에도 강세황이 평을 쓰고 정안복이 제문을 썼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불로장생을 누리려는 신선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하였다. 당시 현실을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경지를 갈망했던 조선 선비들의 소망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했기에 예술성 또한 뛰어나다. 당대 예술계의 영수였던 강세황의 품평까지 곁들여 있기에 회화사적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

### ○ 참고문헌

- 최완수, 도판해설, 『간송문화』 77 (2009)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그림 484.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 36.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金弘道 筆 閨苑偷桃圖)

### 가. 검토사항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金弘道 筆 閨苑偷桃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02.1 × 49.8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9세기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낭원투도도>는 선도(仙桃)를 소중하게 받들고 있는 동방삭의 표정과 특징이 대담한 필선으로 잘 표현된 신선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홍도의 많은 도석인물화와

비교해 볼 때 필치와 묘사 면에서 김홍도의 명성과 개성적인 화풍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홍도 도석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준의 작례가 많이 남아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여타의 화가들이 남긴 흔치 그리 흔치 아니한 독립된 주인공으로, 전해진 동방삭 그림 중에선 規模나 筆致에서 拔群에 들어 지정문화재로 자격은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홍도필 <낭원투도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가 도쿄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한국 도석화로써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기에 예술성은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절로도해도>를 비롯해 다른 작품과 한 벌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 상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복숭아를 받들고 있는 동방삭(東方朔)을 그린 도석인물화이다. 그림의 제목은 “閨苑偷桃 檀園”이라 쓴 김홍도의 관서에 의한 것이다. 동방삭은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西王母)의 선도(仙桃)가 자라는 낭원에서 하나를 먹으면 1천 겁자를 산다는 복숭아를

세 번이나 흠쳐 먹고 삼천갑자를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동방삭이 낭원에서 복숭아를 흠쳐오는 장면을 주제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관서에 두인 “騎牛遊子”와 주문방인 “晚來勸農亦一官”이 찍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김홍도가 관직에서 물러난 어느 때 인가에 제작한 작품이라 짐작된다.

흠쳐 온 복숭아를 신기한 듯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동방삭의 얼굴은 주홍색으로 윤곽되고 뺨에 살짝 음영을 가해 표정을 살렸다. 그에 비해 의습선은 비수가 심한 필치로 대담하고 시원하게 처리하여 대비를 이루었다. 어깨 부분과 치마 부분에는 사선 방향으로 붓질을 가해 자연스런 부피감을 표현하였다. 큼직한 복숭아에 가해진 분홍색이 화면의 단조로움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

□

### ○ 현 상

화면에 변색 및 얼룩과 긁임 흔적, 결손부분이 보이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일본식 탁목조 족자끈을 교체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화제를 쓰고 '檀園'으로 관서했으며, '騎牛遊子'라는 유인과 '晚來勸農亦一官'이란 주문방인을 찍었다.

### ○ 내용 및 특징

서왕모의 仙桃 과수원인 낭원에서 3천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를 흠쳐 낸 동방삭의 모습을 무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조선화된 인물표정이나 굽고 가는 옷주름선의 호방하면서 간일한 양식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낙관의 내용으로 보아 1802년 전후하여 잠시 권농을 지낸 시절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

### ○ 현 상

화면에 변색 및 얼룩과 꺾인 흔적, 결손부분이 보인다. 족자 끈을 교체했고 화면 오른쪽 상단 화제에 이어 관서 '檀園', 유인 '騎牛遊子' 백문방인 '晚來勸農亦一官'가 있다.

### ○ 내용 및 특징

흔히 瑤池宴圖로 지칭되는 일련의 병풍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西王母의 閨苑에서 3천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를 흠쳐 낸 東方朔(154-92기원전) 全身을 배경 없이 側面으로 그린 것이다. 얼굴은 共通分母로 쉽게 살필 수 있는 친숙한 조선인 顔面이다. 완숙기의 노필로 화면 내 주인공의 특징을 분방하고 빠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필치와 더불어 도장 중 마지막 주문방인 내용으로 제작연도가 19세기 초로, 말년 그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별다른 배경 없이 남자가 두 손에 커다란 복숭아를 들고 서있다. 옷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며 짙신을 신었다. 얼굴은 적갈색으로 윤곽과 음영을 표현했고, 입고 있는 옷은 굵고 짙은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표현했다. 복숭아는 붉은색과 연두색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림 오른쪽 위쪽에는 “閨苑偷桃 檀園”이라고 묵서를 적고, “騎牛游子”라는 백문유인(白文游印)과 “晚來勸農亦一官”이라는 주문방인을 찍었다.

종이상자와 그 안에 넣은 오동나무 상자가 함께 전하고 있는데, 오동상자에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상서(箱書)가 적혀있다. 앞면에는 예서로 “金檀園東方曼倩偷桃圖”라는 제목이, 뚜껑 뒷면에는 “檀園人物之傑作近日稀見之佳品 甲戌初庚雨 函 葦滄題”이라고 적고 백문인 “吳世昌印”을 찍었다. 여기서 갑술년은 1934년이다.

그림의 상태는 양호하며 색채도 잘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김홍도는 불교와 도교를 주제로 한 도석화를 자주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신선을 즐겨 그렸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동방삭(東方朔)이라는 신선으로 서왕모(西王母)의 요지(瑤池)에서 먹으면 불로장생하도록 만들어주는 복숭아를 훔쳐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몰래 복숭아를 훔치는 신선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특히 얼굴을 보면 기괴한 신선이라기 보다는 그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조선의 백성 같은 풍모이다. 중국 인물을 종종 조선사람처럼 그렸던 김홍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인체의 비례, 손가락 묘사, 느릿한 필선 등에서 김홍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기 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그려낸 듯하다.

여기서 사용한 “騎牛游子” 및 “晚來勸農亦一官”이라는 도장은 김홍도가 만년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므로, 이 작품도 50-60대의 만년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크기, 화풍, 인장, 그리고 상황이 <절로도해도(折蘆渡海圖)>와 동일하여 두 작품이 원래 한 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팔폭병풍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참고문헌

최완수, 도판해설, 『간송문화』 77 (2009)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그림 525. 김홍도 필 <낭원투도도>

## 37.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金弘道 筆 折蘆渡海圖)

### 가. 검토사항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金弘道 筆 折蘆渡海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05.5 x 68.8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9세기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김홍도의 도석인물화 중에서 한국적으로 변용된 달마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오른 쪽 어깨에 지물(持物)을 멘 끈, 몸체의 굴곡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의습선, 치마 중앙에 바줄처럼 내려온 허리끈 자락 등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직된 느낌이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어색한 표현은 그림의 화격을 다소 손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김홍도의 도석인물화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김홍도 도석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이러한 수준의 작례는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홍도 도석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조선 중기와 구별되는 점에서, <낭원투도도>와 함께 한 번호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 ○ (지정 가치 미흡)

김홍도필 <절로도해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가 불교 고승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한국 도석화로서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기에 예술성은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낭원투도도>를 비롯해 다른 작품과 한 벌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귀에서 뒷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화면 결락이 있으나 대체로 보존상태 양호함

#### ○ 내용 및 특징

갈대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북위(北魏)로 들어갔다는 달마(達摩)의 일화를 주제로 한 도석인물화이다. 대담만 펼치, 화면 가득히 주제 인물을 배치한 간결한 구

도, “折蘆渡海 檀園”이라 쓴 관서와 인장 2과를 찍은 형식은 같이 조사된 <낭원투도도(閩苑偷桃圖)>와 동일하여 두 그림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선이 의습선에 사용되었고 얼굴은 비교적 섬세한 필치로 이목구비가 표현되었다. 의복과 갈대에는 물갈래법을 사용하였으며 머리칼과 갈대는 갈필의 점묘로 각기 다른 질감을 표현하였다. 조선 중기까지 이국적인 풍모로 표현되었던 전형적인 달마에서 탈피하여 매우 한국적인 용모를 지닌 달마로 재해석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흐름과 김홍도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 ○ 현 상

일본식 탁목조 족자끈을 교체하고 상축 연결부 갈라짐을 보강했다. 결손부를 메운 흔적과 색맞춤 흔적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화면 우측 상단에 화제를 쓰고, <낭원투도>와 같이 ‘檀園’으로 관서했으며, ‘騎牛遊子’라는 유인과 ‘晚來勸農亦一官’이란 주문방인을 찍었다.

### ○ 내용 및 특징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가 갈대를 꺾어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무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달마를 조선의 승려로 형상화하고 복장은 장삼에 신선풍의 요의를 혼용해 나타냈다. 옷주름의 원숙한 붓질과 짙은 먹빛이 활기를 준다. <낭원투도>와 비슷한 시기인 1802년 전후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

### ○ 현 상

화면 바탕 일부 결손 부분에 색을 입혀 보완함과 보수부분도 보인다. 그러나 필치를 살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면 오른쪽 상단 화가 자신이 쓴 화제에 이어 관서 ‘檀園’, 유인 ‘騎牛遊子’, 주문방인 ‘晚來勸農亦一官’이 <낭원투도도>와 동일하다.

### ○ 내용 및 특징

이른바 선종화의 주제로 達磨는 주지되듯 가장 빈번하게 그려졌다. 半身像의 西域人 풍모로 그려짐이 일반적이나, 17세기 조선화단의 金明國(1600경-1663이후)이 두 차례나 通信使의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가 체류 시 남긴 것들이 여러 점 알려져 있다. 그 또한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도 남기도 있다. 이는 갈대를 헤치고 하천을 건넌이 신격화로 그 같은 형태를 파생한 것이다.

김명국과 비교할 때 색채의 사용 외에 差異로 김홍도는 무엇보다도 안면 홍조와

함께 얼굴이 전혀 異國的이지 않은 조선인인 점을 들게 된다. 그의 잘 알려진 풍속도첩처럼 별도의 背景 없이 수묵에 약간의 淡黃을 얼굴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얼은 먹에 이어 굵고 속도감 있는 짙은 墨線으로 다시 나타낸 僧服의 達磨立像으로, 用筆과 用墨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개장 때 나타날 오차 범위를 넘어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道釋 대련인 양 <낭원투도>와 같은 시기 제작된 한 쌍으로 사료된다.

□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별다른 배경 없이 남자가 두 손에 소매에 넣고 갈대를 밟고 서있다. 허리에는 털가죽 같은 것을 두르고 그 위에 붉은색 주머니 같은 것을 묶었다. 옷자락은 살짝 바람에 나부끼며 꼬신을 신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얼굴은 적갈색으로 윤곽과 음영을 표현했고, 입고 있는 옷은 굵고 짙은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표현했다. 갈대는 얼은 먹으로 실감나게 긴 잎파리와 꽃을 그렸다.

그림 오른쪽 위쪽에는 “折蘆渡海 檀園”이라고 목서를 적고, “騎牛游子”라는 백문유인(白文游印)과 “晚來勸農亦一官”이라는 주문방인을 찍었다.

별도의 보관상자는 없으며 그림의 상태는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색채도 잘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김홍도는 불교와 도교를 주제로 한 도석화를 자주 그렸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중국 선종의 개조 달마(達磨)다. 달마는 527년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서 양(梁)의 무제(武帝)를 만난 후, 갈댓잎을 올라타고 양자강을 건너 북위(北魏)로 가서 낙양 인근의 숭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 머물렀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달마가 이곳에서 면벽 좌선을 하던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때는 신광(神光)이라고 불렀던 혜가(慧可)가 가르침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굳은 결심을 보여 마침내 입문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달마의 생애와 행적은 후대에 과장과 전설로 미화된 것이다. 달마에 대한 기록은 547년 편찬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짧게 등장하기 시작해서 『속고승전(續高僧傳)』(645년)과 『전법보기(傳法寶記)』(710년)에서 살이 붙여지고, 이후 『역대법보기(歷代

法寶記』(774년), 『보림전(寶林傳)』(801년)을 거쳐 틀이 잡힌다. 이를 기초로 송대의 『조당집祖堂集』(952년), 『송고승전(宋高僧傳)』(988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1004),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1061) 등으로 이어진다. 달마도는 대개 면벽좌선 하거나 갈대잎에 의지해 양자강을 건너는 도상이고 혜가의 잘린 팔뚝이 등장하는 작품도 있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초연하게 갈대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달마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특히 얼굴을 보면 기괴한 서역 출신의 고승이라기보다는 그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조선의 백성 같은 풍모이다. 중국 인물을 종종 조선사람처럼 그렸던 김홍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 사용한 “騎牛游子” 및 “晚來勸農亦一官”이라는 도장은 김홍도가 만년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므로, 이 작품도 50-60대의 만년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크기, 화풍, 인장, 그리고 장황이 <낭원투도도(閔苑偷桃圖)>와 동일하여 두 작품이 원래 한 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팔폭병풍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535. 김홍도 필 <절로도해도>

### 38.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 가. 검토사항

‘신윤복 필 미인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신윤복 필 미인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없음
- 명 칭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14.0×45.5cm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족자(簇子)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된 <미인도>는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묘사되고 은은하고 격조있는 색감으로 채색되었다. 자주색 회장 머리 띠, 주홍색 허리끈, 분홍색 노리개

등 부분적으로 가해진 채색은 정적인 여인의 자세와 대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가체의 윤기 나는 머릿결, 손가락의 움직임, 여인의 다소곳한 시선과 단아한 표정, 치마 밑으로 드러난 버선코 등 세부의 표현도 나무랄 데가 없다. 마치 초상화처럼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거의 없으며 이 <미인도>는 이후 19세기의 미인도 제작에 하나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따라서 신윤복 필 <미인도>는 필치나 화풍에서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할만한 걸작이며 동시기 이와 유사한 그림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신윤복의 대표작이며 전통 미인도 최고의 걸작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신윤복의 代表作이며 조선 미인도 중 현존 最高의 傑作으로 異見이 있을 수 없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가장 뛰어난 풍속화가의 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신윤복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미인도의 대표작이다. 당시 미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다.

신윤복이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申潤福筆 風俗圖 畫帖)>(국보135호)에서 30장면으로 펼쳐 보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조선 미인의 자태를 한 폭 그림으로 부각시켜 놓았기에 그 회화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보존 상태 양호하다. 풍대는 1개만 남아 있는데 그림에서 분리되어 따로 보관되어 있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장황 형식은 아니지만 장황에 사용된 비단은 재질이나 색감 면에서 상당히 고급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가체를 엮고 회장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은 미인의 전신상이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신윤복(申潤福, 약 1758-1813 이후)의 “盤礴胸中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라는 칠언절구 제시와 ‘蕙園’이라는 관서가 있으며 주문방인 ‘申可權印’과 백문방인 ‘時中’이 나란히 적혀 있다. 신가권은 신윤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윤복은 세련된 도시감각의 풍속화를 남겼고 그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와 맵시가 잘 표현된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미인도>는 현전하는 미인도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다.

□

### ○ 현 상

화면에 크고 작은 결손부와 변색 부위가 산견되지만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물질은 건식으로 제거하고 일부 색맞춤 했으며, 족자끈을 교체했다. 화면 좌측 상단에 ‘盤礴胸中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이란 제시를 쓰고, 별호인 ‘蕙園’으로 관서했으며, ‘胸中長有四時春’이란 유인과, 작가의 이명으로 추정되는 ‘申可權’(주문방인)과 字인 ‘時中’(백문방인)을 적었다.

### ○ 내용 및 특징

춘정을 일으키는 조선 후기의 미인상을 그린 것으로, 신윤복의 빼어난 묘사력과 함께 당시 초상화와 풍속화의 난숙한 기량과 경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례이다. 미인의 자태와 단아한 표정, 더할 수 없이 세밀하면서 세련된 필치, 맑고 고운 담채의 아름다움 등은 동아시아 3국의 미인도 중에서도 가장 순연하고 조화롭다.

□

### ○ 현 상

이 그림을 넣은 오동나무 상자에는 吳世昌(1864-1953)이 ‘麗人圖’라 묵서로 제목을 적었다. 저고리 노란색 등 탈색이 보이나 화면은 양호한 편이다. 화면 좌측 상단에 우려한 書體로 일종의 自足내지 自矜이 갖든 내용으로 화가 자신이 쓴 “盤礴胸中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이란 제시, 별호인 ‘蕙園’의 관서, ‘胸中長有四時春’이란 유인과 고령신씨 같은 行列의 돌림자인 權이 보인 주문방인 ‘申可權印’이 있으니 이를 통해 신윤복의 本名이 확인된다. 역시 화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마저 보이는 字로 백문방인 ‘時中’이 있다.

## ○ 내용 및 특징

이 그림이 지니는 특징과 의미는 우리 복색을 한 본격적인 조선후기 미인도 중 필치와 技倆 및 畫格 모두에서 가장 돋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500년을 넘긴 조선 왕조 미인도 중 최고의 白眉이다. 기생을 소재로 한 미인도의 정형은 신윤복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림의 주인공이 여염집 여인이 아닌 기생으로, 신분은 낮으나 몸매 사치스런 장식이 가능했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행동거지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당시 여성미의 기준을 전해준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蕙園傳神帖』 내의 <年少踏青> 등에서 동일복장의 여인을 찾을 수 있다.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될 정도로 五等身 이하의 다소 작은 키, 손질이 잘 이루어진 풍성한 加髷, 실머들 잎이나 초승달 같은 눈썹, 다소곳한 눈매와 좁고 작은 입, 계란형의 얼굴형태 등이 기준이 된다. 의상을 살펴보면 소매가 좁고 허리춤이 짧은 노랑 저고리와 풍성한 쪽빛 치마, 깃과 고름 등 자주삼회장, 남 끝동 등이 의상의 특징이다.

궁중여인이나 중국풍 복식의 仕女畫 계열과 구별되는 주인공은 본격적인 조선여인으로 초상기법에 방불한 사실적인 표현이 특히 안면처리에서 돋보인다. 이 점은 마치 이른바 조선후기 진경시대 진경산수화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영모화의 세계에서 보여준 固有色の 발현이 인물화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사녀화의 범주에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미인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면 좌 상단에 유려한 서체로 적은 題詩 또한 그림의 내용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自畫自讚의 면모도 보이나 그린 화면 또한 완성도의 측면에서 만족감을 감추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만 그림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 첨언하면, 기존의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것처럼 주인공이 웃고름을 푸는 장면이 아니다. 노리개의 고름 웃고름에 매어 늘어뜨리기 위해 웃고름은 조이는 동작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조선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배경에 대한 묘사 없이 기녀 한사람을 초상기법으로 나타낸 신윤복의 <미인도>와 대동소이한 같은 양식과 형식의 미인도가 여럿 전한다. 동시대 미인도의 대유행은 중국 淸의 改琦(1794-1828)로 대표되는 <사녀도>나 일본의 喜多川歌麿(1753-1806) 등 한자문화권 모두에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양상을 보이며 즐겨 그려졌으며, 삼국 모두 각기 구별되는 독자적인 미인도 양식을 보인다.

## ○ 참고문헌

李東洲, 「혜원 신윤복」,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 pp.265-272;  
姜寬植, 「진경시대 초상화 양식의 기반」, 『간송문화』 제50호(1996.5) pp.102-120.  
李源福, 「蕙園 申潤福의 畫境」, 『미술사연구』 제11호(미술사연구회, 1997.12) pp. 97-127.  
李源福, 「申潤福의 <美人圖>에 관한 考察 - 朝鮮美人圖의 一定型」, 『美術資料』 제66호(국립중앙박물관, 2001.8), pp. 47-78.

□

## ○ 현 상

한 폭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체의 배경 없이 화면 가운데 서있는 여인을 그렸다. 여인은 머리에는 가채(加髻)를 얹고 두 손으로 마노(瑪瑙) 노리개를 만지고 있다. 저고리 깃과 겨드랑이에는 짙은 자주색 선을 대고 소매 끝을 쪽빛으로 마무리한 삼회장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입었다. 저고리는 어깨와 팔에 꼭 맞도록 달라붙고, 치마는 향아리처럼 풍성하다.

그림 왼쪽 위편에 주문 타원형 유인(遊印)을 찍었는데 “胸中長有四時春”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문구는 송나라때 장식(張栻, 1133-1180)의 시 「和陳擇之四絕」 “泗上當時鼓瑟人, 風雩豈是樂閒身. 言外默傳千聖旨, 胸中長有四時春.”에서 따온 것이다. 유인 다음에는 “盤礴胸中萬花春 筆端能與物傳神”(화가의 가슴속에 만 가지 봄 기운이 일어나니, 붓 끝은 능히 만물의 초상화를 그려내준다: 최완수 번역)라는 칠언시를 적은 후 주문방인 “申可權印” 백문방인 “時中”을 찍었다.

족자는 이중의 상자, 즉 바깥의 주칠나무상자와 안의 오동나무 상자가 함께 전하고 있다. 오동상자에는 뚜껑 바깥면에만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상서(箱書)가 적혀있다. 예서로 “申蕙園麗人圖逸品”라는 제목을 적고 아래에 작은 글씨의 행서로 “澗松畫幀珍藏 丙子臘葦滄題”라고 적고 백문인 “吳世昌印”을 찍었다. 여기서 병자년은 1936년이다.

오동상자 안에는 풍대 1쪽이 들어 있어 원래의 상황에는 일본식으로 풍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의문점이 남는다.

그림은 가로꺾임, 부분 결실이 여기저기 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현재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매우 양호하며 색채도 잘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신윤복(申潤福, 약1758-1813이후)은 본관은 고령으로 자는 입부(笠父), 덕여(德如), 시중(時中), 호는 혜원(蕙園)이다. 이름을 가권(可權)이라고도 했다. 대대로 의관, 역관 등을 지낸 중인 가문 출신이다. 그는 부친 신한평(申漢桴, 1735-1809)의 뒤를 이어 화원 화가가 되었다. 어진을 여러 차례 그리기도 했다. 특히 풍속화에 뛰어나

서 당시 상류층의 풍류를 섬세한 필치로 솔직하게 그려냈다.

그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달걀처럼 가름한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과 작고 붉은 입술의 여인으로 십 대 후반의 앳된 모습이다. 목덜미로 짧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표현하여 관능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당시 예법으로는 양반집 규수가 외간 남자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수 없었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그렇기에 지체가 높은 양반집 여인이 낮은 신분의 화공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초사화를 그리는 것을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었던 기생으로 생각된다.

풀어져 내린 옷고름, 겨드랑이에서 내려뜨린 주홍색 끈, 그리고 풍성한 치마폭 밑으로 살짝 드러난 하얀 버선발이 여성적 매력을 은밀하게 암시한다.

굵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선을 위주로 인물, 옷주름, 장신구 등을 묘사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하여 여인의 우아하고 고운 자태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조선 후기 미인의 자태를 가장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정확한 대상의 묘사, 섬세한 필선의 구사, 적절한 색채의 사용 등으로 회화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림이다.

#### ○ 참고문헌

최완수, 도판해설 『간송문화』 (2014)

이원복, 「신윤복」 항목, 『한국역대서화가사전(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그림 547. 신윤복 필  
<미인도>

### 39. 백자 사용원인(白磁 司饗院印)

#### 가. 검토사항

‘백자 사용원’의 보물 지정 여부를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16.10.7)에 의거 ‘백자 사용원인(白磁 司饗院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4.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5차 회의(10.12)에서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결과, 명칭 재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됨. 이에 해당 조사자회의(‘17.11.30)를 거쳐 ‘백자사용원인’으로 제안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다시 부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백자 사용원인(白磁 司饗院印)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높이 10.5cm, 인면(印面) 가로×세로×높이 10×10.2×3.7cm  
글자두께 0.2cm, 인뉴 높이 7.7cm
- 재 질 : 토도류(백자)
- 형 식 : 사자형 몸체의 손잡이가 달린 사각의 ‘司饗院印’ 도장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사용원인은 조선시대 백자인이 수적으로도 유례가 적으며, 현전하는 백자인 중에 뉴의 작품성이 우수한 점, 그리고 사용원인이라는 가치까지 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백자인장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중앙부서 중 하나인 사용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백자로 만들고, 실제 사용했던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 유물이 갖는 의미는 첫째, 상부에 앉아 있는 사자형 손잡이가 틀 성형을 기본으로 성형하고 청화와 동화안료를 이용하여 장식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형기물의 제작 방식을 이해하게 해준다는데 있다. 둘째, 이를 실제 인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도 주조나 석제 인장 이외에 백자를 인장으로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의미를 지닌다. 비록 번조과정에서의 문제로 측사면이 터져 있는 것은 결점일 수 있으나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아 이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상신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유물은 맑고 정갈한 태토와 푸른 빛이 감도는 유약 등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이후 제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청채와 동채를 함께 사용한 점, 유약에 푸른빛이 감도는 점 등으로 19세기작의 특징이 강하다. 현전하는 관인 가운데 ‘사용원인(司饗院印)’ 자체가 드물고 그나마 개인소장의 銅印이 알려져 있다.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하여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형태적으로는 왕실의 寶印처럼 印紐를 동물형으로 만들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보인의 경우 인끈을 달아 묶었던 점과는 달리 백자 상형연적처럼 사자형상을 만들어 붙인 점이 다르다. 또 사자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와 동채로 장식한 것은 조선후기 백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고도의 방법을 모두 사용한 셈이다.

백자로 만든 ‘사용원인’의 인장으로는 유일하며,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어 향후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현상 및 특징

인장은 금속제, 석제, 목제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는데 도자기인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작되었다. 고려시대 인장은 청동제와 청자가 주를 이루는데 누는 대개 동물형상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백자로 인장을 만든 유례는 많지 않은데, 대개 18세기 후반 이후의 작품들이다.

이 백자인은 방형의 인신에 鈕는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고 앉아있는 사자를 배치하였다. 사자는 앞다리는 세우고 뒷다리는 앉은 자세인데 왼쪽 발밑에 여의주를 누르고 있는 형상이다. 사자는 부릅뜬 눈, 이빨을 드러낸 입, 갈기, 발톱, 등으로 올라 붙은 꼬리 등 세부까지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눈에는 청화를, 입에는 동을 발라 사자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인면은 정방형에 가까우며 印廓이 없이 사용원인 네 글자를 2자씩 새겼는데 글자 크기는 4.3cm이다. 印文에는 균열이 있으며 「司」자와 「饗」자 일부가 결손되었다. 印身은 두터워 성형하여 소성시 갈라져 여러 곳에 균열이 있다. 전면에 분원 리요의 특징적인 청백색계열의 백자유가 곱게 시유되었는데 핀홀과 재가 붙은 흔적이 일부 있으며 인신 상부에 모래가 많이 붙어있다.

□

### ○ 현 상

이 백자인장은 완성도가 매우 높으나 번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장판 상면에 앉은 재 흔적도 그렇고 사자가 앉아 있는 사각판 위에서 각각 네 방향으로 측면까지 나 있는 터짐흔적은 인장판이 너무 두꺼워 번조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파악된다. 즉, 굽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고 일부 불량현상까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장을 굽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 인장은 실제로 많이 사용했다(실제로 면이 닳아 있음). 그만큼 완성도와는 다르게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태와는 다르게 사용 흔적이 보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이 사각인장은 사각판의 도장몸체에 사자형의 동물형 손잡이를 부착한 백자도장이다. 특히 인장 면에는 ‘사용원인(司饗院印)’이라는 네 개의 글씨가 전서체로 양각되어 있어 매우 귀한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다.

손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부착한 짐승은 일반적으로 사자라 하나 좌측 발에 공을 갖고 있어 용의 아홉 아들 중 하나인 산예(狻猊)와도 유사하며(王大有, 『龍鳳文化源流』), 공을 배제하면 조선 후기에 왕실관련 각 건물이나 전각 등에 수호신처럼 배치한 해치상(獬豸像)과도 일치한다. 중국 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 따르면 ‘동북 변방에 있는 짐승으로 한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고, 사람이 다투는 것을 들었을 때는 옳지 않은 사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해치상은 정의를 지키는 동물로 인식되어 대사헌의 흉배에 가식(加飾)되기도 하였으며 정사를 돌보는 공평무사를 빌거나 화재,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사자형 손잡이는 갈기, 눈썹, 몸체를 둘러싼 불꽃과 발톱 등을 볼 때 틀로 찍어 세부를 손보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모양은 매우 정교하며 눈에는 청화안료로 점정(點睛)하고 콧구멍과 벌어진 입은 산화동으로 채워 붉은 화염을 묘사하였으며 꼬리는 따로 만들어 붙였다. 이 인장의 가치는 사각의 도장 아랫면에서 확인되는 전서체의 ‘司饗院印’이라는 글자에서 확인된다. 태토가 반건조인 상태일 때 양각했을 글씨는 매우 정교하며 굽는 과정에서 바닥면이 살짝 휘었을 것이나 도장찍는 면을 굽게 갈아 평면으로 맞춘 듯하다. 글자 주변에 묻어 있는 인주는 이 도장이 실제로 사용원에서 공문서 작성 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인장의 제작과정에서는 전체에 유약을 씌운 듯 인장 글씨 부분에도 미세한 유약 흔적이 보이며 사용을 위해 찍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구웠다. 사자형 손잡이에는 재가 앉은 흔적을 볼 수 없는 반면, 사자가 앉아있는 인장의 사각판 위에는 재 흔적이 있어 도장을 구울 때 갑발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사용원이라는 관청의 역할과 청화, 동화 등의 안료사용, 틀로 찍어낸 짐승의 제작기법 등은 이 인장이 분원리 시기 관요에서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1. 좌면



그림 2. 후면



그림 3. 우면



그림 4. 상면



그림 5. 도장 글자부분



그림 6. 청화, 동화 발색

□

○ 명 칭

현재 백자사용원인(白磁司饗院印)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백자청채동채사자형사용원인(白磁靑彩銅彩獅子形司饗院印)으로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紐좌 위치에 상형한 동물은 형상은 사자이지만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으므로 ‘산예(狻猊)’로 볼 수 있다.

○ 현 황

본 유물은 印面に “司饗院印”의 전서체가 새겨진 백자 官印이다. 현재 紐座 측면부 일부분에 번조시에 난 균열이 있어서 사(司)자와 ‘웅(甕)’자의 일부분까지 균열이 있다. 유면에는 번조당시 갑발을 씌우지 않은 듯 잡물이 많이 끼어 있다. 일부 측면과 사자의 몸체에 일부분 유약이 말려 있는 상태이다. 바닥면에 일부분 균열이 가 있는 상태로써 ‘파손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官印은 중앙과 지방관의 인장을 망라한 관리의 인장을 말한다. 행정 처리에 쓰던 인장으로 보통은 정해진 인장제도와 계급·신분·지위에 따랐다. 또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이므로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에 따라 인

문(印文)과 인끈(印綬)의 색깔까지도 구분되었다. 인장의 字體는 篆書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한 대 이후에는 관인용으로 무전(繆篆)이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보통 왕실의 보인에는 용이나 거북을 조각한 용鈕(龍鈕)와 구鈕(龜鈕)가 사용되지만 관인에는 무늬나 장식이 없는 직鈕(直鈕)를 사용했다.

현전하는 사용원 관인 가운데 백자로 제작된 것은 간송 소장품이 유일하다. 금속제 관인으로는 成化3년명 사용원 銅印이 알려져 있다.(최순우전집..고고미술82, 1967, 5) 가로x세로 각 7.2cm의 方形으로 모죽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김문기)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紐는 높이 4.8cm, 두께는 1.1cm이다.鈕좌 위에 세로로 직립한 형태이다. 인면에는 전서체로 ‘사용원인’이라 되어있다.鈕좌 좌우에는 음각으로 변두리에 각각 ‘司饗院印’/ ‘成化三年 四月日造’라 새겼다고 한다. 성화3년 4월은 『세조실록 권』 42, 세조13년 4월 己亥條 내용으로 보면 司饗房을 司饗院으로 개칭하고 祿官을 둔다고 했던 1467년 기록과 시점상 일치하여,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로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세부특징

본 유물은 전체적으로 맑고 정제된 태토에 푸른 빛이 감도는 투명한 유약을 입혀 구웠다. 도장과 위쪽의 장식은 각각 조각한 후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印紐를 대신해 조각한 사자는 눈과 코, 사자의 갈기와 꼬리털, 발톱과 눈두덩이 눈썹 등이 현전하는 백자 사자형 상형물 가운데 가장 정교하다. 특히 꼬리털은 작은 螺髮형으로 일일이 조각하여 풍성하고 곱슬거리는 도상을 제대로 나타냈으며, 몸체를 덮은 갈기와 털도 매우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상형백자들이 속파기 기법으로 제작된 연적이나 향로 등인데 반해, 이 경우 조각하고 그대로 부착하여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인지 번조시에 印面부 일부가 터져 균열이 나왔다.

사자의 눈가에는 靑彩(산화코발트)로 사자의 이빨 주변에는 銅彩(산화구리)를 발라 각각 눈 동자는 짙은 파랑, 입은 짙은 자주색으로 발색되었다. 이처럼 청채와 동채를 상형과 함께 사용하여 장식하는 방법은 19세기이후 고급 문구류나 장식성이 강한 백자들에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다. 본 유물은 1930-40년대 즈음 간송미술관에 입수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 ○ 참고문헌

『조선 왕실의 인장』 (2006,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국립고궁박물관)

## 40. 나전경함(螺鈿經函)

### 가. 검토사항

‘나전경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2013.8.9)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의 국가지정(보물) 관련, ‘나전경함’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조사('17.5.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나전경함(螺鈿經函)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2.6cm, 41.9×20.0cm, 무게 2.53kg
- 재 질 : 나무, 나전
- 형 식 : 가구(목칠상자)
- 조성연대 : 고려시대 후기(14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 1) 『고려사』에 기록된 <전함조성도감>에서 제작한 고려 나전경함의 실체를 보여주는 14세기 유물이라는 데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2)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언급한 ‘細密可貴’라는 개념을 현존하는 고려 나전칠

기 경함의 기술적 특징인 꿇음질, 주름질과 모란문·당초문·마엽문·귀갑문 등을 통해 예술적 가치가 확인된다.

- 3) 국내에 고려나전칠기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불자(拂子)’ 이외에는 없었는데, 본 나전모란당초문경함을 통해 고려 나전칠기를 연구하는데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본 유물은 목칠공예 기술[홍송, 베짜기, 토회, 내주외흑], 자개 제작기술[주름질, 꿇음질], 금속공예기술[황동, 수은아말감기법, 금속선 마감처리, 못 감추기, 쇠 못박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전통공예기술 복원에 기여할 것이다.
- 5) 국내외에 총9점 밖에 현존하지 않는 ‘고려나전경함’ 중 국내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높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나전경함은 비파피조사결과나 육안으로도 고려시대의 백골양식 및 나전칠기의 기법을 보여 고려시대에 제작된 경함이 확실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처럼 금번 지정대상인 경함은 고려나전의 전형적인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고려 후기 나전경함으로 인정되는 점, 보존상태 또한 덧칠부분을 제외하고는 기타무라박물관소장 <나전모란당초문경함> 보다 현저히 양호한 점, 국내 유일의 고려나전경함이라는 점에서 보물지정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지정후 적절한 보존처리를 통해 덧칠에 의해 가려졌던 보조문양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 ○ (지정 가치 있음)

국내외 소재 고려 나전칠기는 20점에 미치지 못하며, 그 중 경함은 더욱 희소하다. 현재 국내에 있는 나전칠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나전대모칠국당초문불자>가 완성된 보존물로서는 유일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나전 경함은 매우 중요하다. 본 경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백골은 뚜껑받이를 함 안쪽에 따로 대어 두고 뚜껑 윗면은 모죽임하였다.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꼬인 동선으로 문양대를 나누었으며, 모란넝쿨무늬와 마엽문·귀갑문·연주문의 문양 구성 등은 현재 기타무라에 소장하고 있는 경함과 일치하는 문양대를 보이고 있다. 모란넝쿨무늬의 넝쿨은 꼬지 않은 동선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외 소재의 다른 고려 나전경함들과도 같다. 수리로 인해 변형 부분이 있으나 당시의 고식 형태와 양식을 가지고 갖추고 있다. 때문에 고려 시대 제작된 경함으로 본다. 수리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많은 훼손 부위가 확인되고 있으나 일단 완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미비한 유물의 상태를 보완하고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찬란했던 고려시대 나전칠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나전경함은 전체적인 형태나 내부의 주철이 양호하고, 외부에 자개로 부착한 모란 당초문양이 박락이 심하지 않으며 칠도 들뜨지 않은 편이다. 금속선으로 이어진 당초 줄기나 가장자리를 고정시킨 금속꼬임선 및 좌우의 국화문 들쇠, 앞뒤 장식 등도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입수하기 이전에 칠 부분은 수리가 되면서 모란당초문의 가장자리에 부속문양으로 배치된 마엽문이나 귀갑화문 위에 두꺼운 칠이 칠해져 해당 무늬가 거의 숨겨져 있는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2014년 본 유물을 기증받기 이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나전칠기 유물은 <나전대모칠국당초문불자(螺鈿玳瑁漆菊唐草文拂子)>(길이 42.7cm, 지름 1.6cm)가 유일하여, 본 유물의 학술적 중요성이 크다.

『고려사』 권27, 원종 13년(1272) 2월에 원나라 황후의 요청으로 대장경을 담은 나전경함을 제작할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여 나전경함을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 본 유물은 이 기록에서 보듯 13세기 말 중국에 조공용으로 보냈던 사경 등을 넣던 경함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현존하는 나전경함은 총9개인데, 본 유물은 그중 국내 유일작품으로서 지정가치가 높다. 본 유물의 문양은 화면의 중앙에는 모란당초문이, 뚜껑의 모서리와 경함 몸통의 위와 좌우에는 마엽문, 몸통 하단 연주로 구획한 아래쪽에는 귀갑화문이 포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의 포치와 수량 및 크기 등은 일본에 소재한 기타무라박물관 소장 나전경함과 일치(높이 22.8cm, 41.8x20.4cm)하여 같은 14세기 경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칠 제작기술 면에서 볼 때 본 유물은 백골로 만든 몸통 내부에 뚜껑받이를 덧대고 뚜껑 부분은 모죽임하여 대영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고려 나전경함의 백골

과 일치하고 있다. 칠은 안쪽에는 붉은 색으로, 바깥은 검은색으로 칠하여 고구려 이래로 이어져온 내주외흑(內朱外黑)의 전통 목칠 공예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자개제작기술 면에서 볼 때 서경(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토산조(1124)에 보면 “그릇에 옷칠하는 기술은 정교하지 못하지만, 나전 기술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수 있다(器用漆作不甚工而螺鈿之工細密可貴)”고 언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곧 본 유물의 모란문양은 자개를 주름질기법으로 세밀하게 잘라 붙였으며, 마엽문과 귀갑화문은 꿇음질 기법으로 가늘고 얇게 잘라 붙임으로써 문헌기록과 부합되는 전통 자개기술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금속처리 기술은 황동제 당초줄기와 꼬임선, 경첩 들쇠의 부착방식에서 확인된다. 적외선 촬영 결과 경첩 하단의 연주문대나 중심문양의 구획대에는 황동선을 꼬아서 부착하여 형태의 구조를 튼실하게 해주었다. 주문양인 당초줄기에는 한 줄 황동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하였다. 좌우의 국화형 들쇠, 앞쪽 앞바탕과 배목 등의 재료는 모두 황동제인데, 이것을 부착할 때 못머리를 갈고 안쪽에 띠형 꺾쇠를 부착하였다. 뒤쪽 여의두형 경첩 또한 황동제인데, 둥근 못머리 3개를 박아 불교적 의미까지 강조되고 있다.

□

## ○ 현 상

백골은 두께 약 1cm의 끈은결 침엽수 판재로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각 연결부에 쇠못을 박아 고려시대 백골의 짜임양식을 보인다. 백골 위에는 천을 바르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히고 자개를 부착하여 옷칠을 여러 번 하여 도장하였다.

무늬는 일본 기타무라미술관(北村美術館) 소장 경함과 동일한 모란당초무늬牡丹唐寶文로 장식하였다. 자개는 얇게 갈아내어 무늬대로 오려낸 줄음질 기법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표현하는 꿇음질 기법, 무늬 내면에 세부를 표현하는 새김질기법으로 시문하였다.

당초무늬의 줄기는 황동선黃銅線을 사용하고 무늬와 무늬의 경계에는 끈 선을 사용하였다.

앞면의 자물쇠 앞바탕에는 못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박았다.

## ○ 내용 및 특징

### (1) 침엽수 사용

침엽수의 대표는 소나무로서 한옥을 짓는 최상의 재료였으며 나전칠기의 대부분은 침엽수인 홍송을 백골로 하여 제작되었다. 소나무는 《고려사》 고려왕실의 세계(世

系)에 소나무와 고려 태조왕건의 탄생에 관한 설화가 있어 고려 초부터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가옥과 가구 제작에 있어서 최상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2) 연결부에 쇠못을 사용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가구에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가구에는 쇠못을 사용하였다.

쇠못의 사용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굴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에 위치한 삼천사지터에서 발굴한 고려 21대 희종의 4녀인 가순궁주명금니목가구편(嘉順宮主銘 金泥木家具片)을 위시한 금동목가구 부재에서 쇠못이 박힌 것을 볼 수 있다. 또 홍무21년무진4월명(洪武二十一年 戊辰四月)銘 가구에 서도 확인된다.



(057-2-세부 1)

(057-2-세부 2)

사진1. 삼천사지출토가구편에 박힌 시우쇠못



사진2 . 홍무 21년무진사월명가구 정면



사진 2-1. 홍무 21년무진사월명가구 후면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 박힌 시우쇠못



사진2-3 기둥과 문얼굴과의 결구 부분



사진 2-4 천판과 기둥의 결구부분

(3)국립중앙박물관 경함과 기타무라 박물관경함 현상비교

□ 국립중앙박물관 경함 현상

- 가로 41.9cm, 세로 20.0cm, 높이 22.6cm
- 뚜껑 상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16송이
- 사면 정면: 모란당초문 모란꽃 18송이
- 사면 측면 : 모란당초문 모란꽃 8송이
- 구연부 운두주변 덧칠한 부분 일부에서 칠보문테 희미한 흔적있음(사진 1)
  
- 몸체 전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18~19송이
- 측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8송이
- 구연부 운두주변 덧칠로 덮혀 칠보문테 보이지 않음



사진3. 국립 중앙박물관 뚜껑 구연부 주변 칠보문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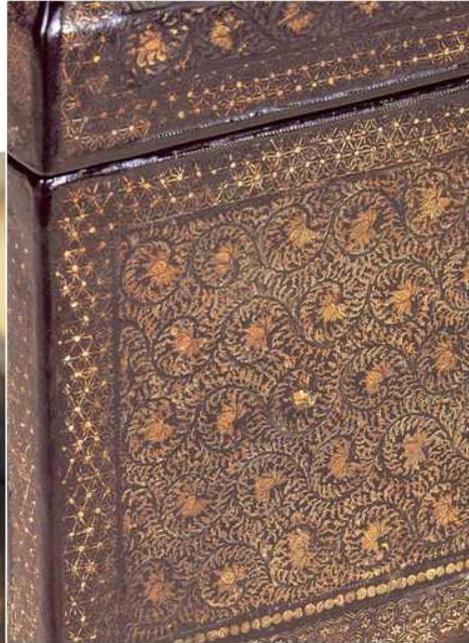


사진3-1. 기타무라박물관 몸체 및 뚜껑 구연부 주변 칠보문

○ 기타무라 경함 현상

- 가로 41.8cm, 세로 20.4cm, 높이 22.8cm
- 뚜껑 상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16송이
- 사면 전면 : 모란당초문 1 모란꽃 18송이
- 사면 측면 : 모란당초문 1 모란꽃 8송이
- 구연부 둘레에 칠보문테 있음(사진 2)
  
- 몸체전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18송이
- 측면 모란당초문 5행, 1행당 모란꽃 8송이
- 구연부 운두 및 좌우면에 칠보문테 있음(사진 2)

위의 국립중앙박물관경함과 기타무라박물관 경함을 비교해 보면 두 경함은 거의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경함과 기타무라경함은 거의 동일하여 고려시대의 전함조성도 감에서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4) 금속장식의 못머리 감추기



사진 4. 국립 중앙박물관 경함 자물쇠앞바탕



사진 4-1. 대영박물관 경함 자물쇠 앞바탕



사진 4-2. 대영박물관 경함 뒷면 경첩



4-3. 일본 민예관소장 고려시대 초직금니함



4-4. 일본 민예관소장 고려시대 초직금니함 뒷면 경첩

(못머리를 감추기 위한 L 형 꺾쇠를 부착하였고 꺾쇠와 경첩내면이 분리된 상태)

고려시대 가구의 금속장식은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꼭 필요한 부분에 부착하였으며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장식에 박는 못의 머리를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못머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표면에 나타난 못머리를 갈아서 없애거나 안쪽에 L 형 격쇠를 경첩의 내면에 부착하여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에서 본 여러 사례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함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확실하며 이번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 ○ 현 상

목골 및 내부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외면의 나전의 박락도 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사면의 가장자리 띠문양대에 덧칠이 되어 있어 띠문양이 완전히 묻혀있는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증 9291번 나전모란당초문경함(螺鈿牡丹唐草文經函)은 일본의 개인소장가로부터 (사)국립중앙박물관회가 사들여 2014년 박물관측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기존의 조사에 의해 고려후기에 제작된 고려나전경함 중 하나로 추정된다(도 1, 1-1).

현재 경함의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목골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칠(漆)이나 나전이 박락된 부위도 많지 않다. 장식도 갈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분적으로 덧칠이 되어 있는데, 특히 보조문양이 시문된 각면의 가장자리에 덧칠이 심하게 되어 밑면에 시문된 나전문양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지정 이후 보수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의 경함은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흑칠나전상자로 높이 22.6cm, 가로 41.9cm, 세로 20.0cm, 무게 2.53kg으로 조사되었다.

뚜껑 평면과 몸통 사면에 나전으로 모란당초문(牡丹唐草文)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도 2), 각 면의 가장자리에 마엽문(麻葉文, 칠보문七寶文), 귀갑화문(龜甲花文), 연주문(連珠文)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현재 덧칠이 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보조문양의 양상은 적외선 촬영이나 비교적 얇게 덧칠된 부분에 광선을 비추어 사진을 찍으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도 3, 4, 5). 원래의 모습은 이 경함과 흡사한 일본 교토(京都)의 기타무라미술관(北村美術館) 소장 <나전모란당초문경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두 경함은 마치 쌍둥이처럼 크기 및 형태와 문양의 종류, 배치까지 흡사하다. 기타무라미술관 경함은 높이 22.8, 가로 41.8, 세로 20.4cm로 기증된 경함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도 6). 문양은 뚜껑 평면과 몸통 4면에 모란당초문이 각각 5행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1행당 16 ~ 18개의 모란꽃을 배치하였고, 측면에는 1행당 8송이씩 배치하였다(도 7, 8). 기법상으로 나전패는 전복껍질을 얇게 가공한 박패로 사방 1cm 이하 작은 크기로 주름질하였는데, 454개에 달하는 모란꽃과 당초잎에만 2만 5000개가 넘는 자개가 소용되었다. 특히 모란

꽃잎과 연주문은 다시 선각(線刻)을 하여 모조기법(毛彫技法)으로 좀 더 섬세하게 음각문양을 넣어 보다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표현하였다(도 9). 보조문양인 마엽문과 귀갑화문은 자개를 가늘게 썰어 꿰어가며 사용하는 꿰음질기법으로 시문되었는데 나전조각은 약 37,000여개에 달한다(도 10, 11).

한편 모란당초문의 줄기는 0.3mm 두께의 금속 단선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면의 경계에는 꼬은 금속선을 박아 장식적인 측면과 함께 보강의 측면을 고려하였다(도 12).

기증 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품 비파괴조사 등의 기초조사결과 이 경함의 목재 백골은 두께 약 1cm의 끈은결 침엽수 판재로 만들어졌으며 적외선촬영결과 판재의 연결부에 쇠못을 박아 조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13).

또 판재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천을 입히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칠하고, 검은 옷칠을 여러 번 발라 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육안조사 시 칠(漆)이 박락된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도 14).

경함의 내부는 외부의 흑칠과 달리 주칠이 되어 있는데 성분조사에서 진사(辰砂)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도 15), 금속선은 형광 X선으로 분석한 결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선(黃銅線)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지정대상 경함은 고려 나전의 전통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일본 기타무라박물관 소장 <나전모란당초문경함>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고려나전경함으로 보인다.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우리나라의 나전칠기(螺鈿漆器)는 고려시대에 가장 융성하여 청자, 금속기 등과 함께 고려시대,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고려 나전칠기 유물은 경함과 합류, 상자류, 불자 등을 합해 모두 20여점 밖에 안되며, 그나마 국내에는 유일하게 <나전대모불자(螺鈿玳瑁拂子)> 한 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 전세되고 있다. 이처럼 현존 유물이 적은 가운데 나전경함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8점이 알려져 있었다가 금번 기증품의 출현으로 9점이 되었다.

고려 나전경함은 고려시대 다량으로 제작된 대장경(大藏經) 등을 두루말이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으로 제작되어 국내 뿐 아니라 중요한 교역품이나 국가 간 선물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원종(元宗) 13년(1272)에 원나라 황후의 요청으로 나전경함을 제작하여 보내기 위해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여 나전경함을 제작하였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서 고려나전경함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려사』 권 27 원종 13년 2월조).

현존하는 고려나전경함은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흑칠나전상자로 크기는 대략 25cm 높이에 가로가 40에서 47cm, 세로가 20에서 25cm 정

도 되며, 뚜껑 상면을 비롯하여 몸통 사면에 나전문양을 시문하였다. 크기와 형태는 유사하며, 나전문양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표 1). 경함의 주문양으로 국화문(菊花文)과 국당초문(菊唐草文), 모란당초문(牡丹唐草文)으로 나뉘며, 순서대로 문양의 변화와 장식기법이 세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86. 고려나전경함 유물현황>

유물	소장처	크기	비고
나전국화문경함	東京國立博物館	高 26.0, 37.8 × 19.2	12세기
나전국당초문경함	徳川美術館	高 26.1, 47.8 × 25.0	13세기
나전국당초문경함	東京國立博物館	高 25.6, 47.3 × 25.0	
나전국당초문경함	奈良國立博物館	高 25.9, 47.4 × 24.9	
나전국당초문경함	大英博物館	高 25.9, 47.4 × 24.9	
나전국당초문경함	암스테르담博物館	高 25.9, 47.4 × 24.9	
나전국당초문경함	보스턴美術館	高 26.4, 47.3 × 25.3	
나전모란당초문경함	北村美術館	高 22.8, 41.8 × 20.4	14세기
나전모란당초문경함	國立中央博物館	高 22.6, 41.9 × 20.0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고려나전경함은 목제백골에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베(布)짜기를 하고 골회(骨灰)를 바른 후 옷칠을 한 바탕에 전복껍질을 얇게 가공한 자개를 잘게 썰어 시문한 목심저피칠기(木心苧皮漆器)이다. 나전문양은 동경 국립박물관의 <나전국화문경함(螺鈿菊花文經函)>을 제외하곤 대부분 국당초문(菊唐草文)이 주문양으로 시문되었는데 금번 지정대상 경함과 기타무라박물관소장 경함만 주문양으로 모란당초문(牡丹唐草文)이 시문되었다. 이 밖에 금속 단선으로 당초 줄기를 시문하고, 경함의 사면 가장자리에는 꼬은 금속선을 박아 장식효과와 함께 보강효과를 겸하도록 했다. 특히 주변국가의 야광패 등과 달리 전복껍질을 얇게 가공한 박패를 손칼이나 가위로 문양대로 잘라내는 주름질기법으로 잘게 잘라낸 자개와 금속선을 병용한 점 역시 고려나전경함의 특징이다. 주름질로 잘라낸 수만개의 세밀한 박패를 조합한 고려나전칠기의 단위문양은 서궁(徐兢)이 『고려도경(高麗圖經)』 권 23 토산조(1124)에서 “(고려에서) 그릇에 옷칠하는 기술은 정교하지 못하지만, 나전 기술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수 있다(地少金銀 而多銅 器用漆作不甚工 而螺鈿之工 細密可貴)”라고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지정대상 경함 역시 조사결과 형태와 크기, 문양뿐만 아니라 제작기법 또한 고려나전경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주문양이 기타무라박물관소장 경함과 같은 모란당초문이 주문양으로 시문되고 보조문양으로 마엽문과 귀갑화문이 시문된 점이 다르다. 기증된 <나전모란당초문경함>과 기타무라박물관 소장 <나전모란당초문경함>은 마치 한 공방에서 같이 제작된 것처럼 크기와 형태, 문양의 종류와 배치까지 흡사하다. 미세한 차이는 수공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경함의 기법적인 특징은 고려나전기법의 특징인 주름질 뿐만 아니라 보조문양

인 마엽문과 귀갑화문을 꿰음질기법으로 시문하고 <국당초문경함>의 꽃잎에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던 모조기법(毛彫技法)이 모란꽃잎과 연주문(連珠文)에 좀더 세밀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꿰음질은 자개를 가느다란 상사로 만들어 똑똑 끊어가며 시문하는 기법으로 조선시대에 성행하는 기법인데 이미 이 경함에서 그 초보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꿰음질 기법은 고려나전경함 중 기증경함 외에 기타무라미술관(北村美術館)소장의 <나전모란당초문경함>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립미술관소장의 <나전국당초문경함>의 하단부에 귀갑화문과 마엽문에서 볼 수 있다.

두 경함에 시문된 꿰음질 기법과 극히 세밀해진 모조기법의 표현이 이 두 경함을 현존하는 고려시대 경함들 중에서 가장 후기작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종류의 정밀한 꿰음질 기법은 원대(元代) 나전칠기에서 빈번히 보이는 문양이기 때문에 원대 나전칠기와의 관련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꿰음질 기법으로 시문된 마엽문과 귀갑화문은 등의 기하문(幾何文)은 고려후기에 제작된 고려불화의 복식문양에서도 볼 수 있어 이 두 경함의 제작시기를 고려 후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도판



그림 1 <나전목당초문경함> 정면



그림 1-1 그림 1의 측면



그림 2 모란당초문



그림 3 덧칠된 부분



그림 4 마엽문 흔적



그림 5 귀갑화문 흔적



그림 6 <나전목당초문경함>, 일본 기타무라(北村)博物館 소장



그림 7 기증경함 모란꽃



그림 8 기타무라박물관 경함 모란꽃



그림 9 모조기법



그림 10 기타무라박물관 경함 마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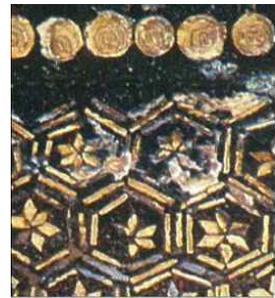


그림 11 기타무라박물관 경함 귀갑화문



그림 12 금속단선 줄기와 꼬은 선



그림 13 기증경함 적외선



그림 14 바탕면 베짜기



그림 15 경함 내부 주칠

## ○ 기 타

이 경함은 일본의 개인소장가가 일본 내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해오던 것을 2014년 (사)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구입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 ○ 문헌자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螺鈿の 研究」, 『東洋漆藝史の 研究』(岡田讓, 1978, 中央公論美術出版)

『고려 나전 칠기 연구』(곽대웅, 미진사, 1984)

「고려시대의 나전 칠기 연구」(최영숙, 『미술사 연구』 15, 2001)

「일본 기타무라(北村)미술관 소장 고려시대 나전모란당초문 경함」(이난희, 『생활문화연구』 22호, 2008)

「고려시대의 나전모란당초문 경함의 재현제작 연구」(배광우,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 현 상

뚜껑을 사면으로 모죽임하고, 밑면을 제외한 5면에 나전으로 전면全面을 장식하였다. 백골의 구조는 육안으로 전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따로 댄 뚜껑받이는 연귀맞댐으로 하고 몸체는 맞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뚜껑은 수리로 인해 부정확하나 맞댐과 연귀맞댐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낙목바탕과 배목 바탕을 부착하고, 손잡이를 달았다. 손잡이는 단순한 사각으로 만들어졌는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단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각을 약간씩 굴린 것으로 보아 단순하지만 세공의 노력이 보였다. 뒷면에는 경첩이 2개 달려 있다. 양 측면의 들쇠는 국화동 배목 바탕에 달려 있다. 양쪽 들쇠 모양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 반 타원의 형태이다. 금속장식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나전 경함들에서(대영박물관, 北村美術館 등) 보는 장식들과 비교하면 단출하고, 형태도 독특하다.

칠 바탕은 몸체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베싸개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바닥면의 경우는 칠이 파인 부분에 골회 층은 보이지만 베싸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 1)

나전 장식을 살펴보면, 수리 흔적이 확연하다. 각 면마다 칠이 이겨진 부분이 많아서 문양부분이 지워지거나 바닥부분은 칠이 뭉쳐 있기도 하다. 각 면은 갈색을 띄는 칠을 약 2cm 가량 테두리로 두고 그 안쪽으로 모란과 넝쿨무늬를 표현하였다. 모란은 측면 모습으로 작은 나전 조각으로 꽃 형태를 만드는 전형적인 고려 나전 문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넝쿨무늬는 꼬이지 않은 금속선과 잘게 썬 나전

으로 표현하였고, 문양대를 구획하는 동선은 꼬인 선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양대를 나누는 이 꼬인 동선에는 후대에 덧칠해진 검은 선이 둘러져 있어 꼬인 동선의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문양대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뚜껑 면인 윗면에는 동선 구획선 사이에 연주문을 사변에 두고 그 안쪽으로 모란넝쿨무늬를 채웠다. 그리고 앞면·뒤면과 양측면에는 맨 아래 변에만 연주문으로 장식하고 동선 안쪽으로는 역시 모란넝쿨무늬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문양인 모란 넝쿨무늬 사변으로 구갑문과 마엽문의 흔적이 확인된다. 수리로 인해 칠이 덧쳐져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앞면 손잡이 달린 부분의 뚜껑 쪽 갈색 테두리 부분과 뒷면의 경첩과 경첩 사이의 갈색 테두리 부분에 마엽문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앞면의 맨 아래 부분에는 구갑문의 흔적 역시 확인된다. 이것은 일본 北村美術館 소장의 나전경함 문양 구성과 거의 완전하게 흡사함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도2-도4)



(도 1) 조사 나전 경함 바닥 세부  
: 칠이 파인 부분에 골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도 2) <조사 나전 경함>  
(뚜껑의 갈색 칠부분)  
:마엽문



(도 3) <조사 나전 경함>  
(앞면 맨 아래 갈색 칠부분)  
:구갑문



(도 4)  
<기타무라 미술관 고려 나전 경함 세부>  
: 마엽문과 구갑문

모란문의 나전에는 음각의 모조기법이 확인되고, 약간 붉은 색이 돌아 복채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면 안에는 주칠로 발라져 있고, 경첩이 달린 부분에 안쪽에는 흰 종이 발라져 있다. 그리고 양 측면의 들쇠가 박힌 부분의 안쪽에는 흰 종이 없이 그대로 칠이 덧칠해져 있다. (도 5)



(도 5) 조사 나전 경함의 내부 : 측면과 뒷면 부분

: 뚜껑받이와 흰종이가 발라진 경첩이 박힌 부분, 칠이 덧칠해진 들쇠가 박힌 부분이 확인된다.

## ○ 내용 및 특징

본 나전 경함은 고려시대 나전경함의 양식을 반영하는 유물이다. 꼬인 동선, 나전을 잘게 썰어 문양을 구성한 것, 기타무라 미술관 소장의 나전경함과 거의 같은 문양대는 이것이 당시 유행하였던 경함의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몸체 부분이 맞담으로 구조되고 쇠못을 박아 연결한 것 역시 시기가 매우 이른 시기임을 확인시켜 준다.

본 경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백골은 뚜껑받이를 함 안쪽에 따로 대어 두고 뚜껑 윗면은 모죽임하였다.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꼬인 동선으로 문양대를 나누었으며, 모란넝쿨무늬와 마엽문·구갑문·연주문의 문양 구성 등은 현재 기타무라에 소장하고 있는 경함과 일치하는 문양대를 보이고 있다. 모란넝쿨무늬의 넝쿨은 꼬지 않은 동선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외 소재의 다른 고려 나전경함들과도 같다. (도6-도7) 수리로 인해 변형 부분이 있으나 당시의 고식 형태와 양식을 가지고 갖추고 있다. 때문에 고려 시대 제작된 경함으로 본다.

보존 상태는 뚜껑 면이나 몸체의 갈색 칠 부분의 후대 덧칠로 인한 문양대 훼손이 있고, 꼬인 동선 부분 역시 검은 칠의 덧칠로 훼손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바닥의 칠이 뭉쳐 수리되어 있고, 문양대의 나전 조각이나 동선의 박락이 많다. 그에 비해 주칠 한 내부는 큰 훼손이 없고, 들쇠를 박은 측면 안쪽 부분에 덧칠 흔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출토 칠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자생적인 발전이 이뤄져 왔다. 우리 자생적인 초기 옷칠기에서 목태, 도태, 남태, 피태, 금태, 골태 칠기가 이미 확인되고 표면에 주칠과 흑칠이 사용되었으며, 옷칠 신발과 낚시 바늘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칠기 발달사를 볼 수 있다. 특히 다호리 출토 유물에는 나무를 종잇장처럼 얇게 만들어 이를 겹쳐 통형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보이는 등 기원전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목제 기술과 더불어 칠 기술이 함께 발달하고 있었다. 유적지로는 충남 아산 남성리 유적을 시작으로 창원 다호리 유적과 신창동 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어 삼국시대의 무령왕릉에서는

왕비의 두침에 칠 위에 금속을 붙여 장식하는 보전寶鈿 기법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이후 통일 신라 시대의 화려한 평탈 기법의 동경들로 이어졌으며, 고려시대에 오면 당시 국교인 불교의 경전을 넣는 경함을 이웃의 어떤 나라보다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즉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보이는 긴 칠의 역사 위에 화려한 나전이 결합되는 나전칠기의 근간이 통일신라에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지는 나전 칠기가 꽃피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전하는 것은 1점에 불과하고, 당시 대량으로 제작 되었으나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을 뿐 정작 우리나라에는 한 점도 남아 있는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이 경함의 발견은 매우 놀랍고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고려시대 경함의 문양 분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그 특징의 부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뤄져 왔다. 이것은 현재 보존되어 전하는 유물이 없는데서 오는 아쉬운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유물은 수리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많은 훼손 부위가 확인되고 있으나 일단 완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미비한 유물의 상태를 보완하고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찬란했던 고려시대 나전칠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 6) 대영박물관 소장 고려나전경함  
: 넝쿨무늬 부분은 꼬지 않은 동선을 사용하고  
구획선 부분만 꼬은 동선을 사용



(도 7) 대영박물관 소장 고려나전경함  
: 내부에 뚜껑받이를 댐

## ○ 기 타

2014년 (사)국립중앙박물관회로부터 기증 받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나전 경함이다.

## ○ 문헌자료

본 함을 불교 경전을 보관하였던 경함이라고 볼 때, 직접적인 문헌 근거 자료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시 경함 제작의 역사적 배경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세기 몽고침입으로 제작된 대장경이나 혹은 고려 원종元宗 13년(1272)에 <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여 대량의 나전경함을 제작하였다는 『高麗史』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경북 금천군에 있는 직지사의 1185년 만들어진 <대장경비>에는 국가번영과 호국을 기원하고 오천권의 <금자대장경>이 사경되어 같은 절의 대장전에 봉안되었고, ‘대장을 넣었던 경상은 나전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을 다한 대량의 경상이 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조선금석총람)라는 기록 역시 참조할 수 있는 기록일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대 고급스러운 경함이 다량으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 보고 사항



## 4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 종합조사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322과)에 대한 인문학적·과학적 종합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덕종 어보 제작 연대 오류 및 관련 문헌 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어보에 대한 종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보고함.

### 다. 조사 개요

- 기간 : 2017.11.~2019.12
- 대상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 일괄(322과)
  - 금보(金寶)·금인(金印)(155과), 옥보·옥인(167과)
- 조사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자체 조사 및 학술용역 병행 예정
- 내용
  - 인문학적 조사
    -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어보의 조각 양식 분류, 서체(書體) 조사
  - 과학적 조사
    - 전체 어보 성분 분석
      - ※현재 옥 재질의 어보는 관련 분석 장비 미확보로 추후 결정
    - 금보의 제작 방법 조사

### 라. 향후 계획

- 문헌 조사 및 어보 분석 실시 등 본격 조사 실시(2018~2019)

- 조사 결과 보고(2019. 12월)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42. 국외 긴급매입 국유문화재(강로 초상) 관리청 지정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국외 경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강로 초상 관리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 62조의 1항 및 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청으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17.10.18. : 국외재단, 경매 모니터링을 통해 미국 경매 출품 확인
- '17.10.23. : 평가회의(2차례) 및 긴급매입심의위원회 결과, 응찰 결정
- '17.10.24.~26. : 미국 현지조사 및 경매 상황 점검
- '17.10.27. : 입찰 참여 및 낙찰 (낙찰가 \$310,000)
- '17.11. 8. : 낙찰대금 입금
- '17.12. 8. : 국내반입 및 임시보관(국립중앙박물관)
- '17.12.11. :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 '17.12.11.~12.15 : 유물상태 등 확인
- '17.12.19 : 언론 공개 예정(보도자료 포함)

## 라. 우리 청 검토의견

- 관리청 : 국립중앙박물관
- 사 유
  - 동 기관은 강현, 강세황, 강인, 강이오 등 4대 초상을 모두 소장하고 있어 관리청 지정 시 연계 활용 효과 기대
  - 동 기관은 한국회화의 대표적 다량 소장처로서, 관련 작품을 총괄적으로 수집·보관·전시하는데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 기대

##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 강로 초상 경매 추진 경과 1부.

[붙임]

## 강로 초상 경매추진 경과 보고

### 1. 작품개요

- 작 품 명: 강로 초상(姜滌 肖像) (붙임 1 참조)
- 제작시기: 1879년(고종 16년) 9월
- 재질 및 크기: 지본채색(紙本彩色) / 약 59 × 45.7 cm
- 작품내용: “姜判府事貞隱 己巳生七十一歲乙卯九月眞像”이라는 화기가 있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의 증손인 강로(姜滌, 1809-1887)의 71세를 기념하여 1879년 9월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음

### 2. 작품 가치

- 예술적 가치: 19세기 초상화 중 표피를 깬 의자에 앉아있는 반신교의 좌상으로서 드문 예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 학술적 가치: 국내에 강현, 강세황, 강인, 강이오 초상이 현존하므로 강로 초상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다면 5대에 걸친 초상화의 계보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3. 작품 출처

- 이 그림은 가톨릭 교회에 기부된 뉴욕시 소재 자산 중에 속해있던 것으로, 현 소유주가 딜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그림을 판매한 딜러는 당시 동 자산을 처분하던 중이었음
- 사범기관(문화재청, 경찰청)의 도난 문화재 목록 및 진주 강씨 백각공파 문중에 관련 정보를 확인했으나, 도난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

### 4. 경매 관계

- 현지실건조사 후 구입 실시
  - '17. 10. 25.(수) 재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조선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 실건 조사 실시

- 경매마감일: 2017. 10. 26.(목) 오후3시12분(미국 동부표준시)
- 경매장소: 온라인 경매 플랫폼 iGavel Auctions를 통한 온라인 입찰
  - “Asian, Ancient & Ethnographic Works of Art Auction (Sale Code: A1DB)”
  - 해당 유물은 미국 조지아 주 서배너(Savannah)의 에버러드 경매·감정소 (Everard Auctions and Appraisals)에 소재하고 있음
- 응찰방식: 국외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국고보조금 20억원 내 수수료 및 운송료 등 부대 경비를 제외한 약 3억 9천만원 내 응찰
  - 경매사 추정가 USD 10,000-USD 15,000(한화 천3백만원-천9백만원)이나 국내 경매 유사 사례에서 3억 5천만원을 상회

## 5. 경매 경과

- 낙찰가: 310,000 USD( $310,000 \times 1,125 = 348,750,000$ 원)

- 붙임 1. 작품 사진  
2. 참고 사진

[붙임 1] 작품 사진



사진 1. <강로 초상(姜滂 肖像)>, 1879년, 지본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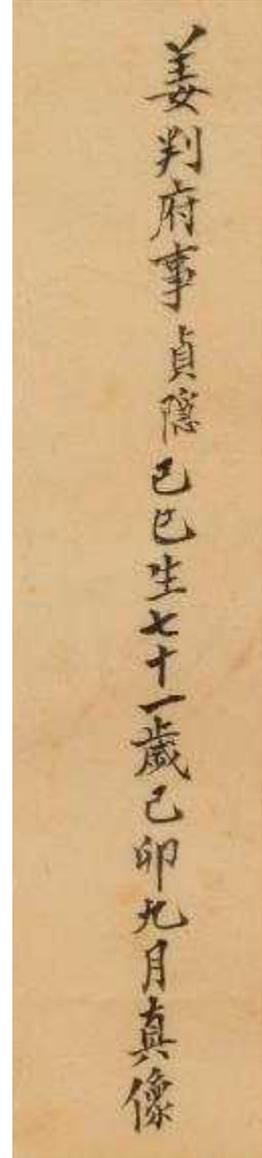


사진 2. 목서 세부

[붙임 2] 참고 사진



<강현 초상> (부분), 18세기  
진주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탁, 보물 제589호



<강세황 초상> (부분), 1783년 이명기 필  
진주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탁, 보물 제590호



<강인 초상> (부분), 178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이오 초상> (부분), 19세기, 이재관 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003070-000  
보물 제1485호